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 ▶ 공동연구원 : 오민아(성신여자대학교)
이영훈(오산대학교)
- ▶ 연구보조원 : 최경준(한국교육개발원)

발 간 사 ■ ■ ■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 일컬음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역량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내세워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2차 년도 연구과제로서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ICCS 2016 본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을 점검하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6~2017년 IEA ICCS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제는 교육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적 참여는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재(再)타당화하고 이를 기초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지표의 연구내용 구성 및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본 조사를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 분석에 포함될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 및 구성요소는 개인 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 시민성(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교실개방성), 세계 시민성(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관심, 글로벌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가 사회참여역량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해당 역량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라 효과성이 감소하는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즉,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감소하는 영향력이 발달과 성숙의 결과인지, 혹은 축적된 교육의 효과인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부합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IEA, ICCS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수행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국내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본조사를 실시하고 측정도구를 재(再)타당화하고자 하였다.
- 이를 기초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각 요인별로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지표의 연구내용 구성 및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본 조사는 201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사는 2015년 5월~7월까지 3개월 간 전문조사업체에 의하여 사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조사 분석에 포함될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 및 구성요소는 개인 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 시민성(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교실개방성), 세계 시민성(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관심, 글로벌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 국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수준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성별, 학업성취 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및 학교지역의 개별 인구학적 배경 요인과 학교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 주요결과

1) 기존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의 질적 제고

- 1차년도에 타당화한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에 기반하여, 2차년도 조사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재구성 작업이 요청되었다.
- 새로운 응답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1차년도에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보한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하위 구성 요인의 일차원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 도구의 질적 제고를 기할 수 있었다.

2)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인구학적 배경 요인 간의 관계

- 개인 시민성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른 성별 효과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준 차이가 더욱 커졌다. 대학교급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개인 시민성이 보다 높았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별의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은 발달과 성숙,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 성별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인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정치·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권리·책임의식과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비하여 훨씬 낮았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정치사회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극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개인 시민성에 대한 경제수준의 효과는 초기 청소년기(초등학생)에 명확히 나타났으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하 수준의 청소년들의 개인 시민성 수준이 상승하며 후기 청소년들은 오히려 상 수준 청소년보다 하 수준의 청소년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개인

시민성의 생애 초기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수준 역시 학업성취 수준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성이 확연히 감소했다. 특히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양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들에 비하여 개인 시민성이 보다 높았는데, 이는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이 부모학력수준에 따라 생애 초기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효과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 학업성취수준은 초·중기 청소년기에 공동체 시민성에 명확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개인 시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라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의 분화가 나타난 결과로, 이 역시 기존 교육의 효과인지 혹은 단순한 발달의 효과인지 여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과 달리, 세계 시민성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의 효과는 후기 청소년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과 이민자 및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인지적 요인의 발달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애를 걸쳐 지속적인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4. 국제비교 연구수행을 위한 제언

- 첫째,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가 사회참여역량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해당 역량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 둘째, 발달단계에 따라 효과성이 감소하는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즉,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감소하는 영향력이 발달과 성숙의 결과인지, 혹은 축적된 교육의 효과인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부합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비교연구가 요청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1
1.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인	13
2. 사회참여역량의 발달과 영향 요인	15
III. 본 조사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1
1. 개인 시민성	23
2. 공동체 시민성	25
3. 세계 시민성	27
IV.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결과	29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시민성 분석 결과	35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분석 결과	79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세계 시민성 분석 결과	136
V. 결론 및 정책제언	193
1. 결론	195
2.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3
부 록	209
[부록 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211
[부록 2] 문항별 응답 결과	231

표 목차

〈표 I-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틀	6
〈표 I-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도구 구성	8
〈표 I-3〉 IEA ICCS 2016 예비 조사 틀	9
〈표 III-1〉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4
〈표 III-2〉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25
〈표 III-3〉 공동체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6
〈표 III-4〉 공동체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26
〈표 III-5〉 세계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8
〈표 III-6〉 세계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28
〈표 IV-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35
〈표 IV-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36
〈표 IV-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37
〈표 IV-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38
〈표 IV-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38
〈표 IV-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0
〈표 IV-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40
〈표 IV-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1
〈표 IV-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42
〈표 IV-1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3
〈표 IV-1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43
〈표 IV-1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6

〈표 IV-1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46
〈표 IV-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48
〈표 IV-1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48
〈표 IV-1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49
〈표 IV-1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50
〈표 IV-1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51
〈표 IV-1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51
〈표 IV-2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52
〈표 IV-2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53
〈표 IV-2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54
〈표 IV-2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54
〈표 IV-2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57
〈표 IV-2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57
〈표 IV-2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58

〈표 IV-2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59
〈표 IV-2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60
〈표 IV-2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60
〈표 IV-3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62
〈표 IV-3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62
〈표 IV-3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63
〈표 IV-3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64
〈표 IV-3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65
〈표 IV-3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65
〈표 IV-3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68
〈표 IV-3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68
〈표 IV-3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69
〈표 IV-3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70

〈표 IV-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71
〈표 IV-4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71
〈표 IV-4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73
〈표 IV-4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73
〈표 IV-4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74
〈표 IV-4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75
〈표 IV-4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76
〈표 IV-4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76
〈표 IV-4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79
〈표 IV-4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79
〈표 IV-5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80
〈표 IV-5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81
〈표 IV-5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82
〈표 IV-5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82

〈표 IV-5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	84
〈표 IV-5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	84
〈표 IV-5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	85
〈표 IV-5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	86
〈표 IV-5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	87
〈표 IV-5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	87
〈표 IV-6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	90
〈표 IV-6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	90
〈표 IV-6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	92
〈표 IV-6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	92
〈표 IV-6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	93
〈표 IV-6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	94
〈표 IV-6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	95
〈표 IV-6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	95
〈표 IV-6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	97
〈표 IV-6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	97

〈표 IV-7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99
〈표 IV-7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99
〈표 IV-7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102
〈표 IV-7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	102
〈표 IV-7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	103
〈표 IV-7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104
〈표 IV-7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105
〈표 IV-7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	105
〈표 IV-7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	107
〈표 IV-7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107
〈표 IV-8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108
〈표 IV-8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	109
〈표 IV-8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	110
〈표 IV-8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	110
〈표 IV-8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	113
〈표 IV-8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113
〈표 IV-8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114
〈표 IV-8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115
〈표 IV-8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116

〈표 IV-8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	116
〈표 IV-9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	118
〈표 IV-9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	118
〈표 IV-9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	119
〈표 IV-9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	120
〈표 IV-9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	121
〈표 IV-9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	121
〈표 IV-9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	124
〈표 IV-9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24
〈표 IV-9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25
〈표 IV-9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26
〈표 IV-10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27
〈표 IV-10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27
〈표 IV-10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29
〈표 IV-10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29
〈표 IV-10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30
〈표 IV-10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31
〈표 IV-10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32
〈표 IV-10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	132
〈표 IV-10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	135
〈표 IV-10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36
〈표 IV-11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37

〈표 IV-11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37
〈표 IV-11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39
〈표 IV-11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39
〈표 IV-11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40
〈표 IV-11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40
〈표 IV-11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42
〈표 IV-11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42
〈표 IV-11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43
〈표 IV-11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	144
〈표 IV-12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	146
〈표 IV-12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	147
〈표 IV-12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	148
〈표 IV-12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	148
〈표 IV-12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	150
〈표 IV-12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	150
〈표 IV-12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	151
〈표 IV-12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	152
〈표 IV-12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	153

〈표 IV-12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153
〈표 IV-13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155
〈표 IV-13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155
〈표 IV-13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158
〈표 IV-13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	158
〈표 IV-13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	159
〈표 IV-13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160
〈표 IV-13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161
〈표 IV-13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161
〈표 IV-13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163
〈표 IV-13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163
〈표 IV-14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164
〈표 IV-14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165
〈표 IV-14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166

〈표 IV-14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평균(표준편차)	166
〈표 IV-14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169
〈표 IV-14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69
〈표 IV-14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70
〈표 IV-14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71
〈표 IV-14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72
〈표 IV-14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72
〈표 IV-15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74
〈표 IV-15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74
〈표 IV-15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75
〈표 IV-15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76
〈표 IV-15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77
〈표 IV-15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177
〈표 IV-15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180
〈표 IV-15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0
〈표 IV-15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81
〈표 IV-15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2
〈표 IV-1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83

〈표 IV-16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3
〈표 IV-16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85
〈표 IV-16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5
〈표 IV-16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86
〈표 IV-16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7
〈표 IV-16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88
〈표 IV-16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188
〈표 IV-16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191

그림 목차

【그림 IV-1】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의 상호작용	32
【그림 IV-2】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의 상호작용	33
【그림 IV-3】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의 상호작용	34
【그림 IV-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36
【그림 IV-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38
【그림 IV-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39
【그림 IV-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41
【그림 IV-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43
【그림 IV-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47
【그림 IV-1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49
【그림 IV-1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50
【그림 IV-1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52
【그림 IV-1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54
【그림 IV-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58
【그림 IV-1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60
【그림 IV-1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61
【그림 IV-1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63
【그림 IV-1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65
【그림 IV-1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69
【그림 IV-2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71
【그림 IV-2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72
【그림 IV-2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74
【그림 IV-2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76
【그림 IV-2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80
【그림 IV-2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82
【그림 IV-2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83

【그림 IV-2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85
【그림 IV-2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87
【그림 IV-2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91
【그림 IV-3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93
【그림 IV-3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95
【그림 IV-3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97
【그림 IV-3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98
【그림 IV-3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103
【그림 IV-3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105
【그림 IV-3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106
【그림 IV-3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108
【그림 IV-3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110
【그림 IV-3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114
【그림 IV-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116
【그림 IV-4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117
【그림 IV-4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119
【그림 IV-4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121
【그림 IV-4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125
【그림 IV-4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127
【그림 IV-4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128
【그림 IV-4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130
【그림 IV-4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132
【그림 IV-4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137
【그림 IV-5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138
【그림 IV-5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140
【그림 IV-5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141

【그림 IV-5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143
【그림 IV-5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148
【그림 IV-5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149
【그림 IV-5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151
【그림 IV-5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153
【그림 IV-5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154
【그림 IV-5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159
【그림 IV-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161
【그림 IV-6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162
【그림 IV-6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164
【그림 IV-6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166
【그림 IV-6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170
【그림 IV-6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172
【그림 IV-6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173
【그림 IV-6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175
【그림 IV-6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177
【그림 IV-6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181
【그림 IV-7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183
【그림 IV-7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184
【그림 IV-7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186
【그림 IV-7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18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는 교육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적 참여는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김태준, 오민아, 이은경, 2015, p 322 재인용).

최근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4)는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 영역의 역량군과 15개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의 다양한 영역을 망라해서 필수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는 개념수준의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김기현 외, 2009; 김정화, 박선혜, 조상미, 2010; 김태준, 백선희, 2014; 김태준 외, 2011; 오석영, 최창욱, 진성희, 2015; 이은경, 오민아, 김태준, 2015) 사회참여역량 교육을 위해 역량수준의 파악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박윤경, 이승연, 2015; 이광현, 권용재, 2013)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회참여역량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5가지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사회참여역량이 기존 민주시민 사회역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여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는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실행 및 효과성 분석과 청소년 역량 성과 분석도 장기적으로 연구계획 속에 포함하고 있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6’에서는 청소년 역량 진단 조사를 위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된 청소년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그 하위 영역으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포함시켰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수행된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추가로 대학생용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각 요인별로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본 조사 도구 타당화

1차년도에는 본 조사 도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풍부하게 정의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을 도출하고 하위 영역과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구성 요인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한 예비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의 통계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차 타당화 작업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analysis) 결과와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본 조사 분석에 포함될 문항을 확정하였다.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본 조사 실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에 관한 개념화와 개발된 역량 측정도구를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진단을 위한 전국 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실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실태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3)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CCS 2016)의 예비조사 참여

국제교육협의회(IEA)와 함께 실시하는 국제비교조사는 올해(2015년)에는 예비조사가 이루어지고, 2016년에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역량에 관한 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 주관하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시민역량수준을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차년도부터 한국대표로 ICCS 2016 조사위원회 및 IEA ICCS 2016의 조사문항 개발에 참여하여 조사문항을 제안하였다.

4)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각 요인별로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지표의 연구내용 구성 및 개념적 틀을 심화하기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참여역량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수준까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념 관련 연구와 더불어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관련되어 발달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을 위한 본조사 실시

(1) 조사대상 표집설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문항 개발을 위한 본 조사는 201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6,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표 1-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틀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표집틀	2014년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00명, 중고등학생 2,000명, 대학생 1,000명	
표집방법	단순비례배분	
조사시기	5월~7월	
조사내용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조사	

모집단에 따른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6개 시·도의 표본학급을 추출한 결과, 초등학교 135개 학교, 중학교 108개 학교, 고등학교 120개 학교 등 총 363개 학교가 표집 할당되었다.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학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다. 각 층화기준 광역 내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은 표집은 1,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4년 전국대학 표집틀로 하여 단순비례 배분 방식으로 16개 시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모집단에 따른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8개 시·도의 표본대학을 추출한 결과, 4년제 대학 42개 학교, 전문대학 15개 학교 등 총 57개 학교가 할당 되었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표집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대학교의 특정 계열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7계의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학생을 표집하도록 설계하였다.

(2) 조사절차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진단을 위한 조사는 2015년 5월~7월까지 3개월 간 전문조사업체에 의하여 사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사전 조사는 조사표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본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5년 5월 6일 실시되었다. 사전 조사는 해당 학교급 별로 초등학생 4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4명 등 총 16명(남학생 7명, 여학생 9명)을 대상으로 갱서베이(gang survey) 방식으로 1차 진행하였으며, 갱서베이 후 자세한 의견 파악을 위해 그룹별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후,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에 대한 의견, 주요 문항 결과, 개별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지를 수정·보완하였다.

(3) 측정도구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조사 도구에 포함될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구성되며, 개인 시민성은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네 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공동체 시민성은 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및 교실개방성의 다섯 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세계 시민성은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관심 및 글로벌 의사소통의 다섯 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조사 도구에 포함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진단 문항의 구성은 <표 I -2>와 같다.

표 I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도구 구성

역량군	하위 영역	하위 구성 요인	문항수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사회적 관심	3
		정치적 자아효능감	5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2
		시민활동의 중요성	4
		저항 의식	5
		신뢰	4
		교실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3
		국가 및 역사인식	4
		국제관계관심	2
		글로벌 의사소통	2
	합 계		
배경정보	생년, 거주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가정생활,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8
합 계			55

(4) IEA ICCS 2016 예비 조사

아래 <표 I -3>은 ICCS 2016 예비조사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확정된 조사문항을 사용해서 예비조사(Field Trial)를 실시할 때, KYPI 총괄팀과 함께 조사에 관여하였다. 즉, 조사문항의 실시 절차 및 검토,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여 2016년 상반기에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참여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전국 중학교 2학년 재학생 / 중학교 교사 / 교장	
표집틀	2014년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25개교 / 중학생 1000명(33개 학급) / 교사 33명 / 교장(교감) 25명	
표집방법	전국	
조사시기	9~10월 중	
조사내용	ICCS 2016 예비조사문항 학생용 / 교사용 / 학교관리자용	

3) 본 조사 결과 분석

본 조사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조사 도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문항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1차년도에 타당화한 도구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에 대한 연구진 논의에 터하여 조사 도구의 재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을 위한 최종 문항이 확정되었다.

둘째, 국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수준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및 학교지역의 개별 인구학적 배경 요인과 학교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인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및 세계 시민성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래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하위 구성 요인은 인구학적 배경 요인과 학교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갖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결과 수치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인
2. 사회참여역량의 발달과 영향 요인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인

1) 사회참여역량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형성되었다. 즉 현대인들은 시민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세계화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증진 및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청소년의 시민성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이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일종의 자질로서 특히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김왕근, 1995), 이러한 시민성 개발의 주요한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기의 사회참여이다(이용교, 이중섭, 2010; Youniss & Yates, 1999). 이는 성은모 외(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사회참여역량을 포함시킨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흔히 사회참여의 개념은 정치적 참여의 의미로 활용되곤 하지만 사회참여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정치적 참여가 주로 정치적 범·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사회참여는 정치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자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현안들에 대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Zukin 외(2007)는 사회참여의 개념을 ‘참여자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정치적 참여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김태준 외, 2014, p 11-12 재인용).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는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들이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회참여역량을 얼마나 어떻게 지녔는지를 지식, 태도, 참여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해오고 있다. 이때 ICCS에서는 사회참여역량지수를 구성함에 있어 사회참여역량이 미시적 수준(개인, 가정, 친구 등), 중간 수준(학교, 이웃 등), 거시적 수준(국가, 국제 사회 등)에서 각각 드러난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국제 시민성을 제시하였다.

2)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

(1) 개인 시민성

개인 시민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사회적 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즉 권리, 책임감, 준법의식, 소속감, 신념 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이은경 외, 2015). 또한 개인 시민성을 갖춘 개인은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나 선거 등을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이은경 외, 2015). 특히 청소년기에는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으로써 개인 시민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김기현 외, 2009, 오석영 외, 2015). 한편 이러한 개인 시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김태준 외(2011)는 OECD(2007)의 사회적 진보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참여 영역’과 ‘신뢰와 관용 영역’에 기반하여 개인 시민성의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였는데, 정치적 참여, 시민 참여, 투표참여,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 정치적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공동체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은 한 사회 내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공동체 영역(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태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오석영 외, 2015). 이러한 공동체 시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김태준 외(2011)는 그 하위 요인들로서 정치적 참여, 시민 참여,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신뢰와 관용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기현 외(2009)는 이러한 관용은 다양성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성은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의 적용 범위가 한 사회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뛰어넘어 다른 사회 또는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준, 백선희, 2014). 즉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세계시민사회에서 시민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시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김정화, 박선희, 조상미(2010)는 세계 시민성을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로 구분하였는데, 세계시민의식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책임감, 세계시민 간의 연대감, 세계시민 사회의 이슈에 대한 효능감으로 구성되고, 문화다양성은 민족,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 및 종교 등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2. 사회참여역량의 발달과 영향 요인

1) 개인 시민성의 발달과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시민성에 대한 구성요소로서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모경환 외의 연구(2010)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지역의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1,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에는 개인 시민성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참여의식’(나는 기회가 된다면 학교나 사회,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준법의식’(나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적 정치효능감’(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참여의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았다. 준법의식의 경우,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았다. 내적 정치효능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임원으로 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았다.

다음으로 손경애 외의 연구(2010)에서는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61개교의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식,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민주주의 참여, 실천 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손경애 외, 2010: 박윤경, 이승연, 2015에서 재인용).

또한 박윤경과 이승연의 연구(2015)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그러한 인식을 다루는 토론 및 수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 지역의 1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상위에 해당할 때,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화 및 토론에 대한 관심,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화 및 토론 기회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더불어 강남 지역의 학생들이 강북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였다.

Lauglo와 øia의 연구(2007)에서는 노르웨이의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에서 임원으로서 봉사한 경험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과 같이 학교 내·외에서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공동체 시민성의 발달과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구성요소로서 ‘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의식’, ‘신뢰’, ‘교실개방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이때 역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봉민의 연구(2013)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조합에 따른 성인기의 정치적 활동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고등학생 3,6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표(지역 수준 선거 투표, 국가 수준 선거 투표, 후보자 정보 수집 등), 공식 정치활동(후보자

나 정당 선거활동, 정치단체 가입, 노동조합 가입, 선출직 후보 출마 등), 합법적 항의(신문사 편지 보내기, 개인 의견 표현 뱃지 달기, 선출직 공무원 만나기, 평화 집회 참여, 진정서 서명 모으기, 상품 불매 운동 등), 비합법적 항의(벽에 항의 표어 쓰기, 도로 점거 항의 집회, 공공건물 점거 항의 등) 등에 대하여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신뢰도가 높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신뢰도가 낮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신뢰도가 높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신뢰도가 낮은 경우 순으로 참여 의사가 줄어들었다.

Warburton과 Smith의 연구(2003)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킬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반면에 Henderson(2007)의 연구에서는 비록 의무적으로 시작하는 자원봉사일지라도 반드시 자원봉사 참여 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이형진의 연구(2010)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부산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0개교의 학생 41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수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임정재, 강정환, 김상돈(2011)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별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서 '신뢰'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신뢰'는 '공공기관 신뢰'(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에 대한 신뢰 정도의 평균 점수)와 '대인 신뢰'(타인이 자신을 이용하려드는 정도)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신뢰'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뢰 점수가 높았고, '대인 신뢰'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유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신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식(2009)은 청소년의 경찰신뢰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16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성적이 높을수록, 동네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동네에서 금품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학교(또는 학교 주변)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동네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동네에서 금품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청소년 본인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경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태준 외(2010)는 '학교 내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한국 학생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4%가 '토론에 적극적 참여'하였다고, 76%가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 40%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42%가 '학생회 토론'에 참여하였다고, 43%가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표준 점수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론에 적극적 참여'하는 비율은 국제 평균에 비하여 10% 이상 낮았고,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는 국제 평균만큼 참여하는 반면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에 출마하는 비율은 국제 평균에 비하여 10% 이상 낮았다. 즉 한국 학생들은 '학교 내 시민 참여'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세계 시민성의 발달과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세계 시민성에 대한 구성요소로서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 관심', '글로벌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김영숙과 정복례의 연구(2007)에서는 울산 지역의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는데,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응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장영애와 김용미의 연구(2010)에서도 경기 지역의 중학교 2개교의 1, 2, 3학년생 408명에 대하여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가정생활영역, 학교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문화생활영역 전반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생활영역에서는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현과 권용재(2013)는 한국, 대만, 홍콩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ICCS 2009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주된 연구의 초점을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과 '타 인종의 권리에 대한 의식'에 맞추었다.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이민자의 본국 언어 활용 기회 제공, 이민자 자녀에 대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기회 제공, 일정 기간 이상 각 국가에 거주한 이민자들에 대한 투표권 제공, 이민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정 등을 포함하는 요인이고, '타 인종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모든 인종집단에 대한 동일한 교육기회, 취업기회, 선거에

출마할 기회 제공, 인종집단 상호 간의 존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모든 인종집단 간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요인이다. 한국 자료의 분석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에 비치된 도서 수가 많을수록, 향후 교육받을 기대 연한이 길수록, 부모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이민자 권리 존중 의식과 타 인종 권리 존중 의식 정도가 높았다.

또한 Wimmer의 연구(1997)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 때, 연령이 낮을 때,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때,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 때, 이주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더욱 더 관용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서운석(2014)은 만 15~20세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 2477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의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나라사랑 의식'을 크게 '국가 의식', '역사 의식', '안보 의식'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의식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 의지, 국민으로서의 의무 실천 정도, 애국자에 대한 존경 정도로 구성되었고, 역사 의식은 역사에 대한 이해 정도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안보 의식은 국가 위기 시 위기 극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와 전쟁 발발시 참전할 의지 정도로 구성되었다. 한국 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나라사랑 의식 수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학령이 올라갈수록(중·고·대학생 순) 나라사랑 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인순과 김옥순의 연구(2010)에서는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80명과 일반 청소년 120명에게 5가지 세계시민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가지 세계시민의식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학교급 차이는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의 관심 정도가 높았다.

김옥순의 연구(2010)에서는 문화지능 검사를 통해 경기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간 역량을 측정하고, 그러한 문화간 역량이 청소년 개인의 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문화간 역량'이란 '문화간 의사소통 역량'이라고도 불리는데, 문화가 다른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간 역량이 문화지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련연구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지능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문화간 역량을 측정하였다. 문화지능 지수는 크게 '전략적 사고영역'(다른 문화권에 속한 타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지닌 문화지식을 이용하는 정도), '문화적 동기영역'(자신의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에서 자신감을 갖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의 정도), '문화적 행동영역'(낯선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적절히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 속한 학생보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속한 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문화 지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사회참여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사회참여역량의 발달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역량도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이러한 발달적 방향이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의 발달에 대하여 개인의 생물학적(biological) 성장과 환경적(environmental) 혹은 교육적(educational)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두 세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발달과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점에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Ⅲ 장

.....

본 조사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 개인 시민성
2. 공동체 시민성
3. 세계 시민성

제 III 장

본 조사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한 김태준·백선희(2014)의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최종 예비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본 2차년도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11,284명의 응답 데이터를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문항의 경로계수를 제시하였으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개념신뢰성을 통하여 각 하위요인의 잠재변수에 대한 일차원성 만족 여부를 제시하였다. AVE가 0.5, 개념신뢰성이 0.7 이상일 경우 일차원성을 만족한다.

다음으로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χ^2 값과 TLI, NFI, CFI 및 RMSEA값을 제시하였다. χ^2 값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연구자의 측정 모형이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NF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에 가까울수록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1. 개인 시민성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 중 개인 시민성은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 권리·책임의식(4문항), 그리고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의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 타당화 모형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¹⁾ 개별 문항의 경로계수와 AVE 및 개념신뢰도,

1)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을 측정하는 개별 문항은 민주적 가치에 대비한 빠른 의사결정과 경제적 성장을 지지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역채점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함

모형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산출되었으나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구인이 복수인 것을 고려하여 해당 요인을 정치사회적 관심 요인과 정치적 자아효능감으로 분류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모형에 비하여 모든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아졌고 특히 잠재변인의 일차원성 정도를 판단하는 AVE가 0.520에서 0.620으로 보다 높아져 하위 구인의 일차원성이 보다 높아졌다. 추정 할 모수가 추가되면 적합도 지수가 절대적으로 좋아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의 양호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4개 하위 요소로 개인 시민성 측정 도구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1>과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권리 책임의식	22.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00	0.832***	0.718	0.911
	22.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1.053	0.861***		
	22.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010	0.868***		
	22.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0.970	0.828***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2.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보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1.000	0.701***	0.557	0.715
	22.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1.111	0.789***		
정치사회적 관심	23.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1.000	0.886***	0.578	0.797
	23.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911	0.824***		
	23.3.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577	0.519***		
정치적 자아효능감	24.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1.000	0.821***	0.620	0.890
	24.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0.999	0.812***		
	24.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1.059	0.855***		
	24.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0.832	0.622***		
	24.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1.021	0.805***		

표 III-2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2475.894(71)***	0.959	0.971	0.972	0.055

2. 공동체 시민성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 중 공동체 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공적 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 개진(5문항), 그리고 교실개방성(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에 타당화한 모형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적합도가 산출되었고, 특정 요인에 과중한 수의 문항이 편중됨에 따라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타당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적 실천에 대한 문항 검토 결과, 복수의 요인으로 나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성격의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여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연구진 협의를 거쳐 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공익 실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갖지 못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 실천에 대한 재분류와 1차년도 척도의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재명명을 통하여, 공동체 시민성이 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공익 실천, 교실개방성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설 하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와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로 이루어진 공익 실천의 AVE와 개념신뢰성이 일차원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문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 실천의 하위 요인을 제외한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III-3>과 <표 III-4>와 같이 공동체 시민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일차원성을 만족한 가운데 만족할만한 모형 적합도가 도출되어 투표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교실개방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시민성 측정도구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3 공동체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투표참여	27.1. 투표참여 의지	1	0.745***	0.586	0.739
	27.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의지	1.282	0.785***		
시민활동의 중요성	28.1.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의 중요성	1	0.831***	0.706	0.905
	28.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의 중요성	1.054	0.872***		
	28.3. 인권증진운동의 중요성	1.088	0.878***		
	28.4.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	0.95	0.775***		
저항 의식	29.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참여 의지	1	0.698***	0.537	0.850
	29.2. 비폭력 집회 참여 의지	1.196	0.801***		
	29.3. 진정서 서명 참여 의지	1.185	0.813***		
	29.4. 상품 불매 운동 참여 의지	1.176	0.794***		
	29.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 참여 의지	0.802	0.514***		
신뢰	34.1.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1	0.849***	0.691	0.897
	34.4. 정당에 대한 신뢰 정도	1.065	0.92***		
	34.5.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1.125	0.936***		
	34.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에 대한 신뢰 정도	0.617	0.567***		
교실개방성	35.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0.519***	0.550	0.856
	35.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1.521	0.722***		
	35.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1.397	0.711***		
	35.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1.834	0.873***		
	35.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1.716	0.833***		

표 III-4 공동체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6007.145(160)***	0.939	0.952	0.953	0.057

3. 세계 시민성

1차년도 연구에서 타당화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의 세계 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성 인지(2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그리고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 타당화 모형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²⁾,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AVE가 0.5 미만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재타당화 작업이 요청되었다.

각 하위 구성 요인을 이루는 개별 문항의 표준화회귀계수의 유의미도와 하위 구성 요인의 일차원성 만족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진 회의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척도 수정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 인지 요인에서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0.5를 넘지 않았던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는 문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둘째,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5문항은 이민자들의 교육권과 투표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민자들의 권리에 대한 차원과 외국에 사는 우리 민족 후손들, 외국인·소수민족, 빈곤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를 묻는 외부인에 대한 허용 차원으로 분리될 수 있는 바,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두 개의 하위 구성 요인으로 분류한다. 셋째, 국제 관계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의사소통에 관한 복수의 차원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바, 국제관계관심과 글로벌 의사소통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다. 이상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수행한 결과,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일차원성이 만족되지 않아 해당 하위 구성 요인을 삭제하였다. 이후 개별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일차원성이 만족되었고 모형 적합도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표 III-5>, <표 III-6> 참조).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재명명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관심, 그리고 글로벌 의사소통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을 갖는 세계 시민성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2) 성 인지를 측정하는 개별 문항은 가족의 생계문제, 보육, 직장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성 편향적 태도의 지지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역채점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함

표 III-5 세계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 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성 인지	36.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1	0.999 ***	0.750	0.853
	36.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다.	1.002	0.708 ***		
이민자에 대한 태도	37.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	0.759 ***	0.776	0.912
	37.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612	0.955 ***		
	37.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614	0.917		
국가 및 역사인식	41.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1	0.792 ***	0.594	0.853
	41.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1.151	0.732 ***		
	41.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1.257	0.863 ***		
	41.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1.318	0.684 ***		
국제관계 관심	42.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	0.955 ***	0.828	0.906
	42.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	0.958	0.863 ***		
글로벌 의사소통	43.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1	0.994 ***	0.904	0.949
	43.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0.963	0.905 ***		

표 III-6 세계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679.776(55)***	0.990	0.992	0.993	0.032

제 IV 장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시민성 분석 결과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분석 결과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세계
시민성 분석 결과

제 IV 장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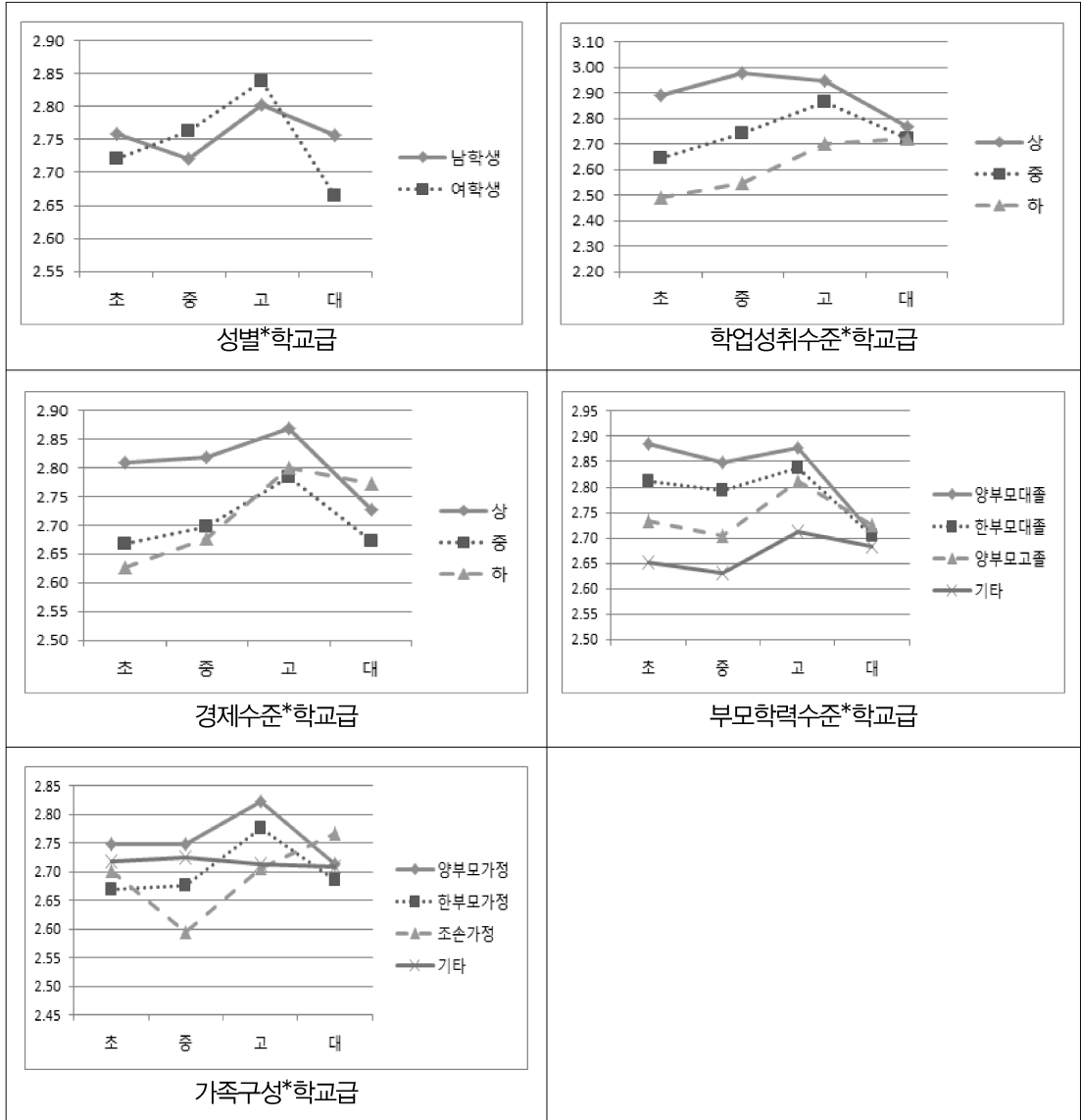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본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및 세계 시민성을 이루는 하위 구성 요인의 수준을 발달단계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 수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를 통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개인 시민성에 대한 발달단계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IV-1】과 같다.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으로 이루어진 개인 시민성의 수준을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과 발달단계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 여학생은 중기 청소년기까지(중등학교 수준) 지속적으로 개인 시민성 수준이 상승하나 후기 청소년기(대학교 수준)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중기 청소년기 때 지속적으로 여학생보다 낮은 개인 시민성을 나타낸 남학생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학업성취수준 및 부모학력수준과 발달단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바에 따르면, 두 배경 요인 수준에 따른 개인 시민성의 차이는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후기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수준과 부모학력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개인 시민성에 대한 학업성취수준 효과와 부모학력수준의 효과는 발달단계가 경과함에 따라 극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수준과 발달단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도출된 바에 따르면, 개인 시민성은 초기 발달단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발달이 지속됨에 따라 상·중 집단은 역U자 형을 그렸고 하 집단의 경우, 후기 청소년기때 유일하게 개인 시민성이 중기 청소년기에 비하여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아 상·중 집단의 개인 시민성 수준을 추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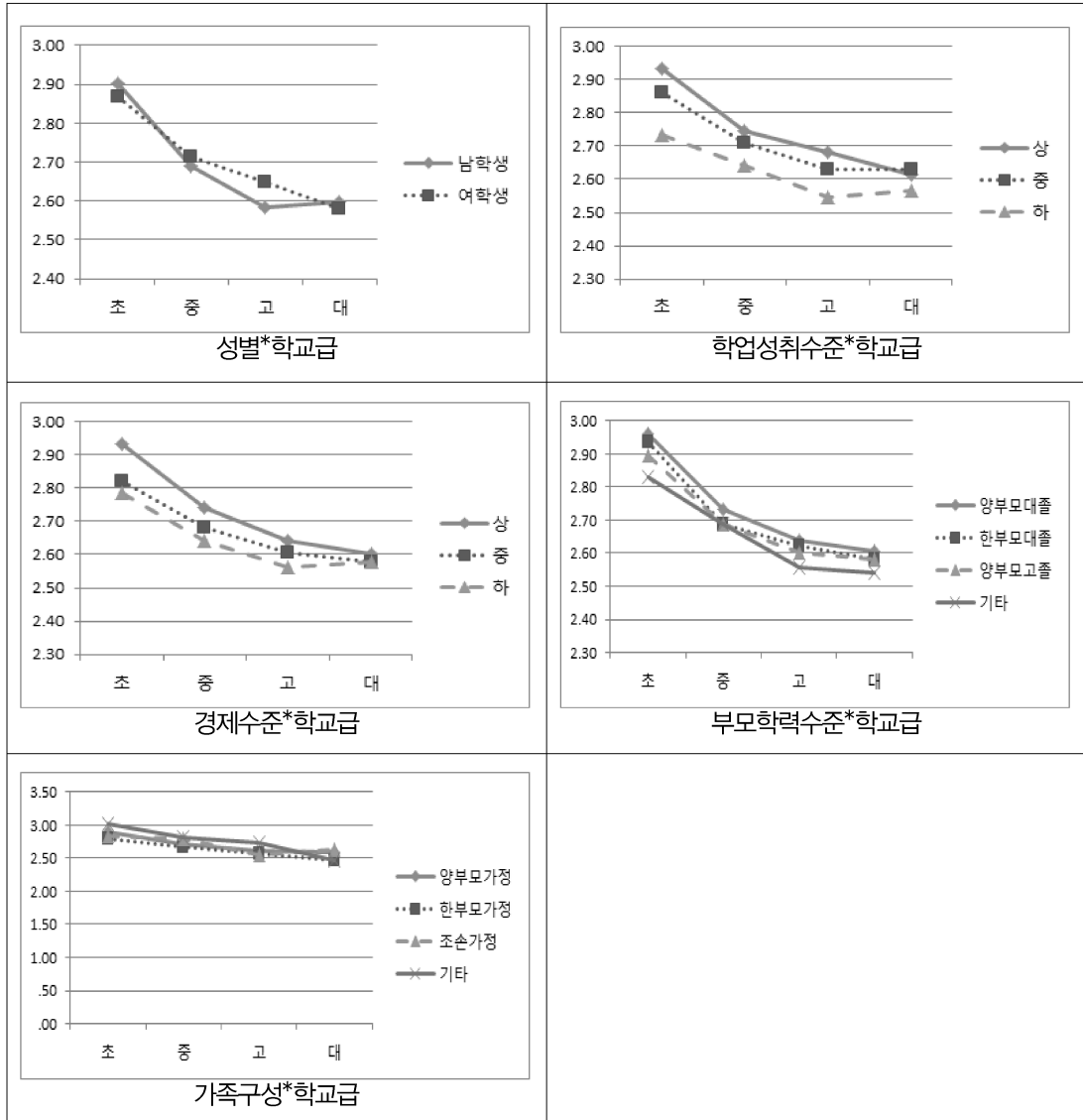
가족구성에 따른 개인시민성 변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동일한 변화 패턴을 보인 가운데 양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개인 시민성 수준을 나타냈고, 기타 가정에 속한 청소년기의 개인 시민성은 거의 일정하였으며, 조손 가정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가장 낮은 개인 시민성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은 개인 시민성을 보였다.



【그림 IV-1】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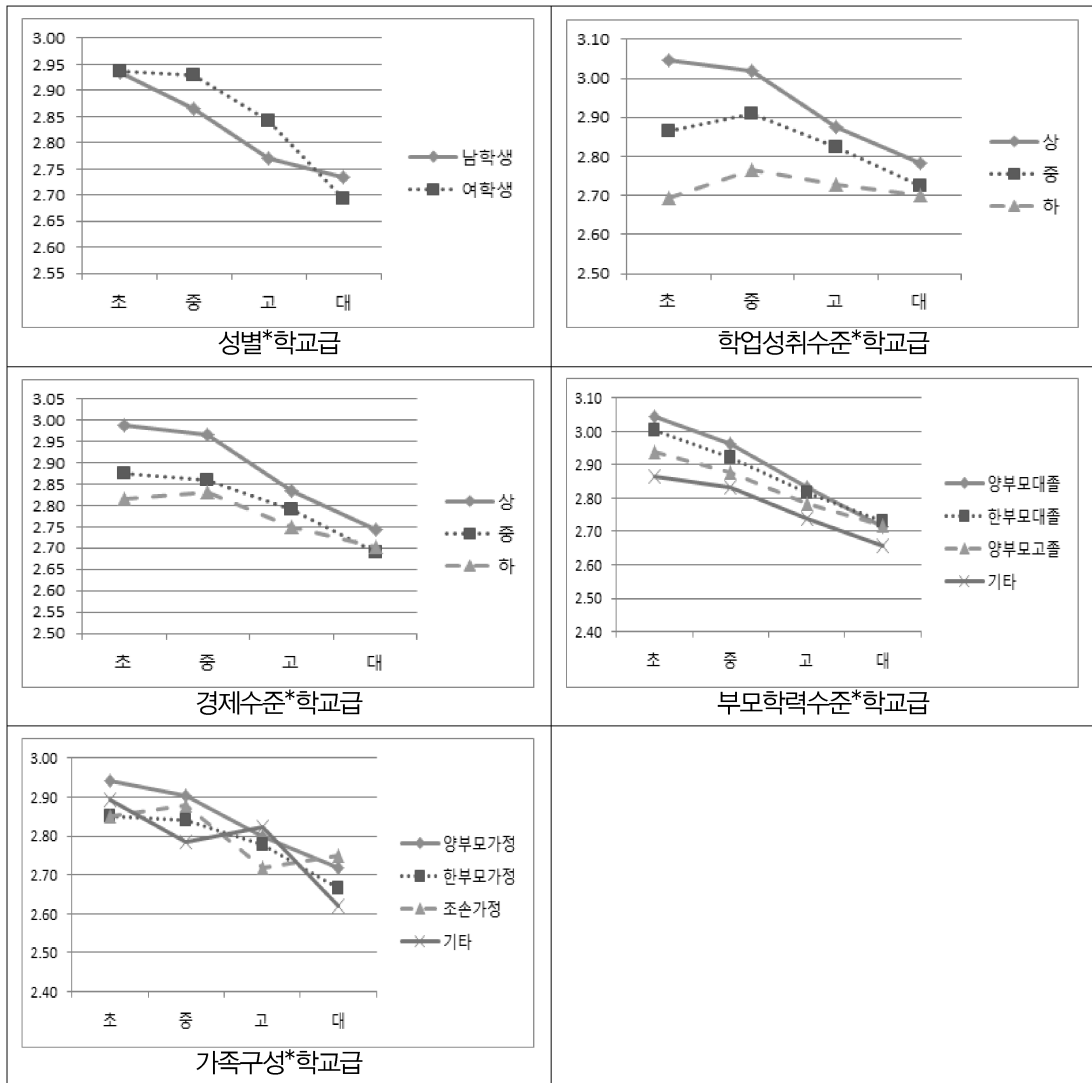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발달단계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다. 투표 참여, 시민활동의 중요성, 저항 의식, 신뢰 및 교실개방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시민성의 수준을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개인 시민성과 비교하여 발달단계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미미했다. 발달단계가 지속될수록 공동체 시민성 수준이 일정하게 하락하는 패턴이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에 따른 각 집단에서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발달단계 초기에 가장 큰 공동체 시민성 차이를 나타낸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은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었지만 【그림 IV-2】에서 볼 수 있듯이 후기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별 청소년 집단의 공동체 시민성 수준이 모두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림 M-2】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의 상호작용

세계 시민성에 대한 발달단계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IV-3】과 같다.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관심 및 글로벌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세계 시민성의 수준을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성별과 발달단계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 남학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세계 시민성을 보인 여학생은 발달단계가 지속될수록 세계 시민성이 낮아짐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남학생 보다 낮은 수준의 세계 시민성을 보였다.



【그림 IV-3】 인구학적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의 상호작용

개인 시민성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수준과 부모학력수준의 세계 시민성에 대한 효과는 발달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발달단계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개인 시민성에 비하여 학업성취수준과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세계 시민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수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발달단계 초기에 비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그 효과가 작아졌으나 완벽히 사라지진 않았다.

가족구성에 따른 세계시민성의 변화 형태의 경우, 양부모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유사한 패턴으로 점차 하락한 반면, 조손가정과 기타 가정의 경우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시민성 분석 결과

1) 권리·책임의식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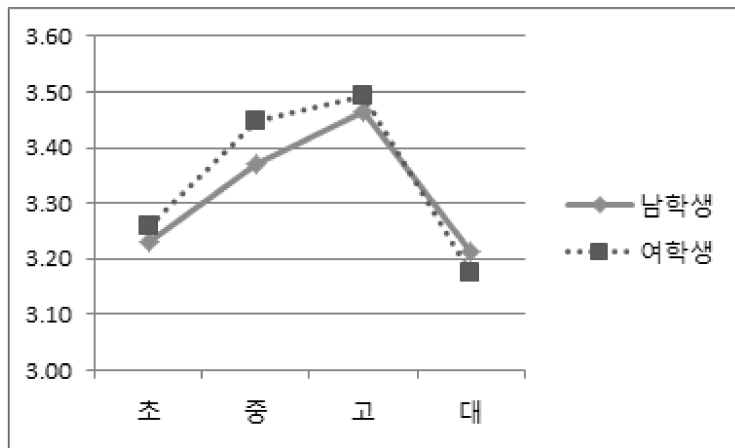
표 IV-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남	3.21(0.83)	3.15(0.82)	3.28(0.76)	3.28(0.76)	3.23 (0.70)
	여	3.23(0.78)	3.14(0.79)	3.34(0.71)	3.33(0.72)	3.26 (0.66)
중	남	3.36(0.68)	3.35(0.68)	3.38(0.67)	3.38(0.66)	3.37 (0.61)
	여	3.43(0.62)	3.40(0.64)	3.49(0.59)	3.48(0.61)	3.45 (0.55)
고	남	3.46(0.63)	3.46(0.63)	3.47(0.63)	3.48(0.64)	3.47 (0.57)
	여	3.47(0.56)	3.46(0.58)	3.51(0.56)	3.53(0.56)	3.49 (0.50)
대	남	3.21(0.65)	3.17(0.68)	3.25(0.69)	3.23(0.69)	3.21 (0.55)
	여	3.12(0.59)	3.16(0.62)	3.19(0.69)	3.22(0.65)	3.17 (0.5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문항별 및 전체 평균은 <표 IV-1>과 같고 전체 평균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는 각각 <표 IV-2>와 [그림 IV-4]와 같다(이하 동일한 형태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과 학교급에 따른 평균 점수와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의 표 및 상호작용 그래프를 제시하나 학교지역의 경우 상호작용 그래프는 생략함). 먼저 학교급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3, 1275)=119.86, p<.001$)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이하 변량분석의 사후검증은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중등학교 응답자가 초등학교 및 대학교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발달단계에 따른 역U자형의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 11275)=3.48, p<.05$). 중학교 응답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보인 가운데 학교급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지도자 선출 문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성별의 주효과를 가졌다.



【그림 IV-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표 IV-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6.21	3	42.07	119.86***
성별	0.92	1	0.92	2.62
학교급*성별	3.67	3	1.22	3.48*
오차	3957.43	11275	0.3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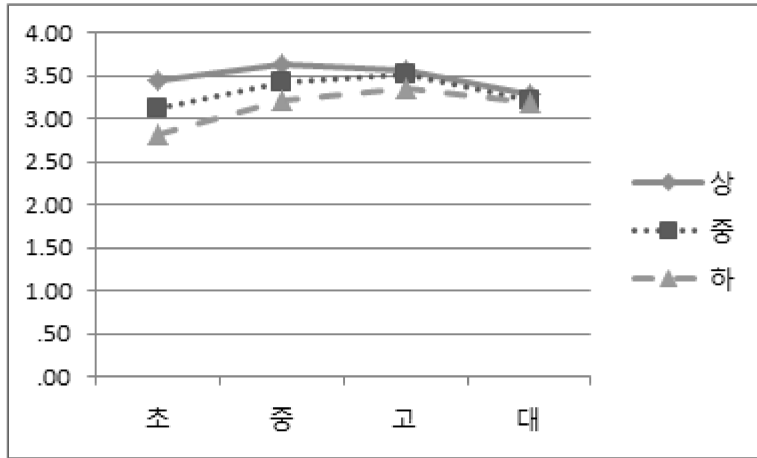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표 IV-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상	3.44(0.74)	3.35(0.76)	3.51(0.67)	3.50(0.70)	3.45 (0.63)
	중	3.10(0.80)	3.04(0.80)	3.20(0.74)	3.19(0.74)	3.13 (0.67)
	하	2.85(0.93)	2.77(0.88)	2.89(0.84)	2.87(0.84)	2.85 (0.78)
중	상	3.63(0.54)	3.62(0.56)	3.64(0.55)	3.65(0.56)	3.63 (0.50)
	중	3.40(0.64)	3.38(0.66)	3.44(0.62)	3.43(0.63)	3.41 (0.57)
	하	3.19(0.69)	3.18(0.70)	3.25(0.68)	3.24(0.68)	3.21 (0.62)
고	상	3.64(0.59)	3.60(0.56)	3.57(0.63)	3.62(0.60)	3.61 (0.53)
	중	3.52(0.58)	3.51(0.59)	3.54(0.58)	3.55(0.58)	3.53 (0.52)
	하	3.35(0.64)	3.35(0.64)	3.39(0.62)	3.40(0.64)	3.37 (0.58)
대	상	3.23(0.62)	3.27(0.69)	3.28(0.62)	3.32(0.61)	3.28 (0.50)
	중	3.16(0.63)	3.18(0.63)	3.27(0.67)	3.26(0.65)	3.22 (0.52)
	하	3.18(0.63)	3.19(0.62)	3.23(0.68)	3.21(0.68)	3.20 (0.52)

권리·책임의식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F(3, 10922)=84.89, p<.001$)가 나타남에 따라 사후수행한 결과 성적수준이 하 수준에서 중 수준으로, 중 수준에서 상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권리·책임의식의 상승이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 수준과 달리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책임의식이 함께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F(6, 10992)=11.60, p<.001$)가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 점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와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하여 대학교의 경우 성적수준에 따른 개별 문항에 대한 권리의식이 유의미하게 차별성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표 IV-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0.16	3	26.72	79.82***
학업성취수준	56.83	2	28.42	84.89***
학교급*학업성취수준	23.30	6	3.88	11.60***
오차	3655.92	10922	0.33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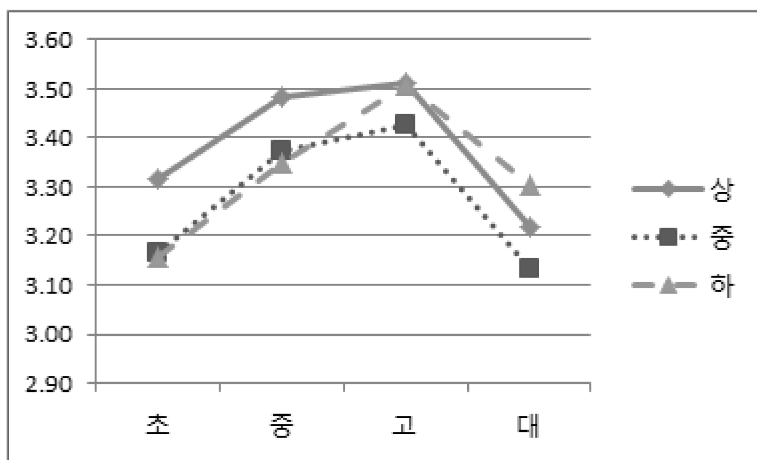
표 IV-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상	3.29(0.78)	3.21(0.79)	3.38(0.71)	3.31 (0.66)
	중	3.13(0.80)	3.07(0.78)	3.23(0.74)	3.16 (0.67)
	하	3.15(0.79)	3.07(0.81)	3.23(0.75)	3.16 (0.69)
중	상	3.47(0.60)	3.45(0.63)	3.50(0.61)	3.48 (0.55)
	중	3.37(0.65)	3.33(0.66)	3.41(0.63)	3.37 (0.58)
	하	3.33(0.70)	3.32(0.70)	3.37(0.68)	3.35 (0.62)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고	상	3.50(0.57)	3.49(0.60)	3.52(0.58)	3.54(0.57)	3.51 (0.52)
	중	3.41(0.63)	3.41(0.62)	3.44(0.62)	3.44(0.63)	3.43 (0.57)
	하	3.49(0.61)	3.49(0.62)	3.51(0.60)	3.53(0.62)	3.51 (0.54)
대	상	3.16(0.64)	3.18(0.66)	3.26(0.66)	3.27(0.66)	3.22 (0.50)
	중	3.12(0.63)	3.10(0.64)	3.15(0.71)	3.15(0.69)	3.13 (0.54)
	하	3.28(0.57)	3.28(0.64)	3.32(0.68)	3.33(0.63)	3.31 (0.53)

권리·책임의식에 대한 경제수준의 주효과($F(2, 10783)=30.06, p<.001$)가 발생한 바에 따르면 경제수준이 중간인 응답자는 상·하수준의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학교급과 경제수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는데($F(6, 10783)=4.75, p<.001$)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중 수준의 경제수준 집단이 가장 낮은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경제수준의 주효과와 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중 수준인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학교급에 따른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 양상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IV-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표 IV-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0.61	3	36.87	107.49**
경제수준	20.62	2	10.31	30.06***
학교급*경제수준	9.77	6	1.63	4.75***
오차	3698.76	10783	0.3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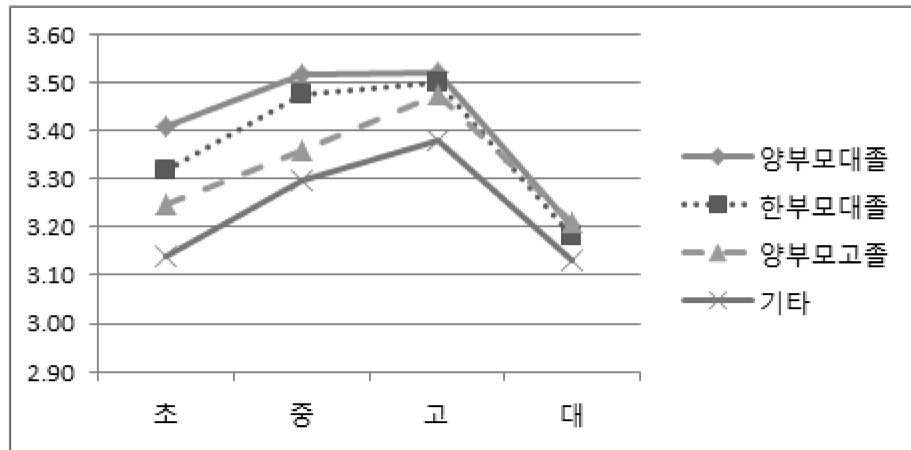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표 IV-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39(0.75)	3.33(0.74)	3.47(0.68)	3.46(0.68)	3.41 (0.63)
	한분만대졸이상	3.32(0.77)	3.19(0.81)	3.39(0.72)	3.37(0.72)	3.32 (0.67)
	양부모고졸이하	3.23(0.78)	3.13(0.82)	3.31(0.75)	3.32(0.74)	3.25 (0.68)
	기타	3.10(0.83)	3.05(0.82)	3.21(0.75)	3.20(0.77)	3.14 (0.69)
중	양부모대졸이상	3.52(0.59)	3.48(0.63)	3.54(0.59)	3.54(0.58)	3.52 (0.54)
	한분만대졸이상	3.47(0.63)	3.44(0.64)	3.49(0.60)	3.50(0.60)	3.48 (0.55)
	양부모고졸이하	3.35(0.68)	3.34(0.68)	3.38(0.66)	3.37(0.67)	3.36 (0.61)
	기타	3.28(0.68)	3.26(0.68)	3.34(0.66)	3.32(0.67)	3.30 (0.61)
고	양부모대졸이상	3.52(0.58)	3.50(0.59)	3.52(0.59)	3.55(0.57)	3.52 (0.52)
	한분만대졸이상	3.49(0.60)	3.49(0.60)	3.50(0.60)	3.53(0.60)	3.50 (0.54)
	양부모고졸이하	3.46(0.60)	3.46(0.60)	3.49(0.60)	3.50(0.61)	3.48 (0.54)
	기타	3.36(0.66)	3.37(0.66)	3.41(0.63)	3.38(0.67)	3.38 (0.59)
대	양부모대졸이상	3.15(0.61)	3.17(0.63)	3.27(0.66)	3.23(0.66)	3.20 (0.50)
	한분만대졸이상	3.16(0.66)	3.16(0.65)	3.23(0.69)	3.18(0.70)	3.18 (0.54)
	양부모고졸이하	3.20(0.62)	3.18(0.67)	3.19(0.72)	3.27(0.64)	3.21 (0.54)
	기타	3.14(0.65)	3.11(0.69)	3.10(0.76)	3.16(0.71)	3.13 (0.6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67)=24.23, p<.001$). 사후검증 결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대졸 이상일 경우 다른 집단의 응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의 권리·책임의식에 부모의 교육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대학교 응답자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어졌다($F(9, 11267)=3.64,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부모의 대학교육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IV-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표 IV-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1.47	3	27.16	78.78**
부모학력수준	25.06	3	8.35	24.23**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1.29	9	1.25	3.64**
오차	3884.26	11267	0.3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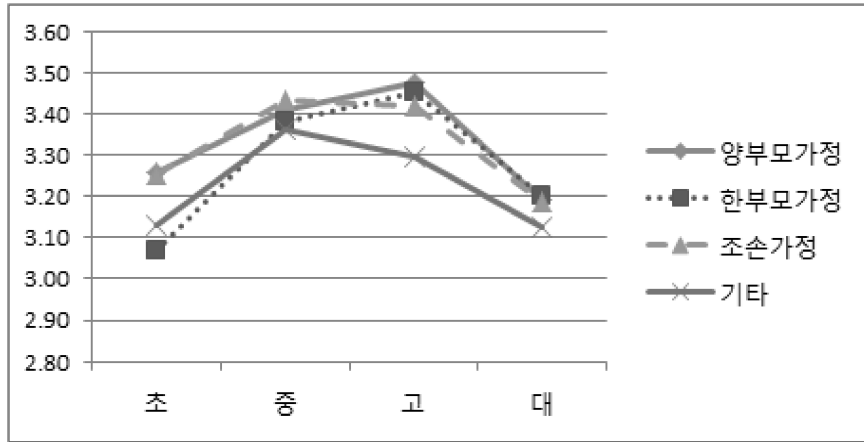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표 IV-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향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23(0.80)	3.16(0.80)	3.32(0.73)	3.32(0.74)	3.26 (0.68)
	한부모가정	3.04(0.85)	2.98(0.81)	3.16(0.77)	3.09(0.77)	3.07 (0.70)
	조손가정	3.16(0.78)	3.21(0.74)	3.35(0.75)	3.30(0.77)	3.26 (0.68)
	기타	3.16(0.89)	3.14(0.82)	3.14(0.80)	3.09(0.94)	3.13 (0.74)
중	양부모가정	3.40(0.65)	3.38(0.67)	3.44(0.64)	3.43(0.64)	3.41 (0.59)
	한부모가정	3.37(0.61)	3.35(0.63)	3.39(0.60)	3.41(0.60)	3.38 (0.54)
	조손가정	3.42(0.56)	3.42(0.56)	3.45(0.51)	3.45(0.57)	3.44 (0.50)
	기타	3.35(0.69)	3.38(0.64)	3.38(0.57)	3.35(0.63)	3.37 (0.60)
고	양부모가정	3.47(0.60)	3.46(0.61)	3.49(0.60)	3.50(0.61)	3.48 (0.54)
	한부모가정	3.42(0.66)	3.46(0.62)	3.47(0.61)	3.46(0.67)	3.45 (0.58)
	조손가정	3.43(0.65)	3.37(0.81)	3.43(0.70)	3.46(0.66)	3.42 (0.68)
	기타	3.25(0.45)	3.38(0.62)	3.31(0.60)	3.25(0.68)	3.30 (0.44)
대	양부모가정	3.16(0.62)	3.16(0.64)	3.23(0.69)	3.23(0.67)	3.19 (0.52)
	한부모가정	3.25(0.67)	3.16(0.74)	3.22(0.76)	3.19(0.71)	3.20 (0.65)
	조손가정	3.25(0.50)	3.25(0.96)	3.25(0.96)	3.00(0.82)	3.19 (0.75)
	기타	3.17(0.39)	3.08(0.67)	3.08(0.51)	3.17(0.58)	3.13 (0.4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각 개별 문항 수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대하여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하여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0.62	3	3.54	10.09***
가족구성	2.60	3	0.87	2.47
학교급*가족구성	3.93	9	0.44	1.25
오차	3946.78	11245	0.35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표 IV-1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서울	3.32(0.78)	3.22(0.82)	3.39(0.72)	3.38(0.73)	3.33(0.68)
	부산	3.35(0.74)	3.26(0.79)	3.39(0.74)	3.40(0.71)	3.35(0.68)
	대구	3.20(0.76)	3.06(0.80)	3.30(0.72)	3.25(0.76)	3.20(0.68)
	인천	3.18(0.80)	3.13(0.81)	3.29(0.71)	3.29(0.69)	3.22(0.66)
	광주	3.25(0.77)	3.16(0.80)	3.33(0.71)	3.32(0.74)	3.26(0.66)
	대전	3.21(0.70)	3.08(0.73)	3.35(0.62)	3.35(0.62)	3.25(0.59)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초	울산	3.42(0.70)	3.27(0.75)	3.34(0.75)	3.38(0.73)	3.35(0.63)
	경기	3.25(0.82)	3.25(0.78)	3.38(0.72)	3.36(0.73)	3.31(0.65)
	강원	3.24(0.75)	3.17(0.74)	3.36(0.73)	3.25(0.72)	3.26(0.60)
	충북	3.00(0.89)	3.07(0.73)	3.29(0.79)	3.26(0.78)	3.16(0.68)
	충남	3.12(0.89)	3.04(0.92)	3.26(0.82)	3.19(0.90)	3.15(0.80)
	전북	3.06(0.80)	2.95(0.72)	3.14(0.77)	3.12(0.79)	3.07(0.66)
	전남	3.14(0.79)	3.04(0.77)	3.20(0.72)	3.25(0.67)	3.16(0.65)
	경북	3.08(0.83)	3.03(0.79)	3.22(0.74)	3.17(0.73)	3.12(0.67)
	경남	3.16(0.88)	3.03(0.90)	3.16(0.83)	3.21(0.82)	3.14(0.78)
	제주	3.10(0.83)	3.14(0.85)	3.24(0.71)	3.21(0.84)	3.17(0.75)
중	서울	3.39(0.69)	3.38(0.69)	3.43 (0.66)	3.44 (0.62)	3.41 (0.59)
	부산	3.41(0.61)	3.42(0.63)	3.46 (0.61)	3.46 (0.58)	3.44 (0.54)
	대구	3.47(0.54)	3.44(0.60)	3.52 (0.57)	3.50 (0.61)	3.48 (0.52)
	인천	3.46(0.56)	3.43(0.61)	3.43 (0.64)	3.45 (0.61)	3.44 (0.54)
	광주	3.38(0.62)	3.33(0.61)	3.45 (0.60)	3.47 (0.61)	3.41 (0.54)
	대전	3.47(0.62)	3.45(0.63)	3.52 (0.59)	3.52 (0.59)	3.49 (0.58)
	울산	3.18(0.78)	3.16(0.77)	3.25 (0.75)	3.25 (0.70)	3.21 (0.70)
	경기	3.41(0.67)	3.39(0.67)	3.45 (0.66)	3.43 (0.67)	3.42 (0.60)
	강원	3.41(0.67)	3.49(0.60)	3.50 (0.59)	3.48 (0.64)	3.47 (0.55)
	충북	3.38(0.69)	3.35(0.68)	3.41 (0.68)	3.42 (0.69)	3.39 (0.63)
	충남	3.37(0.65)	3.35(0.68)	3.40 (0.62)	3.37 (0.66)	3.37 (0.59)
	전북	3.33(0.60)	3.25(0.56)	3.34 (0.55)	3.28 (0.64)	3.30 (0.50)
	전남	3.26(0.81)	3.32(0.79)	3.38 (0.73)	3.36 (0.77)	3.33 (0.73)
	경북	3.39(0.64)	3.29(0.73)	3.43 (0.62)	3.43 (0.65)	3.39 (0.59)
	경남	3.36(0.61)	3.29(0.66)	3.38 (0.63)	3.36 (0.60)	3.35 (0.57)
제주	3.54(0.64)	3.53(0.61)	3.60 (0.55)	3.62 (0.55)	3.57 (0.52)	

구 분	정치적 항의	정부 비판	자유로운 의사 표현	정치지도자 선출	전체 평균	
고	서울	3.52(0.61)	3.50(0.63)	3.50 (0.61)	3.52 (0.63)	3.51 (0.56)
	부산	3.49(0.55)	3.43(0.57)	3.50 (0.57)	3.50 (0.59)	3.48 (0.51)
	대구	3.47(0.60)	3.44(0.63)	3.49 (0.61)	3.54 (0.58)	3.49 (0.54)
	인천	3.60(0.60)	3.62(0.61)	3.60 (0.59)	3.63 (0.58)	3.61 (0.54)
	광주	3.42(0.59)	3.49(0.60)	3.53 (0.60)	3.49 (0.65)	3.48 (0.54)
	대전	3.45(0.62)	3.45(0.61)	3.52 (0.58)	3.53 (0.60)	3.49 (0.53)
	울산	3.36(0.56)	3.39(0.58)	3.34 (0.60)	3.40 (0.57)	3.37 (0.52)
	경기	3.48(0.58)	3.47(0.60)	3.49 (0.60)	3.52 (0.58)	3.49 (0.53)
	강원	3.43(0.64)	3.44(0.57)	3.44 (0.64)	3.47 (0.62)	3.44 (0.56)
	충북	3.53(0.53)	3.47(0.55)	3.54 (0.53)	3.56 (0.50)	3.53 (0.45)
	충남	3.59(0.55)	3.60(0.53)	3.65 (0.54)	3.60 (0.60)	3.61 (0.47)
	전북	3.34(0.71)	3.38(0.66)	3.41 (0.64)	3.38 (0.72)	3.38 (0.62)
	전남	3.43(0.61)	3.46(0.59)	3.48 (0.61)	3.49 (0.59)	3.46 (0.55)
	경북	3.44(0.55)	3.45(0.58)	3.46 (0.56)	3.44 (0.57)	3.45 (0.50)
	경남	3.31(0.68)	3.31(0.68)	3.37 (0.63)	3.37 (0.67)	3.34 (0.61)
제주	3.31(0.68)	3.27(0.69)	3.25 (0.73)	3.30 (0.71)	3.28 (0.64)	
대	서울	3.01(0.65)	3.04(0.64)	3.14 (0.62)	3.13 (0.57)	3.08 (0.43)
	부산	3.23(0.76)	3.07(0.85)	3.18 (0.80)	3.18 (0.64)	3.17 (0.64)
	대구	3.21(0.62)	3.27(0.47)	3.28 (0.67)	3.36 (0.63)	3.28 (0.51)
	인천	3.49(0.62)	3.49(0.65)	3.49 (0.62)	3.51 (0.71)	3.49 (0.61)
	광주	2.97(0.33)	3.03(0.47)	3.11 (0.68)	3.15 (0.74)	3.07 (0.38)
	대전	3.30(0.72)	3.26(0.65)	3.34 (0.65)	3.17 (0.80)	3.27 (0.61)
	울산	3.33(0.49)	3.39(0.61)	3.44 (0.62)	3.61 (0.61)	3.44 (0.42)
	경기	3.30(0.48)	3.26(0.58)	3.28 (0.59)	3.31 (0.56)	3.29 (0.47)
	강원	3.19(0.71)	3.20(0.72)	3.18 (0.84)	3.13 (0.83)	3.17 (0.67)
	충북	3.29(0.61)	3.32(0.57)	3.50 (0.51)	3.42 (0.55)	3.38 (0.47)
	충남	3.30(0.58)	3.33(0.53)	3.34 (0.54)	3.27 (0.66)	3.31 (0.46)
	전북	3.25(0.44)	3.39(0.55)	3.50 (0.51)	3.28 (0.51)	3.35 (0.30)
	전남	3.20(0.62)	3.35(0.59)	3.20 (0.77)	3.20 (0.70)	3.24 (0.57)
	경북	2.98(0.60)	3.00(0.55)	3.02 (0.63)	3.30 (0.60)	3.07 (0.43)
	경남	2.74(0.45)	2.45(0.65)	2.66 (1.05)	2.76 (0.82)	2.65 (0.43)
제주	3.05(0.68)	3.13(0.65)	3.23 (0.58)	3.10 (0.63)	3.13 (0.5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권리·책임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15, 11219)=6.23, p<.001$). 특히 경남지역의 응답자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과 충북과 부산 및 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는데($F(45, 11219)=3.19, p<.001$) 중학교급을 제외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경남지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권리·책임의식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남지역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패턴으로 수도권 및 기타 타지역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의식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학교지역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표 IV-1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0.22	3	26.74	77.20***
학교지역	32.35	15	2.16	6.23***
학교급*학교지역	49.65	45	1.10	3.19***
오차	3885.66	11219	0.35	

* $p<.05$, ** $p<.01$, *** $p<.001$

2) 민주적 절차 및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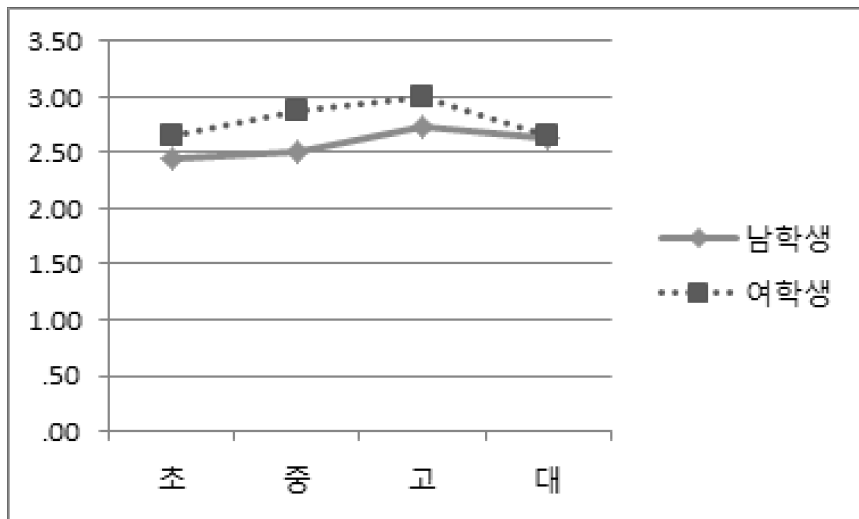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표 IV-1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남	2.30(1.04)	2.58 (1.07)	2.44 (0.92)
	여	2.54(1.01)	2.76 (0.99)	2.65 (0.88)
중	남	2.38(1.02)	2.60 (1.01)	2.49 (0.90)
	여	2.79(0.98)	2.96 (0.94)	2.88 (0.85)
고	남	2.70(0.99)	2.79 (1.01)	2.74 (0.87)
	여	2.91(0.91)	3.07 (0.86)	2.99 (0.78)
대	남	2.53(0.79)	2.71 (0.88)	2.62 (0.74)
	여	2.57(0.79)	2.72 (0.79)	2.64 (0.69)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개별 문항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치체제 대신 빠른 의사 결정과 경제적 성장을 보다 중요시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응답자일수록 높은 평균 점수를 받도록 역채점하였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학교급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76)=81.43, p<.001$).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가 중등학교 응답자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주효과도 나타난 가운데($F(1, 11276)=135.16, p<.001$), 모든 학교급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1, 11276)=13.89, p<.001$)는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임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즉 성별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의 차이는 대학교급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학생의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고등학교까지 꾸준히 높아지던 여학생의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이 대학교에 이르러 초등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이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문제 결정 과정과 민주주의 의식의 경우 모두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높아지던 평균 점수가 대학교 응답자에 이르러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문제 결정 과정과 민주주의 의식에 관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림 IV-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77.86	3	59.29	81.43***
성별	98.41	1	98.41	135.16***
학교급*성별	30.33	3	10.11	13.89***
오차	8210.17	11276	0.73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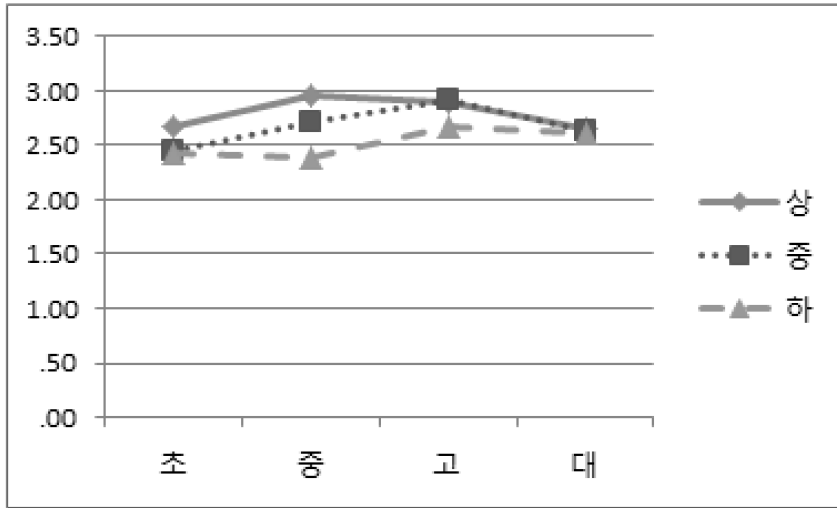
표 IV-1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평균	
초	상	2.53(1.11)	2.81 (1.09)	2.67 (0.97)
	중	2.32(0.97)	2.57 (0.99)	2.45 (0.85)
	하	2.39(0.89)	2.47 (0.92)	2.43 (0.81)
중	상	2.87(1.05)	2.99 (1.02)	2.93 (0.92)
	중	2.60(1.02)	2.81 (0.98)	2.71 (0.88)
	하	2.26(0.91)	2.48 (0.93)	2.37 (0.81)
고	상	2.87(0.97)	3.02 (1.00)	2.95 (0.87)
	중	2.89(0.94)	2.99 (0.94)	2.94 (0.82)
	하	2.60(0.96)	2.77 (0.94)	2.69 (0.83)
대	상	2.55(0.87)	2.69 (0.90)	2.62 (0.80)
	중	2.51(0.75)	2.76 (0.82)	2.63 (0.67)
	하	2.55(0.81)	2.66 (0.88)	2.61 (0.76)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전체 평균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2, 10923)=24.50$, $p < .001$)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수준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하였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F(1, 10923)=8.04, p<.001$).

개별 문항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역시 유의미한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와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IV-1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2.48	3	24.16	32.88***
학업성취수준	35.99	2	18.00	24.50***
학교급*학업성취수준	35.43	6	5.90	8.04***
오차	8024.90	10923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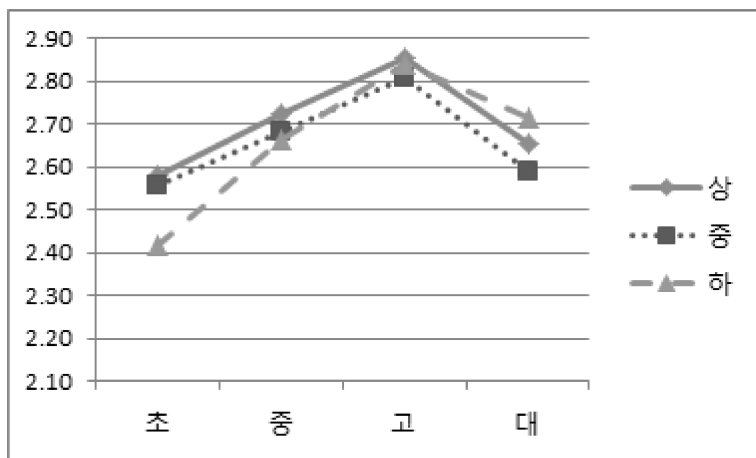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표 IV-1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상	2.44(1.06)	2.72 (1.06)	2.58 (0.93)
	중	2.44(0.98)	2.68 (0.97)	2.56 (0.84)
	하	2.35(0.99)	2.50 (1.02)	2.42 (0.88)
중	상	2.61(1.01)	2.81 (1.00)	2.71 (0.89)
	중	2.57(1.01)	2.76 (0.97)	2.67 (0.89)
	하	2.58(1.00)	2.76 (0.95)	2.67 (0.85)
고	상	2.84(0.97)	2.95 (0.96)	2.90 (0.85)
	중	2.77(0.94)	2.90 (0.93)	2.84 (0.82)
	하	2.82(0.96)	2.95 (0.95)	2.88 (0.83)
대	상	2.58(0.79)	2.74 (0.82)	2.66 (0.72)
	중	2.49(0.77)	2.68 (0.85)	2.59 (0.71)
	하	2.62(0.84)	2.78 (0.86)	2.70 (0.72)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에 대한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과 관련한 별도의 주효과 혹은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문항 수준에서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중 수준의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민주적 절차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체제보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의견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림 IV-1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0.50	3	53.50	73.70***
경제수준	4.22	2	2.11	2.91
학교급*경제수준	7.27	6	1.21	1.67
오차	7827.21	10783	0.7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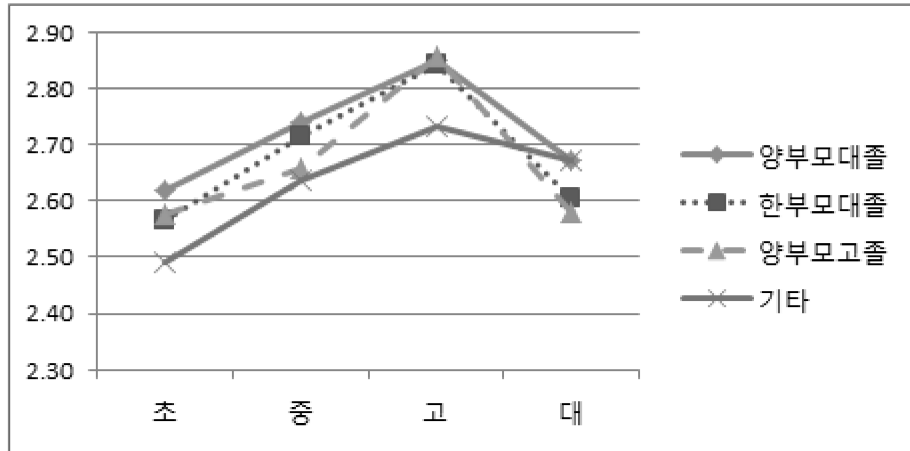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표 IV-1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49 (1.09)	2.75 (1.09)	2.62 (0.97)
	한분만대졸이상	2.42 (1.05)	2.72 (1.02)	2.57 (0.90)
	양부모고졸이하	2.44 (1.06)	2.70 (1.02)	2.57 (0.92)
	기타	2.37 (1.00)	2.61 (1.01)	2.49 (0.87)
중	양부모대졸이상	2.65 (1.06)	2.82 (1.02)	2.73 (0.94)
	한분만대졸이상	2.58 (1.01)	2.80 (1.00)	2.69 (0.89)
	양부모고졸이하	2.57 (1.03)	2.72 (1.02)	2.65 (0.90)
	기타	2.51 (0.98)	2.74 (0.94)	2.62 (0.84)
고	양부모대졸이상	2.82 (0.97)	2.92 (0.98)	2.87 (0.86)
	한분만대졸이상	2.82 (0.96)	2.96 (0.95)	2.89 (0.83)
	양부모고졸이하	2.84 (0.95)	2.97 (0.93)	2.90 (0.84)
	기타	2.69 (0.93)	2.83 (0.94)	2.76 (0.81)
대	양부모대졸이상	2.59 (0.79)	2.74 (0.82)	2.67 (0.71)
	한분만대졸이상	2.52 (0.79)	2.66 (0.85)	2.59 (0.71)
	양부모고졸이하	2.48 (0.78)	2.70 (0.86)	2.59 (0.73)
	기타	2.60 (0.82)	2.75 (0.83)	2.67 (0.71)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수준에 대한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68)=3.07, p<.05$). 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기타 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결과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1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2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9.42	3	43.14	57.85 ^{***}
부모학력수준	6.88	3	2.29	3.07 [*]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84	9	0.76	1.02
오차	8403.32	11268	0.7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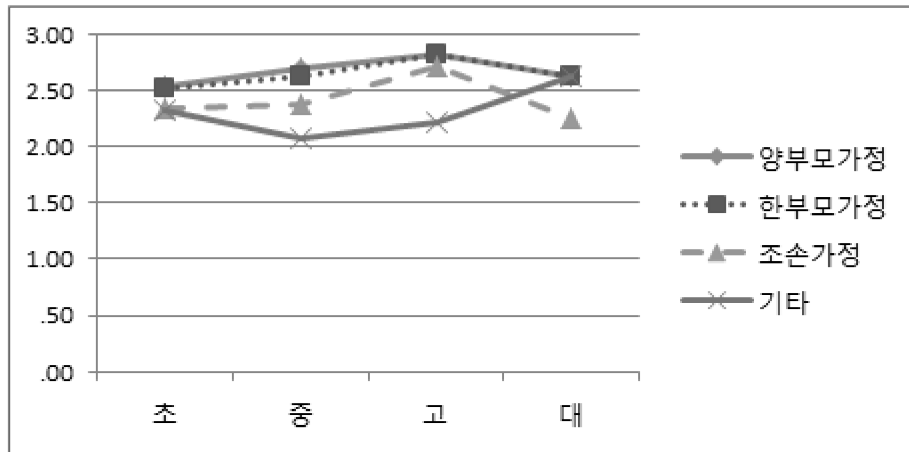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표 IV-2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2.41 (1.04)	2.69 (1.04)	2.55 (0.91)
	한부모가정	2.51 (0.87)	2.55 (0.98)	2.53 (0.83)
	조손가정	2.34 (1.10)	2.37 (1.10)	2.36 (1.02)
	기타	2.21 (1.03)	2.49 (1.11)	2.35 (0.93)
중	양부모가정	2.59 (1.02)	2.78 (0.99)	2.69 (0.90)
	한부모가정	2.50 (0.97)	2.75 (0.96)	2.63 (0.85)
	조손가정	2.27 (0.96)	2.48 (0.99)	2.37 (0.84)
	기타	1.98 (0.93)	2.23 (0.85)	2.10 (0.78)
고	양부모가정	2.80 (0.96)	2.92 (0.95)	2.86 (0.84)
	한부모가정	2.79 (0.94)	2.99 (0.96)	2.89 (0.83)
	조손가정	2.75 (0.91)	2.62 (0.83)	2.68 (0.74)
	기타	2.05 (0.67)	2.57 (0.78)	2.31 (0.61)
대	양부모가정	2.55 (0.79)	2.72 (0.84)	2.64 (0.71)
	한부모가정	2.51 (0.83)	2.74 (0.87)	2.63 (0.73)
	조손가정	2.37 (1.47)	1.98 (0.96)	2.17 (1.21)
	기타	2.49 (0.76)	2.66 (0.64)	2.57 (0.6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여($F(3, 11246)=6.03, p<.001$)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양부모 및 한부모 가정에 비하여 조손가정 및 기타 가정의 응답자들이 보다 소극적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도 전체 평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이 조손가정이나 기타형태의 가정 응답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의식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가족구성의 주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IV-1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2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66	3	2.55	3.42*
가족구성	13.50	3	4.50	6.03***
학교급*가족구성	5.78	9	0.64	0.86
오차	8393.86	11246	0.75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표 IV-2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서울	2.46 (1.07)	2.66 (1.06)	2.56 (0.93)
	부산	2.40 (1.07)	2.66 (1.08)	2.53 (0.95)
	대구	2.36 (1.02)	2.60 (0.97)	2.48 (0.86)
	인천	2.37 (1.06)	2.76 (0.96)	2.56 (0.84)
	광주	2.39 (1.06)	2.61 (1.09)	2.50 (0.92)
	대전	2.40 (1.06)	2.67 (1.06)	2.53 (0.94)

구 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초	울산	2.61 (0.92)	2.90 (0.85)	2.76 (0.72)
	경기	2.41 (0.95)	2.67 (0.96)	2.54 (0.84)
	강원	2.32 (1.02)	2.58 (1.06)	2.45 (0.95)
	충북	2.42 (1.11)	2.61 (1.11)	2.52 (1.00)
	충남	2.48 (0.96)	2.81 (0.98)	2.65 (0.81)
	전북	2.43 (1.06)	2.50 (1.06)	2.47 (0.93)
	전남	2.39 (0.83)	2.71 (0.95)	2.55 (0.80)
	경북	2.36 (0.96)	2.68 (0.92)	2.52 (0.83)
	경남	2.45 (1.05)	2.67 (1.05)	2.56 (0.92)
	제주	2.30 (0.99)	2.72 (1.03)	2.51 (0.85)
중	서울	2.52 (1.03)	2.77 (1.02)	2.64 (0.90)
	부산	2.63 (1.04)	2.77 (0.99)	2.70 (0.91)
	대구	2.53 (1.07)	2.92 (1.00)	2.73 (0.87)
	인천	2.71 (0.99)	2.75 (1.00)	2.73 (0.91)
	광주	2.50 (1.00)	2.55 (1.00)	2.52 (0.93)
	대전	2.41 (1.02)	2.66 (0.99)	2.53 (0.90)
	울산	2.59 (1.04)	2.69 (1.04)	2.64 (0.97)
	경기	2.80 (0.96)	2.92 (0.93)	2.86 (0.83)
	강원	2.39 (0.92)	2.62 (0.98)	2.51 (0.84)
	충북	2.82 (0.98)	2.93 (0.93)	2.88 (0.86)
	충남	2.74 (1.00)	2.96 (0.94)	2.85 (0.89)
	전북	2.35 (0.86)	2.41 (0.94)	2.38 (0.76)
	전남	2.37 (0.97)	2.64 (0.90)	2.51 (0.78)
	경북	2.41 (1.05)	2.66 (1.03)	2.53 (0.93)
경남	2.65 (1.06)	2.93 (0.94)	2.79 (0.90)	
제주	2.67 (1.05)	2.92 (1.01)	2.80 (0.91)	
고	서울	2.82 (0.99)	2.96 (0.99)	2.89 (0.88)
	부산	2.87 (0.91)	3.02 (0.91)	2.95 (0.81)
	대구	2.85 (1.03)	3.00 (1.01)	2.93 (0.89)

구 분	문제 결정 과정	민주주의 의식	전체 평균	
고	인천	2.75 (0.95)	2.76 (0.97)	2.76 (0.81)
	광주	2.84 (0.91)	3.06 (0.79)	2.95 (0.76)
	대전	2.91 (0.93)	3.04 (0.90)	2.98 (0.78)
	울산	2.81 (0.96)	2.89 (0.91)	2.85 (0.80)
	경기	3.06 (0.85)	3.06 (0.83)	3.06 (0.73)
	강원	2.70 (0.94)	2.74 (0.89)	2.72 (0.80)
	충북	2.68 (0.99)	2.80 (1.00)	2.74 (0.86)
	충남	2.79 (0.93)	2.88 (0.98)	2.83 (0.78)
	전북	2.88 (0.82)	2.95 (0.85)	2.91 (0.73)
	전남	2.83 (0.89)	2.99 (0.90)	2.91 (0.83)
	경북	2.41 (1.02)	2.60 (1.00)	2.51 (0.92)
	경남	2.63 (0.98)	2.82 (1.00)	2.73 (0.87)
	제주	2.61 (0.85)	2.76 (1.10)	2.69 (0.83)
	대	서울	2.46 (0.62)	2.56 (0.75)
부산		2.47 (0.77)	2.66 (0.81)	2.57 (0.68)
대구		3.13 (0.83)	3.23 (0.83)	3.18 (0.75)
인천		2.44 (0.87)	2.62 (0.89)	2.53 (0.74)
광주		2.31 (0.90)	2.85 (1.00)	2.58 (0.85)
대전		2.62 (0.92)	2.73 (0.89)	2.67 (0.81)
울산		2.34 (0.79)	2.50 (0.99)	2.42 (0.84)
경기		2.21 (0.58)	2.38 (0.71)	2.29 (0.55)
강원		2.39 (0.64)	2.33 (0.48)	2.36 (0.45)
충북		2.61 (0.93)	2.66 (0.76)	2.63 (0.76)
충남		3.09 (0.58)	3.09 (0.61)	3.09 (0.53)
전북		2.24 (0.66)	2.63 (0.99)	2.44 (0.79)
전남		2.76 (0.62)	2.87 (0.66)	2.82 (0.56)
경북		2.50 (0.97)	2.45 (1.06)	2.47 (0.82)
경남		2.47 (0.67)	3.16 (0.83)	2.82 (0.59)
제주		2.56 (0.89)	2.72 (0.96)	2.64 (0.8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관한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학교지역에 대한 주효과가 발생하여 $F(15, 11220)=4.51, p<.001$ 사후 검정한 결과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의 응답자들이 전국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해당 개인시민성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초등학교 응답자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경남권 응답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45, 11220)=3.33,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의 개별 문항에 대한 낮은 평균 점수가 도출되었다.

표 IV-2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95.83	3	31.94	43.40***
학교지역	49.79	15	3.32	4.51***
학교급*학교지역	110.23	45	2.45	3.33***
오차	8258.57	11220	0.74	

* $p<.05$, ** $p<.01$, *** $p<.001$

3) 정치사회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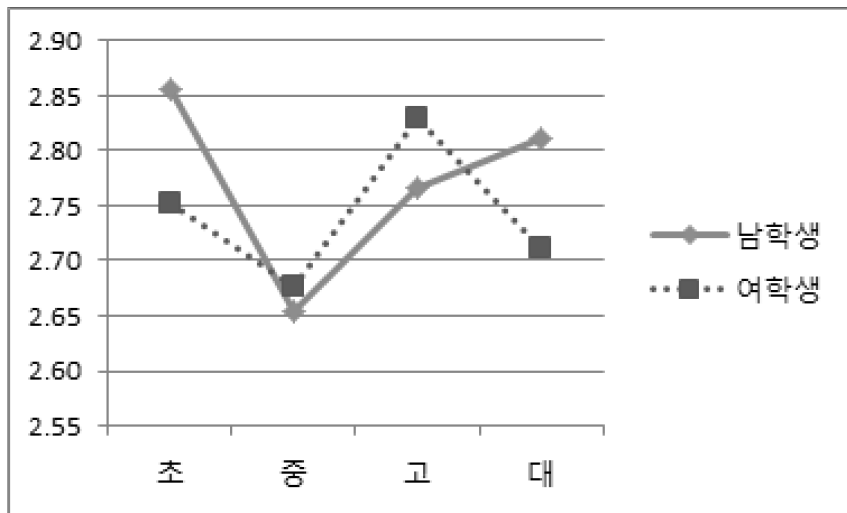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표 IV-2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남	2.67(0.93)	2.81 (0.92)	3.10 (0.87)	2.86 (0.77)
	여	2.46(0.86)	2.70 (0.86)	3.09 (0.83)	2.75 (0.72)
중	남	2.59(0.90)	2.73 (0.91)	2.65 (0.89)	2.66 (0.78)
	여	2.56(0.82)	2.83 (0.82)	2.65 (0.80)	2.68 (0.69)
고	남	2.71(0.87)	2.93 (0.82)	2.66 (0.85)	2.77 (0.71)
	여	2.68(0.74)	3.03 (0.68)	2.75 (0.69)	2.82 (0.57)
대	남	2.77(0.72)	2.92 (0.68)	2.75 (0.73)	2.81 (0.57)
	여	2.54(0.69)	2.87 (0.65)	2.69 (0.67)	2.70 (0.5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74)=27.28,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74)=6.24, p<.01$). 일반적으로 중학교 응답자가 가장 낮은 정치·사회적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학교급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3, 11274)=6.24,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중학교 응답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성별에 따른 주효과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문항 응답에서만 나타났다.



【그림 IV-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표 IV-2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9.48	3	13.16	27.28***
성별	3.01	1	3.01	6.24*
학교급*성별	14.71	3	4.90	10.16***
오차	5438.62	11274	0.4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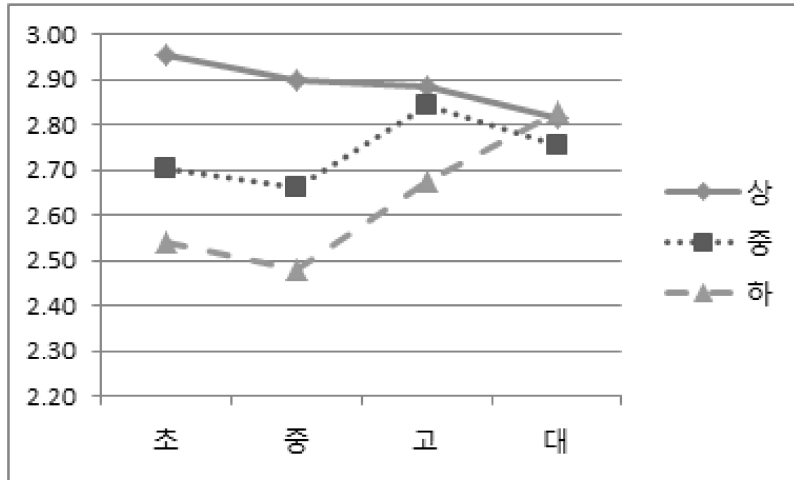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표 IV-2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평균	
초	상	2.74(0.92)	2.93(0.89)	3.20 (0.85)	2.95 (0.74)
	중	2.46(0.86)	2.64(0.87)	3.03 (0.84)	2.71 (0.73)
	하	2.36(0.94)	2.45(0.93)	2.77 (0.95)	2.53 (0.82)
중	상	2.82(0.88)	3.09(0.82)	2.79 (0.84)	2.90 (0.70)
	중	2.58(0.84)	2.78(0.85)	2.65 (0.84)	2.67 (0.71)
	하	2.38(0.86)	2.53(0.89)	2.54 (0.89)	2.48 (0.78)
고	상	2.77(0.86)	3.10(0.76)	2.71 (0.83)	2.86 (0.66)
	중	2.74(0.80)	3.05(0.74)	2.74 (0.77)	2.84 (0.62)
	하	2.60(0.81)	2.82(0.77)	2.62 (0.79)	2.68 (0.68)
대	상	2.70(0.77)	2.99(0.64)	2.78 (0.70)	2.82 (0.54)
	중	2.62(0.69)	2.87(0.65)	2.72 (0.67)	2.74 (0.52)
	하	2.75(0.69)	2.95(0.61)	2.78 (0.69)	2.83 (0.5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에 대한 전체 평균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0921)=36.33, p<.001$).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성적수준이 낮아질수록 정치·사회적 관심 정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0921)=8.90,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약화되어 대학교 응답자들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이 정치·사회적 관심의 개별 문항의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IV-1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표 IV-2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51	3	5.50	11.65***
학업성취수준	34.62	2	17.31	36.66***
학교급*학업성취수준	25.23	6	4.20	8.90***
오차	5156.82	10921	0.47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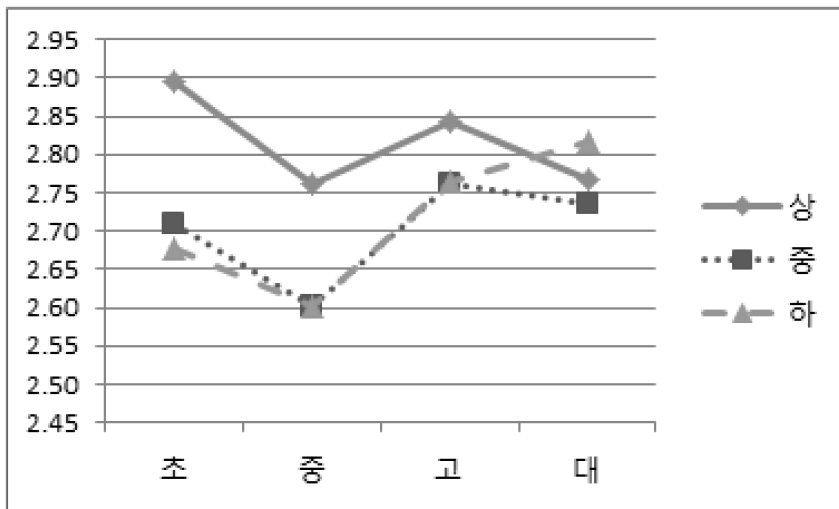
표 IV-2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상	2.65(0.89)	2.86(0.89)	3.17 (0.84)	2.90(0.73)
	중	2.48(0.85)	2.65(0.85)	3.02 (0.82)	2.72(0.72)
	하	2.44(0.94)	2.64(0.90)	2.94 (0.88)	2.67(0.76)
중	상	2.67(0.86)	2.90(0.86)	2.72 (0.85)	2.76(0.72)
	중	2.51(0.86)	2.71(0.87)	2.59 (0.85)	2.61(0.74)
	하	2.50(0.85)	2.69(0.84)	2.62 (0.83)	2.61(0.72)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고	상	2.74(0.83)	3.04(0.75)	2.71 (0.79)	2.83(0.65)
	중	2.67(0.77)	2.94(0.73)	2.70 (0.75)	2.77(0.62)
	하	2.68(0.83)	2.96(0.77)	2.69 (0.80)	2.78(0.66)
대	상	2.66(0.70)	2.92(0.66)	2.79 (0.71)	2.79(0.57)
	중	2.62(0.68)	2.86(0.66)	2.68 (0.68)	2.72(0.53)
	하	2.76(0.81)	2.96(0.69)	2.72 (0.73)	2.81(0.5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전체 평균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781)=25.35$). 경제수준이 중 및 하 수준인 응답자는 유사한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과 달리 상 수준인 응답자는 이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학교급에 따른 경제수준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경제수준이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급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 $F(6, 10781)=3.50$, $p<.01$).

개별 문항에 대한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경제수준이 중인 응답자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1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표 IV-3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2.33	3	10.78	23.00***
경제수준	23.76	2	11.88	25.35***
학교급*경제수준	9.83	6	1.64	3.50**
오차	5051.20	10781	0.4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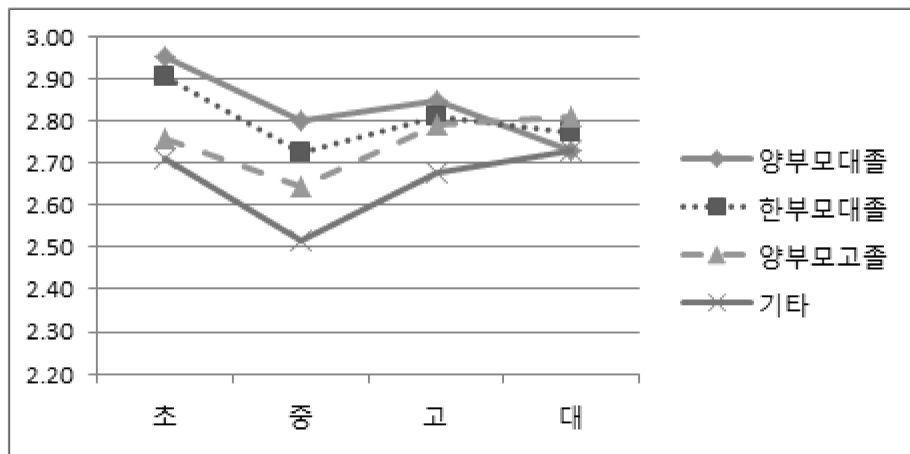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표 IV-3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73 (0.90)	2.94 (0.89)	3.20(0.84)	2.96(0.74)
	한부모대졸이상	2.66 (0.92)	2.87 (0.90)	3.19(0.80)	2.91(0.74)
	양부모고졸이하	2.52 (0.87)	2.75 (0.89)	3.02(0.86)	2.76(0.71)
	기타	2.47 (0.89)	2.63 (0.88)	3.04(0.86)	2.71(0.74)
중	양부모대졸이상	2.73 (0.87)	2.96 (0.83)	2.72(0.83)	2.80(0.70)
	한부모대졸이상	2.63 (0.87)	2.85 (0.86)	2.72(0.84)	2.73(0.72)
	양부모고졸이하	2.54 (0.85)	2.76 (0.85)	2.65(0.86)	2.65(0.73)
	기타	2.43 (0.84)	2.57 (0.88)	2.54(0.86)	2.51(0.75)
고	양부모대졸이상	2.78 (0.83)	3.06 (0.76)	2.72(0.78)	2.85(0.65)
	한부모대졸이상	2.72 (0.79)	3.00 (0.76)	2.73(0.78)	2.82(0.63)
	양부모고졸이하	2.66 (0.79)	2.99 (0.72)	2.69(0.76)	2.78(0.62)
	기타	2.60 (0.81)	2.83 (0.78)	2.66(0.80)	2.70(0.69)
대	양부모대졸이상	2.62 (0.70)	2.89 (0.64)	2.70(0.67)	2.74(0.52)
	한부모대졸이상	2.65 (0.71)	2.88 (0.69)	2.72(0.73)	2.75(0.59)
	양부모고졸이하	2.73 (0.73)	2.95 (0.68)	2.78(0.72)	2.82(0.56)
	기타	2.68 (0.77)	2.81 (0.68)	2.67(0.76)	2.72(0.6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66)=19.64, p<.001$).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관심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고등학교급 이상의 응답자에게 유의미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아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어졌다($F(9, 11266)=3.24,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IV-1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표 IV-3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7.56	3	12.52	26.34***
부모학력수준	28.00	3	9.33	19.64***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3.86	9	1.54	3.24**
오차	5354.59	11266	0.4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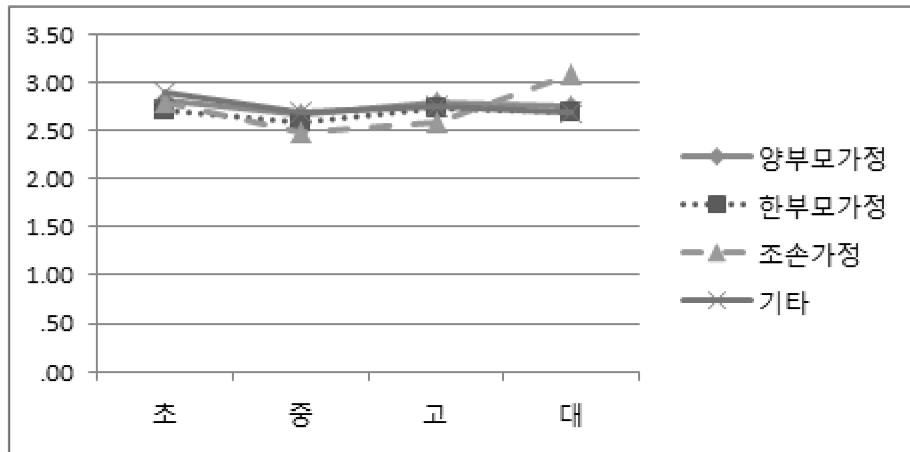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표 IV-3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2.57 (0.90)	2.77(0.90)	3.10 (0.85)	2.81(0.75)
	한부모가정	2.49 (0.88)	2.62(0.87)	3.04 (0.80)	2.72(0.72)
	조손가정	2.59 (0.82)	2.55(0.89)	3.18 (0.88)	2.77(0.73)
	기타	2.67 (1.01)	2.81(1.06)	3.17 (0.95)	2.90(0.83)
중	양부모가정	2.59 (0.86)	2.79(0.87)	2.65 (0.85)	2.67(0.73)
	한부모가정	2.48 (0.86)	2.68(0.90)	2.63 (0.86)	2.60(0.76)
	조손가정	2.42 (0.87)	2.54(0.88)	2.55 (0.86)	2.50(0.69)
	기타	2.56 (0.88)	2.70(0.90)	2.81 (0.89)	2.69(0.76)
고	양부모가정	2.70 (0.81)	2.99(0.76)	2.70 (0.77)	2.80(0.65)
	한부모가정	2.66 (0.78)	2.94(0.77)	2.68 (0.83)	2.76(0.67)
	조손가정	2.63 (0.87)	2.74(0.82)	2.61 (0.82)	2.66(0.77)
	기타	2.43 (0.61)	2.81(0.53)	3.03 (0.56)	2.75(0.30)
대	양부모가정	2.66 (0.71)	2.90(0.66)	2.72 (0.70)	2.76(0.55)
	한부모가정	2.58 (0.81)	2.75(0.73)	2.71 (0.78)	2.68(0.66)
	조손가정	3.02 (0.96)	3.56(0.68)	2.92 (0.88)	3.17(0.73)
	기타	2.93 (0.72)	2.93(0.72)	2.56 (0.66)	2.81(0.57)

정치·사회적 관심에 대한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주효과 혹은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 가족구성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F(3, 11237)=3.45, p<.05$) 사후검정 결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는 조손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상호작용

표 IV-3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09	3	1.70	3.51*
가족구성	2.96	3	0.99	2.04
학교급*가족구성	2.09	9	0.23	0.48
오차	5435.28	11244	0.48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표 IV-3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서울	2.52(0.91)	2.75(0.93)	3.18 .86	2.82 (0.75)
	부산	2.56(0.90)	2.77(0.89)	3.08 (0.83)	2.81 (0.73)
	대구	2.58(0.91)	2.70(0.93)	3.00 (0.92)	2.76 (0.79)
	인천	2.71(0.98)	2.82(0.92)	3.22 (0.83)	2.92 (0.80)
	광주	2.52(0.84)	2.69(0.83)	3.07 (0.81)	2.76 (0.70)
	대전	2.56(0.98)	2.69(0.98)	2.99 (0.91)	2.75 (0.86)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초	울산	2.48(0.81)	2.73(0.82)	3.14 (0.79)	2.78 (0.62)
	경기	2.47(0.81)	2.71(0.78)	3.09 (0.84)	2.76 (0.69)
	강원	2.73(0.90)	2.86(0.90)	3.10 (0.90)	2.90 (0.77)
	충북	2.61(0.91)	2.86(0.86)	3.21 (0.78)	2.90 (0.70)
	충남	2.49(0.95)	2.73(0.93)	3.09 (0.87)	2.77 (0.79)
	전북	2.70(0.87)	2.90(0.81)	3.22 (0.76)	2.94 (0.62)
	전남	2.50(0.93)	2.57(0.95)	2.86 (0.96)	2.64 (0.83)
	경북	2.58(0.90)	2.64(0.91)	2.88 (0.83)	2.70 (0.75)
	경남	2.72(0.94)	2.86(0.88)	3.14 (0.84)	2.91 (0.78)
	제주	2.49(0.91)	2.62(0.89)	3.17 (0.85)	2.76 (0.75)
중	서울	2.53(0.89)	2.72(0.91)	2.59 (0.86)	2.62 (0.76)
	부산	2.60(0.88)	2.81(0.87)	2.63 (0.86)	2.68 (0.74)
	대구	2.59(0.86)	2.84(0.84)	2.73 (0.90)	2.72 (0.70)
	인천	2.90(0.84)	2.98(0.80)	2.75 (0.82)	2.87 (0.67)
	광주	2.46(0.90)	2.70(0.89)	2.46 (0.93)	2.54 (0.78)
	대전	2.54(0.85)	2.71(0.87)	2.73 (0.85)	2.66 (0.76)
	울산	2.67(0.90)	2.85(0.87)	2.70 (0.90)	2.74 (0.79)
	경기	2.51(0.84)	2.76(0.86)	2.62 (0.85)	2.63 (0.73)
	강원	2.59(0.85)	2.75(0.89)	2.67 (0.83)	2.67 (0.74)
	충북	2.55(0.80)	2.78(0.83)	2.75 (0.83)	2.69 (0.71)
	충남	2.51(0.84)	2.81(0.85)	2.56 (0.83)	2.63 (0.68)
	전북	2.47(0.84)	2.58(0.87)	2.63 (0.78)	2.56 (0.76)
	전남	2.43(0.81)	2.62(0.84)	2.56 (0.81)	2.54 (0.69)
	경북	2.71(0.87)	2.84(0.87)	2.84 (0.87)	2.80 (0.73)
	경남	2.55(0.81)	2.77(0.88)	2.64 (0.83)	2.65 (0.76)
	제주	2.71(0.80)	2.90(0.81)	2.73 (0.75)	2.78 (0.68)
	고	서울	2.73(0.85)	3.01(0.78)	2.73 (0.77)
부산		2.68(0.80)	3.01(0.75)	2.67 (0.79)	2.79 (0.63)
대구		2.77(0.84)	2.94(0.80)	2.54 (0.87)	2.75 (0.70)

구 분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	전체 평균	
고	인천	2.60(0.80)	2.89(0.82)	2.69 (0.83)	2.73 (0.69)
	광주	2.63(0.85)	3.06(0.63)	2.88 (0.71)	2.86 (0.54)
	대전	2.76(0.78)	3.13(0.67)	2.89 (0.70)	2.93 (0.59)
	울산	2.57(0.85)	2.82(0.83)	2.66 (0.84)	2.68 (0.70)
	경기	2.71(0.74)	3.03(0.70)	2.67 (0.75)	2.80 (0.61)
	강원	2.67(0.80)	2.89(0.76)	2.68 (0.71)	2.74 (0.63)
	충북	2.69(0.75)	3.02(0.67)	2.76 (0.76)	2.83 (0.58)
	충남	2.75(0.87)	3.00(0.77)	2.73 (0.80)	2.83 (0.69)
	전북	2.69(0.82)	3.07(0.65)	2.69 (0.66)	2.81 (0.59)
	전남	2.76(0.83)	2.90(0.84)	2.69 (0.78)	2.79 (0.75)
	경북	2.61(0.78)	2.77(0.82)	2.69 (0.81)	2.69 (0.71)
	경남	2.81(0.82)	3.04(0.78)	2.68 (0.83)	2.85 (0.69)
	제주	2.68(0.85)	2.92(0.75)	2.69 (0.73)	2.76 (0.67)
	대	서울	2.65(0.58)	2.84(0.58)	2.76 (0.60)
부산		2.66(0.76)	3.00(0.66)	2.63 (0.72)	2.77 (0.59)
대구		2.72(0.84)	3.00(0.71)	2.78 (0.78)	2.83 (0.64)
인천		2.70(0.86)	2.82(0.83)	2.57 (0.79)	2.70 (0.70)
광주		2.72(0.87)	3.00(0.67)	3.04 (0.82)	2.92 (0.60)
대전		2.85(0.76)	3.00(0.61)	2.89 (0.68)	2.91 (0.57)
울산		2.85(0.63)	2.94(0.65)	2.84 (0.59)	2.87 (0.49)
경기		2.65(0.81)	2.82(0.70)	2.67 (0.75)	2.71 (0.64)
강원		2.49(0.64)	2.46(0.58)	2.34 (0.62)	2.43 (0.46)
충북		2.51(0.66)	2.60(0.70)	2.41 (0.65)	2.51 (0.51)
충남		2.44(0.77)	3.08(0.59)	2.92 (0.59)	2.81 (0.46)
전북		2.40(0.65)	2.96(0.77)	2.44 (0.64)	2.60 (0.61)
전남		2.60(0.71)	3.05(0.62)	2.61 (0.83)	2.76 (0.57)
경북		2.36(0.85)	3.06(1.01)	2.49 (0.80)	2.64 (0.74)
경남		2.86(0.48)	3.00(0.47)	2.99 (0.63)	2.95 (0.40)
제주		2.68(0.78)	2.86(0.77)	2.74 (0.85)	2.76 (0.6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사회적 관심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5, 11218)=2.14, p<.001$). 사후검정 결과, 전북지역의 중학교 응답자가 강원지역의 중학교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정치·사회적 관심 정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환경 이슈에 대한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15, 11213)=2.02, p<.05$).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전북지역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냈다.

표 IV-3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사회적 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2.64	3	7.55	15.68 ^{***}
학교지역	9.89	15	0.66	1.37
학교급*학교지역	46.31	45	1.03	2.14 ^{***}
오차	5398.66	11218	0.48	

* $p<.05$, ** $p<.01$, *** $p<.001$

4) 정치적 자아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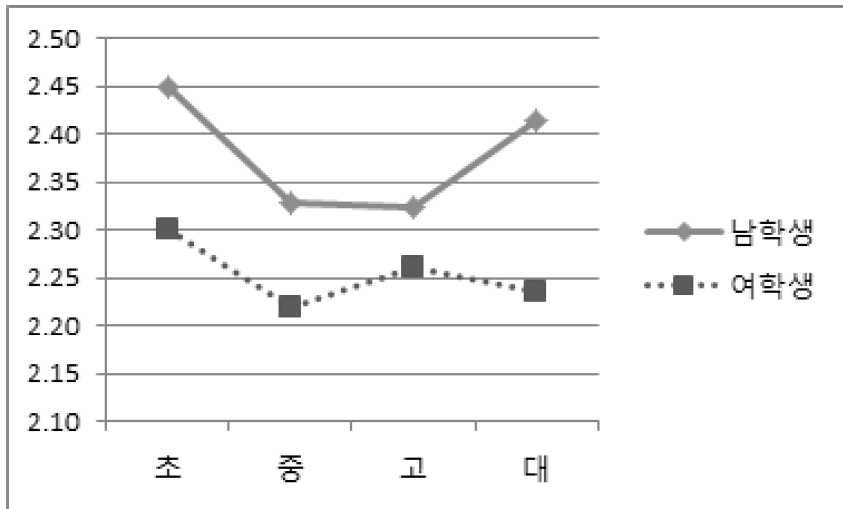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표 IV-3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남	2.49 (0.88)	2.43(0.88)	2.46(0.89)	2.38 (0.91)	2.51(0.91)	2.46(0.75)
	여	2.24 (0.78)	2.33(0.86)	2.27(0.81)	2.32 (0.87)	2.36(0.84)	2.30(0.69)
중	남	2.40 (0.83)	2.27(0.81)	2.34(0.84)	2.25 (0.87)	2.40(0.85)	2.33(0.72)
	여	2.22 (0.73)	2.15(0.74)	2.16(0.74)	2.24 (0.82)	2.32(0.79)	2.22(0.62)
고	남	2.36 (0.81)	2.21(0.79)	2.28(0.81)	2.37 (0.88)	2.44(0.83)	2.33(0.69)
	여	2.23 (0.69)	2.12(0.70)	2.11(0.69)	2.35 (0.86)	2.37(0.74)	2.24(0.59)
대	남	2.51 (0.70)	2.39(0.76)	2.43(0.80)	2.29 (0.86)	2.45(0.73)	2.42(0.61)
	여	2.33 (0.64)	2.22(0.68)	2.24(0.72)	2.13 (0.73)	2.26(0.70)	2.24(0.55)

정치적 자아효능감에 대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74)=15.26,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74)=85.40, p<.001$).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가 중등학교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나타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가 중등학교 응답자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치 참여에 대한 문항의 경우, 대학생이 모든 학교급 응답자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기에 속하는 응답자가 가장 낮은 정치 참여 의식을 보였다.



【그림 IV-1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표 IV-3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48	3	6.83	15.26***
성별	38.22	1	38.22	85.40***
학교급*성별	2.39	3	0.80	1.78
오차	5045.28	11274	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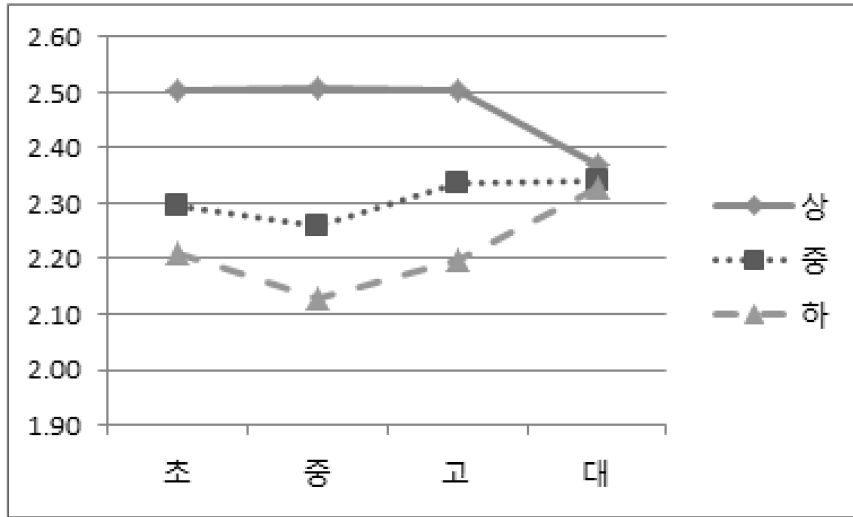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 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표 IV-3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상	2.49 (0.86)	2.53 (0.91)	2.49(0.88)	2.44(0.92)	2.58(0.89)	2.51(0.74)
	중	2.28 (0.81)	2.29 (0.84)	2.29(0.83)	2.30(0.86)	2.34(0.86)	2.30(0.70)
	하	2.33 (0.87)	2.16 (0.85)	2.25(0.85)	2.07(0.83)	2.12(0.85)	2.19(0.73)
중	상	2.58 (0.83)	2.45 (0.86)	2.46(0.86)	2.41(0.92)	2.65(0.84)	2.51(0.70)
	중	2.30 (0.76)	2.19 (0.75)	2.24(0.77)	2.25(0.82)	2.35(0.80)	2.27(0.65)
	하	2.15 (0.76)	2.10 (0.76)	2.13(0.78)	2.11(0.81)	2.16(0.80)	2.13(0.68)
고	상	2.48 (0.85)	2.33 (0.88)	2.29(0.81)	2.62(0.95)	2.55(0.82)	2.45(0.72)
	중	2.33 (0.76)	2.20 (0.76)	2.22(0.76)	2.38(0.88)	2.45(0.79)	2.32(0.64)
	하	2.20 (0.72)	2.07 (0.70)	2.13(0.73)	2.25(0.81)	2.29(0.76)	2.19(0.61)
대	상	2.49 (0.72)	2.31 (0.76)	2.43(0.85)	2.24(0.78)	2.46(0.72)	2.39(0.61)
	중	2.42 (0.67)	2.31 (0.71)	2.36(0.77)	2.16(0.77)	2.37(0.68)	2.33(0.57)
	하	2.44 (0.69)	2.34 (0.77)	2.34(0.77)	2.25(0.83)	2.41(0.74)	2.36(0.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921)=41.17, p<.001$).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취수준이 상 수준에서 중 수준으로, 중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정도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대학교급에서 나타나지 않았다(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1238)=4.76,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대학교 응답자들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개별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림 IV-2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표 IV-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8	3	0.56	1.26
학업성취수준	36.41	2	18.20	41.17***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0.56	6	1.76	3.98***
오차	4829.38	10921	0.44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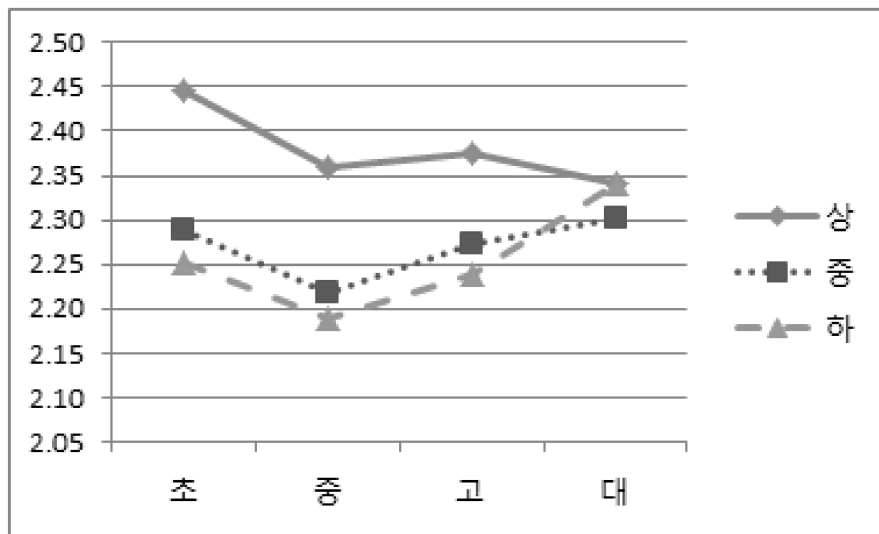
표 IV-4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상	2.42 (0.84)	2.46 (0.87)	2.42 (0.85)	2.42 (0.89)	2.53 (0.87)	2.45 (0.72)
	중	2.28 (0.80)	2.31 (0.84)	2.28 (0.81)	2.27 (0.85)	2.34 (0.84)	2.30 (0.69)
	하	2.29 (0.84)	2.18 (0.82)	2.27 (0.85)	2.20 (0.88)	2.26 (0.86)	2.24 (0.68)
중	상	2.43 (0.79)	2.30 (0.78)	2.35 (0.81)	2.29 (0.86)	2.47 (0.82)	2.37 (0.68)
	중	2.25 (0.76)	2.16 (0.75)	2.18 (0.76)	2.23 (0.83)	2.29 (0.80)	2.22 (0.66)
	하	2.23 (0.79)	2.13 (0.77)	2.18 (0.79)	2.16 (0.79)	2.27 (0.82)	2.20 (0.65)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고	상	2.34 (0.79)	2.24 (0.81)	2.25 (0.78)	2.40 (0.88)	2.47 (0.80)	2.34 (0.67)
	중	2.29 (0.72)	2.14 (0.68)	2.20 (0.72)	2.32 (0.82)	2.40 (0.75)	2.27 (0.60)
	하	2.25 (0.73)	2.11 (0.75)	2.11 (0.75)	2.35 (0.90)	2.35 (0.80)	2.23 (0.64)
대	상	2.45 (0.70)	2.35 (0.76)	2.41 (0.83)	2.25 (0.84)	2.40 (0.69)	2.37 (0.61)
	중	2.38 (0.62)	2.27 (0.66)	2.28 (0.70)	2.18 (0.76)	2.35 (0.71)	2.29 (0.54)
	하	2.50 (0.79)	2.33 (0.82)	2.34 (0.82)	2.20 (0.88)	2.33 (0.81)	2.34 (0.6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F(2, 10781)=29.96$, $p<.001$)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수준 역시 높아졌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수준과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양적 관계가 도출되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어 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든 문항에 대하여 나타났다.



【그림 IV-2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표 IV-4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83	3	2.28	5.29**
경제수준	25.79	2	12.90	29.96***
학교급*경제수준	4.61	6	0.77	1.78
오차	4641.16	10781	0.4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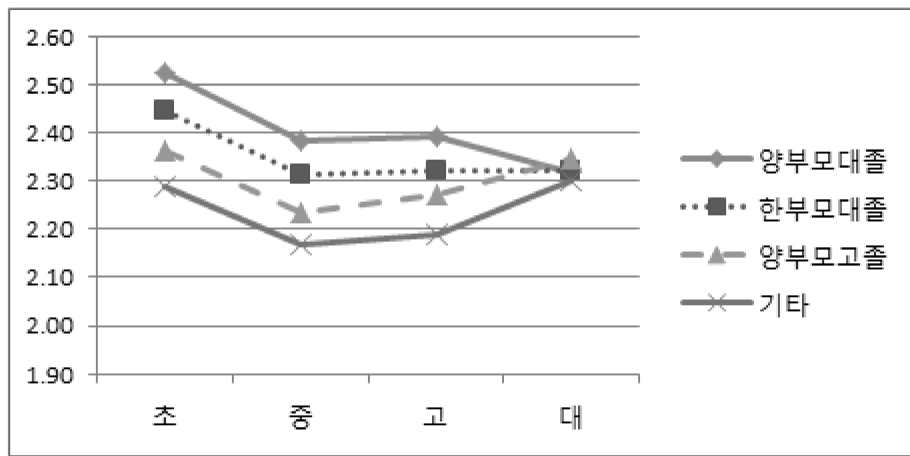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표 IV-4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51(0.85)	2.56(0.90)	2.49(0.86)	2.47 (0.90)	2.64(0.89)	2.53 (0.72)
	한분만대졸이상	2.43(0.85)	2.43(0.92)	2.43(0.88)	2.42 (0.90)	2.51(0.91)	2.44 (0.76)
	양부모고졸이하	2.29(0.85)	2.37(0.88)	2.37(0.83)	2.34 (0.93)	2.45(0.88)	2.36 (0.73)
	기타	2.30(0.83)	2.28(0.84)	2.29(0.85)	2.27 (0.87)	2.31(0.85)	2.29 (0.70)
중	양부모대졸이상	2.43(0.80)	2.32(0.81)	2.36(0.82)	2.34 (0.88)	2.52(0.84)	2.39 (0.69)
	한분만대졸이상	2.38(0.82)	2.26(0.82)	2.33(0.87)	2.22 (0.84)	2.41(0.83)	2.32 (0.69)
	양부모고졸이하	2.27(0.75)	2.17(0.75)	2.20(0.76)	2.26 (0.84)	2.31(0.82)	2.24 (0.66)
	기타	2.20(0.76)	2.12(0.73)	2.15(0.74)	2.17 (0.81)	2.21(0.78)	2.17 (0.65)
고	양부모대졸이상	2.39(0.83)	2.27(0.83)	2.30(0.83)	2.46 (0.92)	2.52(0.83)	2.39 (0.72)
	한분만대졸이상	2.35(0.74)	2.19(0.73)	2.23(0.74)	2.39 (0.88)	2.42(0.78)	2.31 (0.62)
	양부모고졸이하	2.25(0.72)	2.12(0.70)	2.14(0.71)	2.33 (0.85)	2.37(0.75)	2.24 (0.60)
	기타	2.19(0.68)	2.06(0.69)	2.09(0.70)	2.22 (0.79)	2.28(0.75)	2.17 (0.59)
대	양부모대졸이상	2.45(0.68)	2.31(0.73)	2.36(0.80)	2.23 (0.82)	2.36(0.69)	2.34 (0.59)
	한분만대졸이상	2.40(0.72)	2.33(0.74)	2.31(0.79)	2.16 (0.83)	2.32(0.76)	2.30 (0.62)
	양부모고졸이하	2.43(0.64)	2.30(0.73)	2.35(0.72)	2.28 (0.74)	2.42(0.71)	2.36 (0.55)
	기타	2.35(0.71)	2.33(0.74)	2.28(0.73)	2.10 (0.84)	2.33(0.80)	2.28 (0.62)

정치적 자아효능감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66)=24.55, p<.001$). 양부모가 모두 대졸이상인 경우, 한부모만 대졸 이상인 경우, 양부모가 모두 고졸이하인 경우, 그리고 기타 가정으로 갈수록 점차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낮아졌다. 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에 대한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의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에 대한 수준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림 IV-2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표 IV-4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4.56	3	8.19	18.43***
부모학력수준	32.70	3	10.90	24.55***
학교급*부모학력수준	5.19	9	0.58	1.30
오차	5002.78	11266	0.4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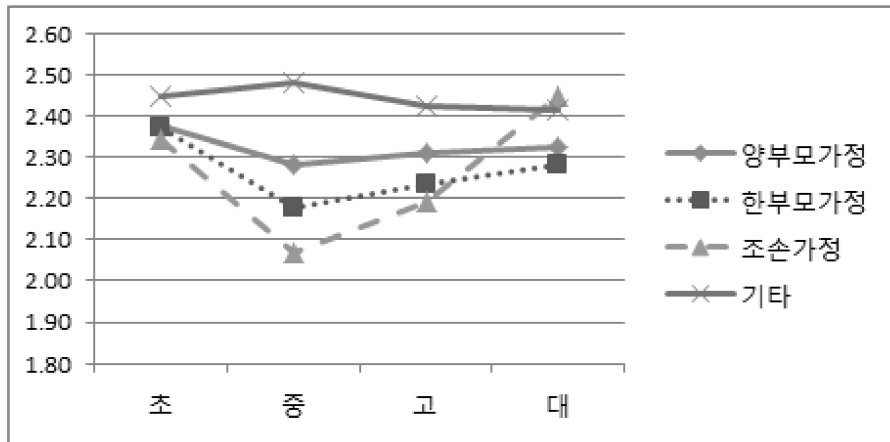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표 IV-4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양부모가정	2.37 (0.84)	2.38 (0.87)	2.37 (0.86)	2.35 (0.89)	2.44 (0.88)	2.38 (0.72)
	한부모가정	2.41 (0.85)	2.36 (0.89)	2.40 (0.85)	2.39 (0.82)	2.34 (0.85)	2.38 (0.74)
	조손가정	2.33 (0.84)	2.41 (0.81)	2.29 (0.85)	2.16 (0.95)	2.44 (0.85)	2.33 (0.67)
	기타	2.48 (0.95)	2.53 (1.04)	2.51 (0.98)	2.44 (0.97)	2.38 (0.96)	2.47 (0.86)
중	양부모가정	2.32 (0.79)	2.23 (0.78)	2.26 (0.80)	2.26 (0.85)	2.38 (0.82)	2.29 (0.68)
	한부모가정	2.26 (0.77)	2.12 (0.75)	2.14 (0.78)	2.12 (0.77)	2.21 (0.78)	2.17 (0.65)
	조손가정	2.21 (0.76)	2.05 (0.66)	2.09 (0.64)	2.09 (0.71)	2.02 (0.72)	2.09 (0.64)
	기타	2.70 (0.86)	2.31 (0.91)	2.47 (0.79)	2.42 (0.80)	2.38 (0.92)	2.45 (0.74)
고	양부모가정	2.30 (0.76)	2.18 (0.76)	2.21 (0.76)	2.36 (0.87)	2.42 (0.79)	2.29 (0.65)
	한부모가정	2.24 (0.72)	2.09 (0.69)	2.12 (0.73)	2.33 (0.86)	2.32 (0.81)	2.22 (0.63)
	조손가정	2.35 (0.67)	2.12 (0.61)	2.13 (0.61)	2.00 (0.51)	2.47 (0.74)	2.21 (0.49)
	기타	2.20 (0.41)	2.15 (0.37)	2.38 (0.50)	2.35 (0.70)	2.45 (0.65)	2.31 (0.44)
대	양부모가정	2.43 (0.67)	2.31 (0.72)	2.35 (0.77)	2.22 (0.80)	2.37 (0.71)	2.33 (0.58)
	한부모가정	2.38 (0.77)	2.29 (0.85)	2.18 (0.80)	2.13 (0.89)	2.20 (0.78)	2.24 (0.71)
	조손가정	2.63 (1.47)	2.07 (0.99)	2.68 (1.46)	2.38 (1.47)	2.61 (0.56)	2.48 (1.16)
	기타	2.57 (0.73)	2.73 (0.73)	2.66 (0.69)	2.03 (0.80)	2.79 (1.04)	2.56 (0.6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난 바($F(3, 11244)=3.13, p<.01$)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 양부모 가정의 응답 청소년들이 한부모 가정의 응답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토론과 정치적 의견 및 정치적 이해의 평균 점수에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한부모 가정의 응답자들은 양부모 가정의 응답자들에 비해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

표 IV-4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38	3	1.13	2.50
가족구성	4.23	3	1.41	3.13*
학교급*가족구성	2.28	9	0.25	0.56
오차	5073.67	11244	0.45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표 IV-4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서울	2.34(0.84)	2.37(0.88)	2.36(0.88)	2.29(0.88)	2.41(0.92)	2.35(0.72)
	부산	2.43(0.82)	2.45(0.87)	2.43(0.85)	2.40(0.90)	2.48(0.85)	2.44(0.70)
	대구	2.41(0.87)	2.38(0.86)	2.37(0.87)	2.30(0.88)	2.39(0.86)	2.37(0.73)
	인천	2.44(0.91)	2.44(0.98)	2.35(0.92)	2.34(0.99)	2.44(0.95)	2.40(0.80)
	광주	2.32(0.82)	2.25(0.81)	2.31(0.81)	2.43(0.85)	2.28(0.79)	2.32(0.70)
	대전	2.33(0.92)	2.36(0.91)	2.28(0.84)	2.24(0.91)	2.41(0.90)	2.33(0.79)
	울산	2.16(0.79)	2.27(0.82)	2.22(0.76)	2.33(0.86)	2.35(0.79)	2.27(0.63)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초	경기	2.26(0.73)	2.24(0.74)	2.33(0.74)	2.35(0.80)	2.36(0.83)	2.31(0.63)
	강원	2.39(0.85)	2.37(0.93)	2.36(0.92)	2.42(0.95)	2.51(0.94)	2.41(0.76)
	충북	2.38(0.82)	2.49(0.92)	2.45(0.90)	2.45(0.92)	2.52(0.88)	2.46(0.75)
	충남	2.29(0.96)	2.31(0.92)	2.30(0.92)	2.18(0.88)	2.41(0.92)	2.30(0.78)
	전북	2.59(0.83)	2.54(0.81)	2.55(0.83)	2.63(0.88)	2.62(0.86)	2.59(0.72)
	전남	2.25(0.92)	2.25(0.85)	2.27(0.86)	2.28(0.89)	2.31(0.94)	2.27(0.77)
	경북	2.43(0.82)	2.34(0.79)	2.34(0.80)	2.34(0.85)	2.33(0.83)	2.35(0.73)
	경남	2.36(0.84)	2.41(0.90)	2.32(0.82)	2.30(0.87)	2.52(0.94)	2.38(0.70)
	제주	2.48(0.90)	2.37(0.92)	2.38(0.92)	2.35(0.95)	2.40(0.92)	2.39(0.82)
중	서울	2.32(0.84)	2.21(0.82)	2.21(0.83)	2.17(0.85)	2.33(0.85)	2.25(0.71)
	부산	2.31(0.77)	2.18(0.77)	2.23(0.79)	2.22(0.86)	2.34(0.82)	2.26(0.67)
	대구	2.31(0.82)	2.25(0.84)	2.28(0.86)	2.23(0.86)	2.38(0.85)	2.29(0.72)
	인천	2.39(0.74)	2.35(0.76)	2.42(0.78)	2.53(0.82)	2.51(0.77)	2.44(0.65)
	광주	2.33(0.79)	2.18(0.77)	2.26(0.77)	2.28(0.82)	2.34(0.87)	2.28(0.68)
	대전	2.30(0.80)	2.19(0.74)	2.26(0.80)	2.26(0.83)	2.27(0.81)	2.26(0.68)
	울산	2.29(0.82)	2.27(0.78)	2.31(0.81)	2.33(0.85)	2.45(0.84)	2.33(0.69)
	경기	2.21(0.72)	2.12(0.75)	2.14(0.75)	2.15(0.81)	2.23(0.79)	2.17(0.64)
	강원	2.39(0.78)	2.33(0.80)	2.35(0.82)	2.34(0.84)	2.42(0.80)	2.37(0.71)
	충북	2.27(0.69)	2.26(0.72)	2.28(0.72)	2.25(0.81)	2.38(0.76)	2.29(0.57)
	충남	2.23(0.73)	2.13(0.73)	2.12(0.74)	2.19(0.89)	2.34(0.82)	2.20(0.64)
	전북	2.37(0.78)	2.25(0.80)	2.33(0.78)	2.40(0.80)	2.33(0.76)	2.33(0.68)
	전남	2.21(0.73)	2.08(0.70)	2.21(0.70)	2.28(0.80)	2.19(0.73)	2.19(0.60)
	경북	2.44(0.90)	2.31(0.84)	2.43(0.88)	2.36(0.92)	2.46(0.88)	2.40(0.75)
	경남	2.34(0.83)	2.22(0.77)	2.31(0.83)	2.32(0.75)	2.50(0.85)	2.34(0.69)
	제주	2.50(0.79)	2.32(0.73)	2.37(0.79)	2.24(0.78)	2.54(0.78)	2.40(0.63)
고	서울	2.32(0.83)	2.19(0.78)	2.21(0.81)	2.29(0.92)	2.44(0.80)	2.29(0.69)
	부산	2.32(0.75)	2.18(0.77)	2.22(0.76)	2.40(0.88)	2.45(0.80)	2.31(0.65)
	대구	2.33(0.77)	2.14(0.76)	2.19(0.76)	2.40(0.84)	2.38(0.79)	2.29(0.63)
	인천	2.19(0.74)	2.14(0.74)	2.11(0.75)	2.14(0.85)	2.28(0.73)	2.17(0.60)

구 분	정치적 지식	토론	정치적 의견	정치 참여	정치적 이해	전체평균	
고	광주	2.07(0.75)	1.92(0.72)	1.97(0.77)	2.35(0.77)	2.21(0.79)	2.10(0.62)
	대전	2.33(0.78)	2.30(0.82)	2.30(0.84)	2.47(0.90)	2.45(0.83)	2.37(0.69)
	울산	2.15(0.71)	2.05(0.70)	2.11(0.73)	2.19(0.85)	2.29(0.76)	2.16(0.61)
	경기	2.29(0.65)	2.17(0.55)	2.16(0.58)	2.38(0.77)	2.47(0.70)	2.29(0.47)
	강원	2.23(0.67)	2.07(0.69)	2.15(0.69)	2.33(0.83)	2.32(0.77)	2.22(0.59)
	충북	2.32(0.75)	2.22(0.79)	2.23(0.77)	2.43(0.91)	2.43(0.81)	2.33(0.68)
	충남	2.28(0.79)	2.16(0.81)	2.19(0.81)	2.38(0.91)	2.35(0.83)	2.27(0.69)
	전북	2.28(0.69)	2.14(0.68)	2.18(0.70)	2.44(0.77)	2.50(0.72)	2.31(0.58)
	전남	2.40(0.79)	2.29(0.74)	2.25(0.73)	2.36(0.93)	2.46(0.81)	2.35(0.66)
	경북	2.35(0.75)	2.20(0.70)	2.20(0.70)	2.26(0.84)	2.35(0.73)	2.27(0.64)
	경남	2.35(0.71)	2.25(0.76)	2.27(0.77)	2.47(0.80)	2.49(0.77)	2.37(0.63)
	제주	2.36(0.76)	2.19(0.69)	2.32(0.77)	2.46(0.87)	2.50(0.80)	2.37(0.65)
대	서울	2.43(0.53)	2.42(0.70)	2.44(0.78)	2.17(0.67)	2.49(0.55)	2.39(0.47)
	부산	2.41(0.65)	2.25(0.76)	2.28(0.71)	2.24(0.89)	2.33(0.77)	2.30(0.61)
	대구	2.42(0.72)	2.26(0.82)	2.31(0.85)	2.29(0.88)	2.32(0.83)	2.32(0.68)
	인천	2.60(0.85)	2.40(0.87)	2.24(0.75)	2.39(0.80)	2.50(0.83)	2.43(0.67)
	광주	2.41(0.79)	2.25(0.75)	2.44(0.88)	2.35(0.89)	2.39(0.93)	2.37(0.73)
	대전	2.43(0.76)	2.41(0.82)	2.38(0.73)	2.38(0.94)	2.43(0.77)	2.41(0.68)
	울산	2.55(0.75)	2.60(0.75)	2.62(0.86)	2.57(0.81)	2.56(0.77)	2.58(0.62)
	경기	2.36(0.71)	2.34(0.70)	2.36(0.75)	2.12(0.86)	2.19(0.79)	2.27(0.61)
	강원	2.50(0.51)	2.17(0.56)	2.46(0.89)	2.41(0.87)	2.38(0.88)	2.39(0.54)
	충북	2.46(0.79)	2.14(0.64)	2.21(0.68)	2.08(0.71)	2.37(0.57)	2.25(0.54)
	충남	2.39(0.58)	2.34(0.58)	2.32(0.70)	1.92(0.78)	2.18(0.68)	2.23(0.55)
	전북	2.17(1.06)	1.97(0.97)	2.28(1.09)	2.29(0.80)	2.28(0.79)	2.20(0.81)
	전남	2.45(0.62)	2.18(0.77)	2.11(0.89)	1.96(0.75)	2.19(0.74)	2.18(0.60)
	경북	2.14(0.95)	1.83(0.80)	1.89(0.91)	1.68(0.76)	2.03(0.84)	1.91(0.68)
	경남	2.37(0.51)	2.31(0.56)	2.24(0.50)	2.22(0.61)	2.18(0.46)	2.26(0.38)
	제주	2.47(0.78)	2.26(0.71)	2.48(0.84)	2.31(0.88)	2.54(0.81)	2.41(0.5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정치적 자아효능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에 대한 유의미한 주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학교지역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다($F(15, 11218)=1.88,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정치 참여에 대하여 학교급의 주효과가 나타났고($F(15, 11211)=2.85, p<.001$), 사후검정 결과, 울산지역에 위치한 응답자가 타 지역의 응답자에 비해 정치 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표 IV-4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개인시민성: 정치적 자아효능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20	3	3.07	6.83***
학교지역	9.25	15	0.62	1.37
학교급*학교지역	38.01	45	0.84	1.88***
오차	5038.39	11218	0.45	

* $p<.05$, ** $p<.01$, *** $p<.001$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분석 결과

1) 투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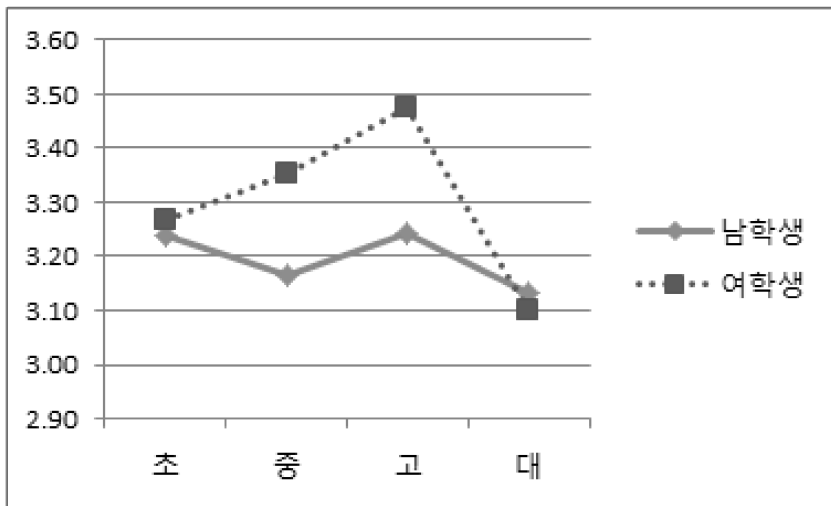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표 IV-4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남	3.39(0.77)	3.09 (0.87)	3.24 (0.76)
	여	3.46(0.69)	3.08 (0.80)	3.27 (0.67)
중	남	3.41(0.76)	2.93 (0.90)	3.17 (0.74)
	여	3.61(0.61)	3.09 (0.83)	3.35 (0.64)
고	남	3.50(0.70)	2.98 (0.86)	3.24 (0.70)
	여	3.72(0.54)	3.22 (0.78)	3.47 (0.57)
대	남	3.40(0.64)	2.88 (0.78)	3.14 (0.60)
	여	3.34(0.63)	2.88 (0.78)	3.11 (0.6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에 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투표참여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나 대학교에 이르러 전 학교급에 걸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74)=36.17, p<.001$). 한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성별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F(1, 11274)=46.73, p<.001$).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74)=18.06,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높아지던 평균 점수는 대학교 응답자에서 가장 낮아지며 발달단계에 따른 역U자형 곡선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표 IV-5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9.39	3	16.46	36.17***
성별	21.27	1	21.27	46.73***
학교급*성별	24.66	3	8.22	18.06***
오차	5131.27	11274	0.4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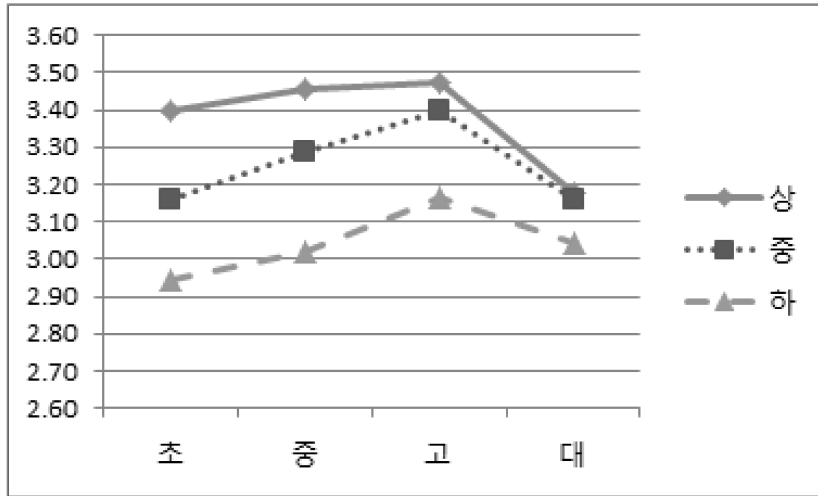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표 IV-5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평균	
초	상	3.59(0.64)	3.22 (0.80)	3.41 (0.65)
	중	3.32(0.76)	3.00 (0.83)	3.16 (0.73)
	하	3.07(0.87)	2.79 (0.91)	2.93 (0.84)
중	상	3.70(0.60)	3.20 (0.80)	3.45 (0.61)
	중	3.55(0.66)	3.02 (0.87)	3.28 (0.67)
	하	3.23(0.79)	2.80 (0.89)	3.02 (0.76)
고	상	3.72(0.56)	3.28 (0.80)	3.50 (0.60)
	중	3.67(0.59)	3.16 (0.81)	3.42 (0.62)
	하	3.45(0.72)	2.93 (0.86)	3.19 (0.70)
대	상	3.47(0.53)	2.92 (0.72)	3.19 (0.50)
	중	3.40(0.62)	2.95 (0.77)	3.17 (0.60)
	하	3.31(0.66)	2.79 (0.73)	3.05 (0.6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921)=28.87, p<.001$). 학업성취수준이 한단계씩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투표참여의 평균점수가 높아졌는데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0921)=4.69, p<.001$).

개별 문항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패턴의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와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림 IV-2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표 IV-5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7.93	3	12.64	28.44***
학업성취수준	57.75	2	28.87	64.94***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2.50	6	2.08	4.69***
오차	4855.65	10921	0.44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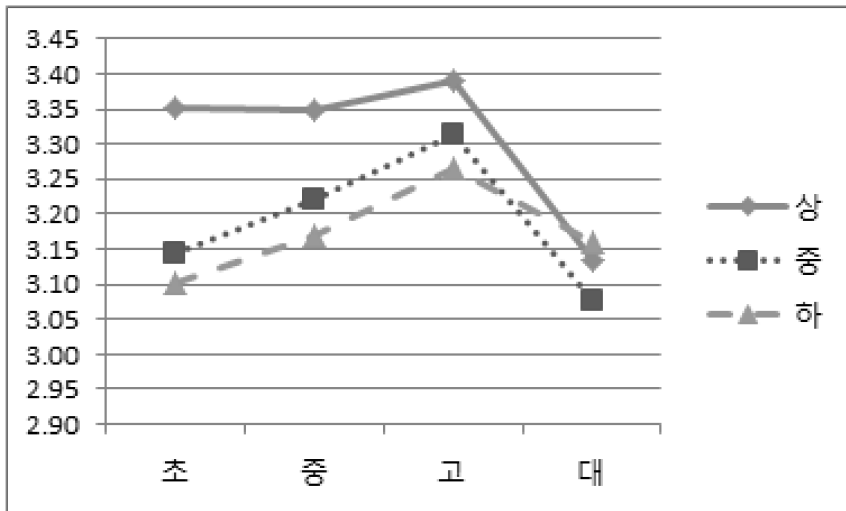
표 IV-5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상	3.53(0.68)	3.18 (0.81)	3.35 (0.67)
	중	3.31(0.75)	2.97 (0.82)	3.14 (0.72)
	하	3.29(0.82)	2.92 (0.90)	3.11 (0.79)
중	상	3.61(0.63)	3.09 (0.85)	3.35 (0.64)
	중	3.47(0.71)	2.96 (0.88)	3.22 (0.71)
	하	3.41(0.75)	2.92 (0.89)	3.17 (0.73)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고	상	3.65(0.64)	3.16 (0.81)	3.40 (0.64)
	중	3.61(0.61)	3.08 (0.81)	3.34 (0.62)
	하	3.55(0.69)	3.04 (0.89)	3.29 (0.71)
대	상	3.38(0.68)	2.93 (0.82)	3.15 (0.65)
	중	3.36(0.59)	2.81 (0.74)	3.08 (0.57)
	하	3.39(0.67)	2.94 (0.79)	3.17 (0.6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781)=30.69$, $p<.001$). 경제수준이 상 수준인 응답자는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태도를 나타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들은 경제수준에 따른 투표참여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2, 10781)=4.08$).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역시 투표참여의 전체 평균과 동일한 유형의 경제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응답자들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및 정보 수집 의지를 나타냈다.



【그림 IV-2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표 IV-5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6.90	3	15.63	34.46***
경제수준	27.85	2	13.92	30.69***
학교급*경제수준	11.12	6	1.85	4.08***
오차	4891.54	10781	0.4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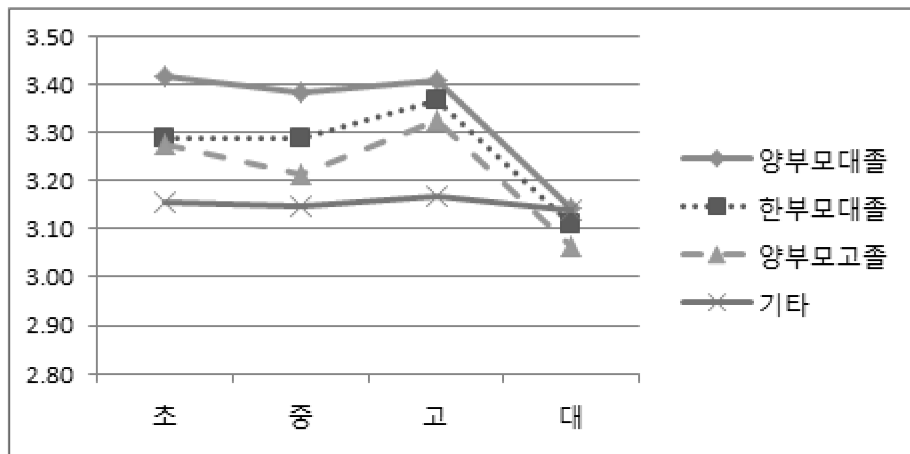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표 IV-5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58 (0.66)	3.26 (0.80)	3.42 (0.67)
	한분만대졸이상	3.50 (0.73)	3.09 (0.88)	3.29 (0.71)
	양부모고졸이하	3.44 (0.71)	3.10 (0.81)	3.27 (0.70)
	기타	3.32 (0.76)	2.99 (0.83)	3.15 (0.73)
중	양부모대졸이상	3.62 (0.65)	3.15 (0.84)	3.38 (0.67)
	한분만대졸이상	3.54 (0.70)	3.03 (0.87)	3.28 (0.68)
	양부모고졸이하	3.48 (0.71)	2.94 (0.86)	3.21 (0.69)
	기타	3.40 (0.72)	2.89 (0.89)	3.14 (0.72)
고	양부모대졸이상	3.67 (0.61)	3.20 (0.79)	3.43 (0.62)
	한분만대졸이상	3.66 (0.59)	3.15 (0.81)	3.41 (0.61)
	양부모고졸이하	3.59 (0.61)	3.07 (0.83)	3.33 (0.64)
	기타	3.47 (0.74)	2.94 (0.89)	3.21 (0.73)
대	양부모대졸이상	3.37 (0.64)	2.92 (0.77)	3.15 (0.61)
	한분만대졸이상	3.39 (0.63)	2.85 (0.79)	3.12 (0.61)
	양부모고졸이하	3.36 (0.60)	2.82 (0.76)	3.09 (0.58)
	기타	3.37 (0.72)	2.89 (0.85)	3.13 (0.7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F(3, 11266)=24.55, p<.001$), 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 한부모만 대졸 이상, 부모가 모두 고졸 이하, 기타 유형으로 갈수록 투표참여에 대한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개별 문항에 대한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는데 투표참여 의지의 경우 한부모 이상이 대졸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정보 수집 의지의 경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력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2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표 IV-5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4.90	3	11.63	25.64***
부모학력수준	33.80	3	11.27	24.84***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57	9	0.73	1.61
오차	5110.88	11266	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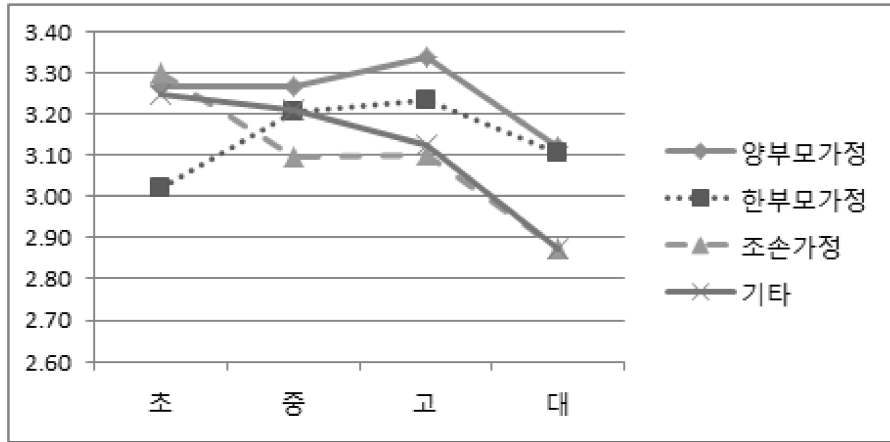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표 IV-5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44 (0.72)	3.10 (0.84)	3.27 (0.71)
	한부모가정	3.16 (0.86)	2.85 (0.86)	3.00 (0.80)
	조손가정	3.39 (0.78)	3.12 (0.76)	3.25 (0.70)
	기타	3.41 (0.60)	3.07 (0.70)	3.24 (0.51)
중	양부모가정	3.51 (0.70)	3.01 (0.87)	3.26 (0.70)
	한부모가정	3.46 (0.69)	2.94 (0.92)	3.20 (0.71)
	조손가정	3.31 (0.81)	2.88 (0.95)	3.09 (0.81)
	기타	3.32 (0.82)	3.04 (0.81)	3.18 (0.74)
고	양부모가정	3.61 (0.62)	3.11 (0.82)	3.36 (0.64)
	한부모가정	3.56 (0.73)	3.02 (0.87)	3.29 (0.72)
	조손가정	3.34 (0.94)	2.93 (1.14)	3.14 (0.97)
	기타	3.58 (0.62)	3.21 (0.82)	3.40 (0.61)
대	양부모가정	3.37 (0.63)	2.88 (0.78)	3.13 (0.60)
	한부모가정	3.40 (0.60)	2.89 (0.79)	3.15 (0.61)
	조손가정	3.07 (0.99)	2.33 (1.09)	2.70 (1.01)
	기타	3.05 (1.06)	2.82 (0.74)	2.93 (0.8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한 바($F(3, 11244)=5.07, p<.01$)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투표참여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투표참여 의지의 경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정보 수집 의지의 경우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IV-2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호작용

표 IV-5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05	3	1.35	2.93*
가족구성	7.02	3	2.34	5.07**
학교급*가족구성	7.41	9	0.82	1.79
오차	5181.86	11244	0.46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표 IV-5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평균(표준편차)

구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서울	3.47 (0.71)	3.06 (0.88)	3.26 (0.72)
	부산	3.54 (0.65)	3.18 (0.79)	3.36 (0.63)
	대구	3.35 (0.67)	3.06 (0.84)	3.20 (0.68)
	인천	3.47 (0.68)	3.08 (0.81)	3.27 (0.68)
	광주	3.58 (0.63)	3.29 (0.76)	3.44 (0.62)
	대전	3.45 (0.72)	3.00 (0.85)	3.22 (0.70)
	울산	3.57 (0.53)	3.22 (0.73)	3.39 (0.57)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초	경기	3.39 (0.80)	3.07 (0.87)	3.23 (0.77)	
	강원	3.29 (0.82)	3.05 (0.87)	3.17 (0.74)	
	충북	3.31 (0.69)	3.19 (0.67)	3.25 (0.63)	
	충남	3.38 (0.76)	3.14 (0.82)	3.26 (0.74)	
	전북	3.19 (0.82)	2.82 (0.84)	3.01 (0.72)	
	전남	3.33 (0.80)	3.00 (0.88)	3.17 (0.78)	
	경북	3.33 (0.75)	3.06 (0.80)	3.20 (0.71)	
	경남	3.46 (0.69)	3.11 (0.79)	3.29 (0.67)	
	제주	3.56 (0.72)	3.24 (0.75)	3.40 (0.68)	
	중	서울	3.47 (0.73)	2.96 (0.88)	3.22 (0.71)
부산		3.60 (0.62)	3.16 (0.78)	3.38 (0.62)	
대구		3.54 (0.70)	2.91 (0.91)	3.22 (0.71)	
인천		3.49 (0.69)	2.99 (0.91)	3.24 (0.71)	
광주		3.61 (0.67)	3.03 (0.84)	3.32 (0.65)	
대전		3.50 (0.76)	3.06 (0.88)	3.28 (0.74)	
울산		3.40 (0.75)	3.00 (0.80)	3.20 (0.70)	
경기		3.51 (0.72)	2.99 (0.89)	3.25 (0.71)	
강원		3.59 (0.54)	3.18 (0.75)	3.39 (0.56)	
충북		3.47 (0.75)	2.84 (1.02)	3.16 (0.78)	
충남		3.54 (0.66)	3.06 (0.89)	3.30 (0.70)	
전북		3.48 (0.74)	3.00 (0.82)	3.24 (0.70)	
전남		3.54 (0.64)	3.13 (0.81)	3.33 (0.63)	
경북		3.45 (0.73)	2.93 (0.85)	3.19 (0.70)	
경남		3.45 (0.67)	2.98 (0.84)	3.22 (0.68)	
제주		3.60 (0.63)	3.20 (0.84)	3.40 (0.65)	
고		서울	3.57 (0.68)	3.09 (0.84)	3.33 (0.67)
		부산	3.59 (0.62)	3.13 (0.77)	3.36 (0.60)
		대구	3.47 (0.77)	3.00 (0.85)	3.23 (0.75)
	인천	3.61 (0.65)	3.02 (0.92)	3.32 (0.69)	

구 분	투표참여 의지	정보 수집 의지	전체 평균	
고	광주	3.62 (0.63)	3.04 (0.89)	3.33 (0.67)
	대전	3.57 (0.67)	3.16 (0.83)	3.36 (0.67)
	울산	3.62 (0.59)	3.19 (0.74)	3.40 (0.58)
	경기	3.64 (0.62)	3.12 (0.82)	3.38 (0.64)
	강원	3.47 (0.71)	2.88 (0.82)	3.18 (0.70)
	충북	3.67 (0.53)	3.12 (0.90)	3.39 (0.64)
	충남	3.74 (0.50)	3.28 (0.78)	3.51 (0.54)
	전북	3.62 (0.73)	3.09 (0.85)	3.35 (0.71)
	전남	3.63 (0.65)	3.20 (0.77)	3.42 (0.65)
	경북	3.65 (0.61)	3.07 (0.86)	3.36 (0.65)
	경남	3.57 (0.62)	3.00 (0.83)	3.29 (0.64)
	제주	3.53 (0.63)	2.98 (0.87)	3.25 (0.65)
대	서울	3.47 (0.51)	3.06 (0.70)	3.26 (0.47)
	부산	3.15 (0.65)	2.60 (0.74)	2.88 (0.60)
	대구	3.56 (0.50)	3.07 (0.75)	3.32 (0.56)
	인천	3.64 (0.53)	2.79 (0.88)	3.21 (0.58)
	광주	3.17 (0.43)	2.81 (0.59)	2.99 (0.43)
	대전	3.13 (0.84)	2.86 (0.81)	2.99 (0.76)
	울산	3.09 (0.49)	2.97 (0.55)	3.03 (0.47)
	경기	3.38 (0.72)	2.98 (0.85)	3.18 (0.72)
	강원	3.36 (0.75)	2.84 (0.86)	3.10 (0.70)
	충북	3.54 (0.58)	2.97 (0.78)	3.26 (0.59)
	충남	3.44 (0.66)	2.87 (0.83)	3.16 (0.65)
	전북	3.34 (0.53)	2.95 (0.60)	3.14 (0.49)
	전남	3.57 (0.76)	2.99 (0.72)	3.28 (0.70)
	경북	3.33 (0.61)	2.50 (0.63)	2.91 (0.49)
	경남	3.18 (0.61)	2.50 (0.88)	2.84 (0.65)
제주	3.26 (0.93)	2.95 (0.94)	3.10 (0.8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투표참여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발생하였는데($F(45, 11218)=2.52$, $p<.001$) 대학교의 경우 부산에 위치한 학교지역의 응답자가 서울과 충북 및 대구 지역의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투표참여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두 문항 모두 학교지역의 주효과와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투표참여 의지의 경우 초등학교 응답자는 전북지역의 응답자가 서울과 부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대학교 응답자는 대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부산이 수도권 지역과 충북 및 대구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정보 수집의 경우, 경북과 경남 및 부산의 대학교 응답자가 서울의 대학교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IV-6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8.55	3	9.52	20.75***
학교지역	11.30	15	0.75	1.64
학교급*학교지역	52.07	45	1.16	2.52***
오차	5146.00	11218	0.46	

* $p<.05$, ** $p<.01$, *** $p<.001$

2) 시민활동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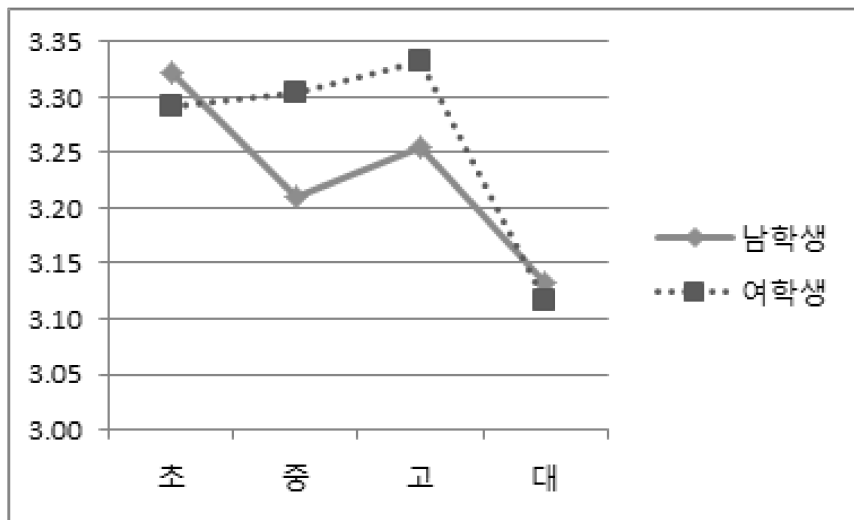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표 IV-6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남	3.31(0.75)	3.28(0.74)	3.30(0.75)	3.42(0.72)	3.33 (0.66)
	여	3.27(0.71)	3.22(0.70)	3.25(0.71)	3.44(0.65)	3.29 (0.61)
중	남	3.25(0.76)	3.16(0.78)	3.20(0.78)	3.24(0.78)	3.21 (0.69)
	여	3.33(0.66)	3.23(0.65)	3.30(0.69)	3.36(0.67)	3.31 (0.59)
고	남	3.36(0.69)	3.19(0.71)	3.25(0.72)	3.25(0.73)	3.26 (0.63)
	여	3.37(0.64)	3.23(0.62)	3.32(0.65)	3.36(0.62)	3.32 (0.55)
대	남	3.22(0.65)	3.11(0.72)	3.19(0.73)	3.10(0.78)	3.15 (0.60)
	여	3.14(0.66)	3.04(0.67)	3.17(0.71)	3.13(0.71)	3.12 (0.5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71)=21.09$, $p<.001$). 초등학교 응답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시민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학교 응답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시민활동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F(3, 11271)=7.05$,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공동체 활동과 환경 운동의 경우 성별의 주효과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동체 활동과 환경 운동을 중요한 시민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개별문항에 대하여 학교급의 주효과 역시 발생하였는데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와 인권 운동에 대하여 고등학교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개별 문항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가운데 대학생 응답자들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림 IV-2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표 IV-6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4.47	3	8.16	21.09***
성별	1.17	1	1.17	3.04
학교급*성별	8.18	3	2.73	7.05***
오차	4358.47	11271	0.39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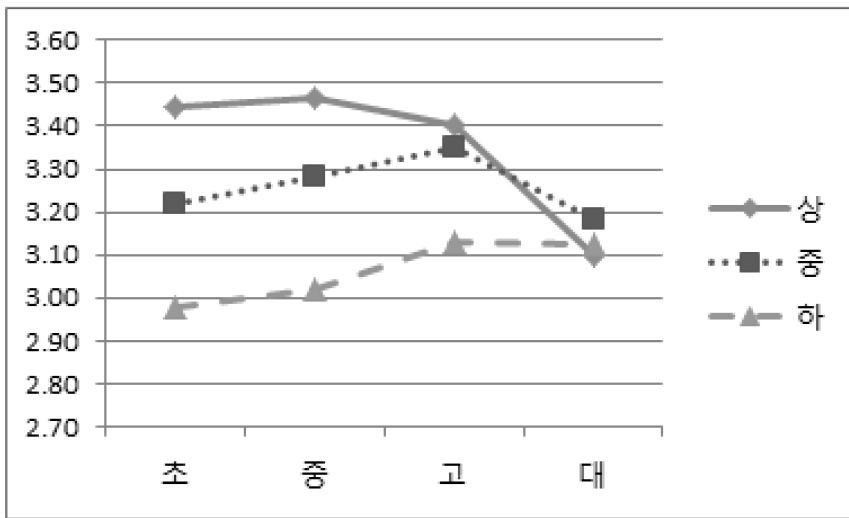
표 IV-6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상	3.44(0.68)	3.39(0.68)	3.43(0.70)	3.55(0.65)	3.45 (0.60)
	중	3.19(0.73)	3.16(0.73)	3.18(0.73)	3.36(0.70)	3.22 (0.64)
	하	2.86(0.90)	2.88(0.85)	2.97(0.85)	3.16(0.82)	2.97 (0.75)
중	상	3.51(0.63)	3.39(0.68)	3.48(0.68)	3.46(0.69)	3.46 (0.60)
	중	3.32(0.68)	3.22(0.69)	3.26(0.71)	3.31(0.71)	3.28 (0.62)
	하	3.03(0.79)	2.97(0.78)	3.00(0.80)	3.10(0.77)	3.03 (0.71)
고	상	3.49(0.61)	3.31(0.64)	3.41(0.63)	3.42(0.64)	3.41 (0.54)
	중	3.43(0.64)	3.26(0.65)	3.34(0.67)	3.36(0.66)	3.35 (0.56)
	하	3.20(0.72)	3.10(0.70)	3.14(0.72)	3.17(0.72)	3.15 (0.64)
대	상	3.17(0.60)	3.03(0.74)	3.18(0.69)	3.10(0.75)	3.12 (0.57)
	중	3.24(0.63)	3.16(0.66)	3.23(0.69)	3.11(0.71)	3.18 (0.54)
	하	3.17(0.69)	3.08(0.70)	3.16(0.72)	3.13(0.77)	3.14 (0.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0918)=55.71, p < .001$). 학업성취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시민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학업성취수

준의 효과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평균과 동일한 형태의 변화양상이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는 학업성취수준이 상 수준인 응답자와 중 수준인 응답자 간에 동일한 수준의 시민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고 대학교 응답자는 성적 수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6, 10918)=9.71$),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업성취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대학교 응답자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학교급과 학업성취도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나타났다.



【그림 IV-3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표 IV-6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03	3	4.34	11.61***
학업성취수준	41.68	2	20.84	55.71***
학교급*학업성취수준	21.79	6	3.63	9.71***
오차	4084.43	10918	0.3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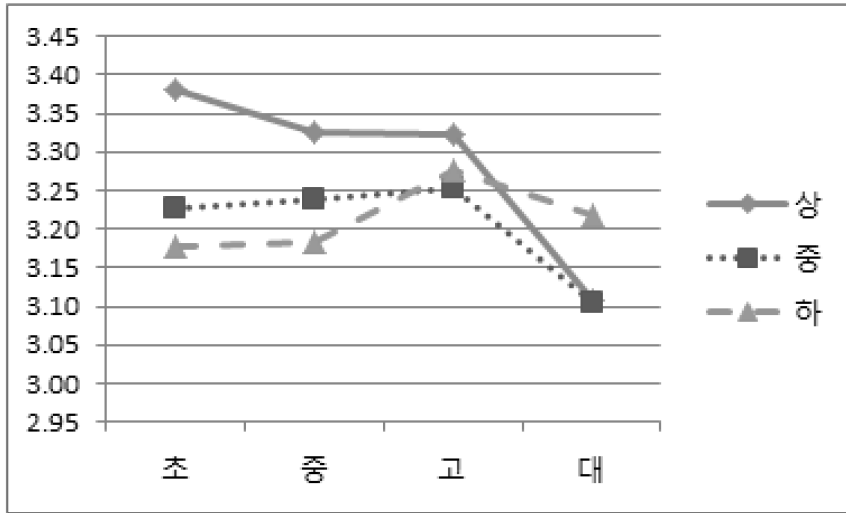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표 IV-6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상	3.36(0.70)	3.32(0.69)	3.35(0.70)	3.49(0.67)	3.38 (0.60)
	중	3.20(0.73)	3.18(0.72)	3.20(0.73)	3.35(0.69)	3.23 (0.64)
	하	3.18(0.83)	3.11(0.81)	3.13(0.81)	3.36(0.75)	3.19 (0.70)
중	상	3.37(0.71)	3.27(0.71)	3.31(0.72)	3.36(0.71)	3.33 (0.63)
	중	3.27(0.69)	3.17(0.70)	3.23(0.73)	3.28(0.72)	3.24 (0.64)
	하	3.21(0.75)	3.11(0.74)	3.17(0.78)	3.22(0.78)	3.18 (0.68)
고	상	3.40(0.66)	3.23(0.66)	3.31(0.69)	3.32(0.68)	3.32 (0.58)
	중	3.32(0.67)	3.19(0.65)	3.25(0.67)	3.29(0.66)	3.26 (0.59)
	하	3.40(0.68)	3.22(0.70)	3.29(0.72)	3.31(0.72)	3.30 (0.62)
대	상	3.15(0.70)	3.05(0.73)	3.19(0.73)	3.10(0.76)	3.12 (0.61)
	중	3.17(0.63)	3.07(0.69)	3.14(0.71)	3.09(0.72)	3.12 (0.59)
	하	3.25(0.62)	3.12(0.65)	3.27(0.71)	3.23(0.78)	3.22 (0.5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F(2, 10778)=12.57, p<.001$) 경제수준이 상 수준인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고등학교 이후의 응답자부터 나타나지 않았는데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경제수준에 따른 시민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0778)=5.21, p<.001$).

각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인권증진 운동,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가 높아졌으나 이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급의 응답자에게서만 나타난 효과이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른 개별 문항의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3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표 IV-6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99	3	4.66	12.19***
경제수준	9.61	2	4.81	12.57***
학교급*경제수준	11.95	6	1.99	5.21***
오차	4122.18	10778	0.38	

* $p < .05$, ** $p < .01$, *** $p < .001$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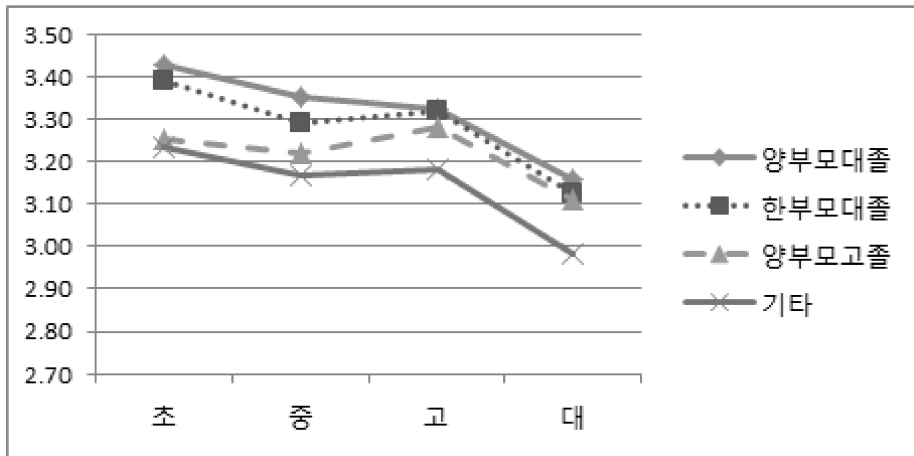
표 IV-6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

구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42(0.70)	3.38(0.69)	3.41(0.72)	3.52(0.68)	3.43 (0.63)
	한분만대졸이상	3.38(0.70)	3.35(0.69)	3.36(0.68)	3.50(0.62)	3.40 (0.59)
	양부모고졸이하	3.26(0.72)	3.19(0.72)	3.21(0.73)	3.37(0.72)	3.26 (0.63)
	기타	3.20(0.75)	3.17(0.74)	3.20(0.74)	3.38(0.70)	3.24 (0.64)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중	양부모대졸이상	3.40(0.68)	3.29(0.71)	3.36(0.70)	3.36(0.71)	3.35 (0.63)
	한부모대졸이상	3.33(0.70)	3.21(0.71)	3.26(0.75)	3.34(0.71)	3.29 (0.62)
	양부모고졸이하	3.25(0.74)	3.17(0.74)	3.21(0.78)	3.27(0.76)	3.22 (0.68)
	기타	3.18(0.72)	3.12(0.72)	3.15(0.73)	3.22(0.74)	3.17 (0.66)
고	양부모대졸이상	3.42(0.65)	3.24(0.66)	3.33(0.68)	3.33(0.67)	3.33 (0.58)
	한부모대졸이상	3.41(0.62)	3.28(0.64)	3.31(0.65)	3.33(0.65)	3.33 (0.56)
	양부모고졸이하	3.34(0.66)	3.19(0.65)	3.27(0.69)	3.31(0.66)	3.28 (0.58)
	기타	3.27(0.74)	3.13(0.72)	3.20(0.75)	3.23(0.74)	3.21 (0.66)
대	양부모대졸이상	3.22(0.62)	3.11(0.66)	3.24(0.69)	3.11(0.74)	3.17 (0.54)
	한부모대졸이상	3.16(0.68)	3.04(0.74)	3.15(0.68)	3.13(0.69)	3.12 (0.58)
	양부모고졸이하	3.19(0.71)	3.11(0.71)	3.17(0.77)	3.14(0.76)	3.15 (0.65)
	기타	3.05(0.62)	2.89(0.70)	2.97(0.73)	3.03(0.87)	2.98 (0.6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난 바($F(3, 11263)=24.06, p<.001$)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양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의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한부모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와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응답자 역시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녀의 시민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여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림 IV-3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표 IV-6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8.01	3	9.34	24.36***
부모학력수준	27.66	3	9.22	24.06***
학교급*부모학력수준	4.68	9	0.52	1.36
오차	4316.23	11263	0.38	

* $p < .05$, ** $p < .01$, *** $p < .001$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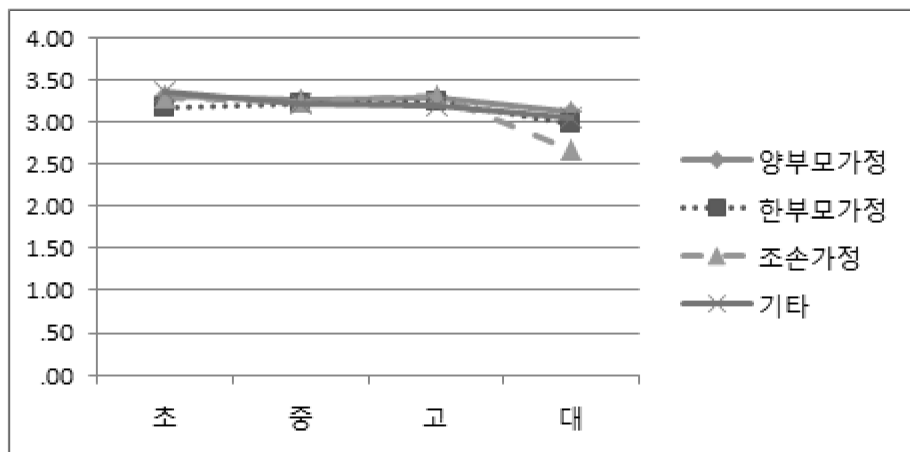
표 IV-6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구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30(0.73)	3.25(0.72)	3.29(0.73)	3.44(0.69)	3.32 (0.64)
	한부모가정	3.12(0.77)	3.11(0.73)	3.11(0.73)	3.31(0.69)	3.16 (0.64)
	조손가정	3.19(0.79)	3.31(0.78)	3.25(0.74)	3.39(0.75)	3.28 (0.69)
	기타	3.42(0.59)	3.32(0.60)	3.44(0.61)	3.36(0.78)	3.38 (0.53)
중	양부모가정	3.30(0.71)	3.20(0.72)	3.25(0.74)	3.30(0.73)	3.26 (0.65)
	한부모가정	3.22(0.77)	3.15(0.71)	3.23(0.71)	3.30(0.71)	3.23 (0.64)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중	조손가정	3.26(0.74)	3.23(0.74)	3.26(0.74)	3.21(0.72)	3.24 (0.68)
	기타	3.19(0.64)	3.14(0.69)	3.19(0.64)	3.14(0.76)	3.17 (0.63)
고	양부모가정	3.37(0.66)	3.21(0.66)	3.28(0.68)	3.31(0.67)	3.29 (0.58)
	한부모가정	3.30(0.75)	3.17(0.74)	3.24(0.76)	3.26(0.76)	3.24 (0.69)
	조손가정	3.32(0.70)	3.25(0.71)	3.35(0.59)	3.39(0.60)	3.33 (0.60)
	기타	3.40(0.56)	3.05(0.51)	3.49(0.57)	3.47(0.57)	3.35 (0.39)
대	양부모가정	3.19(0.66)	3.09(0.69)	3.20(0.71)	3.12(0.74)	3.15 (0.58)
	한부모가정	3.05(0.74)	2.92(0.80)	2.97(0.87)	2.98(0.90)	2.98 (0.70)
	조손가정	3.00(0.00)	2.25(0.50)	2.59(0.57)	3.02(0.96)	2.72 (0.23)
	기타	3.08(0.28)	2.85(0.55)	3.15(0.51)	3.36(0.61)	3.11 (0.3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41)=5.26, p<.001$). 특히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응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학교와 대학교급에서 나타나지 않아 가족구성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로 나타났다($F(9, 11241)=1.01,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림 IV-3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상호작용

표 IV-7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23	3	1.41	3.64*
가족구성	6.10	3	2.03	5.26**
학교급*가족구성	3.51	9	0.39	1.01*
오차	4351.49	11241	0.39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표 IV-7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초	서울	3.36(0.71)	3.31(0.73)	3.35 (0.71)	3.52 (0.66)	3.38 (0.62)
	부산	3.45(0.62)	3.39(0.65)	3.43 (0.64)	3.56 (0.60)	3.46 (0.55)
	대구	3.26(0.72)	3.23(0.72)	3.30 (0.72)	3.45 (0.71)	3.31 (0.64)
	인천	3.25(0.79)	3.22(0.76)	3.22 (0.80)	3.43 (0.73)	3.28 (0.68)
	광주	3.42(0.68)	3.32(0.67)	3.37 (0.67)	3.47 (0.64)	3.40 (0.60)
	대전	3.30(0.66)	3.22(0.69)	3.32 (0.67)	3.39 (0.67)	3.31 (0.58)
	울산	3.50(0.58)	3.47(0.62)	3.51 (0.63)	3.53 (0.60)	3.50 (0.53)
	경기	3.26(0.78)	3.23(0.76)	3.26 (0.76)	3.39 (0.71)	3.29 (0.68)
	강원	3.35(0.67)	3.28(0.67)	3.27 (0.71)	3.59 (0.55)	3.37 (0.55)
	충북	3.28(0.73)	3.34(0.70)	3.35 (0.73)	3.45 (0.68)	3.35 (0.65)
	충남	3.19(0.79)	3.14(0.77)	3.17 (0.82)	3.33 (0.76)	3.21 (0.70)
	전북	3.07(0.75)	2.95(0.76)	2.97 (0.82)	3.09 (0.85)	3.02 (0.68)
	전남	3.21(0.70)	3.16(0.69)	3.22 (0.71)	3.37 (0.70)	3.24 (0.61)
	경북	3.13(0.77)	3.14(0.70)	3.20 (0.69)	3.43 (0.68)	3.23 (0.61)
	경남	3.25(0.69)	3.25(0.66)	3.24 (0.68)	3.41 (0.66)	3.29 (0.58)
	제주	3.27(0.68)	3.24(0.64)	3.20 (0.73)	3.38 (0.64)	3.27 (0.62)
중	서울	3.25(0.73)	3.18(0.74)	3.20 (0.78)	3.27 (0.78)	3.23 (0.68)
	부산	3.43(0.63)	3.31(0.65)	3.37 (0.63)	3.41 (0.65)	3.38 (0.58)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중	대구	3.33(0.72)	3.12(0.69)	3.23 (0.71)	3.32 (0.69)	3.25 (0.62)
	인천	3.27(0.74)	3.26(0.71)	3.29 (0.76)	3.33 (0.75)	3.29 (0.66)
	광주	3.25(0.62)	3.21(0.62)	3.32 (0.59)	3.40 (0.61)	3.29 (0.54)
	대전	3.26(0.79)	3.20(0.80)	3.26 (0.79)	3.33 (0.78)	3.26 (0.74)
	울산	3.14(0.69)	3.08(0.67)	3.05 (0.71)	3.21 (0.66)	3.12 (0.62)
	경기	3.31(0.72)	3.21(0.72)	3.26 (0.74)	3.29 (0.73)	3.27 (0.64)
	강원	3.33(0.71)	3.23(0.69)	3.31 (0.68)	3.28 (0.63)	3.28 (0.59)
	충북	3.17(0.82)	3.13(0.84)	3.07 (0.86)	3.24 (0.85)	3.15 (0.76)
	충남	3.27(0.70)	3.23(0.72)	3.23 (0.73)	3.32 (0.74)	3.26 (0.67)
	전북	3.21(0.67)	3.08(0.66)	3.17 (0.74)	3.18 (0.76)	3.16 (0.62)
	전남	3.32(0.73)	3.23(0.79)	3.32 (0.75)	3.35 (0.72)	3.30 (0.68)
	경북	3.37(0.62)	3.19(0.64)	3.30 (0.68)	3.30 (0.71)	3.29 (0.59)
	경남	3.22(0.73)	3.12(0.77)	3.16 (0.76)	3.19 (0.75)	3.17 (0.70)
	제주	3.44(0.66)	3.33(0.67)	3.43 (0.62)	3.42 (0.62)	3.40 (0.57)
고	서울	3.42(0.68)	3.27(0.67)	3.30 (0.71)	3.33 (0.68)	3.33 (0.60)
	부산	3.31(0.68)	3.23(0.64)	3.22 (0.70)	3.29 (0.70)	3.26 (0.61)
	대구	3.45(0.69)	3.26(0.70)	3.35 (0.72)	3.29 (0.71)	3.34 (0.64)
	인천	3.48(0.62)	3.27(0.64)	3.39 (0.63)	3.40 (0.65)	3.39 (0.54)
	광주	3.36(0.63)	3.21(0.66)	3.34 (0.66)	3.34 (0.67)	3.31 (0.55)
	대전	3.33(0.65)	3.20(0.65)	3.27 (0.65)	3.28 (0.67)	3.27 (0.57)
	울산	3.32(0.59)	3.21(0.56)	3.33 (0.59)	3.27 (0.59)	3.28 (0.50)
	경기	3.40(0.63)	3.18(0.65)	3.27 (0.69)	3.27 (0.66)	3.28 (0.56)
	강원	3.19(0.70)	3.01(0.77)	3.04 (0.76)	3.12 (0.80)	3.09 (0.65)
	충북	3.26(0.82)	3.18(0.78)	3.22 (0.77)	3.29 (0.72)	3.24 (0.73)
	충남	3.57(0.58)	3.45(0.60)	3.55 (0.60)	3.50 (0.61)	3.52 (0.51)
	전북	3.28(0.81)	3.19(0.76)	3.18 (0.80)	3.26 (0.75)	3.23 (0.72)
	전남	3.24(0.69)	3.09(0.70)	3.28 (0.69)	3.31 (0.72)	3.23 (0.61)
	경북	3.36(0.63)	3.24(0.62)	3.33 (0.61)	3.42 (0.64)	3.34 (0.55)
경남	3.23(0.69)	3.12(0.68)	3.18 (0.67)	3.23 (0.67)	3.19 (0.60)	
제주	3.26(0.67)	3.16(0.65)	3.19 (0.69)	3.12 (0.69)	3.19 (0.61)	

구 분	평화적 항의	공동체 활동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전체 평균	
대	서울	3.36(0.60)	3.36(0.62)	3.38 (0.57)	3.11 (0.68)	3.30 (0.43)
	부산	3.23(0.52)	2.80(0.72)	3.09 (0.81)	2.84 (0.68)	2.99 (0.57)
	대구	3.19(0.73)	3.00(0.61)	3.29 (0.63)	3.18 (0.68)	3.16 (0.52)
	인천	3.24(0.71)	3.26(0.70)	3.38 (0.69)	3.21 (0.76)	3.27 (0.65)
	광주	3.07(0.57)	3.10(0.54)	3.34 (0.57)	3.44 (0.66)	3.24 (0.42)
	대전	3.12(0.63)	2.97(0.63)	3.04 (0.62)	3.21 (0.68)	3.09 (0.54)
	울산	3.05(0.45)	2.92(0.64)	2.94 (0.59)	3.12 (0.33)	3.01 (0.28)
	경기	3.17(0.64)	2.98(0.75)	3.13 (0.72)	3.19 (0.69)	3.12 (0.60)
	강원	3.14(0.69)	3.06(0.66)	3.05 (0.74)	3.03 (0.82)	3.07 (0.61)
	충북	3.24(0.67)	3.16(0.68)	3.18 (0.74)	3.29 (0.83)	3.22 (0.66)
	충남	3.28(0.58)	3.13(0.64)	3.24 (0.67)	3.21 (0.69)	3.22 (0.55)
	전북	3.06(0.65)	3.18(0.71)	3.34 (0.72)	3.28 (0.70)	3.21 (0.57)
	전남	3.46(0.70)	3.38(0.50)	3.10 (1.04)	3.05 (1.11)	3.25 (0.71)
	경북	2.99(0.54)	2.86(0.58)	2.90 (0.57)	2.79 (0.67)	2.88 (0.46)
	경남	2.53(0.94)	2.53(0.97)	2.43 (1.01)	2.61 (1.16)	2.53 (0.98)
	제주	2.96(0.89)	2.98(0.90)	2.89 (0.94)	3.11 (0.90)	2.98 (0.7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시민활동 중요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와 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주효과: $F(15, 11215)=5.78$, $p<.001$, 상호작용효과: $F(45, 11215)=3.54$, $p<.001$). 사후검정 결과, 경기와 충북 및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중인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시민활동 중요성에 대한 소극적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학교급별에 따라 각 시민활동 중요성의 전체 평균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전북지역, 고등학교는 경기, 강원, 충북, 경상도 지역, 대학교는 영남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평화적 항의의 경우 충북, 경남, 전북 및 전남지역, 공동체 활동의 경우 경기와 충북, 경남, 전북 및 전남지역, 인권 운동은 충북과 경남 및 전북지역, 환경 운동은 전북지역에 위치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7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시민활동의 중요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48	3	6.83	17.86***
학교지역	33.16	15	2.21	5.78***
학교급*학교지역	60.86	45	1.35	3.54***
오차	4286.16	11215	0.38	

* $p < .05$, ** $p < .01$, *** $p < .001$

3) 배경변인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저항 의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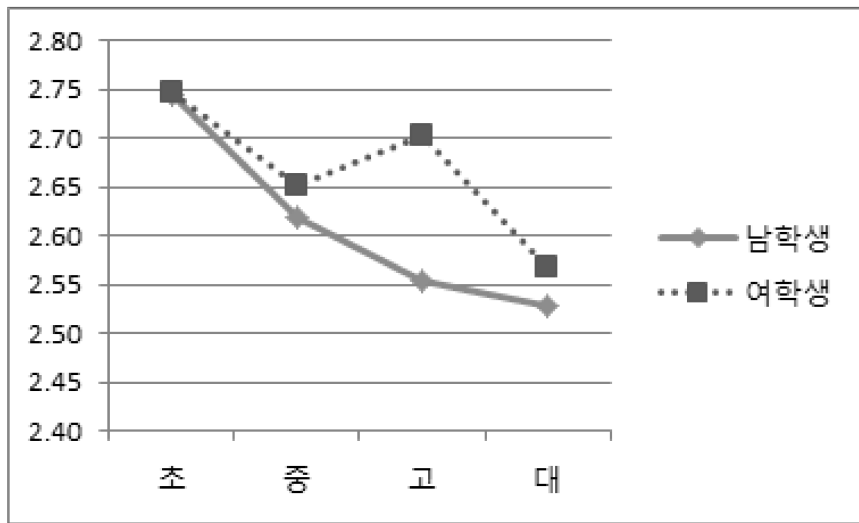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표 IV-7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뱃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남	2.84(0.86)	2.92(0.90)	2.84(0.87)	2.71(0.93)	2.40 (0.97)	2.74(0.74)
	여	2.87(0.81)	2.87(0.87)	2.83(0.85)	2.63(0.89)	2.49 (0.98)	2.74(0.72)
중	남	2.81(0.86)	2.70(0.90)	2.76(0.89)	2.61(0.89)	2.25 (0.92)	2.63(0.74)
	여	3.05(0.80)	2.62(0.84)	2.89(0.84)	2.51(0.83)	2.18 (0.91)	2.65(0.64)
고	남	2.81(0.88)	2.58(0.89)	2.82(0.88)	2.57(0.89)	2.03 (0.88)	2.56(0.70)
	여	3.19(0.77)	2.56(0.84)	3.06(0.80)	2.65(0.85)	1.99 (0.85)	2.69(0.60)
대	남	2.78(0.82)	2.58(0.87)	2.75(0.84)	2.55(0.81)	2.03 (0.82)	2.54(0.63)
	여	2.87(0.73)	2.46(0.78)	2.81(0.78)	2.55(0.75)	2.03 (0.81)	2.55(0.5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F(3, 11270)=27.46$, $p < .00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수준으로 저항 의식이 낮아졌다. 한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낮은 저항 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성별의 주효과: $F(1, 11270)=6.95$, $p < .01$). 한편 학교급 수준에 따른 성별 효과가 나타났는데($F(3, 11270)=6.81$, $p < .001$) 고등학교 여학생은 고등학교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문항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발달단계가 가장 낮은 초등학교 응답자가 대부분의 개별 문항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대학교 응답자는 뱃지 달기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성별의 주효과를 보인 개별 문항은 뱃지 달기와 비폭력 집회 및 진정서 서명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비폭력 집회의 경우에만 남학생이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림 IV-3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7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8.28	3	12.76	27.46 ^{***}
성별	3.23	1	3.23	6.95 ^{**}
학교급*성별	9.50	3	3.17	6.81 ^{***}
오차	5236.47	11270	0.4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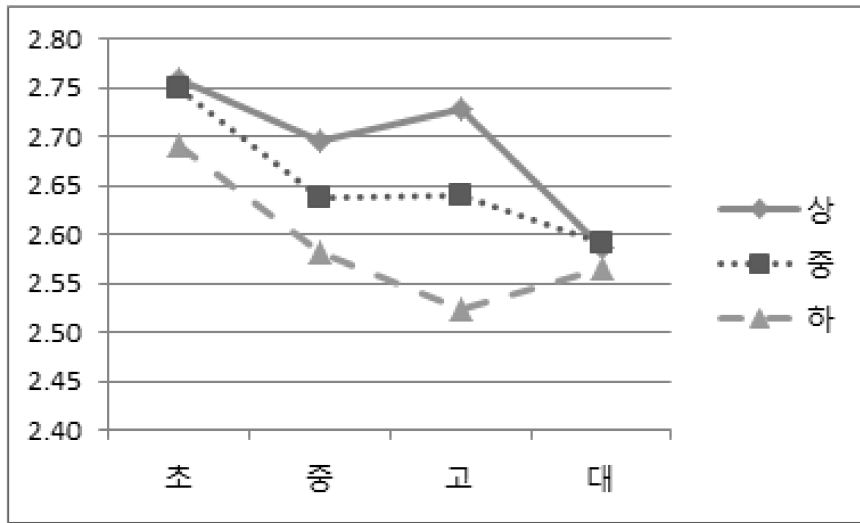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표 IV-7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뱃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상	2.92(0.85)	2.95(0.91)	2.90(0.89)	2.69(0.95)	2.35(1.01)	2.76(0.74)
	중	2.82(0.82)	2.88(0.86)	2.81(0.84)	2.68(0.88)	2.52(0.94)	2.74(0.72)
	하	2.72(0.89)	2.79(0.88)	2.67(0.86)	2.67(0.93)	2.52(0.97)	2.67(0.73)
중	상	3.07(0.87)	2.70(0.90)	2.98(0.88)	2.68(0.88)	2.03(0.94)	2.69(0.69)
	중	2.93(0.82)	2.67(0.86)	2.84(0.86)	2.54(0.84)	2.21(0.90)	2.64(0.68)
	하	2.79(0.86)	2.60(0.87)	2.64(0.88)	2.51(0.89)	2.37(0.91)	2.58(0.74)
고	상	3.07(0.86)	2.69(0.89)	3.11(0.73)	2.78(0.89)	1.91(0.92)	2.71(0.65)
	중	3.03(0.84)	2.59(0.86)	3.00(0.85)	2.65(0.87)	1.97(0.86)	2.65(0.64)
	하	2.89(0.85)	2.52(0.87)	2.78(0.87)	2.47(0.85)	2.10(0.86)	2.55(0.68)
대	상	2.94(0.67)	2.61(0.82)	2.78(0.80)	2.56(0.78)	2.09(0.83)	2.60(0.58)
	중	2.83(0.80)	2.58(0.84)	2.83(0.81)	2.61(0.77)	2.03(0.80)	2.58(0.60)
	하	2.82(0.78)	2.55(0.83)	2.80(0.78)	2.57(0.75)	2.07(0.80)	2.56(0.5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고($F(2, 10917)=5.01, p<.01$)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항 의식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문항이 담고 있는 저항 의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비합법적 저항에 대한 적극성은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7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95	3	2.32	4.98**
학업성취수준	4.66	2	2.33	5.01**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75	6	0.29	0.63
오차	5075.43	10917	0.46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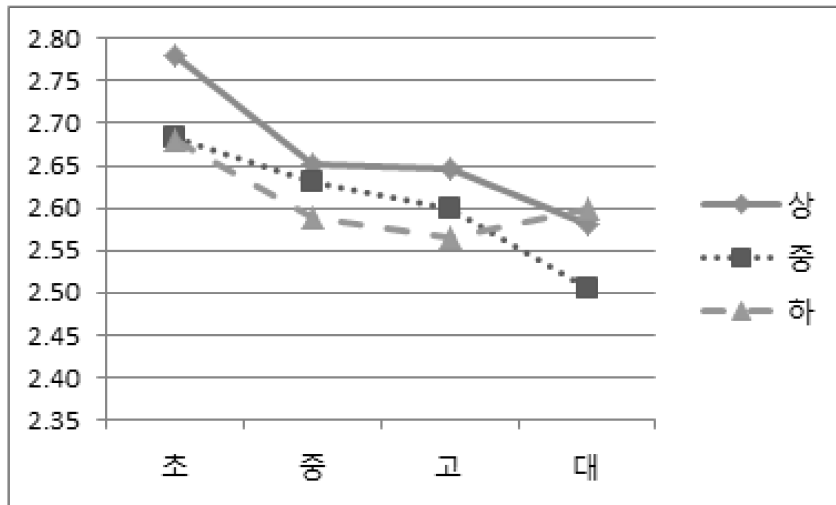
표 IV-7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벉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상	2.88(0.82)	2.94 (0.89)	2.90(0.87)	2.72(0.92)	2.44 (0.98)	2.78 (0.72)
	중	2.79(0.83)	2.82 (0.86)	2.75(0.83)	2.62(0.87)	2.42 (0.94)	2.68 (0.71)
	하	2.79(0.83)	2.83 (0.90)	2.74(0.88)	2.52(0.91)	2.41 (0.97)	2.66 (0.72)
중	상	2.97(0.85)	2.67 (0.89)	2.89(0.86)	2.60(0.87)	2.17 (0.92)	2.66 (0.70)

구 분	벤티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중	중	2.91(0.83)	2.68 (0.85)	2.79(0.87)	2.55(0.84)	2.24 (0.89)	2.63 (0.68)
	하	2.88(0.82)	2.59 (0.85)	2.77(0.85)	2.49(0.85)	2.20 (0.91)	2.59 (0.67)
고	상	3.03(0.85)	2.59 (0.89)	2.96(0.87)	2.63(0.89)	1.98 (0.90)	2.64 (0.68)
	중	2.98(0.83)	2.55 (0.85)	2.92(0.84)	2.60(0.85)	2.03 (0.83)	2.62 (0.64)
	하	2.98(0.86)	2.58 (0.86)	2.92(0.86)	2.57(0.88)	1.98 (0.86)	2.61 (0.64)
대	상	2.84(0.84)	2.59 (0.85)	2.80(0.84)	2.57(0.81)	2.09 (0.83)	2.58 (0.64)
	중	2.79(0.73)	2.48 (0.81)	2.73(0.79)	2.52(0.74)	2.00 (0.78)	2.51 (0.58)
	하	2.86(0.79)	2.54 (0.83)	2.89(0.80)	2.62(0.83)	1.99 (0.86)	2.58 (0.6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F(2, 10778)=5.87, p<.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저항 의식 수준이 높았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항의 포스터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비폭력 집회와 상품 불매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벤티 달기와 진정서 서명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간인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3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7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94	3	4.98	10.90***
경제수준	5.36	2	2.68	5.87**
학교급*경제수준	3.77	6	0.63	1.37
오차	4923.52	10778	0.4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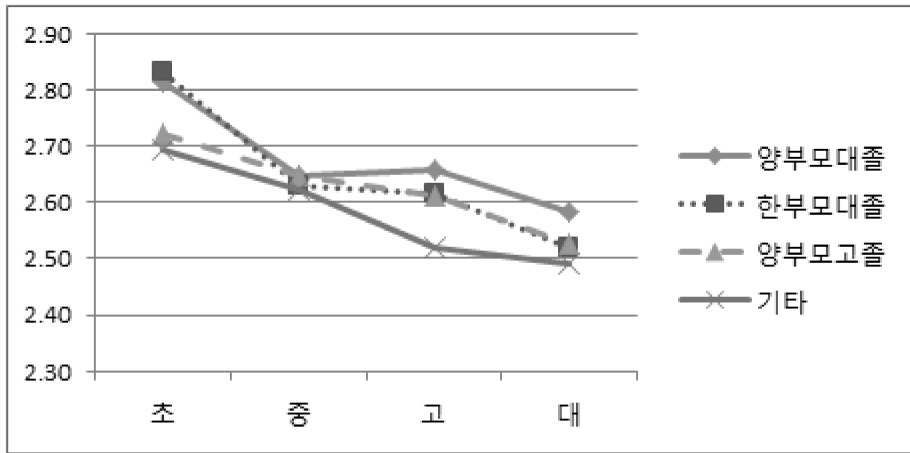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표 IV-7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벤티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96(0.84)	2.95(0.91)	2.94(0.88)	2.73(0.93)	2.45(1.02)	2.80(0.75)
	한부모대졸이상	2.95(0.84)	3.03(0.86)	2.93(0.85)	2.75(0.91)	2.50(0.96)	2.83(0.71)
	양부모고졸이하	2.81(0.84)	2.90(0.91)	2.84(0.87)	2.64(0.93)	2.40(1.02)	2.72(0.73)
	기타	2.78(0.83)	2.84(0.87)	2.76(0.85)	2.63(0.89)	2.44(0.95)	2.69(0.72)
중	양부모대졸이상	2.97(0.87)	2.67(0.91)	2.88(0.89)	2.58(0.88)	2.14(0.92)	2.65(0.71)
	한부모대졸이상	2.97(0.82)	2.63(0.91)	2.84(0.89)	2.56(0.88)	2.15(0.93)	2.63(0.70)
	양부모고졸이하	2.95(0.83)	2.67(0.85)	2.84(0.86)	2.56(0.86)	2.22(0.93)	2.65(0.68)
	기타	2.84(0.82)	2.67(0.82)	2.75(0.84)	2.54(0.83)	2.31(0.88)	2.62(0.68)
고	양부모대졸이상	3.01(0.87)	2.64(0.89)	3.01(0.86)	2.71(0.88)	2.02(0.93)	2.68(0.68)
	한부모대졸이상	3.04(0.84)	2.59(0.87)	2.97(0.84)	2.62(0.87)	1.99(0.83)	2.64(0.63)
	양부모고졸이하	3.04(0.81)	2.54(0.86)	2.93(0.82)	2.59(0.86)	1.95(0.84)	2.61(0.64)
	기타	2.85(0.87)	2.51(0.84)	2.80(0.89)	2.47(0.85)	2.07(0.83)	2.54(0.67)
대	양부모대졸이상	2.87(0.76)	2.57(0.86)	2.80(0.79)	2.60(0.79)	2.05(0.79)	2.58(0.60)
	한부모대졸이상	2.75(0.83)	2.54(0.81)	2.80(0.80)	2.54(0.75)	1.98(0.80)	2.52(0.59)
	양부모고졸이하	2.80(0.79)	2.47(0.81)	2.80(0.84)	2.52(0.79)	2.04(0.86)	2.53(0.61)
	기타	2.76(0.74)	2.45(0.83)	2.62(0.84)	2.47(0.83)	1.99(0.81)	2.46(0.6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62)=6.37, p<.001$). 사후검정 결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대졸 이상인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의 경우, 항의 포스터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각 개별 문항에 해당하는 저항 의식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문항은 뱃지 달기와 진정서 서명이었다.



【그림 IV-3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8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9.51	3	13.17	28.35***
부모학력수준	8.88	3	2.96	6.37***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20	9	0.69	1.48
오차	5231.88	11262	0.4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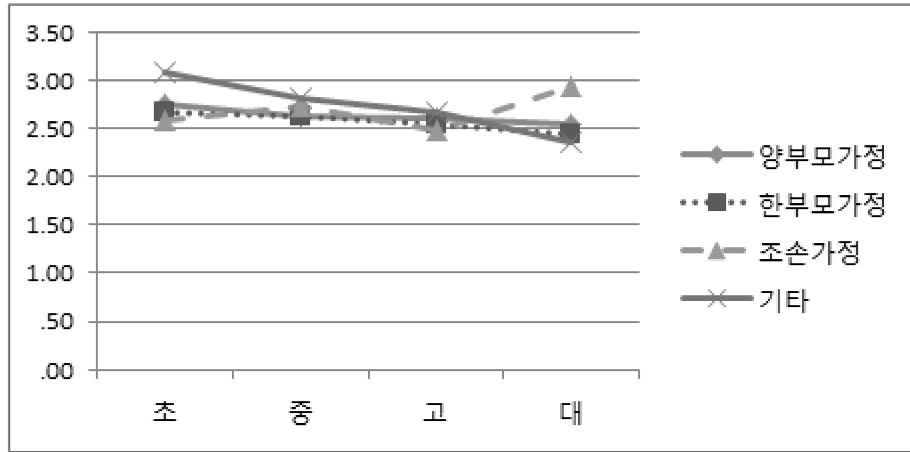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표 IV-8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벤티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양부모가정	2.86 (0.84)	2.90 (0.89)	2.84 (0.86)	2.67 (0.91)	2.44 (0.98)	2.74 (0.73)
	한부모가정	2.77 (0.79)	2.81 (0.84)	2.72 (0.86)	2.63 (0.90)	2.41 (0.95)	2.67 (0.71)
	조손가정	2.61 (0.86)	2.80 (0.90)	2.66 (0.83)	2.49 (0.97)	2.33 (0.97)	2.58 (0.75)
	기타	3.01 (0.70)	3.25 (0.81)	3.24 (0.80)	3.18 (0.76)	2.88 (0.88)	3.11 (0.63)
중	양부모가정	2.93 (0.84)	2.66 (0.87)	2.83 (0.87)	2.56 (0.86)	2.20 (0.91)	2.64 (0.69)
	한부모가정	2.91 (0.86)	2.67 (0.86)	2.82 (0.87)	2.55 (0.86)	2.25 (0.90)	2.64 (0.70)
	조손가정	2.92 (0.75)	2.86 (0.74)	2.85 (0.78)	2.59 (0.89)	2.52 (0.87)	2.75 (0.68)
	기타	2.95 (0.76)	2.96 (0.91)	2.70 (0.86)	2.68 (0.89)	2.56 (0.82)	2.77 (0.70)
고	양부모가정	3.00 (0.85)	2.58 (0.87)	2.93 (0.85)	2.61 (0.87)	2.01 (0.87)	2.63 (0.66)
	한부모가정	2.99 (0.85)	2.54 (0.86)	2.93 (0.89)	2.58 (0.92)	1.94 (0.81)	2.60 (0.66)
	조손가정	2.80 (0.93)	2.38 (0.93)	2.83 (0.94)	2.24 (0.85)	2.34 (0.90)	2.52 (0.68)
	기타	2.61 (0.58)	2.45 (0.51)	3.15 (0.78)	2.44 (0.51)	2.38 (0.80)	2.61 (0.39)
대	양부모가정	2.83 (0.78)	2.53 (0.83)	2.79 (0.81)	2.56 (0.78)	2.04 (0.81)	2.55 (0.60)
	한부모가정	2.70 (0.86)	2.44 (0.85)	2.68 (0.86)	2.48 (0.81)	1.79 (0.73)	2.42 (0.64)
	조손가정	2.82 (1.13)	2.82 (1.13)	2.80 (0.59)	2.77 (1.09)	2.82 (1.13)	2.80 (0.96)
	기타	2.73 (0.46)	2.35 (0.64)	2.61 (0.88)	2.32 (0.83)	1.92 (0.28)	2.39 (0.5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항의 포스터 문항에 대하여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33)=5.64, p<.001$). 이는 기타 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가족구성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그림 IV-3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상호작용

표 IV-8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08	3	1.69	3.64*
가족구성	2.39	3	0.80	1.71
학교급*가족구성	6.66	9	0.74	1.59
오차	5228.91	11240	0.47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표 IV-8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뱃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서울	2.83(0.88)	2.89(0.92)	2.84 (0.88)	2.64(0.95)	2.43 (0.99)	2.73(0.75)
	부산	2.99(0.82)	3.04(0.91)	2.98 (0.86)	2.72(0.95)	2.46 (1.04)	2.84(0.75)
	대구	2.65(0.85)	2.84(0.89)	2.71 (0.85)	2.51(0.94)	2.23 (0.96)	2.59(0.70)
	인천	2.86(0.84)	2.83(0.90)	2.71 (0.88)	2.66(0.90)	2.45 (0.98)	2.70(0.72)
	광주	2.99(0.81)	2.91(0.86)	2.96 (0.86)	2.76(0.89)	2.52 (0.92)	2.83(0.73)
	대전	2.71(0.76)	2.88(0.86)	2.85 (0.78)	2.67(0.85)	2.34 (0.95)	2.69(0.65)
	울산	3.07(0.65)	3.05(0.76)	2.99 (0.70)	2.81(0.73)	2.65 (0.91)	2.92(0.57)

구 분	뱃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초	경기	2.83(0.85)	2.87(0.90)	2.82 (0.88)	2.65(0.91)	2.39 (0.99)	2.72(0.74)
	강원	2.77(0.83)	2.77(0.97)	2.76 (0.88)	2.73(0.85)	2.48 (0.96)	2.70(0.75)
	충북	2.84(0.92)	2.98(0.83)	2.93 (0.77)	2.81(0.88)	2.68 (0.88)	2.84(0.72)
	충남	2.86(0.87)	2.76(0.93)	2.71 (0.94)	2.55(0.92)	2.43 (0.95)	2.66(0.77)
	전북	2.90(0.87)	2.90(0.88)	2.76 (0.88)	2.63(0.96)	2.55 (1.03)	2.75(0.75)
	전남	2.87(0.83)	2.94(0.81)	2.92 (0.83)	2.77(0.82)	2.42 (0.89)	2.79(0.71)
	경북	2.80(0.77)	2.98(0.87)	2.89 (0.86)	2.77(0.96)	2.56 (0.97)	2.80(0.73)
	경남	2.94(0.78)	2.98(0.80)	2.88 (0.79)	2.73(0.87)	2.52 (0.97)	2.81(0.67)
	제주	2.91(0.81)	2.90(0.78)	2.89 (0.84)	2.79(0.83)	2.51 (0.88)	2.80(0.70)
중	서울	2.84(0.86)	2.65(0.88)	2.77 (0.87)	2.52(0.86)	2.19 (0.91)	2.59(0.70)
	부산	3.03(0.83)	2.69(0.88)	2.89 (0.85)	2.56(0.86)	2.23 (0.91)	2.68(0.66)
	대구	2.80(0.84)	2.53(0.86)	2.79 (0.91)	2.48(0.85)	2.11 (0.89)	2.54(0.69)
	인천	2.96(0.88)	2.69(0.88)	2.80 (0.90)	2.54(0.90)	2.20 (0.95)	2.64(0.69)
	광주	3.15(0.77)	2.79(0.79)	3.07 (0.78)	2.70(0.81)	2.26 (0.86)	2.80(0.63)
	대전	2.89(0.94)	2.68(0.90)	2.86 (0.91)	2.55(0.88)	2.14 (0.94)	2.61(0.74)
	울산	2.85(0.81)	2.68(0.84)	2.88 (0.75)	2.74(0.84)	2.21 (0.88)	2.67(0.66)
	경기	2.93(0.87)	2.62(0.89)	2.78 (0.89)	2.50(0.86)	2.16 (0.92)	2.60(0.71)
	강원	3.03(0.72)	2.81(0.75)	3.00 (0.82)	2.75(0.82)	2.19 (0.86)	2.76(0.63)
	충북	2.83(0.96)	2.66(0.97)	2.84 (0.95)	2.49(0.95)	2.06 (0.93)	2.58(0.78)
	충남	2.94(0.82)	2.70(0.94)	2.86 (0.90)	2.64(0.92)	2.35 (0.96)	2.70(0.71)
	전북	3.02(0.73)	2.72(0.78)	2.81 (0.82)	2.59(0.78)	2.46 (0.90)	2.72(0.65)
	전남	2.95(0.82)	2.71(0.89)	2.86 (0.92)	2.66(0.96)	2.41 (0.90)	2.72(0.75)
	경북	2.82(0.77)	2.55(0.86)	2.61 (0.88)	2.40(0.76)	2.02 (0.86)	2.48(0.65)
	경남	2.96(0.76)	2.76(0.76)	2.90 (0.75)	2.69(0.78)	2.43 (0.88)	2.75(0.63)
	제주	3.09(0.80)	2.84(0.86)	3.07 (0.80)	2.78(0.88)	2.22 (0.90)	2.80(0.67)
고	서울	2.97(0.89)	2.55(0.89)	2.94 (0.87)	2.62(0.90)	1.99 (0.91)	2.61(0.69)
	부산	2.84(0.92)	2.49(0.87)	2.90 (0.84)	2.58(0.89)	2.06 (0.90)	2.57(0.71)
	대구	2.64(0.83)	2.59(0.89)	2.86 (0.85)	2.50(0.90)	1.82 (0.74)	2.48(0.64)
	인천	3.08(0.88)	2.62(0.92)	2.89 (0.92)	2.62(0.96)	2.05 (0.91)	2.65(0.69)

구 분	뱃지 달기	비폭력 집회	진정서 서명	상품 불매	항의 포스터	전체평균	
고	광주	3.13(0.85)	2.71(0.89)	3.05 (0.83)	2.66(0.82)	2.16 (0.85)	2.74(0.64)
	대전	2.80(0.85)	2.44(0.81)	2.77 (0.89)	2.54(0.86)	1.87 (0.78)	2.48(0.61)
	울산	3.09(0.79)	2.43(0.83)	3.09 (0.78)	2.67(0.91)	1.94 (0.77)	2.65(0.58)
	경기	3.08(0.80)	2.56(0.86)	2.95 (0.84)	2.59(0.83)	1.95 (0.87)	2.63(0.62)
	강원	2.69(0.90)	2.39(0.89)	2.76 (0.95)	2.31(0.84)	1.86 (0.73)	2.40(0.66)
	충북	2.98(0.76)	2.43(0.94)	2.80 (0.92)	2.49(0.88)	1.80 (0.80)	2.50(0.67)
	충남	3.19(0.79)	2.80(0.87)	3.09 (0.77)	2.81(0.85)	2.02 (0.87)	2.79(0.64)
	전북	3.23(0.85)	2.67(0.86)	3.00 (0.88)	2.69(0.92)	2.25 (0.89)	2.77(0.68)
	전남	3.06(0.77)	2.70(0.81)	3.10 (0.79)	2.78(0.85)	2.32 (0.84)	2.79(0.63)
	경북	2.95(0.86)	2.64(0.82)	2.98 (0.83)	2.63(0.87)	1.89 (0.77)	2.62(0.61)
	경남	2.96(0.80)	2.61(0.79)	2.89 (0.83)	2.56(0.80)	2.12 (0.81)	2.63(0.63)
	제주	2.88(0.80)	2.57(0.84)	2.88 (0.77)	2.56(0.85)	2.17 (0.85)	2.61(0.66)
대	서울	2.95(0.80)	2.65(0.84)	2.86 (0.88)	2.56(0.74)	2.09 (0.80)	2.62(0.60)
	부산	2.73(0.66)	2.48(0.68)	2.80 (0.73)	2.68(0.68)	2.28 (0.69)	2.59(0.56)
	대구	2.44(0.69)	2.36(0.67)	2.65 (0.72)	2.38(0.70)	1.72 (0.66)	2.31(0.52)
	인천	2.89(0.78)	2.45(0.72)	2.68 (0.76)	2.51(0.80)	1.61 (0.71)	2.43(0.55)
	광주	3.05(0.66)	3.07(0.71)	3.17 (0.62)	2.61(0.69)	2.24 (0.84)	2.83(0.48)
	대전	2.74(0.83)	2.59(0.91)	2.74 (0.85)	2.79(0.85)	2.32 (0.94)	2.63(0.71)
	울산	2.97(0.45)	2.82(0.57)	2.51 (0.51)	2.64(0.58)	2.24 (0.60)	2.63(0.36)
	경기	2.99(0.71)	2.34(0.84)	2.77 (0.80)	2.45(0.82)	1.96 (0.82)	2.50(0.58)
	강원	2.73(0.88)	2.44(0.95)	2.90 (0.82)	2.53(0.93)	1.92 (0.77)	2.50(0.62)
	충북	2.87(0.78)	2.62(0.82)	2.90 (0.84)	2.76(0.77)	2.00 (0.99)	2.63(0.61)
	충남	2.80(0.80)	2.47(0.80)	2.68 (0.82)	2.60(0.81)	2.07 (0.93)	2.52(0.59)
	전북	3.25(0.76)	3.25(0.82)	2.90 (0.78)	3.02(0.66)	2.27 (0.60)	2.94(0.57)
	전남	2.82(0.74)	2.60(0.68)	3.02 (0.75)	2.45(0.82)	2.03 (0.85)	2.58(0.56)
	경북	2.48(0.72)	2.17(0.76)	2.64 (0.77)	2.49(0.74)	1.97 (0.64)	2.35(0.54)
	경남	2.22(0.86)	1.93(0.79)	2.17 (0.96)	1.93(0.84)	1.58 (0.67)	1.96(0.65)
	제주	2.98(0.86)	2.38(0.96)	2.83 (0.84)	2.52(0.85)	1.95 (0.89)	2.53(0.5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저항 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F(15, 11214)=5.74$, $p<.001$). 사후검정 결과, 대구와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항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에 위치한 학교의 응답자들이 보다 강한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지역별 저항 의식의 차이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응답자들부터 차이를 나타내었다(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45, 11214)=2.64$, $p<.001$).

개별 문항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가장 강한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한 저항 의식은 뱃지 달기에 해당하였다. 특히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가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들이 보다 확연히 타 지역의 응답자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표 IV-8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저항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0.66	3	10.22	22.21***
학교지역	39.61	15	2.64	5.74***
학교급*학교지역	54.69	45	1.22	2.64***
오차	5159.65	11214	0.46	

* $p<.05$, ** $p<.01$, *** $p<.001$

4)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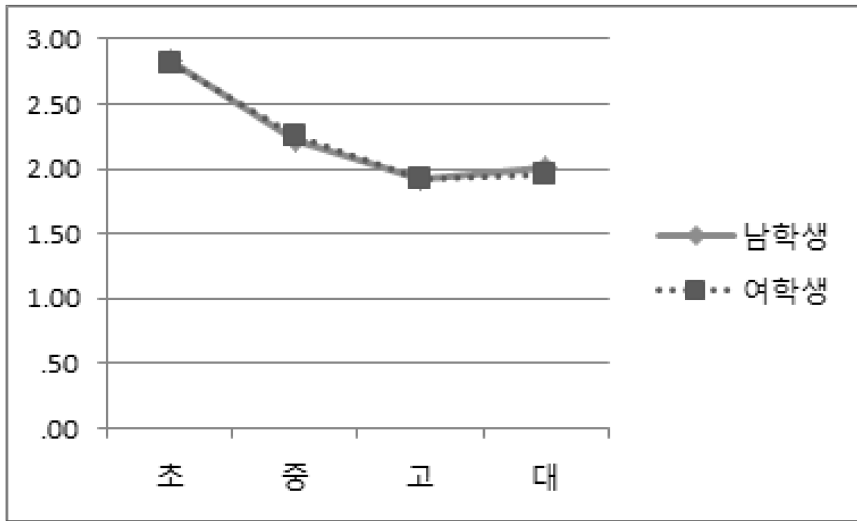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표 IV-8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남	2.85(0.92)	2.89(0.89)	2.90(0.92)	2.73(0.87)	2.84 (0.74)
	여	2.84(0.82)	2.87(0.81)	2.90(0.85)	2.69(0.79)	2.82 (0.67)
중	남	2.14(0.90)	2.24(0.89)	2.16(0.91)	2.34(0.87)	2.22 (0.77)
	여	2.15(0.77)	2.25(0.76)	2.23(0.78)	2.36(0.74)	2.25 (0.64)
고	남	1.85(0.79)	1.89(0.77)	1.82(0.77)	2.12(0.81)	1.92 (0.67)
	여	1.83(0.69)	1.92(0.66)	1.86(0.67)	2.11(0.69)	1.93 (0.57)
대	남	2.09(0.73)	1.90(0.73)	1.80(0.72)	2.29(0.76)	2.02 (0.58)
	여	1.97(0.66)	1.88(0.66)	1.79(0.65)	2.22(0.70)	1.97 (0.5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75)=1077.36, p<.001$).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고등학교 응답자가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형태의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난 문항은 정부와 미디어에 관한 신뢰였다. 정부와 미디어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다 높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표 IV-8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49.30	3	483.10	1077.36***
성별	0.14	1	0.14	0.31
학교급*성별	1.76	3	0.59	1.31
오차	5055.83	11275	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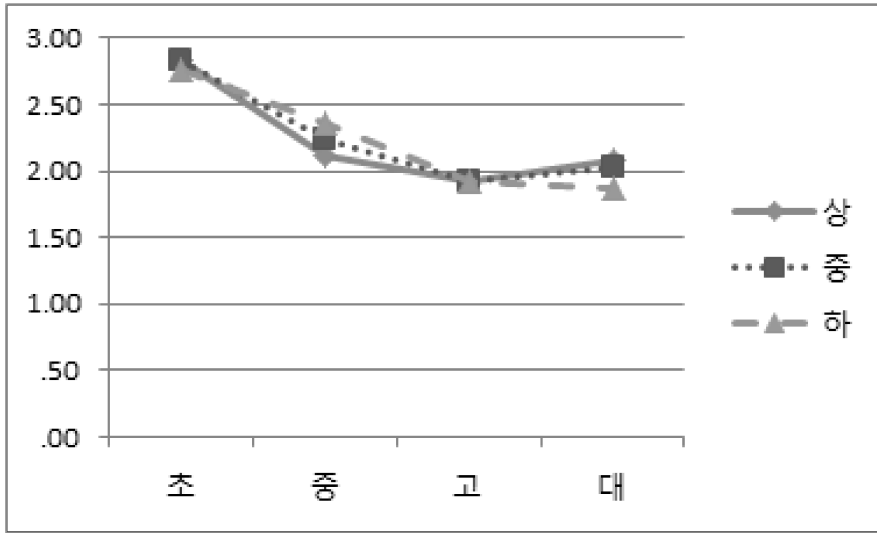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표 IV-8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상	2.83(0.89)	2.88(0.86)	2.91(0.88)	2.74(0.84)	2.84 (0.71)
	중	2.87(0.84)	2.88(0.84)	2.90(0.87)	2.70(0.81)	2.84 (0.70)
	하	2.72(0.99)	2.80(0.89)	2.83(1.01)	2.79(0.87)	2.78 (0.82)
중	상	2.04(0.78)	2.10(0.81)	2.07(0.81)	2.24(0.77)	2.11 (0.67)
	중	2.13(0.83)	2.24(0.81)	2.18(0.83)	2.35(0.81)	2.22 (0.69)
	하	2.28(0.90)	2.38(0.88)	2.33(0.91)	2.45(0.86)	2.36 (0.78)
고	상	1.92(0.80)	1.88(0.76)	1.84(0.75)	2.02(0.79)	1.91 (0.68)
	중	1.84(0.73)	1.90(0.70)	1.84(0.71)	2.13(0.75)	1.93 (0.60)
	하	1.82(0.75)	1.92(0.75)	1.84(0.74)	2.10(0.77)	1.92 (0.65)
대	상	2.18(0.69)	1.98(0.70)	1.88(0.67)	2.41(0.72)	2.11 (0.55)
	중	2.04(0.67)	1.96(0.67)	1.86(0.67)	2.27(0.75)	2.03 (0.54)
	하	1.91(0.68)	1.77(0.69)	1.70(0.69)	2.13(0.71)	1.88 (0.5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 전체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중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성적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였다(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0922)=9.12, p<.001$). 중학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수준으로 신뢰 수준이 낮았으나 대학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이 상 수준과 중 수준인 응답자들이 하 수준인 응답자에 비하여 신뢰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한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과 동일한 형태의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응답자들은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정부, 정당, 국회 및 미디어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으나 대학교 응답자들은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IV-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표 IV-8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98.92	3	132.97	297.85***
학업성취수준	0.34	2	0.17	0.38
학교급*학업성취수준	24.42	6	4.07	9.12***
오차	4876.12	10922	0.45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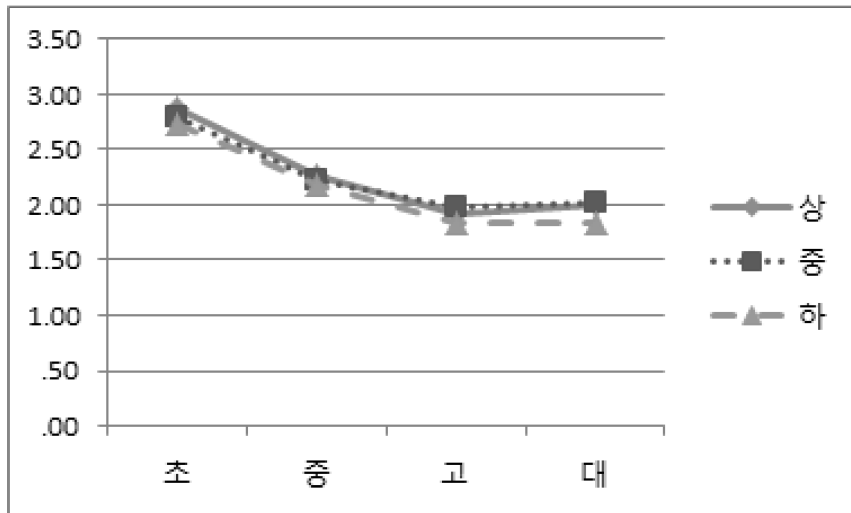
표 IV-8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상	2.86(0.86)	2.92(0.83)	2.94(0.87)	2.77(0.80)	2.87 (0.69)
	중	2.83(0.84)	2.83(0.82)	2.87(0.86)	2.68(0.81)	2.80 (0.69)
	하	2.70(0.91)	2.81(0.88)	2.81(0.89)	2.63(0.87)	2.74 (0.75)
중	상	2.16(0.83)	2.28(0.83)	2.23(0.84)	2.38(0.81)	2.26 (0.70)

구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중	중	2.16(0.83)	2.23(0.82)	2.17(0.84)	2.35(0.80)	2.23 (0.71)
	하	2.05(0.85)	2.17(0.80)	2.14(0.84)	2.31(0.81)	2.17 (0.71)
고	상	1.83(0.73)	1.90(0.72)	1.83(0.72)	2.09(0.77)	1.91 (0.61)
	중	1.91(0.75)	1.96(0.71)	1.90(0.73)	2.15(0.73)	1.98 (0.62)
	하	1.75(0.73)	1.83(0.71)	1.75(0.71)	2.09(0.76)	1.85 (0.61)
대	상	2.03(0.73)	1.90(0.71)	1.78(0.66)	2.27(0.77)	2.00 (0.57)
	중	2.07(0.69)	1.92(0.69)	1.84(0.70)	2.29(0.72)	2.03 (0.57)
	하	1.90(0.65)	1.76(0.68)	1.65(0.70)	2.17(0.67)	1.87 (0.5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고($F(2, 10782)=13.61, p<.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신뢰 수준 역시 상승하였다. 하지만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경제수준이 상 수준인 집단보다 중 수준인 집단의 신뢰가 보다 높아짐에 따라 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6, 10782)=2.79,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정부와 정당, 국회 및 미디어에 대하여 모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신뢰를 나타내며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IV-4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표 IV-9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73.17	3	324.39	744.20***
경제수준	11.86	2	5.93	13.61***
학교급*경제수준	7.29	6	1.21	2.79*
오차	4699.76	10782	0.4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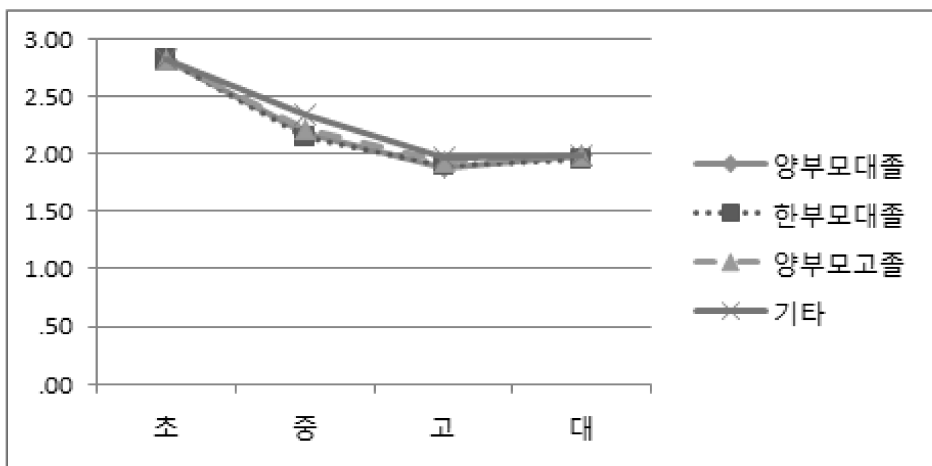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표 IV-9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82(0.91)	2.86(0.87)	2.90(0.91)	2.76(0.85)	2.83 (0.72)
	한분만대졸이상	2.79(0.91)	2.88(0.87)	2.92(0.89)	2.76(0.83)	2.84 (0.72)
	양부모고졸이하	2.87(0.81)	2.90(0.81)	2.89(0.84)	2.67(0.80)	2.83 (0.67)
	기타	2.86(0.85)	2.88(0.84)	2.90(0.88)	2.68(0.83)	2.83 (0.71)
중	양부모대졸이상	2.09(0.83)	2.19(0.82)	2.14(0.82)	2.31(0.80)	2.18 (0.69)
	한분만대졸이상	2.07(0.83)	2.17(0.84)	2.11(0.86)	2.27(0.82)	2.16 (0.70)
	양부모고졸이하	2.11(0.86)	2.22(0.84)	2.17(0.87)	2.34(0.81)	2.21 (0.72)
	기타	2.26(0.84)	2.35(0.82)	2.30(0.84)	2.45(0.82)	2.34 (0.72)
고	양부모대졸이상	1.85(0.76)	1.86(0.73)	1.81(0.74)	2.07(0.77)	1.90 (0.63)
	한분만대졸이상	1.82(0.73)	1.92(0.70)	1.82(0.70)	2.10(0.74)	1.92 (0.59)
	양부모고졸이하	1.84(0.72)	1.94(0.70)	1.86(0.70)	2.14(0.73)	1.94 (0.60)
	기타	1.85(0.75)	1.93(0.74)	1.86(0.75)	2.15(0.78)	1.95 (0.66)
대	양부모대졸이상	2.09(0.68)	1.89(0.68)	1.79(0.69)	2.27(0.74)	2.01 (0.56)
	한분만대졸이상	1.91(0.67)	1.90(0.68)	1.79(0.65)	2.26(0.74)	1.97 (0.52)
	양부모고졸이하	2.08(0.73)	1.89(0.66)	1.82(0.67)	2.25(0.70)	2.01 (0.54)
	기타	1.94(0.75)	1.89(0.89)	1.79(0.82)	2.24(0.81)	1.96 (0.7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주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부모학력수준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모학력 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9, 11267)=3.14, p<.001$). 이는 중학교급에서 기타 유형의 응답자들이 양부모가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인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의 경우, 모두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문항도 있었는데, 예컨대 정부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들이 부모가 대졸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보다 높은 신뢰 정도를 보였고, 정당의 경우 고등학교 응답자들 가운데 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인 응답자들이 한 부모만 대졸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보다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그림 IV-4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표 IV-9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080.30	3	360.10	805.73***
부모학력수준	2.11	3	0.70	1.58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2.62	9	1.40	3.14***
오차	5035.47	11267	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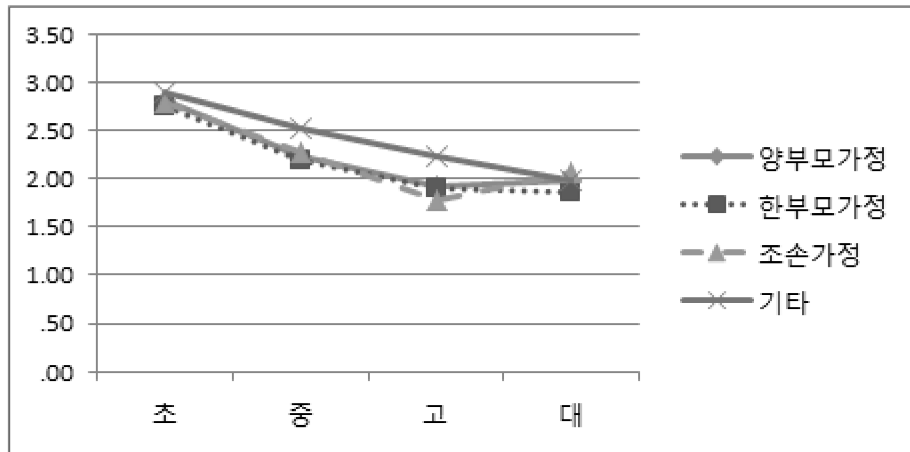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표 IV-9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2.85(0.87)	2.88(0.85)	2.90(0.88)	2.71(0.83)	2.84 (0.71)
	한부모가정	2.75(0.92)	2.81(0.85)	2.85(0.90)	2.64(0.89)	2.76 (0.76)
	조손가정	2.81(0.84)	2.77(0.84)	2.83(0.88)	2.79(0.73)	2.80 (0.73)
	기타	2.92(0.93)	3.00(0.85)	3.12(0.82)	2.82(0.78)	2.96 (0.71)
중	양부모가정	2.14(0.84)	2.25(0.83)	2.19(0.84)	2.35(0.81)	2.23 (0.71)
	한부모가정	2.12(0.86)	2.20(0.83)	2.17(0.87)	2.33(0.82)	2.20 (0.74)
	조손가정	2.14(0.73)	2.40(0.85)	2.30(0.83)	2.29(0.86)	2.28 (0.67)
	기타	2.52(1.01)	2.45(0.96)	2.60(0.99)	2.49(0.90)	2.52 (0.87)
고	양부모가정	1.85(0.75)	1.91(0.72)	1.85(0.73)	2.12(0.76)	1.93 (0.62)
	한부모가정	1.78(0.70)	1.87(0.71)	1.78(0.69)	2.09(0.75)	1.88 (0.60)
	조손가정	1.76(0.59)	1.89(0.74)	1.57(0.64)	2.04(0.82)	1.82 (0.60)
	기타	1.77(0.90)	1.94(0.92)	1.88(0.95)	2.22(1.05)	1.95 (0.86)
대	양부모가정	2.05(0.69)	1.90(0.69)	1.81(0.69)	2.26(0.73)	2.01 (0.55)
	한부모가정	1.84(0.74)	1.68(0.61)	1.64(0.65)	2.12(0.75)	1.82 (0.58)
	조손가정	2.11(0.89)	2.47(1.40)	1.77(1.09)	2.44(1.00)	2.20 (1.02)
	기타	1.73(0.79)	2.07(0.98)	1.74(0.86)	2.35(0.92)	1.97 (0.6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F(3, 11245)=3.48, p<.05$)가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인 응답자는 조손가정의 응답자로서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나타냈고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도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양부모가정 혹은 한부모가정의 응답자보다 조손가정이나 기타 유형의 가정에 속한 응답자들의 신뢰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조손가정의 응답자들은 정부, 정당, 국회 및 미디어에 대하여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그림 IV-4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의 상호작용

표 IV-9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1.82	3	37.27	83.23***
가족구성	4.68	3	1.56	3.48*
학교급*가족구성	3.01	9	0.33	0.75
오차	5035.78	11245	0.45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표 IV-9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신뢰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서울	2.86(0.85)	2.93(0.84)	2.95 (0.86)	2.72 (0.81)	2.86 (0.69)
	부산	3.08(0.82)	3.07(0.81)	3.13 (0.84)	2.90 (0.84)	3.05 (0.67)
	대구	2.94(0.87)	3.04(0.83)	3.05 (0.90)	2.70 (0.82)	2.93 (0.71)
	인천	2.83(0.87)	2.86(0.81)	2.89 (0.85)	2.66 (0.83)	2.81 (0.69)
	광주	2.62(0.92)	2.83(0.83)	2.77 (0.90)	2.77 (0.84)	2.75 (0.71)
	대전	2.84(0.80)	2.83(0.83)	2.91 (0.83)	2.65 (0.81)	2.81 (0.67)

구 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초	울산	2.96(0.80)	3.03(0.72)	3.03 (0.78)	2.86 (0.78)	2.97 (0.61)
	경기	2.80(0.90)	2.88(0.85)	2.88 (0.89)	2.71 (0.82)	2.81 (0.72)
	강원	2.70(0.87)	2.80(0.90)	2.91 (0.89)	2.67 (0.81)	2.77 (0.71)
	충북	2.97(0.84)	2.90(0.88)	2.98 (0.88)	2.73 (0.86)	2.89 (0.74)
	충남	2.79(0.90)	2.73(0.89)	2.76 (1.00)	2.65 (0.93)	2.73 (0.78)
	전북	2.60(0.91)	2.43(0.95)	2.49 (0.97)	2.43 (0.85)	2.49 (0.76)
	전남	2.67(0.89)	2.67(0.92)	2.69 (0.95)	2.70 (0.80)	2.68 (0.73)
	경북	2.92(0.80)	2.95(0.79)	2.97 (0.83)	2.64 (0.81)	2.87 (0.65)
	경남	2.93(0.79)	2.89(0.82)	2.91 (0.85)	2.78 (0.82)	2.88 (0.71)
	제주	2.98(0.79)	2.91(0.86)	2.98 (0.84)	2.73 (0.93)	2.90 (0.75)
중	서울	2.03(0.81)	2.15(0.82)	2.10 (0.84)	2.29 (0.81)	2.15 (0.70)
	부산	2.30(0.79)	2.33(0.78)	2.31 (0.82)	2.42 (0.76)	2.34 (0.67)
	대구	2.12(0.80)	2.20(0.81)	2.22 (0.82)	2.41 (0.80)	2.24 (0.68)
	인천	2.15(0.87)	2.26(0.88)	2.14 (0.88)	2.33 (0.88)	2.22 (0.74)
	광주	2.24(0.74)	2.25(0.72)	2.21 (0.74)	2.15 (0.72)	2.21 (0.65)
	대전	2.31(0.82)	2.35(0.80)	2.34 (0.78)	2.39 (0.70)	2.35 (0.65)
	울산	2.18(0.85)	2.22(0.79)	2.18 (0.81)	2.32 (0.74)	2.22 (0.71)
	경기	2.12(0.85)	2.22(0.86)	2.18 (0.87)	2.34 (0.82)	2.21 (0.72)
	강원	2.10(0.84)	2.39(0.80)	2.22 (0.85)	2.43 (0.77)	2.29 (0.67)
	충북	2.00(0.91)	2.18(0.88)	2.04 (0.90)	2.17 (0.90)	2.10 (0.78)
	충남	2.16(0.91)	2.26(0.86)	2.24 (0.91)	2.45 (0.82)	2.28 (0.75)
	전북	2.39(0.84)	2.40(0.80)	2.37 (0.79)	2.31 (0.78)	2.37 (0.68)
	전남	2.00(0.90)	2.25(0.89)	2.09 (0.92)	2.32 (0.89)	2.16 (0.76)
	경북	2.16(0.81)	2.28(0.79)	2.23 (0.81)	2.48 (0.81)	2.29 (0.68)
	경남	2.28(0.86)	2.33(0.83)	2.29 (0.85)	2.47 (0.84)	2.34 (0.73)
	제주	2.13(0.80)	2.22(0.76)	2.14 (0.76)	2.29 (0.75)	2.19 (0.65)
고	서울	1.86(0.76)	1.87(0.71)	1.82 (0.73)	2.14 (0.76)	1.92 (0.63)
	부산	1.93(0.75)	2.01(0.73)	1.92 (0.75)	2.17 (0.74)	2.01 (0.64)
	대구	2.00(0.80)	2.08(0.77)	1.99 (0.80)	2.14 (0.78)	2.05 (0.65)

구 분	정부	정당	국회	미디어	전체 평균	
고	인천	1.71(0.67)	1.81(0.70)	1.75 (0.68)	2.16 (0.81)	1.86 (0.58)
	광주	1.74(0.75)	1.83(0.72)	1.75 (0.70)	2.00 (0.79)	1.83 (0.63)
	대전	1.97(0.81)	1.98(0.73)	1.91 (0.80)	2.09 (0.77)	1.99 (0.64)
	울산	1.88(0.73)	2.00(0.69)	1.86 (0.67)	2.25 (0.69)	2.00 (0.57)
	경기	1.81(0.71)	1.89(0.70)	1.82 (0.70)	2.11 (0.73)	1.91 (0.59)
	강원	1.69(0.75)	1.85(0.74)	1.75 (0.71)	2.00 (0.86)	1.82 (0.64)
	충북	1.79(0.68)	1.84(0.67)	1.76 (0.68)	2.15 (0.77)	1.88 (0.58)
	충남	1.95(0.74)	2.00(0.70)	1.95 (0.69)	2.18 (0.77)	2.02 (0.59)
	전북	1.65(0.71)	1.75(0.73)	1.70 (0.72)	1.91 (0.77)	1.75 (0.66)
	전남	1.77(0.79)	1.92(0.82)	1.80 (0.78)	1.95 (0.76)	1.86 (0.69)
	경북	1.92(0.78)	1.95(0.70)	1.93 (0.74)	2.20 (0.70)	2.00 (0.62)
	경남	1.86(0.72)	1.93(0.68)	1.87 (0.71)	2.04 (0.75)	1.92 (0.62)
	제주	2.06(0.80)	2.02(0.73)	1.99 (0.73)	2.26 (0.73)	2.08 (0.64)
대	서울	2.01(0.55)	1.98(0.65)	1.92 (0.57)	2.44 (0.76)	2.09 (0.48)
	부산	2.18(0.63)	2.14(0.65)	1.87 (0.77)	2.42 (0.63)	2.16 (0.49)
	대구	2.35(0.59)	1.79(0.52)	1.53 (0.59)	2.61 (0.51)	2.07 (0.31)
	인천	2.02(0.77)	2.02(0.56)	1.80 (0.56)	2.22 (0.70)	2.02 (0.49)
	광주	1.60(0.54)	1.28(0.55)	1.27 (0.53)	1.93 (0.65)	1.52 (0.43)
	대전	2.29(0.78)	2.17(0.77)	2.16 (0.77)	2.20 (0.73)	2.20 (0.69)
	울산	1.65(0.49)	1.81(0.40)	1.73 (0.46)	1.90 (0.44)	1.77 (0.35)
	경기	2.02(0.73)	1.85(0.71)	1.82 (0.69)	2.31 (0.75)	2.00 (0.60)
	강원	2.06(0.70)	1.94(0.68)	1.88 (0.72)	1.99 (0.70)	1.97 (0.59)
	충북	2.01(0.81)	1.96(0.67)	1.97 (0.75)	2.05 (0.73)	1.99 (0.61)
	충남	2.10(0.78)	2.08(0.83)	1.95 (0.76)	2.19 (0.82)	2.08 (0.69)
	전북	1.63(0.53)	1.39(0.53)	1.36 (0.52)	1.72 (0.49)	1.52 (0.41)
	전남	1.76(0.78)	1.95(0.85)	1.88 (0.79)	2.06 (0.83)	1.91 (0.60)
	경북	1.66(0.75)	1.49(0.62)	1.46 (0.62)	2.03 (0.76)	1.66 (0.51)
	경남	2.61(0.50)	1.95(0.62)	1.83 (0.57)	2.48 (0.58)	2.22 (0.41)
	제주	2.05(0.83)	1.98(0.65)	1.99 (0.77)	2.15 (0.77)	2.04 (0.6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신뢰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5, 11219)=7.41, p<.001$). 서울에 비하여 대전과 충북의 충청지역 응답자와 부산 및 대구의 영남지역 응답자가 보다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의 응답자는 보다 낮은 신뢰 수준을 응답했다. 특히 대학교 응답자 가운데 지역에 따른 신뢰 수준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5, 11219)=2.99, p<.001$).

모든 개별 문항에 대하여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대전과 부산 및 대구지역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인 가운데 전남 지역의 응답자가 낮은 수준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표 IV-9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신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92.09	3	297.36	673.26***
학교지역	49.09	15	3.27	7.41***
학교급*학교지역	59.38	45	1.32	2.99***
오차	4955.17	11219	0.44	

* $p<.05$, ** $p<.01$, *** $p<.001$

5) 교실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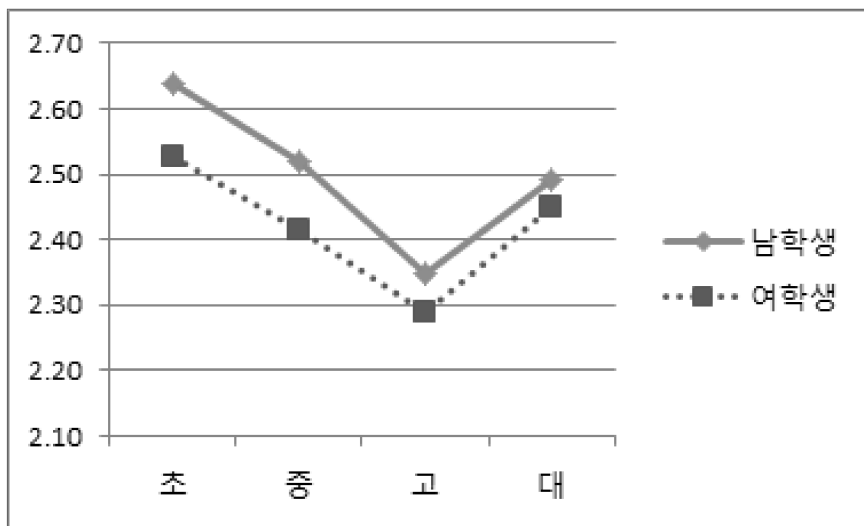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9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남	2.60 (0.94)	2.51(0.98)	2.72(0.92)	2.63(0.95)	2.72(0.94)	2.64(0.76)
	여	2.49 (0.91)	2.30(0.96)	2.66(0.92)	2.51(0.95)	2.69(0.96)	2.53(0.74)
중	남	2.70 (0.84)	2.34(0.94)	2.62(0.85)	2.45(0.90)	2.52(0.89)	2.53(0.73)
	여	2.63 (0.83)	2.11(0.93)	2.57(0.85)	2.31(0.94)	2.47(0.92)	2.42(0.70)
고	남	2.58 (0.86)	2.09(0.91)	2.49(0.88)	2.22(0.93)	2.37(0.92)	2.35(0.73)
	여	2.60 (0.84)	1.91(0.88)	2.53(0.91)	2.07(0.93)	2.27(0.92)	2.28(0.68)
대	남	2.64 (0.73)	2.34(0.86)	2.63(0.78)	2.39(0.86)	2.45(0.82)	2.49(0.65)
	여	2.61 (0.73)	2.27(0.82)	2.56(0.71)	2.36(0.77)	2.41(0.74)	2.44(0.5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에 대하여 모두 주효과가 발생했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72)=81.92,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72)=29.10, p<.001$). 학교급에 따른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교실개방성의 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나 대학교의 경우 중학교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교실개방성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성별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으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던 평균 점수가 대학교에 이르러 다시 높아졌다.



【그림 IV-4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표 IV-9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4.63	3	41.54	81.92***
성별	14.76	1	14.76	29.10***
학교급*성별	1.19	3	0.40	0.78
오차	5716.23	11272	0.5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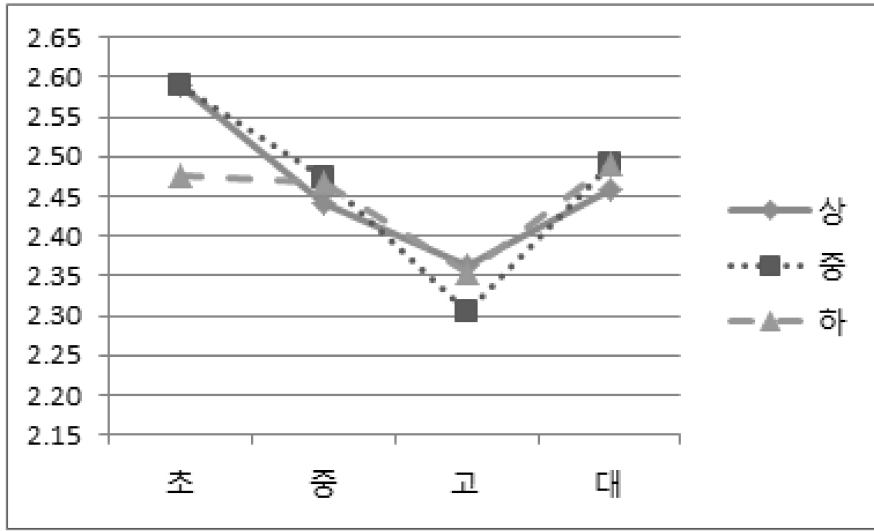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9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상	2.54(0.96)	2.34(1.02)	2.76 (0.96)	2.57(1.00)	2.75(0.98)	2.59(0.77)
	중	2.57(0.89)	2.46(0.93)	2.65 (0.87)	2.57(0.92)	2.69(0.91)	2.59(0.74)
	하	2.49(0.95)	2.40(1.05)	2.49 (0.94)	2.39(0.91)	2.44(0.90)	2.44(0.75)
중	상	2.71(0.89)	2.09(0.99)	2.69 (0.89)	2.30(1.01)	2.49(0.98)	2.46(0.74)
	중	2.67(0.82)	2.24(0.94)	2.59 (0.83)	2.40(0.91)	2.51(0.89)	2.48(0.71)
	하	2.62(0.82)	2.33(0.87)	2.54 (0.85)	2.42(0.87)	2.47(0.86)	2.48(0.72)
고	상	2.62(0.96)	2.00(1.02)	2.62 (1.00)	2.06(1.01)	2.28(1.02)	2.32(0.81)
	중	2.58(0.86)	1.94(0.89)	2.50 (0.90)	2.12(0.95)	2.30(0.93)	2.29(0.70)
	하	2.59(0.81)	2.12(0.87)	2.50 (0.85)	2.23(0.87)	2.37(0.86)	2.36(0.69)
대	상	2.52(0.84)	2.31(0.89)	2.63 (0.82)	2.37(0.88)	2.38(0.85)	2.44(0.69)
	중	2.67(0.69)	2.33(0.85)	2.58 (0.73)	2.38(0.78)	2.46(0.75)	2.48(0.57)
	하	2.63(0.73)	2.33(0.83)	2.60 (0.76)	2.43(0.85)	2.45(0.80)	2.49(0.6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과 관련한 주효과 혹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가장 큰 주효과가 나타난 문항은 의견 표명으로,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의견이 다른 학생과 학급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 $F(3, 10890)=7.88$).



【그림 IV-4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표 IV-10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4.88	3	11.63	22.72***
학업성취수준	0.28	2	0.14	0.27
학교급*학업성취수준	5.08	6	0.85	1.65
오차	5587.58	10920	0.5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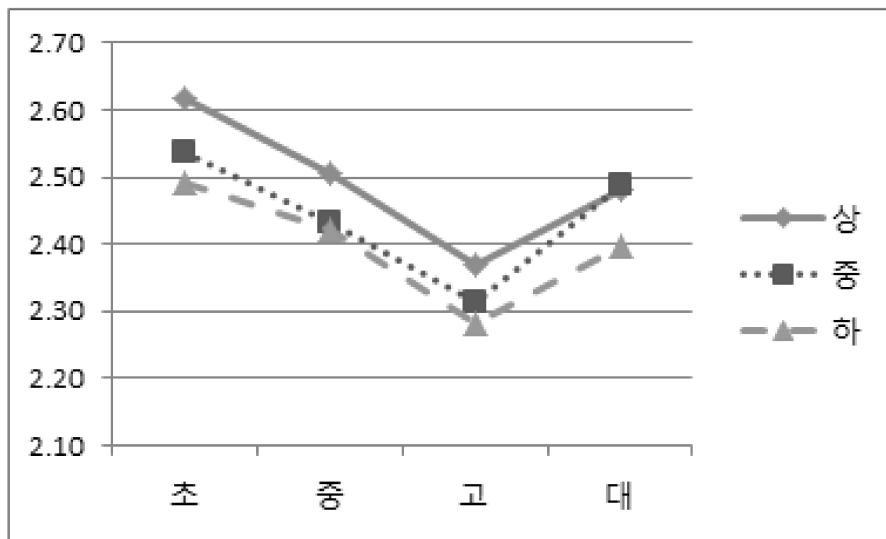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10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분	지울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상	2.55 (0.92)	2.44(0.96)	2.74 (0.90)	2.62(0.94)	2.76(0.91)	2.62(0.72)
	중	2.53 (0.91)	2.35(0.96)	2.63 (0.90)	2.51(0.94)	2.66(0.95)	2.54(0.76)
	하	2.60 (0.92)	2.30(0.94)	2.55 (0.95)	2.45(0.92)	2.56(0.96)	2.49(0.75)
중	상	2.70 (0.84)	2.24(0.96)	2.67 (0.84)	2.42(0.94)	2.55(0.91)	2.52(0.72)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중	중	2.65 (0.82)	2.22(0.92)	2.55 (0.84)	2.35(0.91)	2.46(0.89)	2.45(0.71)
	하	2.59 (0.84)	2.18(0.92)	2.55 (0.87)	2.35(0.88)	2.44(0.88)	2.42(0.70)
고	상	2.61 (0.88)	2.03(0.93)	2.55 (0.90)	2.22(0.96)	2.37(0.94)	2.36(0.72)
	중	2.57 (0.83)	2.01(0.88)	2.50 (0.87)	2.15(0.90)	2.30(0.90)	2.31(0.69)
	하	2.59 (0.86)	1.93(0.88)	2.46 (0.91)	2.06(0.92)	2.28(0.92)	2.26(0.68)
대	상	2.61 (0.78)	2.33(0.86)	2.65 (0.74)	2.38(0.84)	2.43(0.81)	2.48(0.63)
	중	2.64 (0.69)	2.32(0.82)	2.60 (0.74)	2.40(0.80)	2.44(0.76)	2.48(0.58)
	하	2.60 (0.74)	2.22(0.87)	2.51 (0.79)	2.30(0.86)	2.40(0.76)	2.41(0.6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0779)=9.39, p<.001$).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교실개방성을 보였으며 중 수준인 응답자도 하 수준의 응답자에 비해 높은 교실개방성을 나타냈다.



【그림 IV-4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표 IV-10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9.00	3	26.33	52.81***
경제수준	9.36	2	4.68	9.39***
학교급*경제수준	1.35	6	0.22	0.45
오차	5374.79	10779	0.50	

* $p < .05$, ** $p < .01$, *** $p < .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자율적 의견 표명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문항의 평균 점수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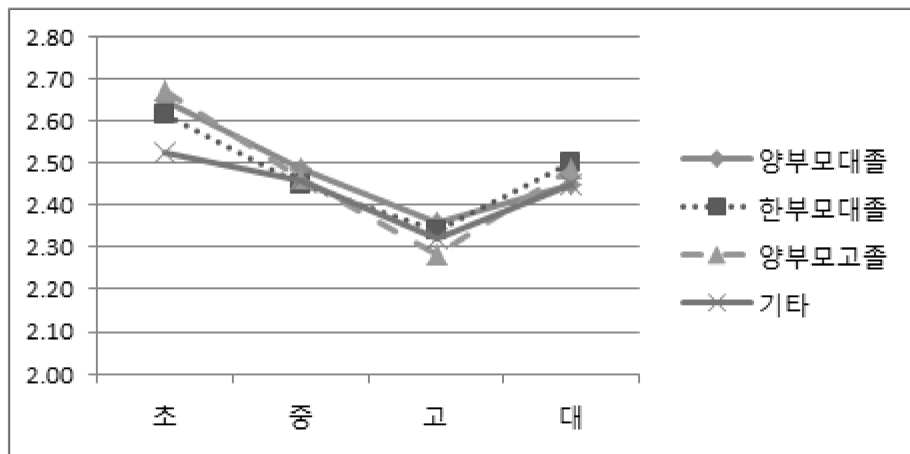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10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61(0.93)	2.42 (1.01)	2.77 (0.93)	2.67(0.98)	2.80 (0.97)	2.65(0.76)
	한분만대졸이상	2.55(0.96)	2.47 (1.02)	2.79 (0.96)	2.53(1.00)	2.72 (1.00)	2.61(0.80)
	양부모고졸이하	2.66(0.92)	2.49 (0.99)	2.77 (0.92)	2.69(0.91)	2.79 (0.94)	2.68(0.72)
	기타	2.50(0.91)	2.37 (0.94)	2.61 (0.89)	2.50(0.93)	2.64 (0.92)	2.52(0.74)
중	양부모대졸이상	2.72(0.86)	2.23 (0.97)	2.66 (0.88)	2.40(0.97)	2.50 (0.96)	2.50(0.74)
	한분만대졸이상	2.70(0.85)	2.15 (0.95)	2.61 (0.88)	2.34(0.94)	2.50 (0.92)	2.46(0.72)
	양부모고졸이하	2.63(0.81)	2.22 (0.94)	2.58 (0.83)	2.38(0.89)	2.53 (0.87)	2.47(0.70)
	기타	2.61(0.81)	2.28 (0.89)	2.55 (0.82)	2.41(0.88)	2.48 (0.86)	2.47(0.70)
고	양부모대졸이상	2.58(0.89)	2.02 (0.94)	2.61 (0.93)	2.23(0.98)	2.39 (0.94)	2.37(0.74)
	한분만대졸이상	2.60(0.84)	2.04 (0.91)	2.53 (0.86)	2.13(0.93)	2.35 (0.93)	2.33(0.70)
	양부모고졸이하	2.58(0.82)	1.94 (0.86)	2.46 (0.89)	2.08(0.91)	2.25 (0.90)	2.26(0.67)
	기타	2.58(0.85)	2.01 (0.88)	2.41 (0.87)	2.13(0.87)	2.29 (0.90)	2.29(0.69)
대	양부모대졸이상	2.59(0.73)	2.32 (0.82)	2.60 (0.73)	2.35(0.81)	2.38 (0.75)	2.45(0.59)
	한분만대졸이상	2.68(0.73)	2.38 (0.84)	2.57 (0.77)	2.41(0.83)	2.44 (0.87)	2.49(0.66)
	양부모고졸이하	2.63(0.75)	2.23 (0.88)	2.63 (0.75)	2.41(0.84)	2.52 (0.74)	2.49(0.61)
	기타	2.64(0.67)	2.31 (0.81)	2.55 (0.77)	2.35(0.80)	2.42 (0.79)	2.45(0.5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F(9, 11264)=2.13, p<.05$).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교 응답자의 경우, 양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대졸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교실개방성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및 다양한 관점 제시에 대하여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와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부모 중 한 사람이 대졸자 이상인 경우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특히 고등학교 응답자에서 부모학력수준의 효과가 가장 명확히 나타났다.



【그림 IV-4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표 IV-10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5.53	3	41.84	82.40***
부모학력수준	2.96	3	0.99	1.94
학교급*부모학력수준	9.71	9	1.08	2.13*
오차	5720.28	11264	0.5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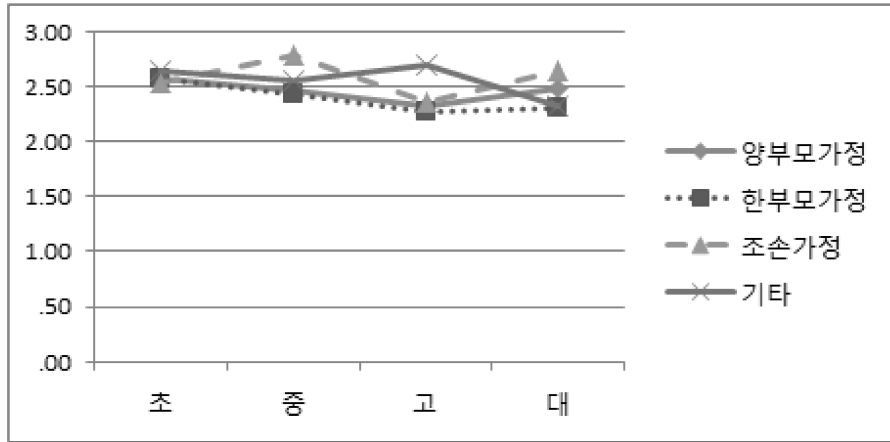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10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양부모가정	2.55 (0.93)	2.40 (0.98)	2.69 (0.93)	2.56 (0.96)	2.71 (0.95)	2.58 (0.76)
	한부모가정	2.55 (0.88)	2.44 (0.95)	2.61 (0.84)	2.64 (0.88)	2.70 (0.90)	2.59 (0.72)
	조손가정	2.50 (0.94)	2.49 (0.98)	2.60 (0.84)	2.57 (0.96)	2.56 (0.98)	2.54 (0.80)
	기타	2.69 (0.91)	2.43 (0.91)	2.81 (0.78)	2.67 (0.93)	2.71 (0.90)	2.66 (0.71)
중	양부모가정	2.67 (0.84)	2.23 (0.94)	2.60 (0.85)	2.39 (0.92)	2.50 (0.90)	2.48 (0.72)
	한부모가정	2.62 (0.78)	2.20 (0.86)	2.62 (0.84)	2.32 (0.89)	2.40 (0.91)	2.43 (0.67)
	조손가정	2.78 (0.66)	2.83 (0.69)	2.85 (0.62)	2.68 (0.86)	2.82 (0.81)	2.80 (0.58)
	기타	2.68 (0.96)	2.40 (1.01)	2.52 (0.99)	2.61 (0.98)	2.65 (0.98)	2.57 (0.83)
고	양부모가정	2.59 (0.85)	2.01 (0.90)	2.52 (0.89)	2.16 (0.93)	2.33 (0.92)	2.32 (0.71)
	한부모가정	2.56 (0.85)	1.92 (0.86)	2.41 (0.86)	2.04 (0.92)	2.22 (0.92)	2.23 (0.67)
	조손가정	2.79 (0.97)	2.15 (0.96)	2.65 (1.00)	2.14 (1.01)	2.32 (0.98)	2.41 (0.82)
	기타	2.68 (0.69)	2.26 (1.06)	2.53 (0.72)	2.47 (0.59)	2.62 (0.64)	2.51 (0.63)
대	양부모가정	2.63 (0.73)	2.31 (0.84)	2.61 (0.75)	2.39 (0.82)	2.44 (0.78)	2.48 (0.61)
	한부모가정	2.48 (0.76)	2.20 (0.84)	2.51 (0.81)	2.11 (0.78)	2.34 (0.81)	2.33 (0.62)
	조손가정	3.02 (0.96)	2.41 (0.57)	2.00 (0.00)	2.66 (0.54)	3.02 (0.96)	2.62 (0.58)
	기타	2.85 (0.37)	2.35 (0.68)	2.44 (0.52)	2.17 (0.80)	2.11 (0.78)	2.38 (0.4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문항의 경우 타인과의 토론에서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3, 11237)=2.67, p<.05$)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해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4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의 상호작용

표 IV-10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43	3	2.14	4.21**
가족구성	3.85	3	1.28	2.52
학교급*가족구성	4.48	9	0.50	0.98
오차	5715.27	11242	0.51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표 IV-10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평균(표준편차)

구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서울	2.51(0.94)	2.37(0.98)	2.71(0.93)	2.62(0.98)	2.59(0.76)
	부산	2.57(0.96)	2.41(1.01)	2.76(0.95)	2.68(1.02)	2.66(0.81)
	대구	2.47(0.89)	2.26(0.95)	2.70(0.94)	2.49(0.91)	2.52(0.71)
	인천	2.53(0.88)	2.41(0.98)	2.65(0.96)	2.49(0.93)	2.55(0.79)
	광주	2.63(0.94)	2.44(1.03)	2.73(0.86)	2.56(0.96)	2.61(0.76)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초	대전	2.40(0.88)	2.33(0.91)	2.65(0.95)	2.58 (0.94)	2.80(0.91)	2.55(0.72)
	울산	2.77(0.94)	2.38(1.00)	2.61(0.98)	2.49 (1.00)	2.54(1.00)	2.56(0.82)
	경기	2.57(0.92)	2.45(0.98)	2.71(0.89)	2.60 (0.94)	2.74(0.92)	2.62(0.73)
	강원	2.48(0.89)	2.24(0.94)	2.57(0.92)	2.46 (0.90)	2.69(0.89)	2.49(0.69)
	충북	2.37(1.04)	2.50(0.99)	2.64(0.91)	2.42 (0.95)	2.52(0.88)	2.49(0.83)
	충남	2.75(0.97)	2.46(1.03)	2.62(0.98)	2.52 (0.97)	2.55(1.05)	2.58(0.82)
	전북	2.54(0.86)	2.40(0.85)	2.55(0.83)	2.42 (0.87)	2.57(0.85)	2.50(0.68)
	전남	2.51(0.86)	2.44(0.97)	2.70(0.88)	2.64 (0.92)	2.69(0.92)	2.59(0.76)
	경북	2.46(0.90)	2.36(0.94)	2.57(0.87)	2.41 (0.91)	2.67(0.93)	2.49(0.74)
	경남	2.65(0.92)	2.50(0.94)	2.76(0.94)	2.61 (0.95)	2.74(0.94)	2.65(0.76)
	제주	2.52(0.97)	2.48(0.99)	2.68(0.93)	2.66 (1.02)	2.84(0.98)	2.64(0.81)
중	서울	2.70(0.83)	2.28(0.95)	2.62(0.86)	2.44 (0.95)	2.54(0.91)	2.52(0.72)
	부산	2.48(0.91)	2.09(0.88)	2.55(0.81)	2.35 (0.90)	2.55(0.94)	2.41(0.68)
	대구	2.55(0.83)	1.97(0.93)	2.50(0.87)	2.19 (0.94)	2.37(0.95)	2.32(0.71)
	인천	2.70(0.86)	2.22(1.01)	2.65(0.88)	2.47 (0.94)	2.66(0.90)	2.54(0.72)
	광주	2.71(0.75)	2.26(0.94)	2.67(0.82)	2.29 (0.93)	2.37(0.91)	2.46(0.73)
	대전	2.76(0.89)	2.15(1.00)	2.59(0.86)	2.30 (0.96)	2.51(0.92)	2.46(0.74)
	울산	2.45(0.82)	2.12(0.82)	2.36(0.83)	2.24 (0.86)	2.28(0.84)	2.29(0.68)
	경기	2.65(0.84)	2.21(0.94)	2.60(0.85)	2.40 (0.93)	2.47(0.91)	2.46(0.73)
	강원	2.77(0.72)	2.25(0.86)	2.62(0.71)	2.40 (0.77)	2.53(0.81)	2.51(0.53)
	충북	2.74(0.80)	2.25(0.91)	2.56(0.92)	2.30 (0.91)	2.50(0.94)	2.47(0.72)
	충남	2.70(0.86)	2.28(0.96)	2.52(0.88)	2.31 (0.95)	2.47(0.93)	2.46(0.74)
	전북	2.61(0.79)	2.36(0.89)	2.67(0.80)	2.44 (0.90)	2.54(0.83)	2.53(0.69)
	전남	2.74(0.81)	2.53(0.90)	2.71(0.89)	2.60 (0.92)	2.74(0.88)	2.66(0.71)
경북	2.56(0.90)	2.08(0.91)	2.42(0.85)	2.12 (0.88)	2.27(0.89)	2.29(0.71)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중	경남	2.72(0.78)	2.38(0.91)	2.68(0.83)	2.57 (0.81)	2.61(0.83)	2.59(0.69)
	제주	2.81(0.82)	2.29(0.92)	2.72(0.86)	2.33 (0.92)	2.45(0.90)	2.52(0.73)
고	서울	2.57(0.87)	1.92(0.90)	2.53(0.90)	2.09 (0.95)	2.23(0.95)	2.27(0.71)
	부산	2.61(0.82)	2.06(0.89)	2.55(0.83)	2.20 (0.94)	2.40(0.91)	2.37(0.70)
	대구	2.54(0.86)	2.00(0.91)	2.50(0.84)	2.19 (0.90)	2.41(0.92)	2.33(0.66)
	인천	2.54(0.93)	1.92(0.89)	2.42(0.91)	2.12 (0.93)	2.37(0.94)	2.27(0.72)
	광주	2.62(0.88)	2.03(0.95)	2.47(0.86)	2.20 (0.86)	2.31(0.87)	2.33(0.70)
	대전	2.56(0.90)	2.02(0.88)	2.52(0.90)	2.17 (0.92)	2.36(0.90)	2.32(0.73)
	울산	2.73(0.79)	2.19(0.85)	2.66(0.83)	2.30 (0.95)	2.53(0.83)	2.48(0.65)
	경기	2.52(0.85)	2.01(0.90)	2.52(0.93)	2.16 (0.96)	2.33(0.95)	2.31(0.72)
	강원	2.70(0.74)	1.95(0.94)	2.45(0.85)	2.08 (0.88)	2.14(0.90)	2.26(0.69)
	충북	2.83(0.91)	1.75(0.85)	2.32(1.05)	1.85 (0.89)	2.08(0.98)	2.17(0.69)
	충남	2.66(0.91)	2.16(0.97)	2.69(0.93)	2.21 (0.97)	2.40(0.93)	2.42(0.71)
	전북	2.58(0.84)	2.12(0.96)	2.50(0.95)	2.10 (0.91)	2.36(0.94)	2.33(0.73)
	전남	2.55(0.84)	2.11(0.88)	2.52(0.81)	2.31 (0.83)	2.43(0.84)	2.38(0.72)
	경북	2.54(0.81)	1.87(0.77)	2.47(0.83)	2.14 (0.93)	2.25(0.87)	2.25(0.62)
	경남	2.65(0.76)	2.09(0.88)	2.47(0.81)	2.15 (0.86)	2.33(0.81)	2.34(0.66)
	대	제주	2.63(0.93)	2.23(1.02)	2.50(0.91)	2.22 (1.02)	2.41(0.91)
서울		2.69(0.62)	2.47(0.80)	2.72(0.68)	2.41 (0.78)	2.51(0.76)	2.56(0.52)
부산		2.38(0.78)	2.08(0.79)	2.33(0.85)	2.19 (0.91)	2.12(0.84)	2.22(0.72)
대구		2.75(0.68)	2.10(0.92)	2.54(0.74)	2.01 (0.85)	2.23(0.62)	2.33(0.52)
인천		2.37(0.91)	1.87(0.90)	2.18(0.85)	2.02 (0.85)	2.08(0.79)	2.10(0.69)
광주		2.73(0.68)	2.54(0.71)	2.67(0.66)	2.56 (0.72)	2.52(0.62)	2.61(0.52)
대전		2.68(0.86)	2.53(0.78)	2.62(0.70)	2.59 (0.81)	2.61(0.79)	2.61(0.66)
울산	2.78(0.58)	2.85(0.47)	2.85(0.55)	2.69 (0.47)	2.95(0.54)	2.82(0.36)	

구 분	자율적 의견 표명	학급 토론	의견 표명	타인과의 토론	다양한 관점 제시	전체평균	
대	경기	2.71(0.68)	2.29(0.80)	2.67(0.68)	2.41 (0.72)	2.46(0.81)	2.51(0.54)
	강원	2.83(0.73)	2.36(0.91)	2.68(0.89)	2.48 (0.93)	2.54(0.91)	2.58(0.69)
	충북	2.55(0.93)	2.37(0.82)	2.66(0.65)	2.45 (0.66)	2.64(0.64)	2.54(0.57)
	충남	2.77(0.74)	2.45(0.93)	2.68(0.83)	2.56 (0.93)	2.52(0.94)	2.60(0.77)
	전북	2.32(0.48)	1.91(0.78)	2.59(0.80)	2.29 (0.75)	2.33(0.65)	2.29(0.43)
	전남	2.39(0.81)	2.05(0.80)	2.44(0.63)	2.63 (0.92)	2.36(0.72)	2.38(0.53)
	경북	2.49(0.62)	2.40(0.83)	2.55(0.66)	2.41 (0.75)	2.51(0.65)	2.47(0.50)
	경남	2.42(0.64)	2.04(0.72)	2.69(0.64)	2.23 (0.81)	2.33(0.68)	2.34(0.45)
	제주	2.56(0.85)	2.33(0.94)	2.49(0.93)	2.51 (1.01)	2.46(0.94)	2.47(0.7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교실개방성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5, 11216)=2.45, p<.001$). 사후검정 결과, 충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교실개방성을 나타냈고, 특히 고등학교 응답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F(45, 11216)=2.19, p<.001$).

개별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다양한 관점 제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고, 전체 평균과 같이 충북지역이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10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공동체 시민성: 교실개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1.51	3	20.50	40.56***
학교지역	18.54	15	1.24	2.45**
학교급*학교지역	49.72	45	1.10	2.19***
오차	5669.51	11216	0.51	

* $p<.05$, ** $p<.01$, *** $p<.001$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세계 시민성 분석 결과

1) 성 인지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표 IV-10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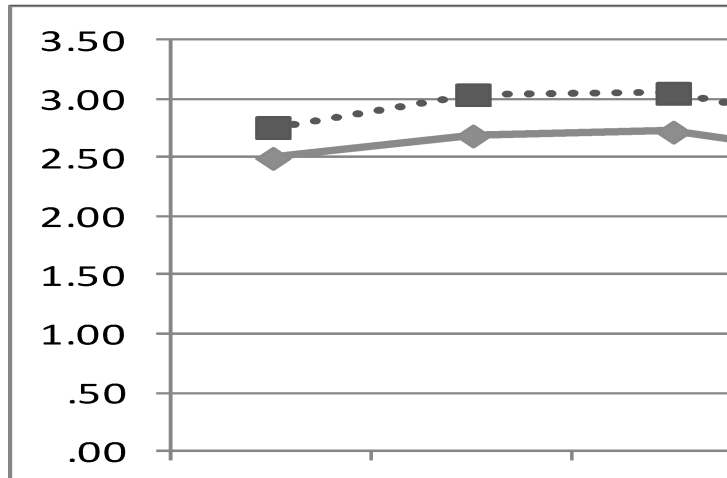
구 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초	남	2.51(0.95)	2.49 (0.90)	2.50 (0.84)
	여	2.85(0.84)	2.68 (0.92)	2.76 (0.80)
중	남	2.70(0.83)	2.69 (0.81)	2.69 (0.75)
	여	3.11(0.72)	2.97 (0.80)	3.04 (0.70)
고	남	2.74(0.82)	2.71 (0.80)	2.73 (0.73)
	여	3.21(0.65)	2.92 (0.81)	3.06 (0.65)
대	남	2.53(0.75)	2.45 (0.76)	2.49 (0.66)
	여	2.86(0.67)	2.62 (0.71)	2.74 (0.60)

성 인지를 묻는 문항은 가족의 생계 문제와 보육 문제를 각각 남자와 여자로 한정지어 묻는 형태로, 성 인지를 도출하기에 앞서 역채점을 수행한 후 높은 성 인지를 나타낼수록 양성평등적 관점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76)=101.63,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76)=347.35, p<.001$).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보다 높은 성 인지 태도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성 인지 태도를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성별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가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3, 11276)=2.89,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가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4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표 IV-11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4.07	3	54.69	101.63***
성별	186.91	1	186.91	347.35***
학교급*성별	4.67	3	1.56	2.89*
오차	6067.68	11276	0.54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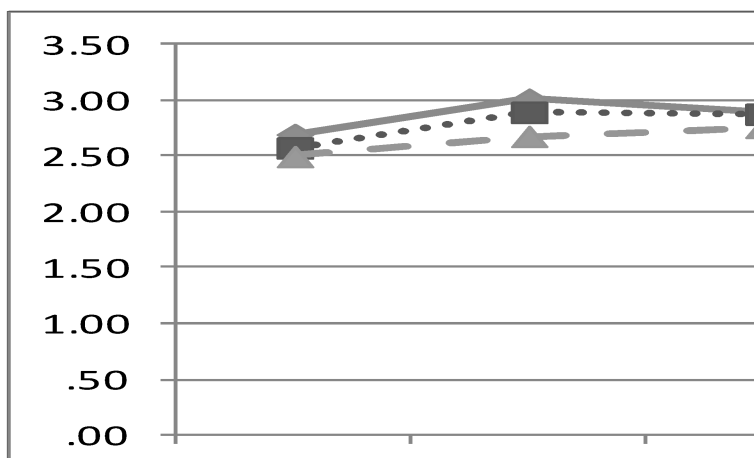
표 IV-11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초	상	2.77(0.92)	2.63 (0.95)	2.70 (0.85)
	중	2.61(0.89)	2.55 (0.88)	2.58 (0.81)
	하	2.52(0.97)	2.50 (0.88)	2.51 (0.83)
중	상	3.02(0.80)	2.99 (0.82)	3.00 (0.75)
	중	2.92(0.79)	2.85 (0.80)	2.89 (0.73)

구 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중	하	2.72(0.85)	2.62 (0.84)	2.67 (0.77)
	상	3.07(0.88)	2.90 (0.88)	2.98 (0.79)
고	중	3.00(0.77)	2.86 (0.81)	2.93 (0.70)
	하	2.87(0.77)	2.70 (0.78)	2.78 (0.69)
대	상	2.58(0.81)	2.51 (0.70)	2.54 (0.69)
	중	2.67(0.73)	2.48 (0.76)	2.57 (0.64)
	하	2.70(0.70)	2.55 (0.75)	2.63 (0.6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923)=11.17, p<.001$).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낮은 응답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성 인지 태도를 보였으며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성 인지 차이가 나타났다(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 $F(6, 10923)=4.73,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 및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성 인지 차이는 대학교 응답자들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표 IV-11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2.71	3	27.57	49.50***
학업성취수준	12.44	2	6.22	11.17***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5.81	6	2.63	4.73***
오차	6083.27	10923	0.5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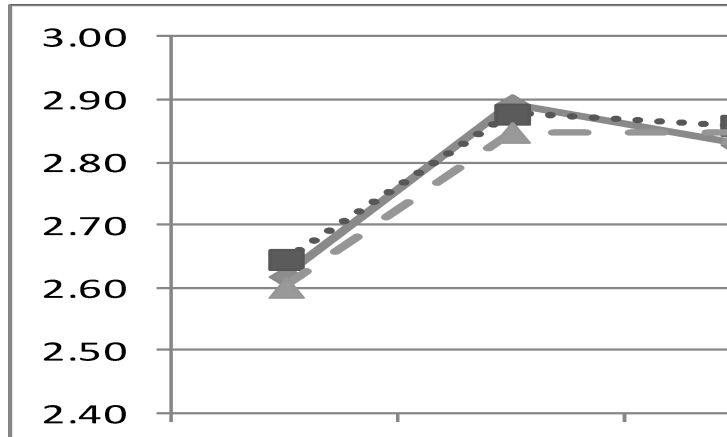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표 IV-11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초	상	2.68(0.91)	2.57 (0.90)	2.62 (0.82)
	중	2.69(0.87)	2.61 (0.89)	2.65 (0.80)
	하	2.62(0.94)	2.59 (0.91)	2.60 (0.84)
중	상	2.91(0.83)	2.85 (0.83)	2.88 (0.77)
	중	2.91(0.76)	2.83 (0.79)	2.87 (0.71)
	하	2.91(0.83)	2.79 (0.84)	2.85 (0.75)
고	상	2.95(0.80)	2.79 (0.78)	2.87 (0.70)
	중	2.97(0.77)	2.83 (0.81)	2.90 (0.71)
	하	2.98(0.77)	2.83 (0.83)	2.91 (0.72)
대	상	2.64(0.76)	2.49 (0.72)	2.57 (0.63)
	중	2.70(0.70)	2.55 (0.74)	2.63 (0.63)
	하	2.70(0.77)	2.54 (0.80)	2.62 (0.7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상, 중, 하 수준의 응답자 평균이 각각 2.77, 2.80, 2.82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성 인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보수적인 성 인지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림 IV-5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표 IV-11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6.87	3	42.29	77.34***
경제수준	1.27	2	0.63	1.16
학교급*경제수준	2.00	6	0.33	0.61
오차	5896.40	10783	0.55	

* $p < .05$, ** $p < .01$, *** $p < .001$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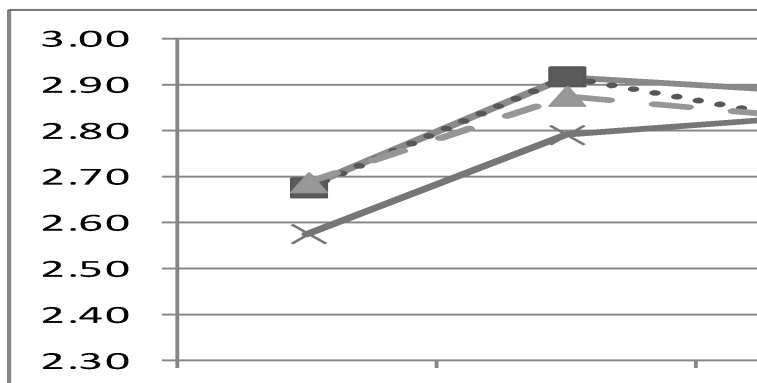
표 IV-11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구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72 (0.93)	2.64 (0.97)	2.68 (0.86)
	한부모대졸이상	2.75 (0.86)	2.63 (0.87)	2.69 (0.78)
	양부모고졸이하	2.74 (0.88)	2.62 (1.01)	2.68 (0.86)
	기타	2.62 (0.92)	2.53 (0.87)	2.58 (0.82)

구 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중	양부모대졸이상	2.94 (0.80)	2.88 (0.82)	2.91 (0.74)
	한분만대졸이상	2.94 (0.77)	2.86 (0.78)	2.90 (0.72)
	양부모고졸이하	2.91 (0.82)	2.82 (0.85)	2.87 (0.76)
	기타	2.82 (0.83)	2.74 (0.82)	2.78 (0.76)
고	양부모대졸이상	3.00 (0.80)	2.85 (0.83)	2.92 (0.72)
	한분만대졸이상	2.95 (0.75)	2.78 (0.80)	2.86 (0.69)
	양부모고졸이하	2.96 (0.77)	2.79 (0.79)	2.87 (0.70)
	기타	2.95 (0.80)	2.82 (0.81)	2.89 (0.73)
대	양부모대졸이상	2.63 (0.74)	2.47 (0.74)	2.55 (0.65)
	한분만대졸이상	2.78 (0.71)	2.61 (0.71)	2.69 (0.61)
	양부모고졸이하	2.72 (0.67)	2.55 (0.74)	2.64 (0.60)
	기타	2.64 (0.89)	2.56 (0.84)	2.60 (0.7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라 부모학력수준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 $F(9, 11268)=2.19, p<.05$).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 한 분만 대졸 이상인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 인지 태도를 나타냈다.

각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두 문항 모두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 대학교급의 경우 양부모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한 부모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더 보수적인 응답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IV-5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표 IV-11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02.50	3	34.17	60.89***
부모학력수준	3.98	3	1.33	2.37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1.04	9	1.23	2.19*
오차	6322.47	11268	0.5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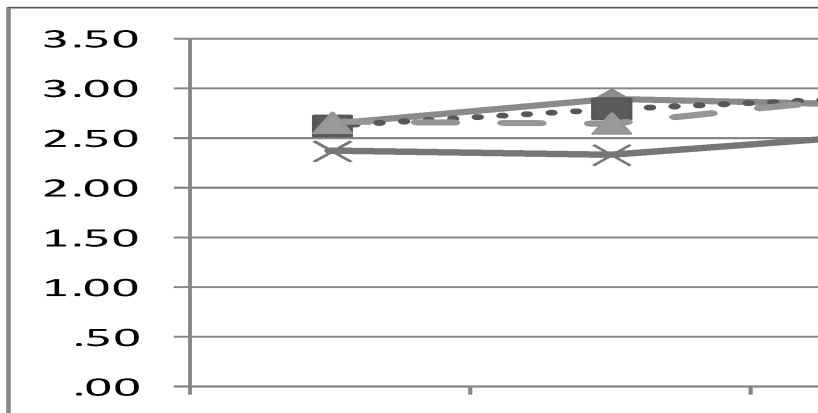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표 IV-11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구분	가족 생계 문제	보육 책무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2.68 (0.91)	2.59 (0.92)	2.63 (0.83)
	한부모가정	2.65 (0.94)	2.59 (0.86)	2.62 (0.83)
	조손가정	2.70 (1.02)	2.64 (0.99)	2.67 (0.93)
	기타	2.39 (0.81)	2.26 (0.76)	2.33 (0.68)
중	양부모가정	2.91 (0.81)	2.84 (0.82)	2.87 (0.75)
	한부모가정	2.82 (0.83)	2.74 (0.79)	2.78 (0.74)
	조손가정	2.68 (0.79)	2.61 (0.71)	2.65 (0.69)
	기타	2.27 (0.75)	2.36 (0.84)	2.32 (0.70)
고	양부모가정	2.95 (0.78)	2.80 (0.81)	2.88 (0.71)
	한부모가정	3.07 (0.79)	2.93 (0.83)	3.00 (0.72)
	조손가정	3.03 (0.79)	2.80 (0.73)	2.91 (0.68)
	기타	2.93 (0.88)	2.60 (0.71)	2.76 (0.75)
대	양부모가정	2.68 (0.72)	2.53 (0.74)	2.61 (0.63)
	한부모가정	2.85 (0.80)	2.64 (0.79)	2.74 (0.74)
	조손가정	1.94 (0.94)	1.89 (0.89)	1.92 (0.91)
	기타	1.97 (0.80)	2.09 (0.83)	2.03 (0.7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여 ($F(3, 11246)=8.91, p<.001$) 사후검증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 인지 태도를 나타냈다. 가족구성에 따른 성 인지에 대한 효과는 고등학교 응답자에 대하여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교급과 가족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F(9, 11246)=2.60,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동일한 패턴의 가족구성의 주효과와 가족구성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는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육의 책무에 대하여 보다 보수적인 응답을 내놓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응답자에서 뚜렷하였다.



【그림 IV-5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상호작용

표 IV-11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7.21	3	5.74	10.23***
가족구성	14.99	3	5.00	8.91***
학교급*가족구성	13.13	9	1.46	2.60**
오차	6305.89	11246	0.56	

* $p<.05$, ** $p<.01$, *** $p<.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표 IV-11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성 인지 평균(표준편차)

구 분	성 인지1	성 인지2	전체 평균	
초	서울	2.72(0.93)	2.56 (0.98)	2.64 (0.85)
	부산	2.78(1.00)	2.66 (0.96)	2.72 (0.93)
	대구	2.80(0.87)	2.64 (0.93)	2.72 (0.84)
	인천	2.63(0.90)	2.56 (0.89)	2.59 (0.79)
	광주	2.60(0.91)	2.54 (0.90)	2.57 (0.83)
	대전	2.81(0.75)	2.56 (0.82)	2.69 (0.68)
	울산	2.56(0.89)	2.65 (1.17)	2.60 (0.94)
	경기	2.66(0.92)	2.62 (0.88)	2.64 (0.82)
	강원	2.40(0.89)	2.50 (0.83)	2.45 (0.75)
	충북	2.63(0.92)	2.48 (0.85)	2.55 (0.78)
	충남	2.64(0.96)	2.56 (0.93)	2.60 (0.88)
	전북	2.56(0.84)	2.44 (0.78)	2.50 (0.75)
	전남	2.70(0.81)	2.57 (0.85)	2.64 (0.76)
	경북	2.69(0.86)	2.50 (0.84)	2.60 (0.79)
	경남	2.66(1.01)	2.66 (1.01)	2.66 (0.92)
제주	2.60(0.97)	2.41 (0.94)	2.50 (0.83)	
중	서울	2.93(0.82)	2.85 (0.83)	2.89 (0.76)
	부산	2.93(0.81)	2.79 (0.88)	2.86 (0.76)
	대구	2.91(0.83)	2.79 (0.80)	2.85 (0.76)
	인천	2.83(0.81)	2.82 (0.78)	2.83 (0.71)
	광주	2.89(0.71)	2.69 (0.79)	2.79 (0.68)
	대전	3.03(0.75)	2.94 (0.82)	2.99 (0.73)
	울산	2.87(0.62)	2.68 (0.79)	2.77 (0.65)
	경기	2.91(0.81)	2.86 (0.83)	2.89 (0.76)
	강원	2.88(0.79)	2.83 (0.73)	2.85 (0.72)
	충북	2.89(0.91)	2.93 (0.80)	2.91 (0.79)

구 분	성 인지1	성 인지2	전체 평균	
중 고	충남	2.96(0.78)	2.77 (0.85)	2.87 (0.73)
	전북	2.77(0.80)	2.66 (0.73)	2.71 (0.67)
	전남	2.77(0.84)	2.69 (0.86)	2.73 (0.80)
	경북	3.00(0.80)	2.93 (0.83)	2.97 (0.77)
	경남	2.72(0.82)	2.70 (0.80)	2.71 (0.73)
	제주	2.98(0.83)	3.02 (0.79)	3.00 (0.75)
고 대	서울	3.02(0.80)	2.85 (0.87)	2.94 (0.74)
	부산	2.93(0.75)	2.77 (0.79)	2.85 (0.69)
	대구	2.79(0.82)	2.68 (0.80)	2.73 (0.74)
	인천	3.00(0.83)	2.78 (0.87)	2.89 (0.73)
	광주	2.89(0.87)	2.77 (0.86)	2.83 (0.81)
	대전	2.84(0.79)	2.67 (0.70)	2.75 (0.65)
	울산	2.93(0.67)	2.72 (0.77)	2.82 (0.67)
	경기	3.02(0.76)	2.88 (0.79)	2.95 (0.69)
	강원	2.88(0.77)	2.81 (0.83)	2.85 (0.71)
	충북	3.08(0.75)	2.79 (0.80)	2.93 (0.70)
	충남	2.96(0.86)	2.92 (0.87)	2.94 (0.80)
	전북	3.08(0.79)	2.98 (0.79)	3.03 (0.70)
	전남	2.84(0.78)	2.71 (0.80)	2.77 (0.72)
	경북	3.01(0.68)	2.83 (0.71)	2.92 (0.62)
경남	2.88(0.73)	2.68 (0.75)	2.78 (0.66)	
제주	2.82(0.78)	2.88 (0.73)	2.85 (0.70)	
대	서울	2.51(0.78)	2.27 (0.73)	2.39 (0.63)
	부산	2.44(0.63)	2.36 (0.62)	2.40 (0.46)
	대구	2.65(0.62)	2.62 (0.63)	2.64 (0.57)
	인천	2.94(0.77)	2.80 (0.83)	2.87 (0.74)
	광주	2.63(0.59)	2.38 (0.59)	2.51 (0.53)
	대전	2.55(0.68)	2.55 (0.71)	2.55 (0.61)
	울산	2.50(0.65)	2.24 (0.60)	2.37 (0.44)

구 분	성 인지1	성 인지2	전체 평균	
대	경기	2.98(0.68)	2.66 (0.78)	2.82 (0.65)
	강원	2.73(0.77)	2.59 (0.89)	2.66 (0.75)
	충북	2.82(0.84)	2.69 (0.75)	2.76 (0.73)
	충남	2.80(0.77)	2.74 (0.74)	2.77 (0.69)
	전북	2.68(0.67)	2.46 (0.70)	2.57 (0.56)
	전남	3.01(0.78)	2.87 (1.05)	2.94 (0.86)
	경북	2.56(0.69)	2.56 (0.65)	2.56 (0.55)
	경남	2.80(0.68)	2.71 (0.61)	2.76 (0.49)
	제주	2.67(0.88)	2.56 (0.91)	2.61 (0.8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성 인지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F(15, 11220)=2.30, p<.001$). 경남과 광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 인지 태도를 나타낸 가운데, 경남지역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 인지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 ($F(45, 11220)=2.48,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으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경남과 광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응답자들이 보다 보수적인 응답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12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성 인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6.26	3	32.09	57.47***
학교지역	19.28	15	1.29	2.30**
학교급*학교지역	62.39	45	1.39	2.48***
오차	6264.91	11220	0.56	

* $p<.05$, ** $p<.01$, *** $p<.001$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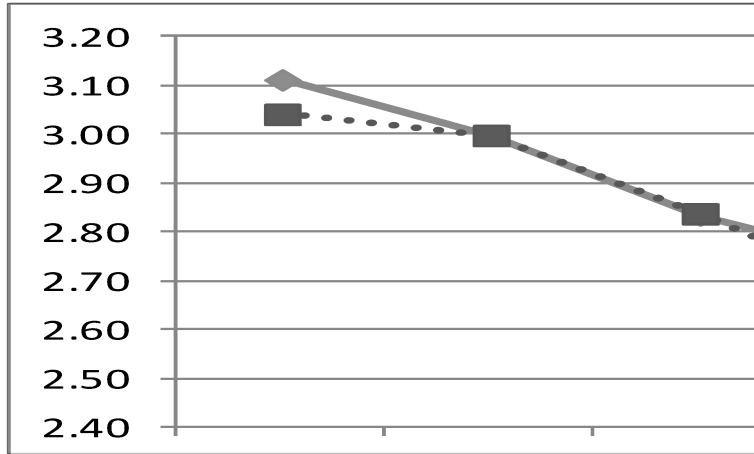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표 IV-12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인·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남	3.25(0.73)	3.05 (0.75)	3.05 (0.82)	3.12 (0.65)
	여	3.18(0.70)	2.98 (0.72)	2.97 (0.78)	3.04 (0.64)
중	남	3.12(0.79)	2.98 (0.74)	2.89 (0.81)	3.00 (0.68)
	여	3.13(0.70)	2.96 (0.66)	2.89 (0.74)	3.00 (0.60)
고	남	2.94(0.83)	2.83 (0.73)	2.74 (0.78)	2.84 (0.68)
	여	2.95(0.73)	2.81 (0.62)	2.76 (0.67)	2.84 (0.57)
대	남	2.92(0.72)	2.71 (0.73)	2.58 (0.77)	2.74 (0.63)
	여	2.80(0.65)	2.60 (0.63)	2.50 (0.67)	2.63 (0.5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63)=140.05,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63)=10.45, p<.01$).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민자에 대한 허용 정도가 낮아졌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민자에 대한 허용 정도가 보다 낮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에 대하여만 나타나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F(3, 11263)=3.70,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성별의 효과가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어졌다.



【그림 IV-5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표 IV-12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9.22	3	56.41	140.05 ^{***}
성별	4.21	1	4.21	10.45 ^{**}
학교급*성별	4.47	3	1.49	3.70 [*]
오차	4536.37	11263	0.40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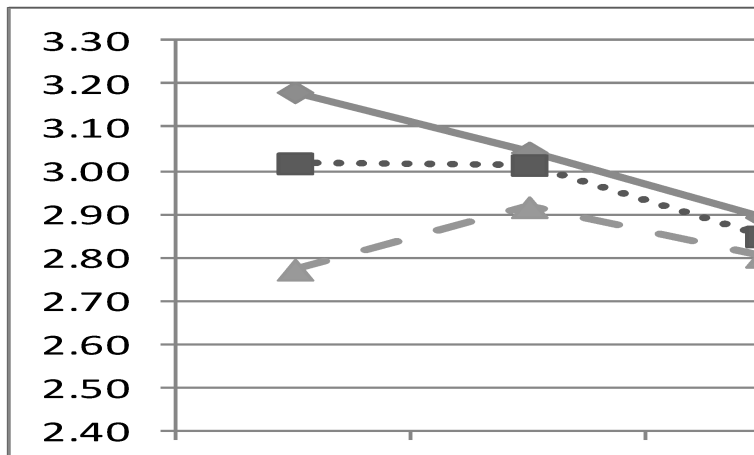
표 IV-12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상	3.35(0.70)	3.12 (0.70)	3.09(0.80)	3.19(0.63)
	중	3.15(0.70)	2.95 (0.75)	2.96(0.80)	3.02(0.65)
	하	2.84(0.87)	2.75 (0.86)	2.79(0.96)	2.78(0.76)
중	상	3.22(0.73)	3.00 (0.66)	2.90(0.76)	3.04(0.61)
	중	3.14(0.73)	3.00 (0.69)	2.89(0.77)	3.01(0.63)
	하	2.99(0.78)	2.88 (0.76)	2.88(0.81)	2.92(0.70)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고	상	2.99(0.86)	2.85 (0.77)	2.75(0.76)	2.86(0.72)
	중	2.96(0.76)	2.84 (0.65)	2.75(0.71)	2.85(0.60)
	하	2.91(0.80)	2.79 (0.71)	2.75(0.75)	2.82(0.66)
대	상	2.91(0.68)	2.59 (0.68)	2.48(0.71)	2.66(0.57)
	중	2.85(0.67)	2.67 (0.66)	2.52(0.69)	2.68(0.56)
	하	2.91(0.73)	2.76 (0.73)	2.63(0.78)	2.77(0.64)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910)=8.44, p<.001$). 응답자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정도로 이민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허용 의식을 나타냈으나, 이러한 차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응답자에 한하여 나타났다(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 $F(6, 10910)=7.15,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빈곤국가 사람에 대한 허용 정도를 제외한 두 문항에 대하여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고,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수준으로 해당 이민자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IV-5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표 IV-12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8.75	3	19.58	48.88***
학업성취수준	6.77	2	3.38	8.44***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7.19	6	2.86	7.15***
오차	4370.96	10910	0.40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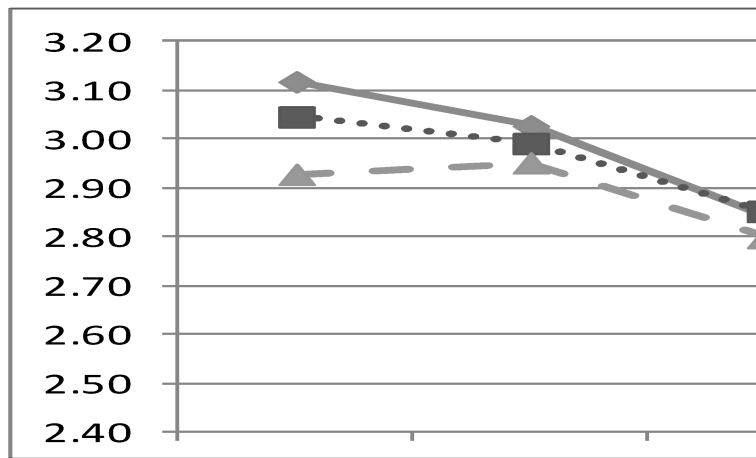
표 IV-12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상	3.29(0.68)	3.06(0.69)	3.01(0.79)	3.12(0.61)
	중	3.17(0.70)	2.98(0.74)	2.99(0.79)	3.05(0.64)
	하	3.05(0.79)	2.88(0.80)	2.90(0.83)	2.94(0.70)
중	상	3.17(0.73)	3.00(0.70)	2.90(0.77)	3.02(0.63)
	중	3.11(0.73)	2.97(0.69)	2.89(0.76)	2.99(0.63)
	하	3.07(0.78)	2.92(0.72)	2.85(0.82)	2.95(0.66)
고	상	2.96(0.80)	2.83(0.67)	2.73(0.73)	2.84(0.62)
	중	2.96(0.77)	2.84(0.67)	2.79(0.71)	2.86(0.62)
	하	2.93(0.77)	2.78(0.68)	2.73(0.74)	2.81(0.63)
대	상	2.91(0.69)	2.73(0.68)	2.60(0.74)	2.74(0.60)
	중	2.81(0.66)	2.62(0.68)	2.50(0.72)	2.64(0.58)
	하	2.96(0.72)	2.66(0.69)	2.54(0.69)	2.72(0.5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0771)=7.98, p < .001$). 경제수준이 하 수준인 응답자는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이민자에 대한 보다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이민자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학교급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 $F(6, 10771)=2.98,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같은 민족과 외국인·소수 민족에 대한 허용 정도에 대하여 경제수준의 주효과를 나타냈으며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림 IV-5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표 IV-12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00.04	3	33.35	84.65***
경제수준	6.28	2	3.14	7.98***
학교급*경제수준	7.05	6	1.18	2.98**
오차	4243.04	10771	0.39	

* $p<.05$, ** $p<.01$, *** $p<.001$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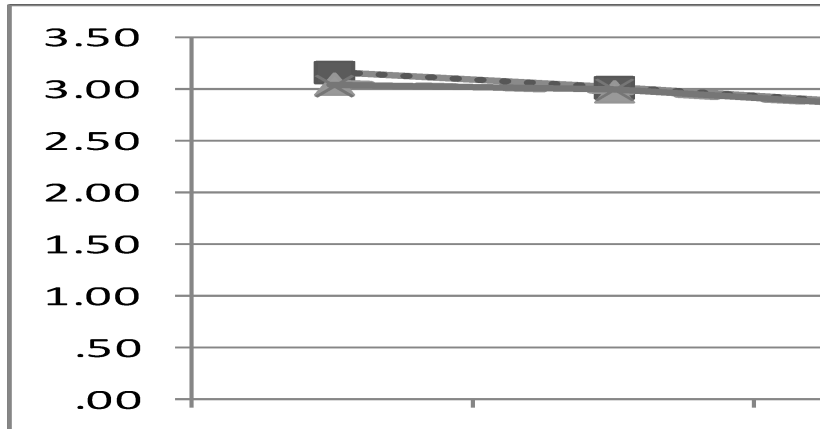
표 IV-12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인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33 (0.70)	3.08 (0.72)	3.06(0.81)	3.15(0.64)
	한부모대졸이상	3.35 (0.66)	3.08 (0.70)	3.06(0.78)	3.16(0.59)
	양부모고졸이하	3.18 (0.71)	2.99 (0.75)	2.99(0.77)	3.05(0.64)
	기타	3.14 (0.73)	2.97 (0.75)	2.98(0.81)	3.03(0.66)
중	양부모대졸이상	3.16 (0.76)	2.99 (0.70)	2.87(0.79)	3.01(0.65)
	한부모대졸이상	3.13 (0.71)	3.01 (0.67)	2.86(0.76)	3.00(0.59)
	양부모고졸이하	3.11 (0.80)	2.93 (0.75)	2.89(0.80)	2.98(0.69)
	기타	3.09 (0.72)	2.96 (0.70)	2.93(0.77)	2.99(0.64)
고	양부모대졸이상	2.97 (0.77)	2.81 (0.68)	2.72(0.71)	2.83(0.61)
	한부모대졸이상	2.96 (0.77)	2.86 (0.67)	2.73(0.74)	2.85(0.63)
	양부모고졸이하	2.94 (0.78)	2.81 (0.65)	2.76(0.72)	2.84(0.61)
	기타	2.92 (0.81)	2.82 (0.72)	2.79(0.75)	2.84(0.67)
대	양부모대졸이상	2.91 (0.68)	2.66 (0.70)	2.54(0.74)	2.70(0.59)
	한부모대졸이상	2.84 (0.67)	2.65 (0.64)	2.51(0.66)	2.67(0.54)
	양부모고졸이하	2.87 (0.69)	2.72 (0.68)	2.61(0.73)	2.73(0.61)
	기타	2.70 (0.77)	2.52 (0.78)	2.43(0.79)	2.55(0.6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3, 11255)=3.68, p<.05$)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나타났다($F(9, 11255)=2.51, p<.01$). 기타 유형에 속한 응답자가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높은 이민자에 대한 허용 의식을 나타냄에 따른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였으며, 이러한 부모학력수준의 효과는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에 한하여 유의미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같은 민족에 대한 허용 정도에서 가장 강한 부모학력수준

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응답자가 양부모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허용 정도를 나타냈다.



【그림 IV-5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표 IV-12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8.66	3	49.55	123.13 ^{***}
부모학력수준	4.44	3	1.48	3.68 [*]
학교급*부모학력수준	9.09	9	1.01	2.51 ^{**}
오차	4529.58	11255	0.40	

^{*} $p < .05$, ^{**} $p < .01$, ^{***} $p < .001$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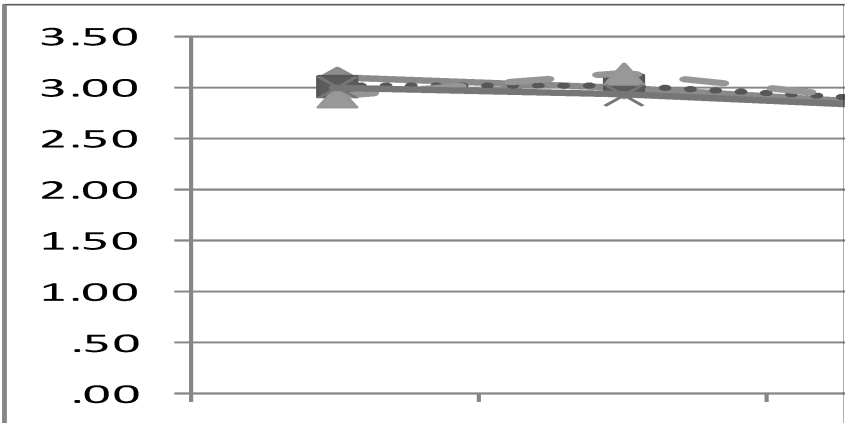
표 IV-12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23(0.71)	3.02(0.74)	3.02(0.81)	3.09(0.65)
	한부모가정	3.09(0.69)	2.95(0.71)	3.01(0.74)	3.02(0.61)
	조손가정	3.05(0.72)	2.91(0.77)	2.81(0.78)	2.92(0.64)
	기타	3.12(0.89)	2.94(0.77)	3.00(0.88)	3.02(0.75)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중	양부모가정	3.13(0.75)	2.97(0.70)	2.88(0.77)	2.99(0.64)
	한부모가정	3.12(0.75)	3.00(0.74)	2.94(0.87)	3.02(0.67)
	조손가정	3.15(0.71)	3.08(0.67)	3.19(0.75)	3.14(0.61)
	기타	3.05(0.74)	2.84(0.67)	2.91(0.85)	2.94(0.66)
고	양부모가정	2.95(0.78)	2.82(0.67)	2.75(0.72)	2.84(0.62)
	한부모가정	2.97(0.81)	2.84(0.72)	2.78(0.78)	2.86(0.67)
	조손가정	2.90(0.76)	2.78(0.81)	2.71(0.85)	2.80(0.75)
	기타	2.88(0.61)	2.76(0.57)	2.90(0.67)	2.84(0.50)
대	양부모가정	2.88(0.68)	2.67(0.68)	2.54(0.72)	2.70(0.59)
	한부모가정	2.75(0.70)	2.56(0.68)	2.52(0.71)	2.61(0.57)
	조손가정	3.44(1.00)	2.77(1.09)	3.02(0.96)	3.08(0.82)
	기타	2.68(1.09)	2.51(1.10)	2.33(1.00)	2.51(1.0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별도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기타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낮은 수준의 허용 정도를 보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과 관련한 주효과 혹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과 기타 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5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

표 IV-13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01	3	2.34	5.80***
가족구성	1.20	3	0.40	0.99
학교급*가족구성	4.32	9	0.48	1.19
오차	4523.42	11233	0.40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표 IV-13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초	서울	3.24 (0.76)	3.05 (0.75)	3.04(0.86)	3.11(0.68)
	부산	3.36 (0.67)	3.12 (0.74)	3.19(0.77)	3.22(0.64)
	대구	3.23 (0.65)	3.01 (0.68)	2.85(0.86)	3.03(0.61)
	인천	3.29 (0.70)	3.03 (0.76)	3.12(0.81)	3.15(0.66)
	광주	3.18 (0.74)	2.99 (0.81)	3.04(0.75)	3.07(0.67)
	대전	3.33 (0.67)	3.02 (0.76)	3.08(0.82)	3.14(0.64)
	울산	3.35 (0.61)	3.00 (0.68)	2.89(0.67)	3.08(0.53)
	경기	3.20 (0.70)	3.03 (0.73)	3.00(0.79)	3.08(0.63)
	강원	3.27 (0.68)	3.03 (0.70)	3.14(0.76)	3.15(0.60)
	충북	3.12 (0.68)	3.00 (0.57)	2.97(0.69)	3.03(0.56)
	충남	3.00 (0.83)	2.88 (0.82)	2.80(0.89)	2.89(0.77)
	전북	3.14 (0.75)	2.92 (0.72)	2.92(0.76)	2.99(0.64)
	전남	3.16 (0.72)	2.94 (0.73)	2.93(0.73)	3.01(0.63)
	경북	3.18 (0.75)	2.98 (0.75)	3.01(0.82)	3.05(0.66)
	경남	3.23 (0.66)	3.04 (0.71)	2.94(0.78)	3.07(0.58)
	제주	3.10 (0.78)	2.93 (0.77)	2.99(0.73)	3.01(0.67)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중	서울	3.09 (0.77)	2.95 (0.68)	2.83(0.80)	2.96(0.65)
	부산	3.20 (0.69)	3.05 (0.70)	3.03(0.75)	3.10(0.63)
	대구	3.23 (0.72)	3.00 (0.67)	2.86(0.76)	3.03(0.60)
	인천	3.06 (0.84)	3.00 (0.67)	2.89(0.77)	2.99(0.63)
	광주	3.16 (0.74)	2.96 (0.73)	2.89(0.81)	3.01(0.66)
	대전	3.34 (0.66)	3.18 (0.64)	3.01(0.77)	3.18(0.59)
	울산	3.17 (0.74)	2.96 (0.70)	2.98(0.79)	3.04(0.65)
	경기	3.08 (0.76)	2.94 (0.72)	2.88(0.78)	2.96(0.66)
	강원	3.21 (0.74)	3.27 (0.63)	2.98(0.79)	3.15(0.61)
	충북	3.05 (0.80)	2.92 (0.81)	2.90(0.84)	2.96(0.72)
	충남	3.20 (0.72)	2.99 (0.74)	2.93(0.81)	3.04(0.67)
	전북	3.09 (0.72)	2.86 (0.74)	2.78(0.78)	2.91(0.65)
	전남	3.10 (0.76)	2.80 (0.80)	2.76(0.87)	2.89(0.68)
	경북	3.03 (0.72)	2.93 (0.66)	2.83(0.75)	2.93(0.62)
	경남	3.13 (0.70)	2.97 (0.69)	2.90(0.74)	3.00(0.63)
	제주	3.20 (0.65)	3.09 (0.61)	3.09(0.65)	3.13(0.56)
고	서울	2.88 (0.80)	2.77 (0.69)	2.72(0.75)	2.79(0.65)
	부산	3.01 (0.74)	2.86 (0.63)	2.77(0.71)	2.88(0.60)
	대구	2.96 (0.83)	2.80 (0.74)	2.74(0.81)	2.83(0.69)
	인천	3.00 (0.81)	2.83 (0.72)	2.84(0.72)	2.89(0.64)
	광주	3.00 (0.80)	2.84 (0.70)	2.64(0.75)	2.83(0.63)
	대전	2.84 (0.75)	2.74 (0.66)	2.62(0.72)	2.73(0.60)
	울산	3.09 (0.70)	2.89 (0.65)	2.84(0.69)	2.94(0.59)
	경기	2.92 (0.78)	2.82 (0.68)	2.76(0.72)	2.83(0.63)
	강원	3.00 (0.80)	2.88 (0.60)	2.73(0.77)	2.87(0.59)
	충북	3.08 (0.84)	2.88 (0.57)	2.76(0.66)	2.91(0.55)
	충남	3.21 (0.77)	2.95 (0.70)	2.78(0.74)	2.98(0.62)
	전북	2.86 (0.76)	2.71 (0.69)	2.68(0.71)	2.75(0.64)
	전남	2.93 (0.76)	2.88 (0.71)	2.82(0.74)	2.88(0.67)

구 분		같은 민족 (고려안조선족 등)	외국안소수민족	빈곤 국가	전체 평균
고	경북	2.86 (0.78)	2.79 (0.64)	2.67(0.74)	2.77(0.60)
	경남	2.94 (0.77)	2.84 (0.65)	2.75(0.70)	2.84(0.61)
	제주	2.98 (0.66)	2.85 (0.69)	2.88(0.60)	2.90(0.60)
대	서울	2.89 (0.72)	2.68 (0.73)	2.54(0.73)	2.70(0.65)
	부산	3.14 (0.52)	2.64 (0.58)	2.27(0.73)	2.68(0.40)
	대구	2.92 (0.48)	2.65 (0.53)	2.50(0.58)	2.69(0.43)
	인천	2.64 (0.80)	2.65 (0.65)	2.59(0.74)	2.63(0.67)
	광주	2.96 (0.44)	2.85 (0.51)	2.96(0.60)	2.92(0.42)
	대전	2.85 (0.71)	2.86 (0.63)	2.63(0.72)	2.78(0.55)
	울산	3.03 (0.83)	3.03 (0.59)	3.07(0.62)	3.05(0.64)
	경기	2.87 (0.71)	2.56 (0.75)	2.51(0.72)	2.65(0.63)
	강원	2.87 (0.80)	2.57 (0.72)	2.56(0.86)	2.67(0.68)
	충북	2.92 (0.76)	2.89 (0.62)	2.81(0.61)	2.87(0.56)
	충남	2.87 (0.74)	2.75 (0.81)	2.55(0.75)	2.72(0.66)
	전북	2.75 (0.70)	2.41 (0.87)	2.10(0.72)	2.42(0.66)
	전남	2.49 (0.94)	2.56 (0.70)	2.57(0.76)	2.54(0.68)
	경북	2.57 (0.57)	2.45 (0.57)	2.38(0.56)	2.47(0.45)
	경남	2.71 (0.68)	2.36 (0.71)	2.33(0.67)	2.47(0.60)
	제주	2.91 (0.77)	2.71 (0.72)	2.78(0.78)	2.80(0.6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5, 11207)=3.63, p<.001$).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민자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응답자가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다(학교 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45, 11207)=2.00,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모두 나타났으나 각 문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지역이 상이했다. 외국에 사는 우리 민족의 후손의 경우, 부산에 위치한 학교의 응답자들이 보아 높은 수준의 허용 수준을 나타냈고, 외국인 및 소수민족의 경우, 전북지역에 위치한 응답자들이 가장 소극적인 허용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빈곤국가로 부터 이민자가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수준은 제주에 위치한 학교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았다.

표 IV-13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7.78	3	32.59	81.40***
학교지역	21.81	15	1.45	3.63***
학교급*학교지역	36.06	45	0.80	2.00***
오차	4487.42	11207	0.40	

* $p < .05$, ** $p < .01$, *** $p < .001$

3) 국가 및 역사 의식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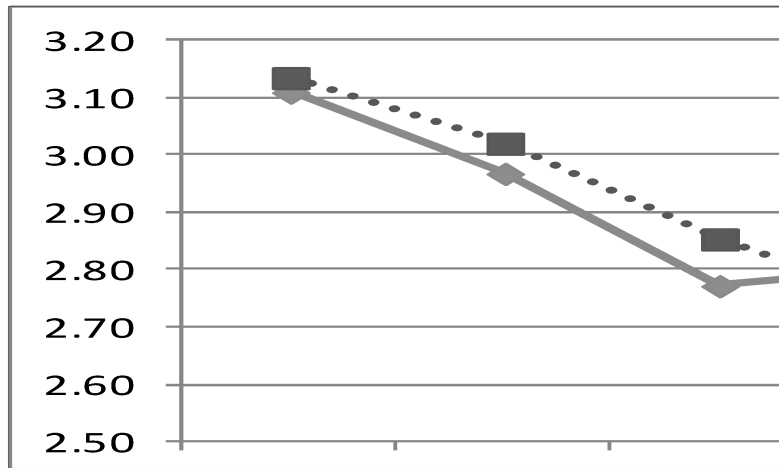
표 IV-13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구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남	3.10(0.82)	3.07(0.79)	3.11(0.79)	3.18(0.75)	3.11 (0.61)
	여	3.12(0.77)	3.05(0.75)	3.16(0.71)	3.24(0.69)	3.14 (0.55)
중	남	2.95(0.79)	2.98(0.74)	2.92(0.83)	3.02(0.74)	2.97 (0.60)
	여	3.05(0.73)	3.02(0.67)	2.94(0.79)	3.08(0.69)	3.02 (0.53)
고	남	2.70(0.80)	2.85(0.75)	2.60(0.92)	2.92(0.77)	2.77 (0.58)
	여	2.87(0.71)	2.88(0.66)	2.61(0.84)	3.02(0.67)	2.85 (0.49)
대	남	2.83(0.69)	2.78(0.78)	2.64(0.86)	3.04(0.62)	2.82 (0.51)
	여	2.79(0.65)	2.66(0.73)	2.57(0.81)	2.90(0.63)	2.73 (0.5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 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69)=220.85, p<.001$).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국가 및 역사 의식의 수준은 낮아졌는데 그 결과 초등학교급에서 3.13의 평균 점수가 대학교급의 경우 2.78로 낮아졌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 성별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존재하였다(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3, 11269)=6.46, p<.001$).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은 국가 및 역사의식 수준을 나타냈으나 대학교 응답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국가 및 역사의식 수준을 보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학교급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국산품 애용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성별의 주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IV-5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3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5.90	3	68.63	220.85***
성별	0.61	1	0.61	1.98
학교급*성별	6.02	3	2.01	6.46***
오차	3502.11	11269	0.3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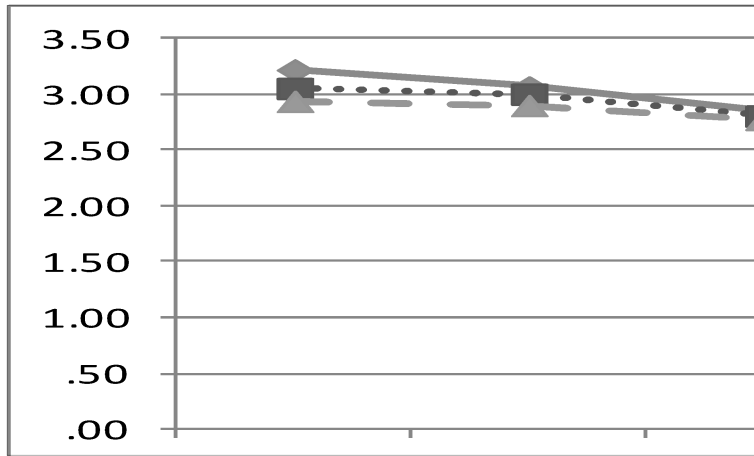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표 IV-13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상	3.16(0.81)	3.17(0.78)	3.24(0.76)	3.33(0.70)	3.23 (0.57)
	중	3.08(0.78)	2.98(0.75)	3.06(0.74)	3.14(0.71)	3.06 (0.58)
	하	3.02(0.85)	2.90(0.81)	2.94(0.78)	2.96(0.82)	2.96 (0.69)
중	상	3.15(0.77)	3.12(0.73)	2.86(0.93)	3.15(0.73)	3.07 (0.57)
	중	3.01(0.75)	3.00(0.69)	2.95(0.79)	3.06(0.71)	3.00 (0.55)
	하	2.85(0.75)	2.91(0.72)	2.91(0.75)	2.95(0.70)	2.90 (0.59)
고	상	2.77(0.84)	2.96(0.73)	2.56(0.95)	3.05(0.73)	2.84 (0.58)
	중	2.80(0.76)	2.89(0.71)	2.55(0.90)	3.00(0.72)	2.81 (0.54)
	하	2.75(0.75)	2.80(0.70)	2.72(0.82)	2.90(0.73)	2.79 (0.55)
대	상	3.00(0.68)	2.93(0.67)	2.82(0.84)	3.10(0.62)	2.96 (0.51)
	중	2.85(0.65)	2.78(0.69)	2.69(0.79)	3.01(0.64)	2.83 (0.46)
	하	2.67(0.70)	2.60(0.84)	2.47(0.87)	2.94(0.60)	2.67 (0.5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0916)=30.95, p<.001$).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 및 역사의식의 수준 역시 높아졌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F(6, 10916)=5.16,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응답자의 경우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그림 IV-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3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7.71	3	19.24	62.61***
학업성취수준	19.02	2	9.51	30.95***
학교급*학업성취수준	9.51	6	1.59	5.16***
오차	3354.10	10916	0.31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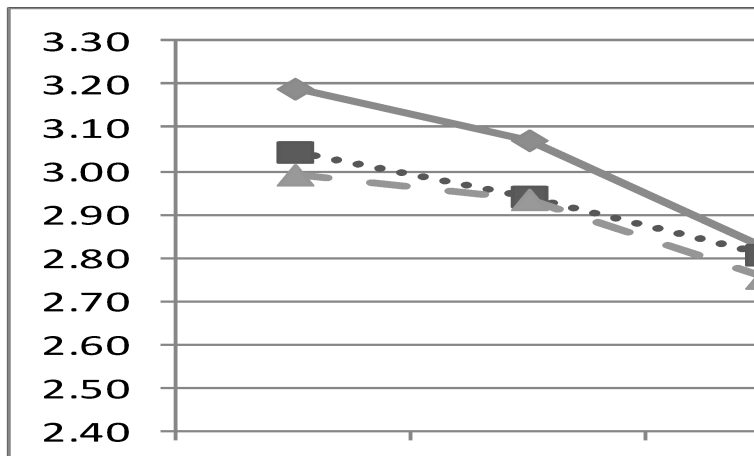
표 IV-13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상	3.16(0.77)	3.16(0.74)	3.19(0.74)	3.28(0.69)	3.20(0.56)
	중	3.03(0.78)	2.96(0.76)	3.07(0.72)	3.14(0.70)	3.05(0.56)
	하	3.02(0.83)	2.97(0.77)	3.01(0.78)	3.00(0.79)	3.00(0.63)
중	상	3.08(0.77)	3.09(0.71)	2.98(0.83)	3.14(0.71)	3.07(0.56)
	중	2.94(0.73)	2.93(0.69)	2.89(0.77)	3.01(0.67)	2.94(0.54)
	하	2.95(0.77)	2.95(0.70)	2.85(0.84)	2.96(0.77)	2.93(0.58)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고	상	2.81(0.78)	2.88(0.73)	2.56(0.91)	3.00(0.72)	2.81(0.55)
	중	2.80(0.73)	2.87(0.68)	2.64(0.84)	2.95(0.70)	2.82(0.53)
	하	2.71(0.78)	2.84(0.72)	2.60(0.92)	2.95(0.75)	2.77(0.54)
대	상	2.79(0.64)	2.76(0.78)	2.67(0.81)	3.05(0.63)	2.82(0.52)
	중	2.84(0.66)	2.71(0.71)	2.59(0.80)	2.92(0.60)	2.77(0.47)
	하	2.69(0.75)	2.68(0.86)	2.53(0.97)	2.95(0.71)	2.71(0.5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776)=28.03, p<.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및 역사의식 수준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응답자에 한하여 나타난 효과로서 경제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로 이어졌다($F(6, 10776)=5.31,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 역시 유의미한 정도로 상승하며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에 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응답자들이 경제수준의 효과가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그림 IV-6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3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6.59	3	42.20	140.12***
경제수준	16.88	2	8.44	28.03***
학교급*경제수준	9.60	6	1.60	5.31***
오차	3245.14	10776	0.3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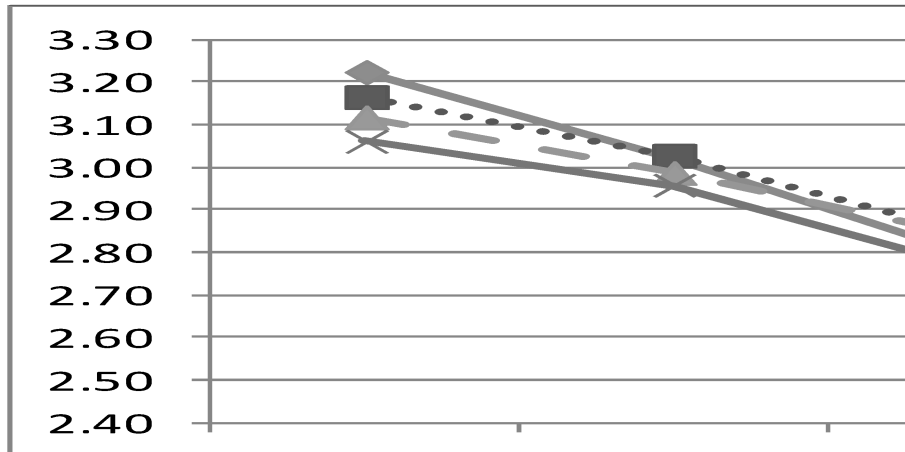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표 IV-13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 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16(0.82)	3.19(0.76)	3.24(0.74)	3.34(0.70)	3.23 (0.58)
	한분만대졸이상	3.15(0.75)	3.11(0.74)	3.16(0.78)	3.26(0.73)	3.17 (0.54)
	양부모고졸이하	3.11(0.82)	3.07(0.76)	3.11(0.79)	3.21(0.76)	3.12 (0.61)
	기타	3.06(0.79)	2.98(0.78)	3.08(0.74)	3.13(0.71)	3.06 (0.59)
중	양부모대졸이상	3.04(0.78)	3.05(0.74)	2.89(0.89)	3.09(0.75)	3.02 (0.60)
	한분만대졸이상	3.01(0.78)	3.02(0.71)	3.01(0.83)	3.07(0.77)	3.02 (0.58)
	양부모고졸이하	2.96(0.77)	2.96(0.72)	2.96(0.77)	3.05(0.69)	2.98 (0.56)
	기타	2.97(0.73)	2.96(0.68)	2.90(0.75)	3.01(0.66)	2.96 (0.54)
고	양부모대졸이상	2.77(0.79)	2.85(0.74)	2.54(0.91)	2.99(0.75)	2.79 (0.57)
	한분만대졸이상	2.81(0.78)	2.94(0.66)	2.61(0.91)	3.01(0.70)	2.84 (0.54)
	양부모고졸이하	2.83(0.71)	2.86(0.69)	2.66(0.86)	2.97(0.70)	2.83 (0.49)
	기타	2.73(0.77)	2.81(0.73)	2.63(0.85)	2.89(0.74)	2.76 (0.57)
대	양부모대졸이상	2.83(0.63)	2.67(0.78)	2.62(0.86)	2.98(0.63)	2.78 (0.52)
	한분만대졸이상	2.77(0.74)	2.81(0.67)	2.61(0.80)	3.03(0.62)	2.80 (0.48)
	양부모고졸이하	2.81(0.67)	2.72(0.79)	2.61(0.84)	2.96(0.64)	2.77 (0.49)
	기타	2.76(0.66)	2.76(0.78)	2.47(0.81)	2.85(0.63)	2.71 (0.5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61)=7.11, p<.001$). 사후검정 결과, 양부모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국가 및 역사의식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의 경우에 한하여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의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9, 11261)=2.65,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국가 정보 보안과 자부심의 경우, 양부모가 대졸자 이상인 응답자가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의식 수준을 보임으로써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림 IV-6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4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80.72	3	60.24	194.32***
부모학력수준	6.61	3	2.20	7.11***
학교급*부모학력수준	7.40	9	0.82	2.65**
오차	3490.98	11261	0.3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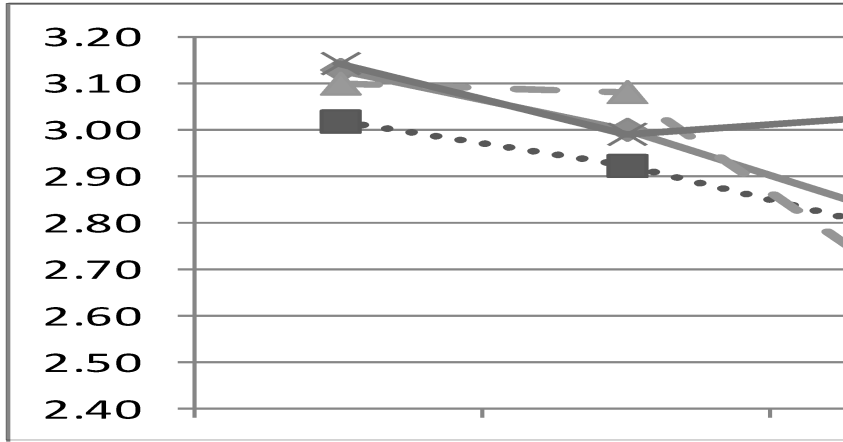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표 IV-14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10(0.80)	3.07(0.78)	3.14(0.76)	3.22(0.72)	3.13 (0.59)
	한부모가정	3.08(0.72)	2.90(0.71)	3.00(0.70)	3.07(0.72)	3.01 (0.56)
	조손가정	3.11(0.81)	2.92(0.80)	3.13(0.75)	3.18(0.72)	3.08 (0.58)
	기타	3.35(0.74)	3.10(0.80)	3.17(0.83)	3.03(0.90)	3.16 (0.58)
중	양부모가정	3.00(0.76)	3.01(0.71)	2.93(0.82)	3.06(0.71)	3.00 (0.57)
	한부모가정	2.93(0.75)	2.90(0.70)	2.88(0.79)	2.96(0.76)	2.92 (0.54)
	조손가정	3.12(0.71)	3.07(0.81)	3.14(0.67)	3.04(0.70)	3.09 (0.61)
	기타	3.06(0.78)	2.85(0.70)	2.97(0.77)	2.99(0.67)	2.97 (0.60)
고	양부모가정	2.80(0.76)	2.86(0.71)	2.61(0.88)	2.98(0.72)	2.81 (0.54)
	한부모가정	2.69(0.79)	2.86(0.72)	2.61(0.90)	2.92(0.75)	2.77 (0.56)
	조손가정	2.53(0.94)	2.82(0.74)	2.57(0.86)	2.89(0.87)	2.70 (0.61)
	기타	3.06(0.54)	3.14(0.61)	2.73(0.77)	3.14(0.36)	3.02 (0.50)
대	양부모가정	2.81(0.67)	2.72(0.76)	2.60(0.84)	2.97(0.63)	2.78 (0.50)
	한부모가정	2.71(0.74)	2.70(0.74)	2.57(0.80)	2.94(0.58)	2.73 (0.53)
	조손가정	2.61(0.56)	3.70(0.53)	2.95(0.25)	2.95(0.25)	3.05 (0.25)
	기타	2.98(0.55)	2.92(0.59)	2.59(0.90)	3.05(0.70)	2.89 (0.5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여($F(3, 11239)=3.59, p<.01$)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와 기타 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국가 및 역사의식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국산품 애용과 국가 정보 보안의 경우,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사후검정 결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에 비하여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상호작용

표 IV-14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03	3	3.01	9.67***
가족구성	3.35	3	1.12	3.59*
학교급*가족구성	2.50	9	0.28	0.89
오차	3498.90	11239	0.31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표 IV-14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평균(표준편차)

구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서울	3.10(0.82)	3.09(0.79)	3.17 (0.75)	3.26 (0.72)	3.16 (0.59)
	부산	3.19(0.82)	3.18(0.85)	3.28 (0.73)	3.33 (0.64)	3.24 (0.56)
	대구	2.97(0.78)	3.10(0.67)	3.14 (0.67)	3.16 (0.69)	3.09 (0.52)
	인천	3.07(0.76)	3.06(0.70)	3.11 (0.73)	3.20 (0.68)	3.11 (0.56)
	광주	3.23(0.69)	3.15(0.67)	3.10 (0.76)	3.19 (0.70)	3.17 (0.54)
	대전	3.18(0.72)	3.09(0.70)	3.23 (0.73)	3.31 (0.63)	3.20 (0.52)
	울산	3.19(0.75)	3.30(0.70)	3.37 (0.63)	3.30 (0.62)	3.29 (0.52)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초	경기	3.08(0.83)	3.05(0.80)	3.12 (0.77)	3.19 (0.76)	3.11 (0.61)
	강원	3.12(0.75)	3.11(0.75)	3.17 (0.74)	3.12 (0.74)	3.13 (0.57)
	충북	3.19(0.75)	3.13(0.75)	3.06 (0.75)	3.16 (0.82)	3.13 (0.60)
	충남	3.15(0.90)	3.05(0.82)	3.14 (0.80)	3.13 (0.80)	3.12 (0.69)
	전북	2.96(0.78)	2.79(0.88)	2.72 (0.90)	3.09 (0.81)	2.89 (0.63)
	전남	3.08(0.71)	2.91(0.78)	2.93 (0.81)	3.03 (0.75)	2.99 (0.59)
	경북	3.07(0.74)	2.92(0.71)	3.02 (0.69)	3.19 (0.60)	3.05 (0.53)
	경남	3.20(0.74)	3.06(0.69)	3.23 (0.66)	3.23 (0.69)	3.18 (0.52)
	제주	3.08(0.88)	2.90(0.96)	3.13 (0.78)	3.20 (0.67)	3.08 (0.64)
중	서울	2.91(0.83)	2.94(0.76)	2.95 (0.84)	2.96 (0.78)	2.94 (0.61)
	부산	3.16(0.71)	3.09(0.67)	2.98 (0.84)	3.12 (0.64)	3.08 (0.52)
	대구	3.08(0.75)	3.05(0.69)	2.98 (0.80)	3.12 (0.65)	3.06 (0.53)
	인천	3.05(0.77)	3.00(0.72)	2.96 (0.82)	3.06 (0.75)	3.02 (0.55)
	광주	3.11(0.70)	2.97(0.68)	2.89 (0.72)	3.02 (0.72)	3.00 (0.53)
	대전	3.17(0.73)	3.18(0.71)	2.91 (0.93)	3.23 (0.71)	3.12 (0.61)
	울산	2.94(0.77)	2.96(0.66)	2.99 (0.79)	3.12 (0.59)	3.00 (0.54)
	경기	2.98(0.76)	3.02(0.70)	2.92 (0.83)	3.08 (0.73)	3.00 (0.58)
	강원	2.88(0.80)	2.99(0.66)	2.85 (0.88)	2.93 (0.77)	2.91 (0.56)
	충북	2.90(0.86)	2.98(0.78)	2.78 (0.91)	2.96 (0.79)	2.91 (0.64)
	충남	3.09(0.71)	2.99(0.73)	2.96 (0.79)	3.09 (0.73)	3.03 (0.59)
	전북	2.94(0.70)	3.00(0.64)	3.02 (0.60)	3.03 (0.60)	3.00 (0.47)
	전남	3.00(0.71)	3.02(0.70)	2.95 (0.83)	2.91 (0.75)	2.97 (0.63)
	경북	2.95(0.75)	2.89(0.67)	2.88 (0.78)	3.01 (0.61)	2.93 (0.50)
	경남	2.95(0.71)	2.94(0.73)	2.90 (0.72)	3.08 (0.63)	2.97 (0.53)
	제주	3.07(0.69)	3.06(0.66)	2.84 (0.85)	3.03 (0.72)	3.00 (0.49)
고	서울	2.70(0.80)	2.84(0.73)	2.56 (0.95)	2.96 (0.77)	2.77 (0.57)
	부산	2.89(0.71)	2.95(0.63)	2.74 (0.82)	2.99 (0.64)	2.89 (0.49)
	대구	2.63(0.79)	2.89(0.82)	2.75 (0.90)	3.03 (0.76)	2.82 (0.59)

구 분	국산품 애용	국가 정보 보안	언론 통제	자부심	전체 평균	
고	인천	2.73(0.78)	2.88(0.74)	2.65 (0.93)	3.05 (0.75)	2.83 (0.53)
	광주	2.73(0.84)	2.73(0.75)	2.47 (0.90)	2.86 (0.74)	2.70 (0.58)
	대전	2.73(0.78)	2.84(0.74)	2.61 (0.86)	2.98 (0.72)	2.79 (0.58)
	울산	2.88(0.65)	2.90(0.57)	2.60 (0.81)	3.01 (0.62)	2.85 (0.49)
	경기	2.74(0.76)	2.85(0.69)	2.55 (0.87)	2.90 (0.75)	2.76 (0.54)
	강원	2.75(0.74)	2.84(0.69)	2.62 (0.86)	2.89 (0.77)	2.77 (0.53)
	충북	2.75(0.74)	2.71(0.83)	2.55 (0.81)	3.03 (0.59)	2.76 (0.47)
	충남	3.04(0.71)	2.99(0.66)	2.64 (0.87)	3.06 (0.67)	2.93 (0.52)
	전북	2.92(0.77)	2.82(0.76)	2.49 (0.87)	2.98 (0.76)	2.80 (0.58)
	전남	2.96(0.72)	3.01(0.74)	2.74 (0.92)	3.01 (0.73)	2.93 (0.58)
	경북	2.83(0.72)	2.87(0.63)	2.57 (0.91)	3.13 (0.59)	2.85 (0.48)
	경남	2.80(0.74)	2.85(0.67)	2.64 (0.80)	2.92 (0.74)	2.80 (0.52)
	제주	2.85(0.74)	2.79(0.69)	2.72 (0.80)	3.00 (0.67)	2.84 (0.55)
대	서울	3.03(0.58)	2.80(0.69)	2.84 (0.75)	3.06 (0.68)	2.93 (0.46)
	부산	2.79(0.49)	2.80(0.70)	2.83 (0.74)	3.12 (0.54)	2.89 (0.43)
	대구	2.86(0.63)	2.87(0.61)	2.61 (0.68)	3.05 (0.53)	2.85 (0.42)
	인천	2.83(0.81)	2.40(0.88)	2.22 (0.92)	3.09 (0.67)	2.64 (0.55)
	광주	2.54(0.55)	1.56(0.74)	1.63 (0.77)	2.80 (0.60)	2.13 (0.40)
	대전	2.83(0.82)	2.92(0.65)	2.85 (0.62)	3.00 (0.59)	2.90 (0.49)
	울산	2.81(0.50)	3.04(0.56)	3.29 (0.87)	3.11 (0.73)	3.06 (0.55)
	경기	2.78(0.69)	2.98(0.53)	2.72 (0.78)	2.94 (0.59)	2.85 (0.46)
	강원	2.71(0.83)	2.77(0.79)	2.57 (0.76)	2.94 (0.75)	2.75 (0.57)
	충북	2.58(0.66)	2.77(0.58)	2.40 (0.88)	2.96 (0.59)	2.68 (0.50)
	충남	2.78(0.78)	2.85(0.75)	2.54 (0.83)	2.95 (0.58)	2.78 (0.45)
	전북	2.80(0.69)	2.85(0.63)	2.37 (0.83)	2.80 (0.75)	2.71 (0.51)
	전남	2.81(0.77)	2.75(0.79)	2.21 (0.89)	2.80 (0.72)	2.64 (0.62)
	경북	2.72(0.57)	2.71(0.77)	2.80 (0.72)	2.83 (0.56)	2.77 (0.38)
	경남	2.67(0.62)	2.47(0.64)	2.45 (0.78)	2.74 (0.66)	2.58 (0.46)
	제주	2.72(0.80)	2.73(0.80)	2.79 (0.80)	2.81 (0.68)	2.76 (0.5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국가 및 역사의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15, 11213)=6.38, p<.001$). 사후검정 결과 부산지역의 응답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국가 및 역사의식을 나타냈으나 충북의 응답자는 이와 반대로 보다 낮은 의식 수준을 응답했다. 부산과 충북의 이러한 응답 경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 $F(45, 11213)=3.89,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 정보 보안의 경우 충북과 광주지역의 응답자들이 보다 낮은 응답 수준을 보였고, 언론 통제의 경우 광주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낮은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표 IV-14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가 및 역사의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3.55	3	41.18	134.38***
학교지역	29.31	15	1.95	6.38***
학교급*학교지역	53.68	45	1.19	3.89***
오차	3436.29	11213	0.31	

* $p<.05$, ** $p<.01$, *** $p<.001$

4) 국제관계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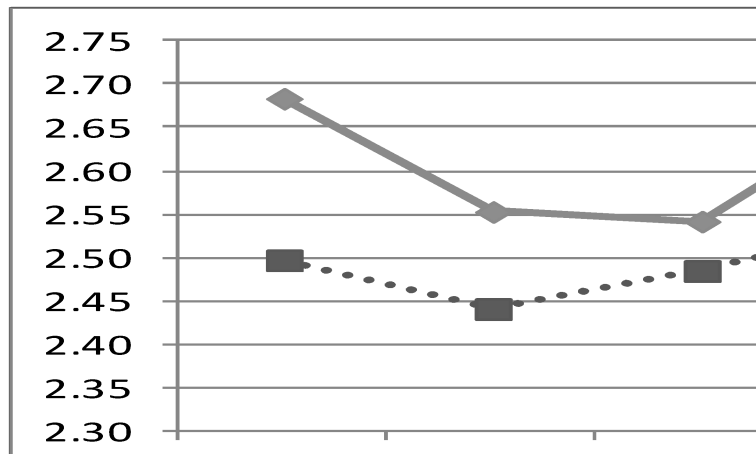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표 IV-14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남	2.67(0.91)	2.68 (0.84)
	여	2.46(0.83)	2.50 (0.78)
중	남	2.51(0.87)	2.56 (0.83)
	여	2.39(0.76)	2.44 (0.72)
고	남	2.48(0.80)	2.55 (0.76)
	여	2.39(0.72)	2.47 (0.68)
대	남	2.68(0.65)	2.69 (0.58)
	여	2.49(0.63)	2.53 (0.5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다(학교급의 주효과: $F(3, 11248)=12.12, p<.001$, 성별의 주효과: $F(1, 11248)=68.79, p<.001$).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와 대학교 응답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 발달단계에 따른 역U자형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국제관계관심을 보였고 이는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른 역U자형의 점수분포를 나타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타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국가간 갈등 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림 IV-6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표 IV-14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67	3	6.89	12.12***
성별	39.10	1	39.10	68.79***
학교급*성별	4.23	3	1.41	2.48
오차	6392.64	11248	0.5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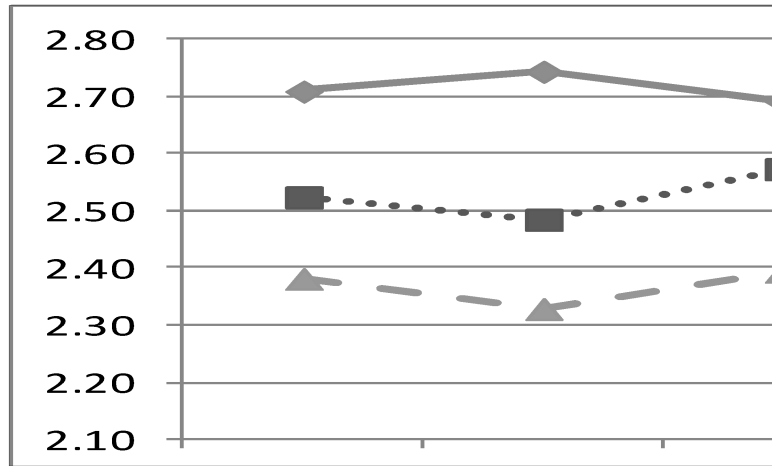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표 IV-14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상	2.68(0.90)	2.74 (0.89)	2.71 (0.83)
	중	2.51(0.85)	2.54 (0.85)	2.52 (0.79)
	하	2.40(0.99)	2.34 (0.99)	2.37 (0.96)
중	상	2.69(0.86)	2.81 (0.85)	2.75 (0.81)
	중	2.44(0.80)	2.54 (0.81)	2.49 (0.75)
	하	2.31(0.81)	2.35 (0.84)	2.33 (0.78)
고	상	2.58(0.83)	2.68 (0.79)	2.63 (0.77)
	중	2.47(0.77)	2.63 (0.78)	2.55 (0.72)
	하	2.34(0.75)	2.46 (0.76)	2.40 (0.71)
대	상	2.67(0.63)	2.69 (0.62)	2.68 (0.56)
	중	2.56(0.63)	2.61 (0.63)	2.59 (0.56)
	하	2.66(0.64)	2.68 (0.66)	2.67 (0.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0896)=31.00, p<.001$).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정도로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정도 또한 높아졌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관심의 차이 정도는 줄어들어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6, 10896)=5.18,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정도로 평균 점수가 높아졌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가 미미해졌다.



【그림 IV-6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표 IV-14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70	3	2.90	5.14**
학업성취수준	34.97	2	17.49	31.00***
학교급*학업성취수준	17.52	6	2.92	5.18***
오차	6145.73	10896	0.56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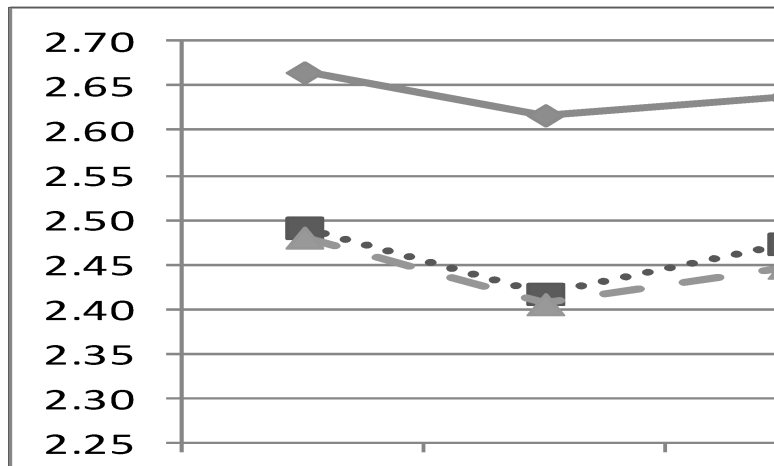
표 IV-14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상	2.62(0.88)	2.70 (0.87)	2.66 (0.80)
	중	2.48(0.82)	2.51 (0.82)	2.50 (0.77)
	하	2.47(0.90)	2.49 (0.91)	2.48 (0.85)
중	상	2.57(0.83)	2.68 (0.85)	2.62 (0.80)
	중	2.38(0.79)	2.47 (0.81)	2.42 (0.74)
	하	2.37(0.81)	2.46 (0.82)	2.41 (0.76)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고	상	2.55(0.78)	2.72 (0.77)	2.63 (0.72)
	중	2.41(0.74)	2.54 (0.74)	2.47 (0.69)
	하	2.34(0.78)	2.50 (0.80)	2.42 (0.74)
대	상	2.61(0.65)	2.65 (0.64)	2.63 (0.58)
	중	2.56(0.63)	2.60 (0.64)	2.58 (0.58)
	하	2.64(0.72)	2.70 (0.69)	2.67 (0.6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난 바($F(2, 10757)=34.57, p<.001$)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 경제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역시 유의미한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 응답자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른 국제관계관심 정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뚜렷한 선형관계를 나타내 학교급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F(6, 10757)=2.38, p<.05$).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심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교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교급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IV-6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표 IV-15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20	3	4.73	8.62 ^{***}
경제수준	37.94	2	18.97	34.57 ^{***}
학교급*경제수준	7.82	6	1.30	2.38 [*]
오차	5902.59	10757	0.5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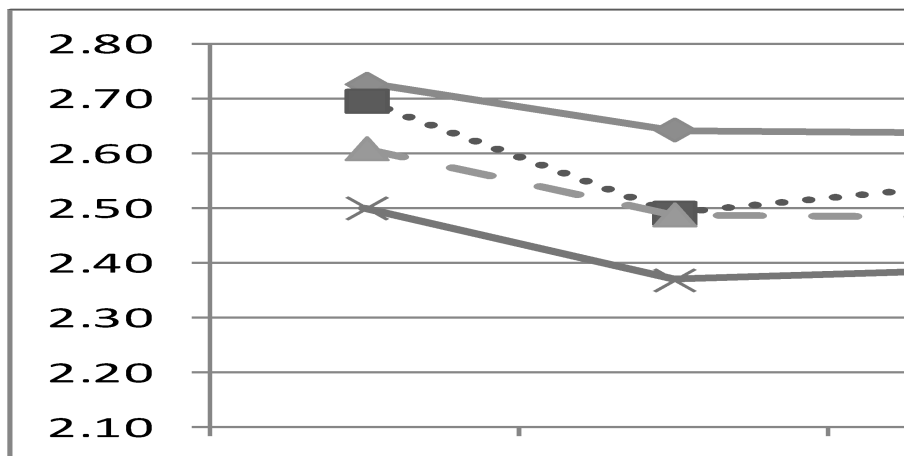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표 IV-15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2.69 (0.88)	2.77 (0.87)	2.73 (0.81)
	한분만대졸이상	2.66 (0.91)	2.73 (0.87)	2.69 (0.81)
	양부모고졸이하	2.61 (0.87)	2.61 (0.88)	2.61 (0.81)
	기타	2.48 (0.86)	2.51 (0.87)	2.50 (0.81)
중	양부모대졸이상	2.59 (0.83)	2.70 (0.84)	2.65 (0.79)
	한분만대졸이상	2.45 (0.82)	2.55 (0.84)	2.50 (0.77)
	양부모고졸이하	2.43 (0.83)	2.55 (0.85)	2.49 (0.79)
	기타	2.34 (0.80)	2.40 (0.81)	2.37 (0.76)
고	양부모대졸이상	2.58 (0.80)	2.70 (0.80)	2.64 (0.75)
	한분만대졸이상	2.44 (0.77)	2.63 (0.76)	2.53 (0.71)
	양부모고졸이하	2.39 (0.74)	2.53 (0.76)	2.46 (0.70)
	기타	2.30 (0.73)	2.44 (0.76)	2.37 (0.70)
대	양부모대졸이상	2.57 (0.60)	2.59 (0.62)	2.58 (0.55)
	한분만대졸이상	2.60 (0.69)	2.64 (0.64)	2.63 (0.60)
	양부모고졸이하	2.64 (0.70)	2.69 (0.68)	2.66 (0.63)
	기타	2.56 (0.66)	2.62 (0.70)	2.59 (0.6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40)=18.76, p<.001$). 부모의 학력수준이 양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 양부모가 모두 고졸 이하로 순서로 갈수록 응답자의 국제관계관심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F(9, 11240)=2.75,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와 학교급과 부모학력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국가간 갈등 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대학교급 응답자는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관심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IV-6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표 IV-15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0.04	3	10.01	17.79***
부모학력수준	31.69	3	10.56	18.76***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3.93	9	1.55	2.75**
오차	6328.18	11240	0.5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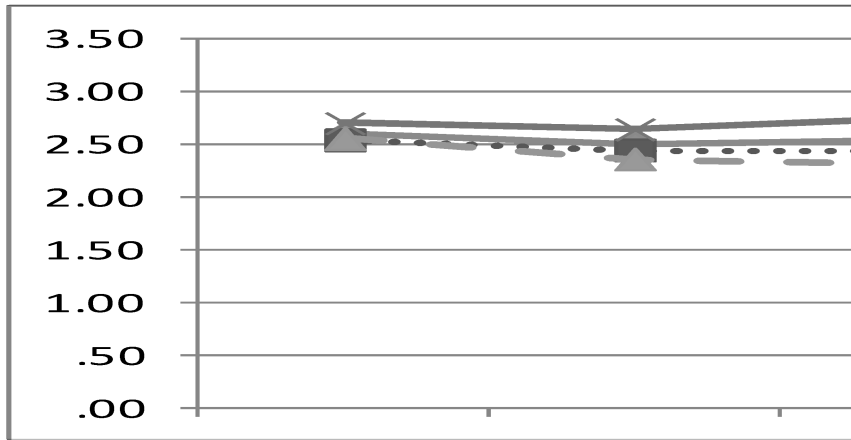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표 IV-15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2.57 (0.88)	2.62 (0.88)	2.60 (0.82)
	한부모가정	2.53 (0.85)	2.52 (0.85)	2.53 (0.79)
	조손가정	2.43 (0.92)	2.58 (0.96)	2.51 (0.90)
	기타	2.75 (0.94)	2.69 (0.92)	2.72 (0.91)
중	양부모가정	2.46 (0.82)	2.56 (0.84)	2.51 (0.78)
	한부모가정	2.38 (0.81)	2.49 (0.86)	2.44 (0.78)
	조손가정	2.37 (0.90)	2.37 (0.90)	2.37 (0.88)
	기타	2.67 (0.93)	2.53 (0.85)	2.60 (0.82)
고	양부모가정	2.45 (0.77)	2.60 (0.77)	2.52 (0.72)
	한부모가정	2.34 (0.77)	2.49 (0.76)	2.41 (0.71)
	조손가정	2.32 (0.80)	2.31 (0.93)	2.31 (0.83)
	기타	2.46 (0.62)	2.72 (0.62)	2.59 (0.55)
대	양부모가정	2.60 (0.65)	2.63 (0.64)	2.62 (0.58)
	한부모가정	2.47 (0.77)	2.53 (0.70)	2.50 (0.70)
	조손가정	2.95 (0.25)	3.11 (0.89)	3.03 (0.47)
	기타	2.68 (0.49)	2.93 (0.59)	2.81 (0.4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3, 11218)=3.32, p<.05$).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는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높은 국제관계관심을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국가간 갈등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6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의 상호작용

표 IV-15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39	3	1.46	2.56
가족구성	5.70	3	1.90	3.32*
학교급*가족구성	1.88	9	0.21	0.36
오차	6413.36	11218	0.57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표 IV-15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평균(표준편차)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서울	2.49 (0.89)	2.60 (0.88)	2.55 (0.83)
	부산	2.70 (0.93)	2.73 (0.91)	2.72 (0.87)
	대구	2.56 (0.82)	2.63 (0.84)	2.59 (0.75)
	인천	2.57 (0.91)	2.60 (0.93)	2.58 (0.86)
	광주	2.67 (0.91)	2.65 (0.89)	2.66 (0.81)
	대전	2.55 (0.83)	2.64 (0.84)	2.60 (0.78)
	울산	2.84 (0.79)	2.82 (0.78)	2.83 (0.73)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초	경기	2.55 (0.87)	2.60 (0.89)	2.58 (0.82)	
	강원	2.41 (1.00)	2.49 (0.92)	2.45 (0.89)	
	충북	2.65 (0.82)	2.66 (0.86)	2.65 (0.80)	
	충남	2.55 (0.88)	2.56 (0.84)	2.56 (0.82)	
	전북	2.49 (0.86)	2.50 (0.86)	2.50 (0.82)	
	전남	2.53 (0.80)	2.59 (0.84)	2.56 (0.76)	
	경북	2.59 (0.83)	2.57 (0.80)	2.58 (0.75)	
	경남	2.66 (0.86)	2.64 (0.89)	2.65 (0.83)	
	제주	2.69 (0.86)	2.62 (0.89)	2.65 (0.82)	
중	서울	2.43 (0.84)	2.52 (0.86)	2.47 (0.79)	
	부산	2.52 (0.78)	2.66 (0.74)	2.59 (0.69)	
	대구	2.31 (0.77)	2.46 (0.81)	2.39 (0.75)	
	인천	2.45 (0.83)	2.48 (0.86)	2.47 (0.79)	
	광주	2.38 (0.88)	2.50 (0.89)	2.44 (0.85)	
	대전	2.55 (0.78)	2.61 (0.78)	2.58 (0.75)	
	울산	2.41 (0.75)	2.47 (0.76)	2.44 (0.72)	
	경기	2.42 (0.82)	2.53 (0.86)	2.47 (0.79)	
	강원	2.57 (0.71)	2.68 (0.72)	2.63 (0.65)	
	충북	2.41 (0.98)	2.44 (0.92)	2.42 (0.89)	
	충남	2.49 (0.86)	2.56 (0.87)	2.53 (0.82)	
	전북	2.32 (0.82)	2.46 (0.87)	2.39 (0.78)	
	전남	2.61 (0.92)	2.68 (0.92)	2.65 (0.88)	
	경북	2.37 (0.76)	2.51 (0.81)	2.44 (0.72)	
	경남	2.59 (0.79)	2.62 (0.81)	2.61 (0.76)	
	제주	2.70 (0.80)	2.82 (0.79)	2.76 (0.76)	
	고	서울	2.47 (0.81)	2.60 (0.81)	2.54 (0.76)
		부산	2.53 (0.73)	2.62 (0.71)	2.58 (0.67)
		대구	2.43 (0.79)	2.57 (0.80)	2.50 (0.75)
인천		2.39 (0.77)	2.52 (0.80)	2.45 (0.74)	

구 분	정치사회적 문제	국가간 갈등 문제	전체 평균	
고	광주	2.46 (0.77)	2.59 (0.78)	2.52 (0.73)
	대전	2.30 (0.80)	2.48 (0.80)	2.39 (0.74)
	울산	2.48 (0.64)	2.73 (0.71)	2.60 (0.61)
	경기	2.46 (0.77)	2.62 (0.80)	2.54 (0.73)
	강원	2.34 (0.73)	2.37 (0.79)	2.35 (0.70)
	충북	2.23 (0.84)	2.49 (0.82)	2.36 (0.78)
	충남	2.53 (0.80)	2.70 (0.79)	2.62 (0.74)
	전북	2.51 (0.77)	2.64 (0.76)	2.58 (0.74)
	전남	2.49 (0.71)	2.55 (0.71)	2.52 (0.67)
	경북	2.33 (0.65)	2.51 (0.68)	2.42 (0.60)
	경남	2.37 (0.76)	2.52 (0.74)	2.44 (0.71)
	제주	2.52 (0.81)	2.63 (0.76)	2.57 (0.74)
	대	서울	2.68 (0.57)	2.65 (0.58)
부산		2.73 (0.64)	2.70 (0.60)	2.72 (0.57)
대구		2.53 (0.54)	2.63 (0.52)	2.58 (0.51)
인천		2.55 (0.76)	2.57 (0.81)	2.56 (0.73)
광주		2.75 (0.55)	2.78 (0.47)	2.76 (0.43)
대전		2.64 (0.72)	2.78 (0.73)	2.71 (0.64)
울산		2.31 (0.48)	2.70 (0.68)	2.50 (0.53)
경기		2.49 (0.66)	2.57 (0.64)	2.53 (0.61)
강원		2.54 (0.68)	2.57 (0.77)	2.56 (0.64)
충북		2.74 (0.77)	2.81 (0.66)	2.78 (0.65)
충남		2.55 (0.66)	2.64 (0.69)	2.60 (0.61)
전북		2.51 (0.71)	2.70 (0.63)	2.61 (0.62)
전남		2.35 (0.67)	2.37 (0.74)	2.36 (0.64)
경북		2.40 (0.66)	2.29 (0.69)	2.35 (0.62)
경남		2.52 (0.74)	2.52 (0.65)	2.52 (0.66)
제주	2.65 (0.88)	2.82 (0.66)	2.74 (0.6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관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15, 11192)=2.00, p<.05$). 특히 충북지역의 응답자가 다른 지역의 응답자에 비하여 낮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부산지역의 응답자는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관심 정도의 차이는 다른 학교급보다 고등학교급에서 뚜렷하게 발생하여 학교급과 학교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F(45, 11192)=1.63,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두 문항에 대하여 모두 충북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부산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충북지역의 낮은 평균 점수의 패턴이 고등학교급 응답자에게 뚜렷이 나타나 두 문항에 대하여 모두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

표 IV-15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국제관계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00	3	5.00	8.77***
학교지역	17.09	15	1.14	2.00*
학교급*학교지역	41.85	45	0.93	1.63**
오차	6377.17	11192	0.57	

* $p<.05$, ** $p<.01$, *** $p<.001$

5) 글로벌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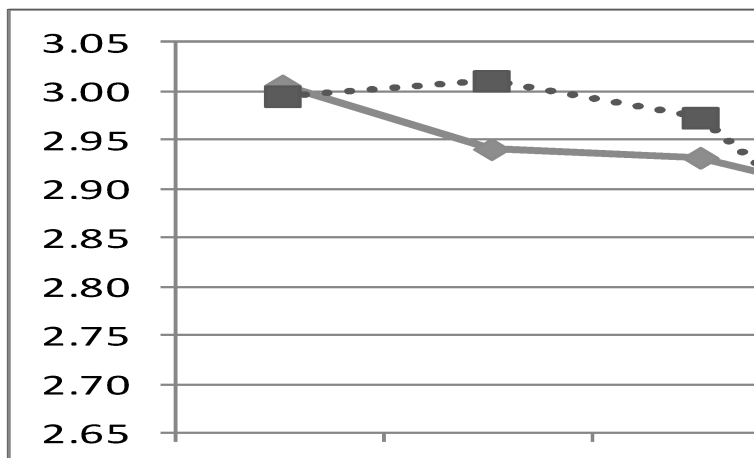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표 IV-15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남	3.01(0.85)	3.02 (0.84)	3.01 (0.76)
	여	2.97(0.82)	3.02 (0.78)	3.00 (0.72)
중	남	2.92(0.77)	2.96 (0.77)	2.94 (0.71)
	여	2.98(0.76)	3.05 (0.74)	3.01 (0.69)
고	남	2.91(0.74)	2.98 (0.72)	2.94 (0.66)
	여	2.89(0.69)	3.05 (0.64)	2.97 (0.59)
대	남	2.87(0.65)	2.88 (0.68)	2.88 (0.58)
	여	2.76(0.62)	2.85 (0.65)	2.81 (0.5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F(3, 11236)=14.71, p<.001$). 초등학교 응답자가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가운데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평균 점수가 낮아지며 대학교 응답자는 가장 소극적인 글로벌 의사소통 태도를 나타냈다. 성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교 응답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어졌다($F(3, 11236)=3.81, p<.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개인적 소통에 대하여 학교급의 주효과가 발생하였고 매너·문화에 대하여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발생하였다. 학교급이 낮아짐에 따라 각 문항의 평균 점수가 하향했으며 매너·문화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 보다 외국 문화에 대한 적극적 학습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표 IV-15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21	3	6.74	14.71***
성별	0.03	1	0.03	0.07
학교급*성별	5.23	3	1.74	3.81**
오차	5144.47	11236	0.4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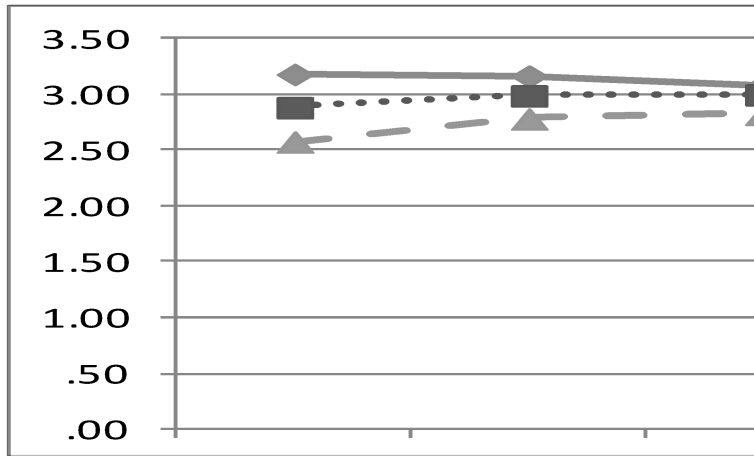
(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표 IV-15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상	3.17(0.80)	3.20 (0.76)	3.19 (0.70)
	중	2.88(0.83)	2.90 (0.81)	2.89 (0.74)
	하	2.60(0.94)	2.58 (0.83)	2.59 (0.77)
중	상	3.12(0.73)	3.20 (0.72)	3.16 (0.67)
	중	2.96(0.74)	3.02 (0.73)	2.99 (0.67)
	하	2.76(0.82)	2.80 (0.80)	2.78 (0.76)
고	상	3.05(0.73)	3.12 (0.70)	3.08 (0.65)
	중	2.94(0.70)	3.07 (0.65)	3.00 (0.59)
	하	2.79(0.73)	2.89 (0.72)	2.84 (0.66)
대	상	2.86(0.56)	2.95 (0.66)	2.91 (0.52)
	중	2.86(0.60)	2.84 (0.64)	2.85 (0.54)
	하	2.77(0.68)	2.84 (0.68)	2.81 (0.5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다($F(2, 10884)=27.07, p<.001$). 학업성취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역시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대학교급 응답자의 경우 학업성취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6, 10884)=3.37,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수준의 주효과와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IV-7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표 IV-1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75	3	3.92	8.82***
학업성취수준	54.15	2	27.07	60.99***
학교급*학업성취수준	20.21	6	3.37	7.59***
오차	4831.62	10884	0.44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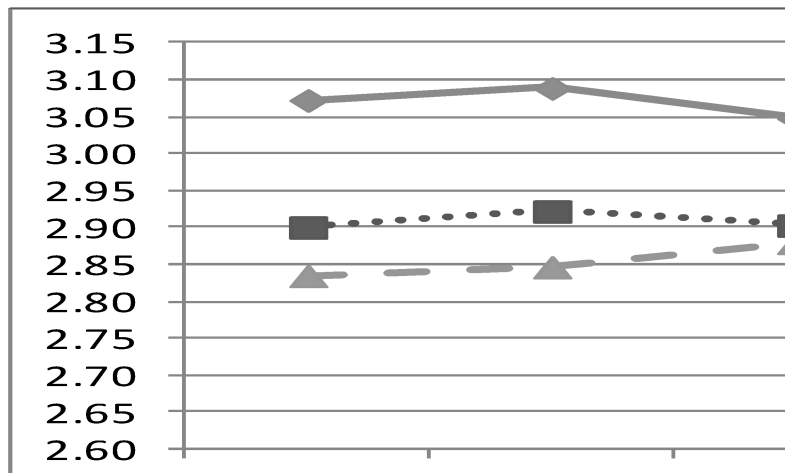
표 IV-16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상	3.07(0.81)	3.08 (0.78)	3.08 (0.72)
	중	2.89(0.82)	2.91 (0.80)	2.90 (0.72)
	하	2.80(0.89)	2.88 (0.86)	2.84 (0.80)
중	상	3.07(0.72)	3.11 (0.70)	3.09 (0.65)
	중	2.90(0.76)	2.95 (0.76)	2.92 (0.70)
	하	2.81(0.79)	2.89 (0.79)	2.85 (0.73)

구 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고	상	2.99(0.71)	3.11 (0.68)	3.05 (0.63)
	중	2.87(0.69)	2.98 (0.65)	2.92 (0.60)
	하	2.83(0.74)	2.96 (0.71)	2.89 (0.65)
대	상	2.86(0.63)	2.94 (0.65)	2.90 (0.55)
	중	2.79(0.63)	2.82 (0.66)	2.80 (0.56)
	하	2.79(0.69)	2.83 (0.72)	2.81 (0.6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경제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한 바($F(2, 10743)=50.18, p<.001$)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 경제수준이 상 수준인 응답자는 중 수준과 하 수준인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경제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과의 개인적 소통이나 외국의 매너·문화에 대한 학습 태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그림 IV-7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표 IV-16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82	3	3.27	7.35**
경제수준	44.69	2	22.35	50.18***
학교급*경제수준	3.32	6	0.55	1.24
오차	4783.79	10743	0.4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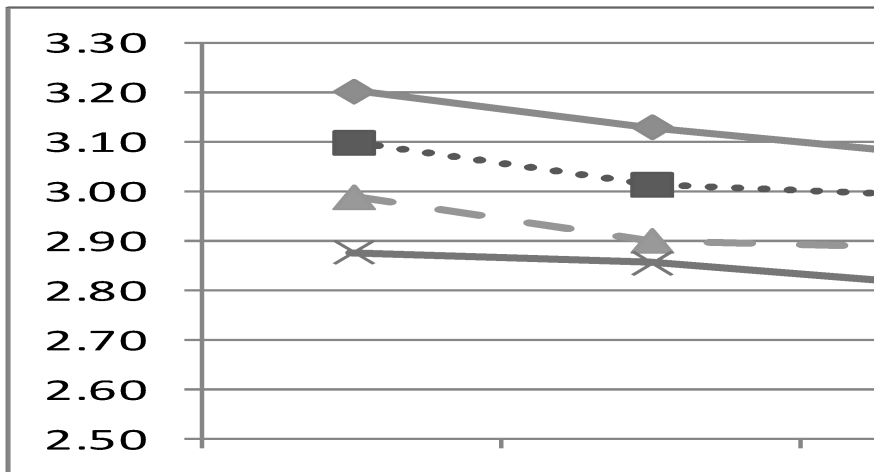
(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표 IV-16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양부모대졸이상	3.19 (0.77)	3.22 (0.75)	3.21 (0.69)
	한분만대졸이상	3.06 (0.78)	3.14 (0.73)	3.10 (0.67)
	양부모고졸이하	2.99 (0.88)	2.99 (0.83)	2.99 (0.79)
	기타	2.87 (0.85)	2.89 (0.83)	2.88 (0.75)
중	양부모대졸이상	3.11 (0.73)	3.15 (0.72)	3.13 (0.67)
	한분만대졸이상	2.98 (0.78)	3.03 (0.77)	3.01 (0.72)
	양부모고졸이하	2.87 (0.79)	2.94 (0.75)	2.90 (0.70)
	기타	2.82 (0.74)	2.89 (0.76)	2.85 (0.69)
고	양부모대졸이상	3.05 (0.71)	3.13 (0.67)	3.09 (0.62)
	한분만대졸이상	2.93 (0.66)	3.06 (0.63)	3.00 (0.58)
	양부모고졸이하	2.83 (0.70)	2.97 (0.66)	2.90 (0.60)
	기타	2.75 (0.75)	2.88 (0.74)	2.81 (0.67)
대	양부모대졸이상	2.84 (0.61)	2.93 (0.65)	2.89 (0.53)
	한분만대졸이상	2.82 (0.70)	2.86 (0.69)	2.84 (0.62)
	양부모고졸이하	2.79 (0.62)	2.81 (0.62)	2.80 (0.54)
	기타	2.80 (0.68)	2.74 (0.79)	2.77 (0.6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28)=49.93, p<.001$). 부모의 학력수준이 양부모 모두 대졸 이상, 한부모 대졸 이상, 양부모 모두 고졸 이하로 갈수록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는 보다 소극적으로 하향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력수준의 주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한단계씩 낮아질수록 각 개별 문항의 평균 점수 역시 낮아졌다.



【그림 IV-7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표 IV-16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51	3	9.17	20.59***
부모학력수준	66.72	3	22.24	49.93***
학교급*부모학력수준	5.07	9	0.56	1.26
오차	5000.89	11228	0.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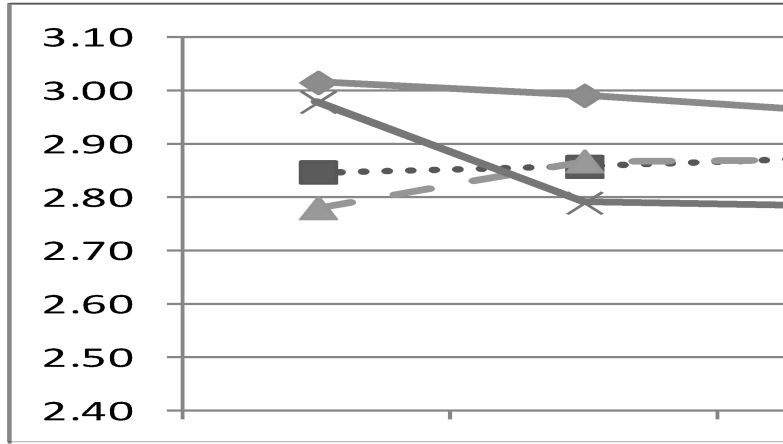
(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표 IV-16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 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양부모가정	3.00	(0.83)	3.04	(0.80)	3.02	(0.74)
	한부모가정	2.86	(0.84)	2.82	(0.86)	2.84	(0.77)
	조손가정	2.79	(0.86)	2.74	(0.89)	2.77	(0.79)
	기타	3.10	(0.86)	2.89	(0.90)	3.01	(0.81)
중	양부모가정	2.96	(0.76)	3.02	(0.75)	2.99	(0.70)
	한부모가정	2.80	(0.79)	2.89	(0.80)	2.85	(0.73)
	조손가정	2.95	(0.79)	2.82	(0.77)	2.89	(0.73)
	기타	2.67	(0.87)	2.85	(0.84)	2.76	(0.83)
고	양부모가정	2.91	(0.71)	3.02	(0.67)	2.97	(0.62)
	한부모가정	2.80	(0.77)	2.97	(0.74)	2.88	(0.68)
	조손가정	2.80	(0.86)	2.92	(0.95)	2.86	(0.84)
	기타	2.75	(0.67)	3.27	(0.81)	3.01	(0.64)
대	양부모가정	2.83	(0.63)	2.88	(0.65)	2.85	(0.56)
	한부모가정	2.66	(0.69)	2.69	(0.78)	2.68	(0.64)
	조손가정	2.85	(1.34)	2.80	(1.36)	2.83	(1.34)
	기타	3.00	(0.70)	2.96	(0.79)	2.98	(0.6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3, 11206)=8.63, p<.001$). 사후검정 결과 양부모가정의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한부모가정의 평균 점수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가족구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에서 기인한 효과였다. 그중 매너·문화에 대한 가족구성의 효과는 초등학교급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급과 가족구성의 상호작용효과로 이어졌다.



【그림 IV-7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표 IV-16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0.58	3	0.19	0.42
가족구성	11.82	3	3.94	8.63***
학교급*가족구성	3.30	9	0.37	0.80
오차	5120.01	11206	0.46	

* $p < .05$, ** $p < .01$, *** $p < .001$

(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표 IV-16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구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서울	3.06 (0.87)	3.03 (0.85)	3.05 (0.77)
	부산	3.21 (0.76)	3.25 (0.71)	3.24 (0.68)
	대구	2.99 (0.74)	3.07 (0.71)	3.03 (0.64)
	인천	2.93 (0.84)	3.08 (0.74)	3.01 (0.71)
	광주	2.98 (0.86)	3.07 (0.81)	3.03 (0.76)
	대전	3.09 (0.79)	3.10 (0.80)	3.10 (0.70)

구 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초	울산	3.04 (0.77)	3.08 (0.86)	3.06 (0.72)
	경기	2.95 (0.86)	2.97 (0.82)	2.96 (0.77)
	강원	3.00 (0.82)	2.98 (0.82)	2.99 (0.76)
	충북	2.90 (0.83)	2.99 (0.78)	2.94 (0.76)
	충남	2.95 (0.84)	2.90 (0.87)	2.92 (0.78)
	전북	2.61 (0.92)	2.91 (0.80)	2.76 (0.72)
	전남	2.94 (0.74)	2.97 (0.71)	2.95 (0.67)
	경북	2.90 (0.73)	2.91 (0.80)	2.91 (0.66)
	경남	3.09 (0.82)	3.02 (0.87)	3.05 (0.75)
	제주	2.91 (0.90)	2.89 (0.89)	2.90 (0.82)
중	서울	3.03 (0.72)	3.02 (0.75)	3.03 (0.68)
	부산	2.96 (0.73)	3.10 (0.73)	3.03 (0.65)
	대구	2.93 (0.80)	3.06 (0.77)	3.00 (0.73)
	인천	2.93 (0.82)	2.95 (0.79)	2.94 (0.75)
	광주	2.89 (0.83)	2.91 (0.80)	2.90 (0.77)
	대전	2.98 (0.73)	3.04 (0.71)	3.01 (0.67)
	울산	2.80 (0.78)	2.88 (0.77)	2.84 (0.72)
	경기	2.98 (0.78)	3.01 (0.77)	2.99 (0.72)
	강원	2.95 (0.68)	3.05 (0.73)	3.00 (0.64)
	충북	3.01 (0.79)	2.94 (0.81)	2.98 (0.74)
	충남	2.90 (0.82)	2.98 (0.81)	2.94 (0.75)
	전북	2.64 (0.75)	2.81 (0.72)	2.73 (0.66)
	전남	2.88 (0.85)	3.01 (0.84)	2.94 (0.80)
	경북	2.85 (0.72)	2.94 (0.72)	2.89 (0.64)
	경남	2.94 (0.70)	3.01 (0.67)	2.97 (0.62)
	제주	3.05 (0.68)	3.14 (0.64)	3.10 (0.62)
고	서울	2.96 (0.72)	3.05 (0.69)	3.00 (0.64)
	부산	2.94 (0.74)	3.07 (0.63)	3.01 (0.62)
	대구	2.91 (0.74)	3.00 (0.73)	2.95 (0.63)

구 분	개인적 소통	매너문화	전체 평균	
고	인천	2.87 (0.76)	2.94 (0.74)	2.90 (0.65)
	광주	2.90 (0.77)	2.99 (0.73)	2.95 (0.66)
	대전	2.84 (0.75)	2.95 (0.75)	2.90 (0.67)
	울산	2.87 (0.67)	3.07 (0.55)	2.97 (0.54)
	경기	2.94 (0.69)	3.06 (0.66)	3.00 (0.61)
	강원	2.73 (0.69)	2.80 (0.69)	2.76 (0.61)
	충북	2.79 (0.67)	2.98 (0.67)	2.89 (0.62)
	충남	3.00 (0.74)	3.15 (0.58)	3.08 (0.60)
	전북	2.84 (0.71)	2.90 (0.68)	2.87 (0.65)
	전남	2.88 (0.73)	3.05 (0.74)	2.96 (0.67)
	경북	2.84 (0.66)	3.01 (0.61)	2.93 (0.54)
	경남	2.81 (0.67)	2.91 (0.68)	2.86 (0.60)
	제주	2.81 (0.73)	2.95 (0.66)	2.88 (0.64)
	대	서울	2.98 (0.56)	2.85 (0.59)
부산		2.71 (0.66)	2.85 (0.65)	2.78 (0.54)
대구		2.71 (0.55)	2.93 (0.40)	2.82 (0.40)
인천		2.93 (0.78)	2.99 (0.84)	2.96 (0.76)
광주		2.28 (0.61)	2.92 (0.58)	2.60 (0.43)
대전		2.90 (0.64)	2.94 (0.79)	2.92 (0.66)
울산		2.95 (0.44)	2.95 (0.44)	2.95 (0.44)
경기		2.92 (0.61)	2.88 (0.78)	2.90 (0.64)
강원		2.89 (0.70)	2.94 (0.77)	2.91 (0.65)
충북		2.93 (0.60)	2.98 (0.58)	2.96 (0.48)
충남		2.95 (0.58)	2.99 (0.59)	2.97 (0.53)
전북		2.66 (0.58)	2.75 (0.58)	2.71 (0.48)
전남		2.87 (0.57)	2.72 (0.85)	2.79 (0.64)
경북		2.54 (0.57)	2.49 (0.61)	2.51 (0.51)
경남		2.63 (0.70)	2.59 (0.70)	2.61 (0.66)
제주		2.99 (0.56)	2.95 (0.74)	2.97 (0.5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나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 태도에 차이가 도출되었다($F(15, 11280)=1.93, p<.001$). 사후검정 결과 전북지역과 경북지역의 응답자가 보다 소극적인 글로벌 의사소통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급 수준에 따른 차이로 다시 세분화되었다. 즉 전북지역의 응답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 경북지역의 응답자는 대학교급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학교지역과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 $F(45, 11180)=1.93, p<.001$).

개별 문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두 문항 모두 학교지역의 주효과와 학교급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개인적 소통과 관련한 경우, 충북과 경북, 그리고 전북 및 광주지역에 위치한 응답자가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매너·문화의 경우 전북지역에 위치한 응답자가 다른 지역의 응답자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IV-16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세계 시민성: 글로벌 의사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76	3	4.25	9.36***
학교지역	28.94	15	1.93	4.25***
학교급*학교지역	39.44	45	0.88	1.93***
오차	5080.31	11180	0.45	

* $p<.05$, ** $p<.01$, *** $p<.001$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1차년도에 타당화한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를 재타당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본 조사에 활용될 최종 문항을 확정하는 것과 국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을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에 타당화한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에 기반하여, 2차년도 조사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재구성 작업이 요청되었다. 이는 시민성과 관련한 각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참여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 가운데, 예비 조사를 통한 통계적 검증 단계를 거친 1차년도 타당화 문항에 대한 확정 작업의 일환이었다. 새로운 응답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1차년도에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보한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하위 구성 요인의 일차원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 도구의 질적 제고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하위 구성 요인의 일차원성을 보다 잘 충족하도록 하여 하위 영역 간 성격과 개념이 유사한 사회참여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참여역량의 각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배경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터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 시민성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른 성별 효과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준 차이가 더욱 커졌다. 대학교급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개인 시민성이 보다 높았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별의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은 발달과 성숙,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 성별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인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정치·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권리·책임의식과 민주적 절차 및 의식에 비하여 훨씬 낮았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정치사회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극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 시민성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의 효과는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초·중등학생)의 응답자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시민성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응답자들은 학업성취수준과 독립적으로 개인 시민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이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분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발달에 따른 성숙의 효과인지 혹은 교육의 효과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시민성에 대한 경제수준의 효과는 초기 청소년기(초등학생)에 명확히 나타났으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하 수준의 청소년들의 개인 시민성 수준이 상승하며 후기 청소년들은 오히려 상 수준 청소년보다 하 수준의 청소년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개인 시민성의 생애 초기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수준 역시 학업성취수준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성이 확연히 감소했다. 특히 양부모가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양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들에 비하여 개인 시민성이 보다 높았는데, 이는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이 부모학력수준에 따라 생애 초기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효과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이 개인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개인 시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성숙의 효과 및 교육의 효과보다 가정배경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타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 시민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낮은 개인 시민성 수준을 나타냈고, 조손 가정의 청소년들은 중학교급에서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낮은 개인 시민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를 발달단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 터하여 논하고자 한다. 성별 효과는 중기 청소년기를 제외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학생의 투표 참여, 저항 의식이 중기 청소년기때 남학생에 비하여 큰 폭으로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후 대폭 하락하여 남학생과 유사해짐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여학생은 개인 시민성이 낮아졌는데, 성별에 따른 성향의 차이로 나타난 발달 결과인지,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교육의 효과로 인한

개인 시민성 하향 추세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업성취수준은 초·중기 청소년기에 공동체 시민성에 명확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개인 시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라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의 분화가 나타난 결과로, 이 역시 기존 교육의 효과인지 혹은 단순한 발달의 효과인지 여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수준 역시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공동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감소하여 이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지만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의 차이는 발달단계가 높아져도 좁혀지지 않았다. 양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인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공동체 시민성을 가졌으며, 기타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공동체 시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개인 시민성 분석에서와 일관적인 것으로서 발달의 효과와 기존 교육의 효과가 부모학력수준과 같은 가정배경의 효과보다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시민성에 대한 전체적인 성별의 효과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에서와 같이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사라졌으나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즉, 성 인지와 국제관계관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다. 성 인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남녀간의 불일치 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향후 양성이 조화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요소로 사료된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 이 역시 글로벌 시대에 남녀가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앞서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 및 부모의 학력수준의 효과는 발달단계에 따라 큰 폭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개인 시민성과 공동체 시민성과 달리, 세계 시민성에 대한 학업성취수준의 효과는 후기 청소년 때까지 남아있었는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과 이민자 및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인지적 요인의 발달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애를 걸쳐 지속적인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영역별 수준에 대하여 논한 바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가 사회참여역량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역량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발달단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수준 등과 관련한 배경 요인이 대부분의 사회참여 역량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사라졌다. 이는 능동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성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쌓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조기교육이나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등 성 인지에 대한 신념 및 태도는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배경 변인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수정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을 이루는 각 하위 구성 요인 별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책임의식은 발달 초기 단계 이후 성장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감소하는 역U자형의 곡선을 그렸다. 즉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및 의식이 이전 시기와 다르게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과 성숙의 효과로 감소하는 것인지, 성인기 이후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능동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권리와 의식에 대한 교육을 성인기 청소년에 적절하도록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 초기 단계에서 권리·책임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은 부모학력수준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가 가정에서 접하는 정치적 권리와 의식과 관련한 주제의 대화나 장면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가정의 배경 요인이 초기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에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와 책임 의식을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발달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권리·책임의식과 마찬가지로, 역U자형의 변화 곡선을 나타냈다.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가정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적 의식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발달 초기 단계에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낮아지는 현상에 대하여, 이것이 국내의 고유한 상황인지 혹은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인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제비교를 통한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요청된다.

셋째, 정치·사회적 관심 수준에 대하여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후기 청소년 이전에, 학업성취수준과 관련한 인지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관심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의 분화가 나타나지 않고, 경제수준이나 부모학력수준과 같은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정치·사회적 관심 정도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정치·사회와 관련한 교육적 개입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인지적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후기 청소년의 경우 정의적이나 태도 및 체험과 같은 다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정치적 자아효능감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학적 배경 요인의 효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거의 사라지거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전 발달단계에 걸쳐 남학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정치적 자아효능감을 가졌다. 따라서 전체 연령에 걸쳐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동일하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스스로 민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아효능감 측면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요청된다.

다섯째, 투표참여의 경우, 학업성취도수준,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수준의 효과는 후기 발달단계에 접어들며 거의 사라졌으나 가족구성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조손가정과 기타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 이후부터 양·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투표참여 의식을 가졌다. 조손가정과 기타가정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에는 양부모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투표참여 의식을 가졌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훨씬 낮은 투표참여 의식을 갖게 됐다. 이는 기존의 시민 교육 하에서는 부모 부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낮은 투표참여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구성의 청소년들이 민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 시민활동의 중요성의 경우, 부모학력수준에 따른 효과가 전 발달단계에 걸쳐 지속되었다. 기타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은 양·한부모 대졸 이상 집단과 양부모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하여 시민활동의 중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역시 공동체 시민성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경우, 가정 배경 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별에 따른 효과의 경우, 투표참여와 시민활동의 중요성에서 동일한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초기 및 후기 청소년기에 동일한 수준의 의식을 나타냈지만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의식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성별에 따른 성숙 과정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인지,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신뢰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특성학적 배경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달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신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사회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신뢰 형성’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교실개방성의 경우, 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수준에 대하여 발달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초·중등 교육의 하향곡선을 나타낸 교실개방성은, 교사 주도의 강한 일방향적 수업 상황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교사와 학생 간에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교실문화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아홉째, 성 인지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른 역U자형 곡선을 나타냈다. 초기 청소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성 인지 수준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다시 초기 청소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양성의 평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방향과 반하는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성 인지 수준의 하락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경우,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하향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내 청소년들의 외부인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의 성장이 기존 교육 체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인에 대한 보다 열린 의식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국가 및 역사인식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발달단계에 따라 점차 낮아졌다. 이는 공동체 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소인 신뢰가 발달단계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익 추구 및

국가 보안과 관계한 가치에 소극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의 조화와 협력이 마련될 때, 글로벌 시민사회에 적합한 세계 시민성 역시 충족될 수 있기에, 교육 분야와 사회 제반 분야의 협력 속에서 건전한 시민 사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성으로서, 국제관계관심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전 발달단계에서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자아효능감, 그리고 교실개방성 등,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구성하고 나타내는 것과 관련한 다른 하위 구성 요인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통해 현 교육 환경 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정치사회화가 됨을 알 수 있다. 양성이 동등한 정치·사회적 시민성을 나타내는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국내 교육 환경이 반영해야 할 부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도 경제수준과 부모학력수준 및 가족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후기 청소년기에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 현 교육적 상황 하에서 가정 배경 요인에 따른 글로벌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배경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 및 외국인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 배경에 따른 해외 문화 경험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숙, 정복례(2007).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2), 310-319.
- 김옥순(2010). 청소년의 문화간 역량 연구: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문화지능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51-172.
- 김왕근(1995). 시민성의 두 측면. 사회와 교육, 20(1), 61-72.
- 김정화, 박선희, 조상미(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장근영, 이덕현, 한미진(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홍영란, 변종임, 반재천, 장근영, 김완희(2011).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백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77-101.
- 박윤경, 이승연(2015). 초·중고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이슈 및 토론 관련 인식 조사: 학교 시민 교육에의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7(2), 53-84.
- 서운석(2014). 청소년의 나라사랑의식 국가 간 비교: 한·미·일·중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3(2), 105-133.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경애, 이혁규, 옥일남, 박윤경(2010).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 신인순, 김옥순(2010).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7, 5-36.
- 오석영, 최창욱, 진성희(201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지표 개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2(2), 1-22.
- 이광현, 권용재(2013). 한국, 대만, 홍콩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3(3), 131-152.
- 이봉민(2013). 청소년의 정치적 정향 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 참여 의사의 차이. *시민청소년학연구*, 4(2), 51-78.
- 이용교, 이중섭(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1-232.
- 이은경, 오민아, 김태준(2015).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3), 157-179.
- 이채식(2009). 청소년의 지역사회경찰 인식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4, 105-121.
- 이형진(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1), 183-208.
- 임정재, 강정환, 김상돈(2011).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2(2), 37-67.
- 장영애, 김용미(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Henderson, A., Brown, S. D., Pancer, S. M., & Ellis-Hale, K. (2007). Mandated community service in high school and subsequent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the “double cohort” in Ontario, Canada.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36(7), 849–860.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이현숙 역). 서울: 학지사.
- Lauglo, J. & Øia, T. (2007).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Review of research and a study on Norwegian youth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07).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Paris: OECD Publishing.
- Warburton, J. & Smith, J. (2003). Out of the generosity of your heart: Are we creating active citizens through compulsory volunteer programmes for young people in Australi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7(7), 772–786.
- Wimmer, A. (199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0(1), 17–41.
- Youniss, J., & Yates, M.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 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4), 361–376.
- Zukin, C., Keeter, S., Andolina, M., Jenkins, K., & Carpini, M. X. D. (2006). *A new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life, and the changing American citize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부록 2] 문항별 응답 결과

부 록

[부록 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DP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D	과	계	교	급	학	교	학	급	실	문	지	연	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 415-2187 성은모 부연구위원 (044) 415-2128	실시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문의처: 문화정 부장 (02) 3488-2728
---	--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학교 <input type="text"/> 학년 <input type="text"/>	학교소재지	시(도) <input type="text"/> 구(군) <input type="text"/> 동(읍/면) <input type="text"/>
---------	--	-------	--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날짜	2015년 ____월 ____일

응답 시간	시작시간 : ____시 ____분 / 끝난시간 : ____시 ____분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면접원 ID/성명	S/V 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부 록

[사고력]

문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④	③	②	①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④	③	②	①
(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_언어능력

문2. 언어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공적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_수학능력

문3. 수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_과학능력

문4. 과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_정보통신활용능력

문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5) 컴퓨터와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④	③	②	①
(9) 컴퓨터 및 인터넷은 나의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10)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문6.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스마트기기의 인터넷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사진꾸미기 앱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스마트기기의 화면 조작법(터치실행, 화면 방향전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스마트폰에서 일반 휴대전화(통화, 문자메시지)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스마트기기의 고화질 카메라, 음악기능, 녹음기능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3G, WiFi, LTE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단어속어 암기, 사전, 영어회화, 과학탐구 등의 학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게임, 연예정보,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계산기, 스케줄러, 스캐너, 주소록 등의 도구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버스정보, 맛집, 날씨, 은행 등의 생활정보 유틸리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채팅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④	③	②	①
(17) 스마트기기는 나의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18)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학습적응성]

문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④	③	②	①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④	③	②	①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④	③	②	①
(6)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는다	④	③	②	①

[학습전략과 태도]

문8.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의 공부는 단순히 좋은 성적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2) 나의 지식은 내가 공부한 만큼 가진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 성적을 위해 공부한다고 보다는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다	④	③	②	①
(4) 좋은 성적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④	③	②	①
(5) 좋은 성적보다 인생에 있어 가치로운 것이 더 많다	④	③	②	①
(6) 즐겁게 공부하면 성적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7) 성적은 내 삶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④	③	②	①
(8) 선택과목에 있어 어렵더라도 진정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④	③	②	①
(9) 수업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10)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11) 수업시간에 가능하면 앞쪽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④	③	②	①
(12) 수업시간 노트정리 시 요약정리보다는 수업의 모든 내용(수업 내용, 질의응답 내용, 선생님의 농담 등)을 기록한다	④	③	②	①
(13) 간단한 예습을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	④	③	②	①
(14)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즉각적인 질문을 통한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④	③	②	①
(15)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참고자료를 우선적으로 찾아본다	④	③	②	①
(16)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안을 찾는다	④	③	②	①
(17)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무조건 선생님에게 묻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참고자료 탐색, 친구들과 의견 공유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에 물어본다	④	③	②	①
(18)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토론하고 협력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④	③	②	①
(19) 그날 배운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그날 복습한다	④	③	②	①
(20) 한 주간 배운 내용이나 노트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1~2주안에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한다	④	③	②	①
(21) 주중/주말에 하루정도는 나만의 여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④	③	②	①
(22) 시험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평소엔 공부한다	④	③	②	①
(23) 나는 노는 시간까지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④	③	②	①
(24) 짜투리 시간(등하교 시간, 점심/저녁 시간, 쉬는 시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④	③	②	①
(25) 숙제(수행평가 등)는 주어지는 날부터, 혹은 제출 한참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한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 숙제(수행평가 등)는 제출하기 전에 최소 2~3회 이상의 수정과정을 거친다	④	③	②	①
(27)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내용이 재미있다	④	③	②	①
(28) 나는 학교 공부 이외에 내가 배우고자하는 학습주제나 또는 문제를 찾아내어 실천한다	④	③	②	①
(29) 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0)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 진행해야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④	③	②	①
(31)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④	③	②	①
(32)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하더라도 해야할 일이라면 몇 시간씩 앉아서 한다	④	③	②	①

[진료설계]

문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④	③	②	①
(4)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④	③	②	①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④	③	②	①
(6) 관심 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한다	④	③	②	①
(7)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④	③	②	①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④	③	②	①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	④	③	②	①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④	③	②	①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14)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문10.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①	①	②	③

[여가활용]

문1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③	②	①
(2)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④	③	②	①
(3)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④	③	②	①
(4)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④	③	②	①
(5)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④	③	②	①
(6)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④	③	②	①
(7)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활동에 능숙하다	④	③	②	①
(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④	③	②	①
(12)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언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여가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④	③	②	①

문12.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①	②	③	④	⑤

[개척정신]

문1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한다	④	③	②	①
(2) 같은 사람,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관계형성]

문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나에게 대해 그대로를 말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④	③	②	①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④	③	②	①

[리더십]

문15.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④	③	②	①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④	③	②	①

[협동]

문1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④	③	②	①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④	③	②	①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④	③	②	①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갈갈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건강관리]

문17.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④	③	②	①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④	③	②	①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④	③	②	①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④	③	②	①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④	③	②	①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7)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의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④	③	②	①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④	③	②	①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과제관리]

문18.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④	③	②	①
(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④	③	②	①
(4)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④	③	②	①
(5)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④	③	②	①
(8)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④	③	②	①
(1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④	③	②	①
(1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④	③	②	①

[상황대처]

문19.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④	③	②	①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④	③	②	①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7)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④	③	②	①
(8)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받을 때가 있다	④	③	②	①
(9)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④	③	②	①
(10)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문20.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2)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3)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④	③	②	①
(4)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④	③	②	①
(5)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④	③	②	①
(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④	③	②	①

[정서조절]

문2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③	②	①
(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④	③	②	①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낸다	④	③	②	①
(5)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6)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7)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③	②	①

[개인시민성]

문2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④	③	②	①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④	③	②	①

문23.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분항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④	③	②	①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④	③	②	①
(3) 환경 관련 이슈	④	③	②	①

문2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4)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공동체 시민성]

문25.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하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문25-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25-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27.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투표참여	④	③	②	①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④	③	②	①
(3)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④	③	②	①
(4) 정치단체 가입	④	③	②	①
(5) 노동조합 가입	④	③	②	①
(6)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④	③	②	①

문28.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항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	④	③	②	①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④	③	②	①
(3) 인권증진운동	④	③	②	①
(4) 환경보호운동	④	③	②	①

문29.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배지 달기	④	③	②	①
(2) 비폭력 집회 참여	④	③	②	①
(3) 진정서에 서명하기	④	③	②	①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④	③	②	①
(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	④	③	②	①

문30. 여러분이 학교 봉사, 학급 봉사 및 자원 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1년에 1-2회	2달에 한 번 정도	1달에 한 번 정도
①	②	③	④

문3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④	③	②	①
(2)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문32.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지역사회, 동호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동료에게는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

분항	있다	없다
(1) 내 시간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2) 내 돈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문33.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분항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가족	④	③	②	①
(2) 친구	④	③	②	①
(3) 이웃	④	③	②	①
(4) 낯선 사람(한국인)	④	③	②	①
(5) 낯선 사람(외국인)	④	③	②	①

문34.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분항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정부	④	③	②	①
(2) 법원	④	③	②	①
(3) 경찰	④	③	②	①
(4) 정당	④	③	②	①
(5) 국회	④	③	②	①
(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④	③	②	①
(7) 군대	④	③	②	①
(8) 학교	④	③	②	①

문35.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분항	종종 일어남	때때로 일어남	일부 일어남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④	③	②	①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④	③	②	①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④	③	②	①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④	③	②	①

[세계 시민성]

문3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다	④	③	②	①
(3)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④	③	②	①
(4)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5)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문37. 여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항	가능한 많이	어느 정도	이주 약간만	절대로 안된다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④	③	②	①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④	③	②	①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④	③	②	①

문38.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줄아와서 전쟁을 돕는다	외국에서 일을 정리한 후 귀국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개인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③	②	①

문39. 애국가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 국기, 애국가라는 생각 외에 별 감동이 없다	어색한 생각이 든다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문40.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있다고 본다	비슷한 것 같다	덜한 것 같다	매우 덜하다
④	③	②	①

문4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④	③	②	①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④	③	②	①

문42.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분항	매우 관심 많음	관심 많음	관심 없음	전혀 관심없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④	③	②	①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④	③	②	①

문4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④	③	②	①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응답자(학생)가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도

배경문항 2.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④/도 서초 시/군/⑦ 우면 ⑧/읍/면으로 표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⑤ 아산 ④/군/구 배방 동/⑨/면으로 표기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의)할아버지 ② (의)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5.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	③	②	①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④	③	②	①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④	③	②	①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④	③	②	①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④	③	②	①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④	③	②	①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④	③	②	①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④	③	②	①

배경문항 6. 여러분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없이 즐겁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④	③	②	①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④	③	②	①

배경문항 7. 여러분의 2015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60점 이하	61~65점	66~70점	71~75점	76~80점	81~85점	86~90점	91~95점	96~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 8.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문항별 응답 결과

1) 배경변인에 따른 개인 시민성 응답 결과

표 부록-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3.42	3	47.81	104.43 ^{***}
성별	0.02	1	0.02	0.05
학교급*성별	5.72	3	1.91	4.17 ^{**}
오차	5160.95	11274	0.4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1.34	3	63.78	135.71 ^{***}
성별	0.13	1	0.13	0.28
학교급*성별	1.67	3	0.56	1.18
오차	5296.00	11269	0.4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8.94	3	29.65	68.767 ^{***}
성별	2.82	1	2.82	6.547 [*]
학교급*성별	5.68	3	1.89	4.389 ^{**}
오차	4857.26	11267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 지도자 선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99.84	3	33.28	76.58 ^{***}
성별	2.77	1	2.77	6.36 [*]
학교급*성별	3.73	3	1.24	2.86 [*]
오차	4898.14	11271	0.4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2.37	3	30.79	70.31***
학업성취수준	62.50	2	31.25	71.3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4.70	6	4.12	9.40***
오차	4782.70	10921	0.4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04.04	3	34.68	76.70***
학업성취수준	60.27	2	30.14	66.65***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0.81	6	3.47	7.67***
오차	4935.78	10917	0.4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9.46	3	19.82	48.08***
학업성취수준	47.87	2	23.93	58.07***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9.14	6	4.86	11.78***
오차	4498.94	10915	0.4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지도자 선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0.42	3	23.47	56.29***
학업성취수준	58.89	2	29.45	70.6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1.34	6	3.56	8.53***
오차	4553.07	10918	0.4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2.26	3	40.75	91.07***
경제수준	18.21	2	9.11	20.35***
학교급*경제수준	10.13	6	1.69	3.77**
오차	4824.94	10782	0.45	

* $p<.05$, ** $p<.01$, *** $p<.001$ **표 부록-1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62.02	3	54.01	118.11***
경제수준	19.09	2	9.55	20.88***
학교급*경제수준	10.14	6	1.69	3.70**
오차	4928.06	10778	0.46	

* $p<.05$, ** $p<.01$, *** $p<.001$ **표 부록-1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6.69	3	25.56	59.99***
경제수준	22.50	2	11.25	26.40***
학교급*경제수준	10.07	6	1.68	3.94***
오차	4591.91	10776	0.43	

* $p<.05$, ** $p<.01$, *** $p<.001$ **표 부록-1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지도자 선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93.16	3	31.05	72.88***
경제수준	23.20	2	11.60	27.23***
학교급*경제수준	10.62	6	1.77	4.15***
오차	4592.88	10779	0.43	

* $p<.05$, ** $p<.01$, *** $p<.001$

표 부록-1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6.83	3	28.94	64.25***
부모학력수준	23.19	3	7.73	17.16***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6.47	9	1.83	4.06***
오차	5075.16	11266	0.4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7.05	3	42.35	91.39***
부모학력수준	22.52	3	7.51	16.20***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3.92	9	1.55	3.34***
오차	5218.46	11261	0.4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2.72	3	20.91	49.03***
부모학력수준	29.80	3	9.93	23.29***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9.41	9	1.05	2.45**
오차	4800.74	11259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지도자 선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5.26	3	21.75	50.78***
부모학력수준	26.08	3	8.69	20.29***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1.30	9	1.26	2.93**
오차	4824.52	11263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53	3	3.51	7.67***
가족구성	1.93	3	0.64	1.41
학교급*가족구성	5.30	9	0.59	1.29
오차	5144.39	11244	0.4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76	3	4.92	10.47***
가족구성	2.03	3	0.68	1.44
학교급*가족구성	5.04	9	0.56	1.19
오차	5280.05	11239	0.4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36	3	2.45	5.68***
가족구성	3.06	3	1.02	2.36
학교급*가족구성	4.01	9	0.45	1.03
오차	4852.36	11237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지도자 선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96	3	3.65	8.41***
가족구성	4.74	3	1.58	3.64*
학교급*가족구성	5.04	9	0.56	1.29
오차	4882.30	11241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8.25	3	29.42	65.00***
학교지역	30.80	15	2.05	4.54***
학교급*학교지역	60.64	45	1.35	2.98***
오차	5077.02	11218	0.4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부 비판)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7.33	3	42.44	91.67***
학교지역	47.20	15	3.15	6.80***
학교급*학교지역	68.14	45	1.51	3.27***
오차	5191.99	11213	0.4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5.94	3	18.65	43.62***
학교지역	35.33	15	2.36	5.51***
학교급*학교지역	50.77	45	1.13	2.64***
오차	4792.00	11211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권리·책임의식: 정치지도자 선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61.19	3	20.40	47.30***
학교지역	28.77	15	1.92	4.45***
학교급*학교지역	45.22	45	1.01	2.33***
오차	4836.20	11215	0.4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49.35	3	83.12	87.61***
성별	105.86	1	105.86	111.58***
학교급*성별	34.45	3	11.48	12.10***
오차	10697.22	11276	0.95	

* $p<.05$, ** $p<.01$, *** $p<.001$ **표 부록-2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9.34	3	39.78	42.53***
성별	91.24	1	91.24	97.54***
학교급*성별	30.75	3	10.25	10.96***
오차	10546.92	11276	0.94	

* $p<.05$, ** $p<.01$, *** $p<.001$ **표 부록-2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6.01	3	28.67	30.09***
학업성취수준	33.10	2	16.55	17.37***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49.59	6	8.26	8.67***
오차	10408.75	10923	0.95	

* $p<.05$, ** $p<.01$, *** $p<.001$ **표 부록-2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60.31	3	20.10	21.29***
학업성취수준	40.28	2	20.14	21.3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8.30	6	4.72	5.00***
오차	10311.58	10923	0.94	

* $p<.05$, ** $p<.01$, *** $p<.001$

표 부록-2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9.80	3	69.93	73.74***
경제수준	3.89	2	1.94	2.05
학교급*경제수준	6.12	6	1.02	1.08
오차	10225.70	10783	0.95	

* $p<.05$, ** $p<.01$, *** $p<.001$ **표 부록-3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8.13	3	39.38	42.45***
경제수준	5.20	2	2.60	2.80
학교급*경제수준	10.61	6	1.77	1.91
오차	10001.41	10783	0.93	

* $p<.05$, ** $p<.01$, *** $p<.001$ **표 부록-3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88.26	3	62.75	64.89***
부모학력수준	9.26	3	3.09	3.19*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46	9	0.72	0.74
오차	10896.26	11268	0.97	

* $p<.05$, ** $p<.01$, *** $p<.001$ **표 부록-3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2.75	3	27.58	28.95***
부모학력수준	5.16	3	1.72	1.8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9.96	9	1.11	1.16
오차	10734.82	11268	0.95	

* $p<.05$, ** $p<.01$, *** $p<.001$

표 부록-3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32	3	2.77	2.87*
가족구성	14.37	3	4.79	4.95**
학교급*가족구성	10.74	9	1.19	1.23
오차	10878.20	11246	0.9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3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74	3	2.58	2.71*
가족구성	14.75	3	4.92	5.16**
학교급*가족구성	8.62	9	0.96	1.01
오차	10713.66	11246	0.9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3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제 결정 과정)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7.16	3	49.05	51.27***
학교지역	46.49	15	3.10	3.24***
학교급*학교지역	126.39	45	2.81	2.94***
오차	10735.57	11220	0.9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3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민주적 절차 및 의식: 민주주의 의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5.99	3	18.66	19.81***
학교지역	62.35	15	4.16	4.41***
학교급*학교지역	122.42	45	2.72	2.89***
오차	10572.05	11220	0.9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3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8.60	3	12.87	18.14***
성별	33.91	1	33.91	47.81***
학교급*성별	21.74	3	7.25	10.22***
오차	7992.35	11267	0.71	

* $p<.05$, ** $p<.01$, *** $p<.001$ **표 부록-3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0.94	3	36.98	54.57***
성별	0.16	1	0.16	0.24
학교급*성별	25.73	3	8.58	12.66***
오차	7634.98	11267	0.68	

* $p<.05$, ** $p<.01$, *** $p<.001$ **표 부록-3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78.50	3	126.17	189.83***
성별	0.08	1	0.08	0.11
학교급*성별	6.24	3	2.08	3.13*
오차	7489.66	11269	0.67	

* $p<.05$, ** $p<.01$, *** $p<.001$ **표 부록-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4.12	3	8.04	11.49***
학업성취수준	33.00	2	16.50	23.58***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31.58	6	5.26	7.52***
오차	7637.72	10916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4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6.53	3	22.18	33.65***
학업성취수준	60.42	2	30.21	45.84***
학교급*학업성취수준	34.30	6	5.72	8.68***
오차	7194.13	10916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4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8.66	3	19.55	29.61***
학업성취수준	18.33	2	9.17	13.88***
학교급*	16.00	6	2.67	4.04***
오차	7208.46	10917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4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1.33	3	17.11	24.66***
경제수준	19.02	2	9.51	13.71***
학교급*경제수준	12.06	6	2.01	2.90**
오차	7475.50	10775	0.6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4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6.46	3	38.82	58.87***
경제수준	34.18	2	17.09	25.92***
학교급*경제수준	10.66	6	1.78	2.70*
오차	7105.20	10775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4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3.84	3	64.61	99.29***
경제수준	19.86	2	9.93	15.26***
학교급*경제수준	11.28	6	1.88	2.89**
오차	7012.31	10776	0.65	

* $p<.05$, ** $p<.01$, *** $p<.001$ **표 부록-4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5.01	3	8.34	11.84***
부모학력수준	28.32	3	9.44	13.41***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8.93	9	2.10	2.99**
오차	7925.55	11259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4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0.06	3	23.35	35.09***
부모학력수준	53.51	3	17.84	26.8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6.75	9	1.86	2.80**
오차	7493.88	11259	0.66	

* $p<.05$, ** $p<.01$, *** $p<.001$ **표 부록-4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86.31	3	95.44	144.19***
부모학력수준	12.26	3	4.09	6.17***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0.26	9	1.14	1.72
오차	7453.26	11261	0.66	

* $p<.05$, ** $p<.01$, *** $p<.001$

표 부록-4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37	3	1.12	1.58
가족구성	3.17	3	1.06	1.48
학교급*가족구성	4.58	9	0.51	0.71
오차	8015.93	11237	0.7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5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69	3	2.90	4.27**
가족구성	7.04	3	2.35	3.45*
학교급*가족구성	5.57	9	0.62	0.91
오차	7634.56	11237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5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1.91	3	10.64	15.99***
가족구성	1.32	3	0.44	0.66
학교급*가족구성	2.95	9	0.34	0.49
오차	7473.29	11239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5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정치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20	3	6.73	9.47***
학교지역	16.87	15	1.12	1.58
학교급*학교지역	51.34	45	1.14	1.60**
오차	7972.17	11211	0.7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5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사회적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67.67	3	22.56	33.35***
학교지역	15.01	15	1.00	1.48
학교급*학교지역	65.42	45	1.45	2.15***
오차	7581.92	11211	0.68	

* $p<.05$, ** $p<.01$, *** $p<.001$ **표 부록-5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사회적 관심: 환경 이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22.03	3	74.01	112.11***
학교지역	19.95	15	1.33	2.02*
학교급*학교지역	78.15	45	1.74	2.63***
오차	7402.38	11213	0.66	

* $p<.05$, ** $p<.01$, *** $p<.001$ **표 부록-5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50	3	5.83	9.62***
성별	71.17	1	71.17	117.34***
학교급*성별	6.55	3	2.18	3.60***
오차	6836.29	11271	0.61	

* $p<.05$, ** $p<.01$, *** $p<.001$ **표 부록-5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5.33	3	28.44	45.56***
성별	30.96	1	30.96	49.58***
학교급*성별	1.45	3	0.48	0.77
오차	7037.31	11271	0.62	

* $p<.05$, ** $p<.01$, *** $p<.001$

표 부록-5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4.43	3	18.14	28.81***
성별	70.15	1	70.15	111.38***
학교급*성별	0.39	3	0.13	0.21
오차	7095.29	11266	0.63	

* $p<.05$, ** $p<.01$, *** $p<.001$ **표 부록-5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7.32	3	12.44	16.72***
성별	8.44	1	8.44	11.34***
학교급*성별	5.29	3	1.77	2.37
오차	8384.28	11267	0.74	

* $p<.05$, ** $p<.01$, *** $p<.001$ **표 부록-5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85	3	3.62	5.43***
성별	31.22	1	31.22	46.86***
학교급*성별	5.41	3	1.80	2.71*
오차	7506.13	11265	0.67	

* $p<.05$, ** $p<.01$, *** $p<.001$ **표 부록-6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6.84	3	2.28	3.77*
학업성취수준	37.47	2	18.73	31.0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4.30	6	2.38	3.94***
오차	6597.60	10918	0.60	

* $p<.05$, ** $p<.01$, *** $p<.001$

표 부록-6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95	3	3.98	6.43***
학업성취수준	32.61	2	16.31	26.3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3.67	6	2.28	3.68**
오차	6760.36	10918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39	3	5.46	8.66***
학업성취수준	25.64	2	12.82	20.3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7.80	6	1.30	2.06
오차	6884.06	10913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4.93	3	11.64	15.82***
학업성취수준	37.24	2	18.62	25.3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3.65	6	2.28	3.09**
오차	8034.59	10915	0.7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91	3	1.30	1.99
학업성취수준	53.51	2	26.76	40.89***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0.23	6	3.37	5.15***
오차	7140.41	10912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6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6.26	3	5.42	9.16***
경제수준	21.93	2	10.97	18.53***
학교급*경제수준	9.54	6	1.59	2.69*
오차	6379.99	10778	0.59	

* $p<.05$, ** $p<.01$, *** $p<.001$ **표 부록-6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6.69	3	12.23	20.32***
경제수준	31.94	2	15.97	26.54***
학교급*경제수준	6.04	6	1.01	1.67
오차	6485.97	10778	0.60	

* $p<.05$, ** $p<.01$, *** $p<.001$ **표 부록-6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1.00	3	10.33	16.85***
경제수준	27.94	2	13.97	22.77***
학교급*경제수준	6.89	6	1.15	1.87
오차	6607.83	10773	0.61	

* $p<.05$, ** $p<.01$, *** $p<.001$ **표 부록-6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4.67	3	11.56	15.92***
경제수준	17.77	2	8.88	12.24***
학교급*경제수준	7.44	6	1.24	1.71
오차	7822.69	10775	0.74	

* $p<.05$, ** $p<.01$, *** $p<.001$

표 부록-6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24	3	2.08	3.20*
경제수준	33.12	2	16.56	25.56***
학교급*경제수준	8.44	6	1.41	2.17*
오차	6978.30	10772	0.65	

* $p<.05$, ** $p<.01$, *** $p<.001$ **표 부록-7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23	3	5.08	8.35***
부모학력수준	36.85	3	12.28	20.21***
학교급*부모학력수준	5.51	9	0.61	1.01
오차	6846.31	11263	0.61	

* $p<.05$, ** $p<.01$, *** $p<.001$ **표 부록-7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5.03	3	28.34	45.69***
부모학력수준	29.03	3	9.68	15.6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8.20	9	0.91	1.47
오차	6986.58	11263	0.62	

* $p<.05$, ** $p<.01$, *** $p<.001$ **표 부록-7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6.60	3	18.87	29.88***
부모학력수준	30.18	3	10.06	15.93***
학교급*부모학력수준	4.52	9	0.50	0.80
오차	7108.50	11258	0.63	

* $p<.05$, ** $p<.01$, *** $p<.001$

표 부록-7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7.51	3	12.50	16.91***
부모학력수준	27.62	3	9.21	12.45***
학교급*부모학력수준	7.90	9	0.88	1.19
오차	8326.25	11259	0.7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7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84	3	5.61	8.54***
부모학력수준	46.12	3	15.37	23.4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3.18	9	1.47	2.23*
오차	7397.90	11257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7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0	3	0.90	1.46
가족구성	1.96	3	0.65	1.06
학교급*가족구성	4.60	9	0.51	0.83
오차	6911.62	11241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7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31	3	4.10	6.54***
가족구성	4.35	3	1.45	2.31
학교급*가족구성	3.28	9	0.37	0.58
오차	7051.70	11241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7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6.05	3	2.02	3.16*
가족구성	7.38	3	2.46	3.86**
학교급*가족구성	4.15	9	0.46	0.72
오차	7163.65	11236	0.64	

* $p<.05$, ** $p<.01$, *** $p<.001$ **표 부록-7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5	3	0.68	0.92
가족구성	2.77	3	0.92	1.24
학교급*가족구성	5.63	9	0.63	0.84
오차	8364.79	11237	0.74	

* $p<.05$, ** $p<.01$, *** $p<.001$ **표 부록-7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72	3	1.57	2.35
가족구성	10.29	3	3.43	5.13**
학교급*가족구성	6.62	9	0.74	1.10
오차	7513.41	11235	0.670	

* $p<.05$, ** $p<.01$, *** $p<.001$ **표 부록-8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지식)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72	3	3.57	5.83***
학교지역	9.37	15	0.63	1.02
학교급*학교지역	32.70	45	0.73	1.19
오차	6877.67	11215	0.61	

* $p<.05$, ** $p<.01$, *** $p<.001$

표 부록-8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2.61	3	14.20	22.75***
학교지역	13.75	15	0.92	1.47
학교급*학교지역	54.41	45	1.21	1.94***
오차	7001.90	11215	0.62	

* $p<.05$, ** $p<.01$, *** $p<.001$ **표 부록-8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의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8.48	3	9.50	14.94***
학교지역	8.48	15	0.57	0.89
학교급*학교지역	49.86	45	1.11	1.74**
오차	7123.03	11210	0.64	

* $p<.05$, ** $p<.01$, *** $p<.001$ **표 부록-8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 참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5.57	3	5.19	7.01***
학교지역	31.66	15	2.11	2.85***
학교급*학교지역	65.37	45	1.45	1.96***
오차	8300.69	11211	.74	

* $p<.05$, ** $p<.01$, *** $p<.001$ **표 부록-8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정치적 자아효능감: 정치적 이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09	3	1.36	2.05
학교지역	16.27	15	1.09	1.63
학교급*학교지역	48.69	45	1.08	1.62**
오차	7473.44	11209	0.67	

* $p<.05$, ** $p<.01$, *** $p<.001$

2) 배경변인에 따른 공동체 시민성 응답 결과

표 부록-8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9.62	3	26.54	57.68***
성별	23.58	1	23.58	51.24***
학교급*성별	22.14	3	7.38	16.04***
오차	5186.27	11271	0.4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8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7.89	3	15.96	22.75***
성별	19.11	1	19.11	27.24***
학교급*성별	30.17	3	10.06	14.33***
오차	7908.15	11270	0.7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8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1.53	3	17.18	38.26***
학업성취수준	62.67	2	31.34	69.8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0.30	6	3.38	7.54***
오차	4901.48	10918	0.4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8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2.27	3	10.76	15.57***
학업성취수준	53.03	2	26.52	38.38***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8.97	6	1.49	2.16*
오차	7541.69	10917	0.6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8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5.75	3	25.25	54.92***
경제수준	24.11	2	12.06	26.23***
학교급*경제수준	14.20	6	2.37	5.15***
오차	4955.15	10778	0.46	

* $p<.05$, ** $p<.01$, *** $p<.001$ **표 부록-9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4.40	3	11.47	16.34***
경제수준	32.52	2	16.26	23.16***
학교급*경제수준	9.89	6	1.65	2.35*
오차	7565.48	10777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9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7.40	3	15.80	34.33***
부모학력수준	26.61	3	8.87	19.27***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6.32	9	0.70	1.53
오차	5183.79	11263	0.46	

* $p<.05$, ** $p<.01$, *** $p<.001$ **표 부록-9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1.72	3	13.91	19.90***
부모학력수준	44.27	3	14.76	21.12***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8.04	9	0.89	1.28
오차	7869.34	11262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9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00	3	1.67	3.58*
가족구성	7.70	3	2.57	5.50***
학교급*가족구성	9.27	9	1.03	2.21*
오차	5242.06	11241	0.47	

* $p<.05$, ** $p<.01$, *** $p<.001$ **표 부록-9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71	3	1.57	2.22
가족구성	7.28	3	2.43	3.43*
학교급*가족구성	6.49	9	0.72	1.02
오차	7951.18	11240	0.71	

* $p<.05$, ** $p<.01$, *** $p<.001$ **표 부록-9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투표참여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9.02	3	16.34	35.19***
학교지역	11.41	15	0.76	1.64
학교급*학교지역	55.07	45	1.22	2.64***
오차	5207.03	11215	0.46	

* $p<.05$, ** $p<.01$, *** $p<.001$ **표 부록-9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투표참여: 정보 수집 의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0.39	3	10.13	14.39***
학교지역	20.93	15	1.40	1.98*
학교급*	71.76	45	1.60	2.27***
오차	7892.00	11214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9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0.30	3	10.10	20.72***
성별	0.01	1	0.01	0.03
학교급*성별	8.47	3	2.82	5.79***
오차	5494.28	11270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9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2.65	3	7.55	15.32***
성별	0.01	1	0.01	0.02
학교급*성별	9.73	3	3.24	6.58***
오차	5554.18	11270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9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10	3	3.37	6.51***
성별	1.37	1	1.37	2.64
학교급*성별	10.74	3	3.58	6.92***
오차	5829.96	11269	0.5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0.41	3	26.80	54.09***
성별	11.37	1	11.37	22.94***
학교급*성별	5.89	3	1.96	3.96**
오차	5583.75	11268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9.78	3	9.93	21.08***
학업성취수준	57.64	2	28.82	61.2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6.09	6	4.35	9.23***
오차	5140.35	10917	0.4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35	3	3.12	6.48***
학업성취수준	37.76	2	18.88	39.25***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5.10	6	4.18	8.70***
오차	5251.98	10917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26	3	2.75	5.49***
학업성취수준	46.90	2	23.45	46.7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2.32	6	3.72	7.42***
오차	5474.10	10916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4.65	3	8.22	16.87***
학업성취수준	28.29	2	14.15	29.05***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6.58	6	2.76	5.67***
오차	5315.10	10915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3.78	3	11.26	23.39***
경제수준	11.10	2	5.55	11.53***
학교급*경제수준	14.71	6	2.45	5.09***
오차	5188.96	10777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84	3	3.95	8.09***
경제수준	8.74	2	4.37	8.97***
학교급*경제수준	12.25	6	2.04	4.19***
오차	5253.91	10777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79	3	2.60	5.06**
경제수준	13.23	2	6.62	12.89***
학교급*경제수준	12.32	6	2.05	4.00***
오차	5532.54	10776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9.74	3	13.25	26.81***
경제수준	6.96	2	3.48	7.04***
학교급*경제수준	11.64	6	1.94	3.93***
오차	5324.07	10776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0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70	3	9.23	19.15***
부모학력수준	33.78	3	11.260	23.35***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3.40	9	0.38	0.78
오차	5430.40	11262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8.92	3	9.64	19.72***
부모학력수준	29.32	3	9.77	19.99***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9.36	9	1.04	2.13*
오차	5505.86	11262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29	3	5.43	10.58***
부모학력수준	38.40	3	12.80	24.94***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6.62	9	0.74	1.43
오차	5780.20	11261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5.60	3	21.87	44.14***
부모학력수준	13.57	3	4.52	9.13***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3.76	9	0.42	0.84
오차	5578.05	11260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95	3	0.98	2.02
가족구성	7.29	3	2.43	4.98**
학교급*가족구성	2.67	9	0.30	0.61
오차	5480.32	11240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71	3	2.90	5.89***
가족구성	7.75	3	2.58	5.24**
학교급*가족구성	6.17	9	0.69	1.39
오차	5539.86	11240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10	3	1.70	3.28*
가족구성	8.31	3	2.77	5.35**
학교급*가족구성	7.09	9	0.79	1.52
오차	5820.21	11239	0.5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48	3	1.49	3.00*
가족구성	3.39	3	1.13	2.27
학교급*가족구성	4.84	9	0.54	1.08
오차	5591.27	11238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평화적 항의)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1.50	3	7.17	14.87***
학교지역	40.13	15	2.68	5.55***
학교급*학교지역	70.02	45	1.56	3.23***
오차	5405.37	11214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공동체 활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8.27	3	6.09	12.51***
학교지역	39.73	15	2.65	5.44***
학교급*학교지역	74.37	45	1.65	3.39***
오차	5462.33	11214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1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인권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64	3	4.88	9.55***
학교지역	46.23	15	3.08	6.03***
학교급*학교지역	86.57	45	1.92	3.77***
오차	5729.62	11213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2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시민활동의 중요성: 환경 운동)**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8.82	3	16.27	33.06***
학교지역	26.47	15	1.77	3.59***
학교급*학교지역	66.66	45	1.48	3.01***
오차	5519.78	11212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2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뱃지 달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6.99	3	15.66	22.85***
성별	72.93	1	72.93	106.40***
학교급*성별	55.87	3	18.62	27.17***
오차	7724.59	11269	0.69	

* $p<.05$, ** $p<.01$, *** $p<.001$

표 부록-12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5.09	3	68.36	90.50***
성별	9.11	1	9.11	12.06***
학교급*성별	2.91	3	0.97	1.28
오차	8511.59	11267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2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6.11	3	12.04	16.49***
성별	22.57	1	22.57	30.91***
학교급*성별	28.28	3	9.43	12.91***
오차	8218.67	11258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12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3.05	3	7.68	10.16***
성별	1.01	1	1.01	1.34
학교급*성별	17.89	3	5.96	7.89***
오차	8515.59	11261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2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46.27	3	115.43	140.94***
성별	0.07	1	0.07	0.09
학교급*성별	10.46	3	3.49	4.26**
오차	9223.90	11263	0.82	

* $p<.05$, ** $p<.01$, *** $p<.001$ **표 부록-12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뱃지 달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8.87	3	6.29	9.01***
학업성취수준	19.33	2	9.67	13.8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4.66	6	0.78	1.11
오차	7614.01	10916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12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7.53	3	12.51	16.56***
학업성취수준	7.13	2	3.57	4.72**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56	6	0.26	0.34
오차	8246.65	10915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2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54	3	9.18	12.62***
학업성취수준	24.78	2	12.39	17.04***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1.24	6	1.87	2.58*
오차	7929.04	10905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12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7.07	3	2.36	3.12*
학업성취수준	7.79	2	3.89	5.1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6.94	6	2.82	3.74**
오차	8234.81	10909	0.7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7.93	3	39.31	48.27***
학업성취수준	15.19	2	7.60	9.3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2.79	6	2.13	2.62**
오차	8885.93	10911	0.8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뱃지 달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4.60	3	14.87	21.44***
경제수준	7.11	2	3.56	5.13**
학교급*경제수준	1.55	6	0.26	0.37
오차	7473.21	10777	0.6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2.04	3	37.35	49.90***
경제수준	7.57	2	3.79	5.06**
학교급*경제수준	9.85	6	1.64	2.19*
오차	8065.91	10776	0.7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5.21	3	11.74	16.13***
경제수준	13.10	2	6.55	9.00***
학교급*경제수준	9.76	6	1.63	2.24*
오차	7833.01	10766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13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36	3	2.79	3.73*
경제수준	7.30	2	3.65	4.89**
학교급*경제수준	6.41	6	1.07	1.43
오차	8042.11	10770	0.75	

* $p<.05$, ** $p<.01$, *** $p<.001$ **표 부록-13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35.09	3	78.36	97.55***
경제수준	1.05	2	0.53	0.65
학교급*경제수준	5.07	6	0.85	1.05
오차	8652.10	10771	0.80	

* $p<.05$, ** $p<.01$, *** $p<.001$ **표 부록-13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뱃지 달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0.36	3	10.12	14.50***
부모학력수준	18.64	3	6.21	8.90***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9.00	9	1.00	1.43
오차	7859.18	11261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13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85.78	3	61.93	82.05***
부모학력수준	8.47	3	2.82	3.74**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2.93	9	1.44	1.90*
오차	8497.03	11259	0.7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8.68	3	9.56	13.06***
부모학력수준	26.91	3	8.97	12.26***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3.17	9	0.35	0.48
오차	8233.96	11250	0.7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3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2.99	3	7.66	10.15***
부모학력수준	15.07	3	5.02	6.65***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2.22	9	1.36	1.80
오차	8496.16	11253	0.7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64.04	3	88.01	107.62***
부모학력수준	2.15	3	0.72	0.87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8.33	9	2.04	2.49**
오차	9205.00	11255	0.8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뺏지 달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9	3	0.66	0.94
가족구성	3.05	3	1.02	1.45
학교급*가족구성	6.53	9	0.73	1.03
오차	7888.36	11239	0.70	

* $p<.05$, ** $p<.01$, *** $p<.001$ **표 부록-14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5.14	3	8.38	11.09***
가족구성	2.34	3	0.78	1.03
학교급*가족구성	8.97	9	1.00	1.32
오차	8489.80	11237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4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62	3	1.21	1.64
가족구성	2.62	3	0.87	1.19
학교급*가족구성	8.76	9	0.97	1.32
오차	8257.27	11228	0.74	

* $p<.05$, ** $p<.01$, *** $p<.001$ **표 부록-14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89	3	2.96	3.92**
가족구성	1.44	3	0.48	0.63
학교급*가족구성	12.11	9	1.35	1.78
오차	8500.80	11232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4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5.83	3	5.28	6.46***
가족구성	13.82	3	4.61	5.64***
학교급*가족구성	13.48	9	1.50	1.83
오차	9183.71	11233	0.8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뱃지 달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1.19	3	7.06	10.21***
학교지역	86.98	15	5.80	8.378***
학교급*학교지역	81.88	45	1.82	2.63***
오차	7761.52	11213	0.6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비폭력 집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9.316	3	43.11	57.57***
학교지역	48.14	15	3.21	4.29***
학교급*학교지역	97.90	45	2.18	2.91***
오차	8393.84	11211	0.7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진정서 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26	3	5.75	7.88***
학교지역	40.22	15	2.68	3.67***
학교급*학교지역	70.32	45	1.56	2.14***
오차	8181.74	11202	0.7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4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상품 불매)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5.50	3	5.17	6.87***
학교지역	32.18	15	2.15	2.85***
학교급*학교지역	74.54	45	1.66	2.20***
오차	8427.30	11205	0.7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저항 의식: 항의 포스터)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40.45	3	80.15	99.04***
학교지역	58.52	15	3.90	4.82***
학교급*학교지역	79.50	45	1.77	2.18***
오차	9068.98	11207	0.8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24.51	3	574.84	888.13***
성별	2.13	1	2.13	3.29
학교급*성별	3.47	3	1.16	1.79
오차	7296.40	11273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09.27	3	569.76	917.27***
성별	0.01	1	0.01	0.01
학교급*성별	1.51	3	0.50	0.81
오차	6995.96	11263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81.49	3	693.83	1073.00***
성별	1.59	1	1.59	2.47
학교급*성별	2.29	3	0.76	1.18
오차	7284.89	11266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96.83	3	198.94	317.01***
성별	1.62	1	1.62	2.58
학교급*성별	2.82	3	0.94	1.50
오차	7070.73	11267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5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16.41	3	138.80	216.14***
학업성취수준	1.79	2	0.89	1.39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32.46	6	5.41	8.42***
오차	7012.71	10920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6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75.27	3	158.42	256.21***
학업성취수준	1.65	2	0.83	1.3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7.17	6	4.53	7.32***
오차	6746.06	10910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73.19	3	191.07	296.76***
학업성취수준	0.57	2	0.28	0.44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4.68	6	4.11	6.39***
오차	7026.22	10913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11.12	3	70.37	112.44***
학업성취수준	0.14	2	0.07	0.1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6.05	6	4.34	6.94***
오차	6830.80	10914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5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12.90	3	370.97	587.01***
경제수준	20.11	2	10.05	15.91***
학교급*경제수준	4.31	6	0.72	1.14
오차	6812.54	10780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70.70	3	390.23	645.99***
경제수준	11.89	2	5.94	9.84***
학교급*경제수준	8.92	6	1.49	2.46*
오차	6505.99	10770	0.6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1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16.93	3	472.31	747.33 ^{***}
경제수준	13.26	2	6.63	10.49 ^{***}
학교급*경제수준	10.55	6	1.76	2.78 [*]
오차	6808.48	10773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2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09.88	3	136.63	222.94 ^{***}
경제수준	5.87	2	2.94	4.79 ^{**}
학교급*경제수준	8.65	6	1.44	2.35 [*]
오차	6603.18	10775	0.6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72.18	3	424.06	657.04 ^{***}
부모학력수준	6.32	3	2.11	3.27 [*]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6.28	9	1.81	2.80 ^{**}
오차	7270.52	11265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67.09	3	422.37	681.83 ^{***}
부모학력수준	4.00	3	1.33	2.15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2.30	9	1.37	2.21 [*]
오차	6972.04	11255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36.14	3	512.05	793.32***
부모학력수준	2.63	3	0.88	1.36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3.93	9	1.55	2.40*
오차	7266.46	11258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62.87	3	154.29	246.41***
부모학력수준	0.71	3	0.24	0.38
학교급*부모학력수준	20.08	9	2.23	3.56***
오차	7049.85	11259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6.11	3	45.37	70.18***
가족구성	5.38	3	1.79	2.77*
학교급*가족구성	6.65	9	0.74	1.14
오차	7268.40	11243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14.17	3	38.06	61.38***
가족구성	7.31	3	2.44	3.93**
학교급*가족구성	4.86	9	0.54	0.87
오차	6964.81	11233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6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2.60	3	57.53	89.07***
가족구성	5.20	3	1.73	2.68*
학교급*가족구성	5.82	9	0.65	1.00
오차	7257.59	11236	0.65	

* $p<.05$, ** $p<.01$, *** $p<.001$ **표 부록-17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7.46	3	15.82	25.19***
가족구성	3.29	3	1.10	1.75
학교급*가족구성	1.56	9	0.17	0.28
오차	7056.95	11237	0.63	

* $p<.05$, ** $p<.01$, *** $p<.001$ **표 부록-17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66.24	3	355.41	557.70***
학교지역	79.03	15	5.27	8.27***
학교급*학교지역	86.29	45	1.92	3.01***
오차	7148.40	11217	0.64	

* $p<.05$, ** $p<.01$, *** $p<.001$ **표 부록-17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정당)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17.57	3	339.19	553.96***
학교지역	52.15	15	3.48	5.68***
학교급*학교지역	94.44	45	2.10	3.43***
오차	6862.03	11207	0.61	

* $p<.05$, ** $p<.01$, *** $p<.001$

표 부록-17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국회)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67.19	3	422.40	661.54***
학교지역	47.32	15	3.16	4.94***
학교급*학교지역	88.06	45	1.96	3.07***
오차	7157.65	11210	0.64	

* $p<.05$, ** $p<.01$, *** $p<.001$

표 부록-17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신뢰: 미디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84.30	3	128.10	206.23***
학교지역	53.25	15	3.55	5.72***
학교급*학교지역	68.79	45	1.53	2.46**
오차	6963.84	11211	0.62	

* $p<.05$, ** $p<.01$, *** $p<.001$

표 부록-17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3.40	3	7.80	10.64***
성별	4.74	1	4.74	6.46*
학교급*성별	7.69	3	2.56	3.49*
오차	8261.98	11270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17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86.56	3	95.52	112.54***
성별	61.94	1	61.94	72.97***
학교급*성별	5.71	3	1.90	2.24
오차	9556.18	11259	0.85	

* $p<.05$, ** $p<.01$, *** $p<.001$

표 부록-17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1.03	3	17.01	22.24***
성별	2.58	1	2.58	3.37
학교급*성별	5.45	3	1.82	2.38
오차	8596.25	11241	0.7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7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97.55	3	99.18	116.72***
성별	25.95	1	25.95	30.54***
학교급*성별	3.01	3	1.01	1.18
오차	9574.51	11267	0.8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7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48.88	3	82.96	100.36***
성별	6.02	1	6.02	7.28**
학교급*성별	2.01	3	0.67	.81
오차	9313.41	11267	0.8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79	3	3.93	5.35**
학업성취수준	1.49	2	0.74	1.0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5.93	6	0.99	1.34
오차	8022.20	10918	0.7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4.91	3	31.64	36.98 ^{***}
학업성취수준	6.53	2	3.26	3.81 [*]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5.67	6	2.61	3.05 ^{**}
오차	9331.38	10907	0.8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67	3	2.23	2.91 [*]
학업성취수준	12.06	2	6.03	7.88 ^{***}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3.16	6	0.53	0.69
오차	8336.65	10890	0.7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5.42	3	31.81	37.26 ^{***}
학업성취수준	1.70	2	0.85	0.99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1.37	6	1.90	2.22 [*]
오차	9316.95	10915	0.8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5.43	3	18.48	22.32 ^{***}
학업성취수준	2.39	2	1.19	1.44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2.63	6	2.11	2.54 [*]
오차	9035.98	10916	0.8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9.97	3	3.32	4.58**
경제수준	0.93	2	0.47	0.64
학교급*경제수준	5.35	6	0.89	1.23
오차	7814.51	10777	0.7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6.25	3	65.42	77.45***
경제수준	9.20	2	4.60	5.45**
학교급*경제수준	3.04	6	0.51	0.60
오차	9093.75	10767	0.8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7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4.44	3	8.15	10.80***
경제수준	20.39	2	10.19	13.51***
학교급*경제수준	3.19	6	0.53	0.71
오차	8110.78	10750	0.7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8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9.44	3	66.48	79.01***
경제수준	13.01	2	6.50	7.73***
학교급*경제수준	5.24	6	0.87	1.04
오차	9066.14	10775	0.8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8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7.97	3	45.99	56.36***
경제수준	11.94	2	5.97	7.32***
학교급*경제수준	4.02	6	0.67	0.82
오차	8793.41	10775	0.82	

* $p<.05$, ** $p<.01$, *** $p<.001$ **표 부록-19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06	3	4.69	6.40***
부모학력수준	1.97	3	0.66	0.9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0.71	9	1.19	1.62
오차	8254.77	11262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19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58.49	3	86.16	100.50***
부모학력수준	1.41	3	0.47	0.55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7.73	9	1.97	2.30*
오차	9646.32	11251	0.86	

* $p<.05$, ** $p<.01$, *** $p<.001$ **표 부록-19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68.05	3	22.68	29.80***
부모학력수준	14.42	3	4.81	6.31***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0.51	9	1.17	1.53
오차	8552.33	11233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193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2.80	3	90.93	106.75***
부모학력수준	5.23	3	1.74	2.05
학교급*부모학력수준	20.84	9	2.32	2.72**
오차	9590.85	11259	0.8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94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23.93	3	74.64	90.42***
부모학력수준	3.19	3	1.06	1.29
학교급*부모학력수준	20.17	9	2.24	2.72**
오차	9293.92	11259	0.8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95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44	3	0.81	1.11
가족구성	4.25	3	1.42	1.93
학교급*가족구성	3.31	9	0.37	0.50
오차	8248.60	11240	0.7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96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77	3	5.26	6.13***
가족구성	5.04	3	1.68	1.96
학교급*가족구성	8.59	9	0.95	1.11
오차	9629.68	11229	0.8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19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09	3	1.70	2.22
가족구성	2.77	3	0.92	1.21
학교급*가족구성	7.97	9	0.89	1.16
오차	8571.41	11211	0.77	

* $p<.05$, ** $p<.01$, *** $p<.001$ **표 부록-19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43	3	6.48	7.59***
가족구성	6.84	3	2.28	2.67*
학교급*가족구성	11.09	9	1.23	1.44
오차	9583.43	11237	0.85	

* $p<.05$, ** $p<.01$, *** $p<.001$ **표 부록-19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29	3	3.43	4.15**
가족구성	5.18	3	1.73	2.09
학교급*가족구성	9.34	9	1.04	1.26
오차	9292.89	11237	0.83	

* $p<.05$, ** $p<.01$, *** $p<.001$ **표 부록-20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자율적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78	3	4.93	6.74***
학교지역	27.08	15	1.81	2.47**
학교급*학교지역	59.58	45	1.32	1.81***
오차	8189.55	11214	0.73	

* $p<.05$, ** $p<.01$, *** $p<.001$

표 부록-20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학급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50.75	3	50.25	59.10***
학교지역	39.12	15	2.61	3.07***
학교급*학교지역	88.90	45	1.98	2.32***
오차	9526.02	11203	0.85	

* $p<.05$, ** $p<.01$, *** $p<.001$ **표 부록-20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의견 표명)**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6.16	3	8.72	11.43***
학교지역	21.68	15	1.45	1.90**
학교급*학교지역	52.22	45	1.16	1.52**
오차	8533.21	11185	0.76	

* $p<.05$, ** $p<.01$, *** $p<.001$ **표 부록-20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타인과의 토론)**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56.72	3	52.24	61.62***
학교지역	33.41	15	2.23	2.63***
학교급*학교지역	73.68	45	1.64	1.93***
오차	9503.95	11211	0.85	

* $p<.05$, ** $p<.01$, *** $p<.001$ **표 부록-20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교실개방성: 다양한 관점 제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8.02	3	42.67	51.95***
학교지역	11.56	15	0.77	0.94
학교급*학교지역	93.08	45	2.07	2.52***
오차	9208.88	11211	0.82	

* $p<.05$, ** $p<.01$, *** $p<.001$

3) 배경변인에 따른 세계 시민성 응답 결과

표 부록-20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77.69	3	59.23	94.15***
성별	316.85	1	316.85	503.67***
학교급*성별	8.10	3	2.70	4.29**
오차	7092.27	11274	0.6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0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5.00	3	55.00	81.75***
성별	91.55	1	91.55	136.09***
학교급*성별	5.27	3	1.76	2.61*
오차	7583.37	11272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07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8.92	3	29.64	44.66***
학업성취수준	11.98	2	5.99	9.03***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7.62	6	2.94	4.42***
오차	7248.36	10921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08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2.65	3	27.55	40.63***
학업성취수준	13.03	2	6.51	9.6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7.83	6	2.97	4.38***
오차	7404.22	10919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09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43.97	3	47.99	73.46***
경제수준	0.93	2	0.46	0.71
학교급*경제수준	1.88	6	0.31	0.48
오차	7043.16	10781	0.65	

* $p<.05$, ** $p<.01$, *** $p<.001$

표 부록-210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9.55	3	39.85	59.55***
경제수준	1.51	2	0.75	1.13
학교급*경제수준	3.35	6	0.56	0.84
오차	7212.83	10779	0.67	

* $p<.05$, ** $p<.01$, *** $p<.001$

표 부록-211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9.10	3	36.37	54.34***
부모학력수준	6.63	3	2.21	3.30*
학교급*부모학력수준	9.41	9	1.05	1.56
오차	7539.32	11266	0.67	

* $p<.05$, ** $p<.01$, *** $p<.001$

표 부록-212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6.96	3	35.65	52.16***
부모학력수준	2.40	3	0.80	1.17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3.23	9	1.47	2.15*
오차	7699.29	11264	0.68	

* $p<.05$, ** $p<.01$, *** $p<.001$

표 부록-21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3.58	3	7.86	11.76***
가족구성	16.88	3	5.63	8.42***
학교급*가족구성	16.48	9	1.83	2.74**
오차	7514.74	11244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1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63	3	4.21	6.16***
가족구성	13.14	3	4.38	6.41***
학교급*가족구성	11.41	9	1.27	1.86
오차	7682.33	11242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1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가족 생계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2.20	3	34.07	51.17***
학교지역	20.31	15	1.35	2.03*
학교급*학교지역	72.98	45	1.62	2.44***
오차	7468.07	11218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1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성 인지: 보육 책무)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97.25	3	32.42	47.65***
학교지역	24.90	15	1.66	2.44**
학교급*학교지역	68.76	45	1.53	2.25***
오차	7630.39	11216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1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안조선인 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3.22	3	57.74	103.54***
성별	3.99	1	3.99	7.16**
학교급*성별	6.02	3	2.01	3.60*
오차	6280.34	11262	0.56	

* $p<.05$, ** $p<.01$, *** $p<.001$ **표 부록-21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38.60	3	46.20	93.77***
성별	6.88	1	6.88	13.97***
학교급*성별	3.11	3	1.04	2.10
오차	5544.74	11253	0.49	

* $p<.05$, ** $p<.01$, *** $p<.001$ **표 부록-21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09.64	3	69.88	119.60***
성별	2.49	1	2.49	4.26*
학교급*성별	5.16	3	1.72	2.95*
오차	6573.81	11251	0.58	

* $p<.05$, ** $p<.01$, *** $p<.001$ **표 부록-22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안조선인 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8.23	3	16.08	29.08***
학업성취수준	20.90	2	10.45	18.9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0.08	6	3.35	6.05***
오차	6031.13	10909	0.55	

* $p<.05$, ** $p<.01$, *** $p<.001$

표 부록-22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2.99	3	17.67	36.10***
학업성취수준	4.75	2	2.38	4.8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2.05	6	3.67	7.51***
오차	5334.45	10901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2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3.31	3	27.77	47.58***
학업성취수준	1.08	2	0.54	0.92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2.20	6	2.03	3.48**
오차	6361.97	10900	0.5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2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안조선인 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6.49	3	32.16	58.80***
경제수준	9.08	2	4.54	8.30***
학교급*경제수준	12.81	6	2.14	3.91***
오차	5890.70	10770	0.5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2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6.30	3	28.77	59.38***
경제수준	9.94	2	4.97	10.26***
학교급*경제수준	5.13	6	0.86	1.77
오차	5213.31	10762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2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0.17	3	43.39	75.59***
경제수준	2.49	2	1.25	2.17
학교급*경제수준	5.85	6	0.98	1.70
오차	6177.96	10762	0.57	

* $p<.05$, ** $p<.01$, *** $p<.001$

표 부록-22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인조선인 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7.34	3	55.78	100.34***
부모학력수준	15.63	3	5.21	9.37***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0.10	9	1.12	2.02*
오차	6255.95	11254	0.56	

* $p<.05$, ** $p<.01$, *** $p<.001$

표 부록-22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20.57	3	40.19	81.60***
부모학력수준	5.08	3	1.69	3.44*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7.74	9	0.86	1.75
오차	5538.60	11245	0.49	

* $p<.05$, ** $p<.01$, *** $p<.001$

표 부록-22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9.75	3	56.58	96.86***
부모학력수준	0.70	3	0.23	0.40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1.74	9	1.30	2.23*
오차	6567.82	11243	0.585	

* $p<.05$, ** $p<.01$, *** $p<.001$

표 부록-22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안조선인 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80	3	1.93	3.47*
가족구성	3.47	3	1.16	2.07
학교급*가족구성	6.38	9	0.71	1.27
오차	6260.99	11232	0.5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3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35	3	2.45	4.97**
가족구성	1.57	3	0.52	1.06
학교급*가족구성	2.71	9	0.30	0.61
오차	5533.74	11223	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3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80	3	2.94	5.03**
가족구성	1.01	3	0.34	0.58
학교급*가족구성	7.02	9	0.78	1.34
오차	6549.05	11221	0.5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3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같은 민족(고려안조선인 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3.52	3	34.51	62.27***
학교지역	31.67	15	2.11	3.81***
학교급*학교지역	49.14	45	1.09	1.97***
오차	6209.52	11206	0.5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33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소수민족)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9.56	3	26.52	54.07***
학교지역	22.31	15	1.49	3.03***
학교급*학교지역	42.53	45	0.95	1.93***
오차	5492.18	11197	0.49	

* $p<.05$, ** $p<.01$, *** $p<.001$ **표 부록-234**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이민자에 대한 태도: 빈곤 국가)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5.45	3	38.48	66.38***
학교지역	29.08	15	1.94	3.35***
학교급*학교지역	65.23	45	1.45	2.50***
오차	6489.83	11195	0.58	

* $p<.05$, ** $p<.01$, *** $p<.001$ **표 부록-23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9.66	3	66.55	114.69***
성별	8.37	1	8.37	14.43***
학교급*성별	13.10	3	4.37	7.53***
오차	6538.26	11267	0.58	

* $p<.05$, ** $p<.01$, *** $p<.001$ **표 부록-23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3.98	3	41.33	77.35***
성별	0.52	1	0.52	0.97
학교급*성별	5.85	3	1.95	3.65*
오차	6017.07	11262	0.53	

* $p<.05$, ** $p<.01$, *** $p<.001$

표 부록-23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39.77	3	179.92	263.93***
성별	0.03	1	0.03	0.04
학교급*성별	2.75	3	0.92	1.35
오차	7678.81	11264	0.68	

* $p<.05$, ** $p<.01$, *** $p<.001$

표 부록-238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2.71	3	34.24	67.60***
성별	0.67	1	0.67	1.32
학교급*성별	11.38	3	3.79	7.49***
오차	5700.22	11255	0.51	

* $p<.05$, ** $p<.01$, *** $p<.001$

표 부록-239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77.86	3	25.96	44.67***
학업성취수준	19.29	2	9.65	16.60***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2.49	6	2.08	3.58**
오차	6340.88	10914	0.58	

* $p<.05$, ** $p<.01$, *** $p<.001$

표 부록-240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1.47	3	13.82	26.37***
학업성취수준	31.09	2	15.55	29.66***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4.53	6	0.76	1.44
오차	5718.68	10909	0.52	

* $p<.05$, ** $p<.01$, *** $p<.001$

표 부록-24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7.71	3	52.57	77.81***
학업성취수준	6.47	2	3.23	4.79**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55.07	6	9.18	13.59***
오차	7371.42	10911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3.51	3	4.50	8.97***
학업성취수준	24.65	2	12.33	24.55***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6.05	6	1.01	2.01
오차	5473.77	10902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2.78	3	47.59	83.16***
경제수준	13.28	2	6.64	11.61***
학교급*경제수준	12.10	6	2.02	3.53**
오차	6165.83	10774	0.5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2.12	3	27.37	52.45***
경제수준	20.03	2	10.01	19.19***
학교급*경제수준	13.44	6	2.24	4.29***
오차	5620.85	10770	0.52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58.86	3	119.62	177.37***
경제수준	10.56	2	5.28	7.83**
학교급*경제수준	17.10	6	2.85	4.23**
오차	7264.84	10772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6.48	3	12.16	24.42***
경제수준	28.88	2	14.44	29.00***
학교급*경제수준	10.08	6	1.68	3.38**
오차	5360.62	10765	0.50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9.15	3	59.72	102.51***
부모학력수준	4.34	3	1.45	2.48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19	9	0.69	1.18
오차	6558.82	11259	0.5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01.92	3	33.97	63.92***
부모학력수준	8.02	3	2.67	5.03**
학교급*부모학력수준	15.76	9	1.75	3.30***
오차	5981.50	11254	0.5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49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54.49	3	151.50	222.85***
부모학력수준	4.21	3	1.40	2.06
학교급*부모학력수준	22.00	9	2.44	3.60***
오차	7651.95	11256	0.6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0**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6.14	3	32.05	63.41***
부모학력수준	15.55	3	5.18	10.26***
학교급*부모학력수준	6.32	9	0.70	1.39
오차	5684.19	11247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1**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9.70	3	6.57	11.26***
가족구성	6.21	3	2.07	3.55*
학교급*가족구성	4.14	9	0.46	0.79
오차	6549.86	11237	0.58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2**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0.72	3	0.24	0.45
가족구성	5.66	3	1.89	3.53*
학교급*가족구성	10.85	9	1.21	2.26*
오차	5995.30	11232	0.5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3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9.20	3	9.73	14.27***
가족구성	2.44	3	0.82	1.19
학교급*	4.00	9	0.44	0.65
오차	7660.51	11234	0.68	

* $p<.05$, ** $p<.01$, *** $p<.001$

표 부록-254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95	3	0.98	1.94
가족구성	3.91	3	1.30	2.57
학교급*가족구성	3.20	9	0.36	0.70
오차	5697.35	11225	0.51	

* $p<.05$, ** $p<.01$, *** $p<.001$

표 부록-255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산품 애용)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26.09	3	42.03	72.64***
학교지역	15.25	15	1.02	1.76*
학교급*학교지역	61.51	45	1.37	2.36***
오차	6487.30	11211	0.58	

* $p<.05$, ** $p<.01$, *** $p<.001$

표 부록-256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국가 정보 보안)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1.19	3	27.06	51.76***
학교지역	63.91	15	4.26	8.15***
학교급*학교지역	123.08	45	2.74	5.23***
오차	5859.70	11206	0.52	

* $p<.05$, ** $p<.01$, *** $p<.001$

표 부록-257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언론 통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15.74	3	105.25	157.12***
학교지역	81.93	15	5.46	8.15***
학교급*학교지역	121.21	45	2.69	4.02***
오차	7507.94	11208	0.6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8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가 및 역사 의식: 자부심)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53.89	3	17.96	35.53***
학교지역	21.96	15	1.46	2.90***
학교급*학교지역	39.29	45	0.87	1.73**
오차	5661.18	11199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5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2.15	3	14.05	21.82***
성별	49.42	1	49.42	76.72***
학교급*성별	5.91	3	1.97	3.06*
오차	7242.21	11244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0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8.87	3	2.96	4.49**
성별	29.87	1	29.87	45.30***
학교급*성별	2.92	3	0.97	1.48
오차	7412.02	11240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1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5.90	3	5.30	8.26***
학업성취수준	31.34	2	15.67	24.4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3.84	6	2.31	3.59**
오차	6992.32	10892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2**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94	3	1.98	3.03*
학업성취수준	39.60	2	19.80	30.37***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2.49	6	3.75	5.75***
오차	7100.00	10888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3**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7.68	3	9.23	14.76***
경제수준	31.75	2	15.88	25.40***
학교급*경제수준	7.72	6	1.29	2.06
오차	6720.54	10753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4**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9.35	3	3.12	4.89**
경제수준	45.05	2	22.53	35.33***
학교급*경제수준	8.65	6	1.44	2.26*
오차	6852.71	10749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5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3.11	3	17.70	27.62 ^{***}
부모학력수준	29.48	3	9.83	15.33 ^{***}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3.09	9	1.45	2.27 [*]
오차	7201.01	11236	0.6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6**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4.86	3	4.96	7.60 ^{***}
부모학력수준	34.26	3	11.42	17.52 ^{***}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16.43	9	1.83	2.80 ^{**}
오차	7322.41	11232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7**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5.15	3	1.72	2.65 [*]
가족구성	5.39	3	1.80	2.77 [*]
학교급*가족구성	2.07	9	.23	0.36
오차	7271.89	11214	0.65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8**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4.52	3	1.51	2.28
가족구성	6.03	3	2.01	3.04 [*]
학교급*가족구성	3.89	9	0.43	0.65
오차	7418.18	11210	0.6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69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32.43	3	10.81	16.74***
학교지역	18.24	15	1.22	1.88*
학교급*학교지역	51.09	45	1.14	1.76**
오차	7224.48	11188	0.65	

* $p<.05$, ** $p<.01$, *** $p<.001$ **표 부록-270**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국제관계 관심: 국가간 갈등 문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4.83	3	1.61	2.44
학교지역	18.85	15	1.26	1.90*
학교급*학교지역	41.91	45	0.93	1.41*
오차	7387.88	11184	0.66	

* $p<.05$, ** $p<.01$, *** $p<.001$ **표 부록-27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27.78	3	9.26	16.18***
성별	1.21	1	1.21	2.11
학교급*성별	6.91	3	2.30	4.03**
오차	6428.42	11234	0.57	

* $p<.05$, ** $p<.01$, *** $p<.001$ **표 부록-27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9.77	3	6.59	12.11***
성별	2.14	1	2.14	3.93*
학교급*성별	4.70	3	1.57	2.88*
오차	6110.94	11229	0.54	

* $p<.05$, ** $p<.01$, *** $p<.001$

표 부록-273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75	3	2.92	5.22**
학업성취수준	50.41	2	25.20	45.07***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17.65	6	2.94	5.26***
오차	6085.16	10882	0.5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4** 학업성취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77	3	5.59	10.57***
학업성취수준	57.96	2	28.98	54.81***
학교급*학업성취 수준	24.16	6	4.03	7.62***
오차	5751.15	10877	0.5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5**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8.70	3	2.90	5.18**
경제수준	43.86	2	21.93	39.24***
학교급*경제수준	5.38	6	0.90	1.60
오차	6003.66	10742	0.5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6** 경제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16.28	3	5.43	10.20***
경제수준	46.00	2	23.00	43.22***
학교급*경제수준	1.92	6	0.32	0.60
오차	5713.41	10736	0.5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7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4.93	3	11.64	20.83***
부모학력수준	62.26	3	20.75	37.12***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8.39	9	0.93	1.67
오차	6276.05	11226	0.56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8** 부모학력수준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6.74	3	8.91	16.73***
부모학력수준	71.70	3	23.90	44.86***
학교급*부모학력 수준	4.65	9	0.52	0.97
오차	5977.44	11221	0.53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79**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2.05	3	0.68	1.20
가족구성	11.88	3	3.96	6.93***
학교급*가족구성	4.62	9	0.51	0.90
오차	6397.56	11204	0.5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80** 가족구성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교급	3.99	3	1.33	2.44
가족구성	12.25	3	4.08	7.51***
학교급*가족구성	6.53	9	0.73	1.33
오차	6088.90	11199	0.54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81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개인적 소통)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7.67	3	5.89	10.41 ^{***}
학교지역	47.01	15	3.13	5.54 ^{***}
학교급*학교지역	58.36	45	1.30	2.29 ^{***}
오차	6327.75	11178	0.57	

* $p < .05$, ** $p < .01$, *** $p < .001$

표 부록-282 학교지역과 학교급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글로벌 의사소통: 매너·문화)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교급	11.41	3	3.80	7.02 ^{***}
학교지역	24.03	15	1.60	2.96 ^{***}
학교급*학교지역	43.18	45	0.96	1.77 ^{**}
오차	6055.47	11173	0.54	

* $p < .05$, ** $p < .01$, *** $p < .001$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족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유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문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IV
- NYP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 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연구보고 15-R18-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명기획 전화 044) 868-754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91-5 94330

979-11-5654-066-3 (세트)